813

813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10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813 » (1910)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813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케셀바흐 씨는 거실 문턱에서 발을 딱 멈췄다. 그러더니 비서의 팔을 잡고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채프먼, 여기 또 누가 들어왔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비서가 반박했다. "방금 직접 안쪽 문을 여셨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열쇠는 선생님 주머니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채프먼, 여기 또 누가 들어왔다니까." 케셀바흐 씨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는 벽난로 위에 놓인 여행 가방을 가리켰다.

"봐, 증거가 분명하잖아. 이 가방은 잠겨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잠겨 있지 않아."

채프먼이 이의를 제기했다.

"정말 잠그셨던 게 확실합니까, 선생님? 게다가 그 가방에는 별 가치도 없는 잡동사니나 세면도구들만 들어 있는데요."

"그것밖에 없는 건 나가기 전에 조심하느라 지갑을 미리 꺼내 두었기 때문이야… 안 그랬으면… 아니야, 분명히 말하는데 채프먼, 우리가 점심을 먹는 동안 누군가 여기 들어왔어."

벽에는 전화기가 걸려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케셀바흐 씨 건입니다… 415호예요… 네, 맞습니다… 아가씨, 경찰청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치안국이요…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있군요… 822-48번입니다… 끊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1분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822-48번이죠? 치안국장 레노르망 씨에게 몇 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케셀바흐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의 허락을 받고 거는 전화입니다… 아, 안 계시는군요? 그럼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구렐 경위님이시군요… 그런데 구렐 씨, 어제 제가 레노르망 국장님과 면담할 때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묵는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지금 바로 와 주시면 단서를 보고 뭔가 알아내실 수 있을지도… 한두 시간 뒤요? 좋습니다… 415호로 안내해 달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파리에 잠시 들른 루돌프 케셀바흐는 '다이아몬드의 왕'이라 불렸다. 또 다른 별명은 '캡의 주인'이었다. 백만장자 루돌프 케셀바흐. 그의 재산은 1억 프랑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파리의 팔레스 호텔에서 4층 415호를 일주일째 쓰고 있었다. 방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른쪽의 두 방, 즉 거실과 주침실은 대로 쪽을 바라보았다. 왼쪽의 작은 방은 비서 채프먼이 썼으며, 유대 거리 쪽으로 창이 나 있었다.

이 방 뒤로는 케셀바흐 부인을 위해 다섯 개의 방이 예약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재 몬테카를로에 머물다가, 남편의 첫 신호만 받으면 합류할 예정이었다.

루돌프 케셀바흐는 잠시 동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거닐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불그스레하며 아직 젊은 남자였다. 금테 안경 너머로 연한 푸른빛이 비치는 꿈꾸는 듯한 눈은 그에게 다정하고 수줍은 인상을 주었는데, 이는 각진 이마와 뼈가 도드라진 턱에서 풍기는 강인함과 사뭇 대조되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게다가 저쪽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아파트를 빙 두른 전용 발코니는 오른쪽에서 끊겨 있었고, 왼쪽으로는 유대 거리 쪽 발코니와 돌 칸막이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옆방들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비서의 방으로 건너갔다. 케셀바흐 부인에게 따로 마련된 다섯 개의 방으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었고, 빗장도 걸려 있었다.

"도무지 모르겠어, 채프먼. 여기서 이상한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써 몇 번이나 일어났어, 자네도 인정할 거야. 어제는 내 지팡이가 옮겨져 있었고… 그저께는 분명 누가 내 서류를 건드렸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채프먼이 외쳤다. 정직한 사람다운 그의 평온한 얼굴에는 아무런 불안의 기색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짐작하시는 것뿐입니다… 증거라곤 하나도 없고… 느낌뿐이지요… 게다가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현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도착하신 날 특별한 열쇠를 따로 만드셨고, 그 복제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인 에드워즈뿐입니다. 그를 믿으십니까?"

"물론이지… 십 년째 내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에드워즈도 우리와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잖아. 그게 잘못이야. 앞으로는 우리가 돌아온 뒤에야 내려가도록 해야겠어."

채프먼은 어깨를 살짝 으쓱였다.

결국 '캡의 주인'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호텔 안에서 무슨 위험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자신에게 귀중품이나 큰돈 같은 건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에드워즈였다.

케셀바흐가 그를 불렀다.

"에드워즈, 네가 제복 차림이로구나. 좋아. 오늘 나는 손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아, 아니다. 한 명 기다리고 있어. 구렐 씨라는 분이지. 그분이 오기 전까지 현관문에 서서 지켜봐. 나랑 채프먼 씨가 진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진지한 작업은 잠시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케셀바흐 씨는 우편물을 살펴보고 편지 서너 통을 훑어본 뒤 보내야 할 답장을 일러 주었다. 그런데 문득, 펜을 든 채 기다리던 채프먼은 케셀바흐 씨가 우편물이 아닌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낚싯바늘처럼 휘어진 검은 핀을 쥐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채프먼." 그가 말했다. "내가 테이블 위에서 발견한 걸 좀 보게. 이렇게 휘어진 핀, 분명 뭔가 의미가 있어. 이건 증거야, 결정적인 물증이지. 이제 자네도 이 거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는 못 할 거야. 이 핀이 혼자서 여기 왔을 리는 없으니까."

"그야 물론이죠." 비서가 대답했다. "그건 저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뭐라고?"

"네, 그건 제 넥타이를 칼라에 고정하던 핀이었습니다. 어제저녁 선생님이 글을 읽고 계실 때 제가 빼서 무심코 비틀어 놓았던 거예요."

케셀바흐 씨는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다.

"채프먼, 자네는 분명 웃고 있겠지… 그럴 만도 해… 부인하지 않겠네, 난 좀… 별나졌어, 지난번 케이프 여행 이후로 말이야. 그게 말이지… 자네는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생겼는지 모르잖나… 어마어마한 계획이야… 아직은 미래의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보일 뿐이지만, 그래도 윤곽이 잡혀 가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일이지… 채프먼, 자네는 상상도 못 할 거야… 돈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난 이미…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이야, 권력이고, 힘이고, 권위라고. 내 예감대로 현실이 된다면, 난 더 이상 캡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왕국들의 주인까지 될 거야… 아우크스부르크 주물공의 아들 루돌프 케셀바흐가, 지금껏 자기를 깔보던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지… 아니, 그들보다 앞서게 될 거야, 채프먼, 그들을 앞지르게 될 거라고, 틀림없어… 그리고 혹시라도…"

그는 말을 멈추고,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듯 채프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솟구치는 기세에 이끌려 결국 이렇게 끝맺었다.

"이제 알겠지, 채프먼,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이 머릿속에 값비싼 생각 하나가 들어 있어… 그런데 누군가 그걸 눈치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날 감시하고 있어… 난 확신해…"

벨이 울렸다.

"전화입니다." 채프먼이 말했다.

"혹시…" 케셀바흐 씨가 중얼거렸다. "그자가…"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대령이오?… 아! 그래요, 접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소?… 좋아요… 그럼 기다리겠소… 부하들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좋습니다… 여보세요! 아니요, 우리는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지시를 내려 두겠소… 그렇게나 심각한 일이오?… 다시 말하지만 명령은 철저히 지켜질 겁니다… 내 비서와 하인이 문을 지킬 테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길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말했다.

"채프먼, 두 신사분이 올 거야… 그래, 두 사람… 에드워즈가 안내할 거야…"

"하지만… 구렐 씨가… 그 경관이…"

"그는 나중에 올 거야… 한 시간쯤 뒤에… 게다가 설령 마주친다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 에드워즈더러 지금 당장 프런트에 가서 일러두라고 해. 난 두 신사, 즉 대령과 그 친구, 그리고 구렐 씨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름을 적어 두게 하고."

채프먼은 지시대로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케셀바흐 씨는 손에 봉투 하나를, 아니 차라리 검은 모로코가죽으로 된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마 비어 있는 듯했다. 그는 그것을 어찌할지 모

르겠다는 듯 망설이는 것 같았다. 주머니에 넣을까, 아니면 다른 데 둘까?

마침내 그는 벽난로 쪽으로 다가가, 그 가죽 봉투를 여행 가방 속에 던져 넣었다.

"편지 정리 좀 해, 채프먼. 십 분 남았어. 아, 케셀바흐 부인 편지로군. 왜 안 알려줬지, 채프먼? 필적도 못 알아봤나?"

그는 아내의 손끝이 스친 그 종이를 만지고 바라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 종이 위에는 아내의 은밀한 생각이 조금 담겨 있었다.

그는 종이에 밴 향기를 맡았다. 그러고는 봉투를 뜯고, 천천히, 채프먼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조각조각 읽어 내려갔다.

'조금 피곤해요… 방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심심해요… 언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전보 주시면 정말 기쁘겠어요…'

"오늘 아침에 전보 보냈지, 채프먼? 그럼 케셀바흐 부인이 내일 수요일에 도착하겠군."

그는 마치 짐의 무게가 순식간에 가벼워진 듯, 온통 기쁨에 차 있었다. 모든 걱정에서 풀려난 듯했다. 그는 손을 비비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성공을 확신하는 강인한 남자의, 행복을 손에 쥐고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을 갖춘 행복한 남자의 태도였다.

"벨이 울리네, 채프먼. 현관에서 울렸어. 가서 봐."

하지만 에드워즈가 들어와 말했다.

"두 분의 신사가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알고 있어. 대기실에 와 있나?"

"네, 선생님."

"대기실 문은 닫아두고 더는 열지 마라… 보안국 형사반장 구렐 씨만은 예외다. 채프먼, 자네는 그 두 분을 모셔 오고, 내가 먼저 대령과, 대령하고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라."

에드워즈와 채프먼이 살롱 문을 끌어 닫으며 나갔다. 루돌프 케셀바흐는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유리창에 기댔다.

저 아래 거리에는 마차와 자동차들이 평행한 차선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양쪽으로 늘어선 안전지대의 이중 선이 그 길을 표시하고 있었다. 맑은 봄 햇살이 구릿빛 장식과 광택을 반짝이게 했다. 나무에는 초록빛이 피어오르고, 밤나무 새순들이 갓 돋은 작은 잎을 펼치기 시작했다.

"채프먼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케셀바흐가 중얼거렸다. "벌써 한참째 실랑이 중이잖아!"

그는 테이블에서 담배 한 개비를 집어 불을 붙이고 몇 모금 빨았다. 그때 가벼운 비명이 새어 나왔다. 바로 옆에, 그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남자—단정한, 다소 우아한 차림에 머리와 수염은 검고 눈매는 매서운 사내였다—그 남자가 비웃듯 웃었다.

"제가 누구냐고요? 그야, 대령이죠…"

"아니,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 그 약속된 서명으로 내게 편지를 보내오던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맞소, 맞아… 그자는 그저… 하지만 보세요, 친애하는 선생,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로 나라는 거죠. 분명히 나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선생, 당신의 이름은요…"

"대령이오…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케셀바흐 씨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공포가 밀려들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는 소리쳐 불렀다.

"채프먼!"

"참 이상한 생각이군요, 사람을 부르다니! 제가 곁에 있는 걸로는 부족합니까?"

"채프먼!" 케셀바흐가 다시 외쳤다. "채프먼! 에드워즈!"

"채프먼! 에드워즈!" 낯선 남자가 이번엔 자기가 소리쳤다. "무슨 짓이냐, 친구들? 너희를 찾는 사람이 있다."

"선생, 부탁이오, 아니 명령이오. 날 지나가게 해주시오."

"하지만 친애하는 선생, 누가 막습니까?"

낯선 남자는 정중하게 옆으로 비켜섰다. 케셀바흐 씨가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뒤로 펄쩍 물러났다. 문 앞에 또 다른 남자가 손에 권총을 쥐고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듬거렸다.

"에드워즈… 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대기실 한쪽 구석에, 재갈이 물리고 줄로 묶인 채 나란히 누워 있는 비서와 하인을 보았기 때문이다.

불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성격이었지만 케셀바흐 씨는 용감했다. 분명한 위험을 감지하자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활력과 기운을 되찾게 해 주었다.

그는 놀람과 경악을 가장하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 벽난로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섰다. 손가락으로 전기 초인종 버튼의 위치를 더듬었다. 곧 찾았고, 그는 버튼을 길게 눌렀다.

"그리고 어떻게 할 셈이오?"

낯선 남자가 물었다.

케셀바흐 씨는 대답하지 않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요? 그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 올 거라고, 호텔 전체가 소동을 벌이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오? 불쌍한 양반, 뒤를 한번 돌아보시오. 전선이 끊겨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케셀바흐 씨는 확인이라도 하듯 급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재빠르게 여행 가방을 움켜쥐고 손을 넣어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당신은 총에 공기와 침묵을 장전하는 겁니까?"

공이치기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철컥였다. 하지만 총성은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세 번 더 쏴 주시오, 희망봉의 왕. 내 몸뚱이에 총알 여섯 발이 박혀야 만족할 테니까. 아니, 포기하시겠소? 아깝군… 표적이 아주 좋아 보였는데 말이오."

그는 의자 등받이를 잡아 빙글 돌리더니 다리를 벌려 거꾸로 걸터앉고는, 케셀바흐 씨에게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편하게 앉으시오, 친애하는 선생. 여기가 제집인 양 편히 계시구려. 담배 한 대 어떻소? 나는 됐소. 시가를 더 좋아하거든."

테이블 위에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곱게 말린 밝은색 업먼 시가를 골라 불을 붙이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고맙소. 이 시가 참 일품이군.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요?"

루돌프 케셀바흐는 깜짝 놀라 그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그 남자는 태평스럽게도, 또 수다스럽게도 보였다. 케셀바흐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다. 상황이 폭력이나 난폭함 없이 깔끔하게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는 꽤 볼륨 있는 지폐 뭉치를 내밀며 물었다.

"얼마요?"

상대는 어리둥절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마르코!"

권총을 든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마르코, 이분이 너의 애인에게 줄 선물로 이 작은 지폐 뭉치를 주겠다. 받아라, 마르코."

마르코는 오른손으로는 권총을 겨누고, 왼손으로는 지폐를 받아 들었다. 그러고는 물러나갔다.

"이 일은 당신 뜻대로 처리됐으니," 낯선 남자가 말을 이었다. "이제 내가 찾아온 목적으로 들어갑시다. 짧고 분명하게 말하겠소. 내가 원하는 건 두 가지요. 먼저, 당신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검은 모로코가죽 작은 봉투. 다음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여행 가방 안에 있던 흑단 상자. 순서대로 합시다. 모로코가죽 봉투는?"

"불태웠소."

낯선 남자가 눈썹을 찌푸렸다. 거부하는 자의 입을 억지로라도 열게 하던 그 시절의 확실한 수단들을 떠올렸으리라.

"좋소. 그건 나중에 보지. 흑단 상자는?"

"불태웠소."

"허!" 그가 으르렁댔다. "이 양반이 나를 우롱하는군."

그는 사정없이 그의 팔을 비틀었다.

"어제, 루돌프 케셀바흐, 당신은 이탈리앵 대로의 크레디 리요네 은행에 들어갔지. 외투 밑에 꾸러미를 숨긴 채로 말이야. 그리고 대여 금고를 하나 빌렸어… 정확히 말하면 9번 구획 16번 금고. 서명하고 돈을 낸 뒤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 꾸러미가 사라지고 없었지. 맞나?"

"그렇소."

"그럼 그 상자와 봉투는 크레디 리요네 은행에 있다는 거군."

"금고 열쇠를 주시오."

"마르코!"

마르코가 달려왔다.

"시작해라, 마르코. 사중 매듭으로."

루돌프 케셀바흐는 방어 태세를 취하기도 전에 밧줄 그물에 옭아매였고, 몸부림치려 할 때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다. 두 팔은 등 뒤로 묶이고, 몸통은 안락의자에 결박되었으며, 두 다리는 미라의 다리처럼 띠로 칭칭 감겼다.

"뒤져, 마르코."

마르코가 몸을 뒤졌다. 2분 뒤, 그는 니켈 도금된 작고 납작한 열쇠 하나를 두목에게 건넸다. 열쇠에는 '16'과 '9'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좋아. 가죽 봉투는 없나?"

"없습니다, 두목."

"금고 안에 있겠군. 케셀바흐 씨, 자물쇠를 여는 비밀번호를 말해 주시오."

“거절하시겠다?”

“마르코!”

“네, 두목?”

“권총 총구를 이분 관자놀이에 대.”

“됐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어.”

“걸었습니다.”

“자, 이보게 케셀바흐, 이제 입을 열 텐가?”

“10초 주지, 1초도 더는 없어. 마르코!”

“네, 보스.”

“10초 안에 이자의 머리통을 날려 버려.”

“알겠습니다.”

“케셀바흐,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루돌프 케셀바흐가 신호를 보냈다.

“말하겠다는 건가?”

"때를 맞췄군. 그래, 그 번호… 자물쇠의 암호는?"

"돌로르."

"돌로르… 두뢰르(douleur, 고통)라… 케셀바흐 부인 이름이 돌로레스 아니던가? 어허, 다정하기도 하지… 마르코, 너는 약속한 대로만 하면 돼… 실수 없기다, 알겠지? 다시 말한다… 옴니버스 사무소에서 제롬과 합류해 열쇠를 건네고 암호를 일러줘라. 암호는 '돌로르'. 그런 다음 둘이 함께 크레디 리요네 은행으로 가. 제롬 혼자 들어가서 신분 등록부에 서명하고,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 금고 안에 든 걸 전부 가져오는 거야. 알겠나?"

"네, 두목. 그런데 혹시 금고가 안 열리면요? 만약 '돌로르'라는 암호가……"

"조용히, 마르코. 크레디 리오네 은행을 나온 뒤에는 제롬을 놓아주고 집으로 돌아가. 그다음 내게 전화해서 결과를 알려줘. 만약 '돌로르'라는 단어가 금고 문을 열지 못한다면, 내 친구 켈스바흐와 내가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될 거야. 켈스바흐, 너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나?"

"그건 아마도 압수수색이 무효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나중에 봅시다. 가라, 마르코."

"하지만 사장님은요?"

"나는 남는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해. 그렇지 않나, 켈스바흐?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가?"

"음, 그 말을 너무 급하게 하는군. 시간을 벌려고 했나? 그렇다면 내가 바보처럼 함정에 빠진 셈이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자신의 포로를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방해받진 않을 거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분노에 찬 듯 루돌프 켈스바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아, 늙은 여우. 누군가 올 줄 알고 기다렸나 봐?"

감금된 남자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를 짓눌렀던 손 아래서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남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목 졸라 죽여. 마르코, 이 녀석 입 막아. 빨리 해. 좋아."

다시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마치 자신도 루돌프 켈스바흐이고 에드워즈가 아직 그곳에 있는 양 큰 소리로 외쳤다.

"열어라, 에드워즈."

그리고는 현관으로 살며시 걸어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책상과 하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르코, 저걸 방으로 밀어넣자… 저기… 누가 보지 못하게.”

그는 서재를 치우고, 마르코는 하인을 데려갔다.

“좋아. 이제 거실로 돌아가.”

그가 뒤를 따라가자, 마르코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놀란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켈스바흐 씨, 하인님이 안 계신데요. 아, 실례합니다. 편지나 계속 쓰세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켈스바흐 씨?”

상대방이 물었다.

그는 거대한 체구에 활달한 표정, 빛나는 눈매를 지닌 사나이를 마주했다. 그 남자는 한쪽 다에서 다른 쪽 다로 몸을 기우며 서 있었고, 손으로는 모자 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르코가 대답했다.

“네, 여기가 맞습니다. 누구를 모셔다 드릴까요?”

“켈스바흐 씨가 전화하셨더군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당신이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케셀바흐 씨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현관문 밖, 안방 문이 열린 채로 되어 있는 곳의 한구석에 세워두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곳에서는 안방의 일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는 천천히, 심지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케셀바흐 씨 곁에 있던 공범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우린 끝장났다. 수사국의 구레르야.”

상대는 곧장 칼을 움켜쥐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나한테 한 가지 생각이 있어. 하지만 잘 들어, 마르코. 너도 말을 해야 해. 케셀바흐인 척 말야. 알아들었지, 마르코? 너는 지금 케셀바흐야.”

그는 너무도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마르코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깨달았다. 이제 자신이 켈스바흐 역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친애하는 분. 구렐 씨에게 전해 주세요. 정말 유감이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내일 아침 아홉 시에 뵙겠습니다. 네, 정확히 아홉 시에요.”

"좋소." 다른 남자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그만 움직여."

그는 현관으로 돌아갔다. 구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전했다.

"켈스바흐 씨가 사죄합니다. 중요한 작업을 마무리 중이랍니다. 내일 아침 아홉 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구렐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한 남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한 번의 움직임만 더였다면, 그는 때렸을 것이다.

마침내 구렐이 말했다.

"좋아. 내일 아홉 시다. 하지만 어쨌든… 음, 맞다, 아홉 시다. 나는 거기에 있을 테니."

그는 모자를 다시 쓰고 호텔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거실에 있던 마르코는 터져 나오듯 웃음을 터뜨렸다.

"보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그분 얼마나 속이셨는지!"

"너는 알아서 해, 마르코. 그 뒤를 밟아. 그가 호텔을 나오면 놓아주고, 정해진 대로 오미버스 정류장에서 제롬을 만나. 그리고 전화해."

마르코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그때 그 남자는 벽난로 위의 물병을 집어 들었다. 큰 잔에 물을 가득 따라 목을 축이고, 손수건을 적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았다. 그러고는 죄수의 곁에 앉아, 지나칠 만큼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켈스바흐 씨,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겠죠."

그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아르센 뤼팽입니다. 신사 도둑이죠."

이 이름은 켈스바흐 씨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뤼팽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

"아하, 친애하는 당신, 이제야 숨을 돌리시네요. 뤼팽은 섬세한 도둑이지요. 피를 싫어하고,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외에는 다른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일 뿐이죠. 그래서 당신은 내가 불필요한 살인을 저지를 거라 생각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이 불필요한 일일까요? 그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장난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자, 갑시다, 동지."

그는 자신의 의자를 안락의자 쪽으로 당겨 앉혔다. 그리고 감금된 자의 입에 막힌 천을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케셀바흐 씨. 당신이 파리에 도착한 바로 그날, 비밀 정보 기관의 책임자 바바뢰와 연락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비서 체이먼이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바바뢰는 당신과 서신이나 전화로 연락할 때 '대령'이라는 가명을 썼죠. 하지만 바바뢰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제 절친한 친구라서요.

그 덕분에 당신이 바바뢰를 찾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열쇠를 이용해 당신의 집을 몇 차례 들이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감시하는 눈으로 죄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시선을 뚫어지게 관찰했다. 숨겨진 생각을 읽어내려 했다.

"케셀바흐 씨, 당신은 파리의 어두운 구석에서 피에르 레두라는 이름을 가졌거나, 가졌던 남자를 찾아내라고 바바뢰를 지시했습니다. 이 남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키는 일백칠십오 센티미터, 금발에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왼쪽 손 새끼손가락 끝이 상처 때문에 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뺨에 희미한 흉터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남자를 찾는 데 막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발견이 당신에게 큰 이득이 될 것처럼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해 보세요."

"모릅니다."

대답은 단호했다. 절대적이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호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는 사실이었다.

"좋아." 상대가 말했다. "하지만 넌 바르바뢰에게 알려준 것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케셀바흐 씨. 바르바뢰 앞에서 두 번이나, 마로퀸 가죽 봉투에 담긴 서류를 확인했잖아."

"맞습니다."

"그럼 그 봉투는?"

"불태웠지."

뤼팽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고문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의 사항에 대한 생각이 다시금 그의 머리를 스쳤다.

"불태웠다고? 하지만 캐시박스 말이지… 시인해. 캐시박스가 크레디 리요네에 있다는 걸 시인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내 개인 컬렉션 중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이백 개."

그 말은 모험가에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했다.

"아하!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이백 개라니. 하지만 말이지, 이건 엄청난 부야… 그래, 네가 미소 짓는구나… 너한테는 사소한 장난일 뿐이지… 하지만 네 비밀은 그보다 훨씬 가치 있어… 너에겐 그렇겠지. 하지만 나에겐?"

그는 시가를 하나 집어 들었다. 성냥을 하나 떼어 불을 붙였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성냥이 꺼지는 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원정이 실패하고, 금고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지, 친구. 하지만 그러면 내 수고를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해.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네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표정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없다면 모로코 가죽 봉투를… 선택은 네 몫이야…"

그는 시계를 꺼내 들었다.

"다섯 분 남았군. 이봐, 운명도 제법 발을 동동 구르네. 하지만 가만히 계세요, 켈슬바흐 씨. 신사의 맹세코,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전화 벨이 울렸다.

뤼팽이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감옥의 감시관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어조로 흉내 냈다.

"네, 나야. 루돌프 케셀바흐…… 아, 알겠어. 미스, 연결해 주시겠어요? 마르코? 그래, 잘됐네. 무사히 끝났나? 문제없었지? 아이에게 안부 전해. 그럼, 뭐가 나왔어? 에벤우드 상자가 나왔다고? 다른 건 없어? 서류 같은 건? 뭐, 뭐?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들이 괜찮나? 훌륭해, 정말 훌륭해. 잠깐만, 마르코. 내가 좀 생각해 봐. 자, 보게, 만약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면…… 응,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전화기만 잡고 있어."

그가 몸을 돌렸다.

"케셀바흐 씨, 그 다이아몬드들에 그렇게 집착하시나요?"

"내가 그걸 다시 사준다면?"

"그럴 수도 있죠."

"얼마요? 오십만?"

"오십만…… 네."

"하지만 문제야. 어떻게 교환하지? 수표로? 안 돼. 너나 나나 속일 테니까. 들어봐. 모레 아침에 리요네르 은행에 들러서 지폐 오백 장을 꺼내서 오트유 근처 부아 드 부아뉴에서 산책해라. 난 다이아몬드를 준비해 둘게. 가방에 담으면 편하잖아. 금고는 너무 눈에 띄니까."

케셀바흐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아니요… 아니요, 금고요… 금고는 꼭 필요해요."

"아!" 뤼팽이 폭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함정에 빠졌군. 다이아몬드는 상관없지. 다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금고는 목숨처럼 아끼는군. 알았어. 금고는 네 것이 될 거야. 아르센의 맹세야. 내일 아침 우편으로 보내주마."

그가 다시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마르코, 그 상자가 눈앞에 있나? 특이한 점이 뭐가 있더냐? 흑단 재질에 상아로 장식을 했네…… 응, 알겠어. 일본풍 스타일, 생트아누아르 교외 공방 제품이지. 상표는 없나? 아, 작은 원형 라벨이 있군. 테두리가 파랗고 번호가 적혀 있어. 상업용 표시겠지. 별 의미 없어. 상자 바닥은 두꺼우냐?"

"그다지 두껍지 않아요."

"헛! 그럼 이중 바닥은 없겠군. 잠깐, 마르코. 상단 상아 장식을 자세히 봐라. 아니, 잠깐만. 뚜껑을 보라."

그는 기쁨에 겨워 환성을 지렀다.

"뚜껑! 바로 그거야, 마르코! 케셀바흐가 눈짓을 했어.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 아, 옛날 친구 케셀바흐, 네가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그리고 마르코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자, 어찌 됐나? 뚜껑 안에 거울이 있나? 미끄러지나? 홈이 파여 있나? 아니? 그럼… 깨버려. 내가 말했지, 깨라고. 거울이 있을 이유가 없어. 나중에 덧붙인 거야."

그는 참다못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미친놈 같으니라니, 남의 일 아닌데 간섭하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 해."

전화기 너머에서 마르코가 거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나 보다. 그는 triumphant하게 외쳤다.

"내가 뭐랬나, 켈스바흐 씨? 사냥은 대성공일 거라고. 자, 됐나? 음? 편지라도 나왔나? 승리라니! 카프의 모든 다이아몬드와 그 노인의 비밀까지 다 찾았군!"

그는 두 번째 수화기를 집어 들고, 조심스럽게 두 개의 판을 귀에 대며 다시 말을 이었다.

"마르코, 천천히 읽어라. 먼저 봉투부터. 좋아. 이제 반복해 봐."

그가 이어 말했다.

"검은 마로킨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편지 사본."

"그다음?"

"봉투를 찢어, 마르코. 괜찮습니다, 케셀바흐 씨? 사리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어, 마르코. 케셀바흐 씨가 허락하셨으니."

"됐나? 좋아, 읽어."

그가 듣고는 비웃듯 웃었다.

"헛것이다. 눈이 부실 게 없군. 요약해 보자. 네 군데로 접힌 종잇조각 하나. 접힌 자국이 새것처럼 생겼고… 음, 좋군. 종이 위쪽 오른쪽에 이런 글이 적혀 있군. '키 1미터 75센티미터,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등.' 맞다, 피에르 르듀 씨의 신상 정보군. 케셀바흐 씨 필적이겠지? 좋아. 그리고 종이 한가운데, 활자체 대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군."

"마르코, 자네. 그 종이는 손대지 말고, 캐시와 다이아몬드도 건드리지 말게. 십 분 안에 이 녀석은 다 처리해 둘 테고. 이십 분 뒤면 자네에게 합류하겠네. 아, 그런데 차는 보냈나? 훌륭해. 나중에 봐."

그는 기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현관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서기나 하인이 묶인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 목이 매여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는 아닌지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감시인 옆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장난은 이제 끝이야, 켈스바흐. 말을 안 하면 네 탓이야. 결정했나?"

"무엇을?"

"말장난 말고. 아는 대로 말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이지. '아푸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걸 내가 알면, 처음부터 적지 않았겠지."

"좋아. 하지만 그건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어디서 베껴온 거지? 네게는 어디서 들어온 정보야?"

케셀바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뤼팽이 다시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말투가 거칠어졌다.

"들어봐, 케셀바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줄게. 네가 아무리 부자고 큰 신사라 해도, 나와 너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 아우크스부르크의 주물공의 아들이자, 도둑의 왕 아르센 뤼팽이 서로 부끄러움 없이 손잡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아파트를 털고, 너는 증시에서 털지.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 케셀바흐. 이번 일만은 같이 해보자.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이 일을 모르기 때문이야. 너도 나를 필요로 해. 혼자서는 이 일을 끝내지 못하니까. 바르바뢰는 멍청이야. 하지만 나는 뤼팽이지. 잘 맞지?"

침묵이 흘렀다.

뤼팽이 목소리를 떨며 재차 물었다.

"대답해, 켈스바흐. 맞지? 맞다면 48시간 안에 네 피에르 르듀를 찾아주마. 그가 맞지? 그게 문제의 인물이야?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 대체 저자는 누구야? 왜 그를 찾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 뭐라도 알아?"

그는 갑자기 진정했다. 독일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 마디만 해. 예, 아니면 아니오?"

그는 켈스바흐의 주머니에서 아름다운 금시계를 꺼내 죄수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켈스바흐의 조끼 단추를 풀고 셔츠를 젖혀 가슴을 드러냈다. 이어 책상 위에 놓인 금 세공이 된 강철 스타일렛을 집어 들고, 심장이 뛰며 살점이 떨리는 부위에 날카로운 끝점을 대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켈스바흐 씨, 지금 세 시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딱 정해진 시간에 브리adier 구렐이 팰리스 호텔로 찾아왔다.

그는 멈춰 서지도, 엘리베이터 따위를 쓸 생각도 없이 계단을 올랐다. 네 번째 층에 이르러 그는 오른쪽으로 꺾어 복도를 따라갔고, 415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소음이 들리지 않자, 그는 다시 시도했다. 반쯤 된 여섯 번의 시도 끝에 아무 소용이 없자, 그는 위층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에는 웨이터 한 명이 서 있었다.

"케셀바흐 씨 좀 봐 주시겠어요? 열 번이나 벨을 눌렀는데."

"케셀바흐 씨는 여기서 자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인이나 비서는요?"

"그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호텔에서 묵지 않은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지만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케셀바흐 씨는 이 호텔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의 청소나 서비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 맡고 있죠. 그래서 그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구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분명한 지시를 받아, 명확한 임무를 띠고 찾아온 터였다. 그 범위 안에서는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만약 상관이 계셨다면……" 그가 중얼거렸다. "만약 상관이 계셨다면……"

그는 명함을 내밀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러고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물었다.

"그래, 두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나?"

"나가는 모습은 보았다고?"

"그것도 아니다."

"그럼, 그들이 나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소?"

"어제 오후 415호로 찾아온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

"같이 가 보자."

"갈색 수염을 가진 분이었나?"

"네. 세 시쯤 그 사람이 가려는 길에 마주쳤어요. 그가 말하길요, '415호의 사람들은 막 나왔습니다. 케셀바흐 씨는 오늘 밤 베르사유의 레제르와르 호텔에서 묵습니다. 편지는 그곳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누구였나?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했지?"

"모르겠소."

구렐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든 것이 너무 기묘하게 느껴졌다.

"열쇠는 있나?"

"아니요. 케셀바흐 씨는 특별히 열쇠를 만들어 둔 상태였어요."

"그럼 가보자."

구렐은 다시 한번 분을 담아 노크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가 떠나려던 순간, 갑자기 몸을 숙여 열쇠 구멍에 귀를 바싹 대었다.

"들어 봐… 뭔가… 그래, 분명해… 울음소리야… 신음소리 같아."

그는 문에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라니!"

그는 재빠르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곧 포기했다.

"빨리, 자물쇠를 여는 사람을 불러."

호텔 직원 한 명이 뛰어갔다. 구렐은 안절부절못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다른 층의 하인들도 모여들었고, 사무실 직원과 관리자들까지 몰려왔다.

구렐이 외쳤다.

"옆방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 방들이 이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통로 문은 항상 양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그럼 사법경찰서에 전화하지." 구렐은 자기 상사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믿는 듯했다.

"경찰서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적했다.

"네, 그러시겠다면요." 그는 그 절차가 별로 관심 가는 일도 아닌 듯한 신사의 어조로 대답했다.

전화에서 돌아왔을 때, 열쇠공은 마지막 열쇠까지 다 시험해 보고 있었다.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풀었다. 구렐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곧장 신음 소리가 들리던 곳으로 달려갔고, 비서 채프먼과 하인 에드워즈 두 사람의 몸과 맞닥뜨렸다. 그중 한 명인 채프먼은 끈질긴 인내 끝에 재갈을 조금 느슨하게 푸는 데 성공해 낮고 둔탁한 신음을 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잠든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풀어 주었다. 구렐은 불안해졌다.

"케셀바흐 씨는요?"

그는 거실로 들어갔다. 케셀바흐 씨는 탁자 옆 안락의자에 등받이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머리는 가슴 쪽으로 푹 숙여져 있었다.

"기절했군요." 구렐이 다가가며 말했다. "무리하게 힘을 쓰다 기진맥진한 모양이오."

그는 재빨리 어깨를 묶고 있던 끈을 잘랐다. 상체가 한 덩어리로 앞으로 무너졌다. 구렐이 그를 껴안듯 받쳐 들다가 뒤로 물러나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죽었어! 만져 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눈을 봐!"

누군가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아마 뇌졸중이거나… 동맥류가 터진 거겠죠."

"맞아, 상처 자국이 하나도 없군… 자연사야."

사람들이 시신을 소파에 눕히고 옷을 풀어헤쳤다. 하지만 곧 흰 셔츠 위에 붉은 얼룩이 번졌고, 셔츠를 젖히자 심장 부위 가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곳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셔츠에는 명함 한 장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구렐이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아르센 뤼팽의 명함이었고, 그것 역시 온통 피투성이였다.

구렐이 허리를 펴며 권위 있고도 단호하게 외쳤다.

"범죄다! 아르센 뤼팽! 모두 나가라. 이 거실에도 침실에도 아무도 남지 마라. 이분들을 다른 방으로 옮겨 치료하게 하라. 모두 나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국장님이 곧 오신다!"

아르센 뤼팽!

구렐은 완전히 굳어 버린 표정으로 그 두 마디를 되뇌었다. 그 말들은 그의 가슴속에서 장례 종소리처럼 울렸다. 아르센 뤼팽! 도적왕! 최고의 모험가! 어디 보자,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럴 리 없어. 그는 이미 죽었잖아."

다만, 바로 그게 문제였다… 그는 정말로 죽었던 걸까?

아르센 뤼팽!

그는 시신 곁에 선 채, 마치 유령에게서 도발장이라도 받은 듯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두려운 마음에 그 명함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있었다. 아르센 뤼팽!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나설 것인가? 자신의 힘만으로 싸움을 걸 것인가? 아니, 아니었다. 행동하지 않는 편이 나았

다. 그런 상대의 도전에 응했다가는 실수를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게다가 국장님이 곧 오시지 않겠는가?

국장님이 곧 오신다! 구렐의 심리는 이 짧은 한마디로 모두 요약되었다. 그는 노련하고 끈기 있으며 용기와 경험이 넘치고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지시를 받을 때만 앞으로 나아가고 명령을 받을 때만 제대로 된 일을 해내는 부류였다.

르노망 씨가 두두아 씨를 대신해 치안국을 맡은 뒤로, 이 주도성 부족은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모른다. 르노망 씨야말로 진정한 국장이었다! 그와 함께라면 반드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확신이 어찌나 강했던지, 구렐은 국장의 지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순간 곧바로 멈춰 서곤 했다.

하지만 국장님이 곧 도착할 터였다. 구렐은 시계를 보며 그 정확한 도착 시각을 가늠하고 있었다. 부디 경찰서장이 먼저 오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지명되었을 예심판사나 법의관이 국장이 사건의 핵심을 머릿속에 정리할 틈도 없이 불시에 현장 검증을 하러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래, 구렐, 무슨 생각에 빠져 있나?"

"국장님!"

르노망 씨는 얼굴 표정이나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만 보면 아직 젊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굽은 등, 초처럼 누렇게 뜬 메마른 피부, 희끗희끗한 수염과 머리카락,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쇠약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병약한 인상을 보면, 그는 거의 노인에 가까웠다.

그는 가장 위험한 부임지에서 정부 행정관으로 일하며 식민지에서 고된 삶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열병을 얻었지만, 쇠락한 몸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기력을 얻었다. 홀로 사는 습관, 말을 적게 하는 습관, 묵묵히 행동하는 습관을 익혔고, 어느 정도 사람을 멀리하는 성향도 생겼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쉰다섯 무렵, 그 유명한 비스크라의 스페인인 세 명 사건을 계기로 크고 정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제야 그동안의 부당함이 바로잡힌 것이다.

그 후 그는 곧바로 보르도로 발령받았고, 이어 파리의 부국장이 되었다. 뒤이어 두두아 씨가 죽자 치안국장이 되었다.

그는 맡은 자리마다 일 처리 방식에서 놀라운 창의성과 풍부한 수완, 새롭고 독창적인 자질을 보였다. 특히 여론을 들끓게 했던 최근 네다섯 건의 추문을 처리하며 더없이 정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가장 저명한 경찰관들의 이름에 견주곤 했다.

구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국장의 총아였다. 국장은 그의 순박함과 수동적인 복종을 아꼈다. 구렐은 르노망 씨를 누구보다 높이 떠받들었다. 그에게 르노망은 우상이자, 결코 실수하지 않는 신이었다.

그날 르노망 씨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그는 지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아, 낡고 구식인 데다 올리브빛으로 유명한 프록코트 자락을 헤쳤다. 그리고 역시 유명한 갈색 스카프를 풀고는 중얼거렸다.

"말해 보게."

구렐은 자신이 보고 알아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하지만 국장이 들여 놓은 습관대로 간략하게만 보고했다.

그가 뤼팽의 명함을 꺼내 보이자, 르노망 씨는 흠칫했다.

"뤼팽!"

그가 외쳤다.

"네, 뤼팽입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더 좋군. 더 좋다고." 르노망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당연하지. 더 좋은 일이지." 구렐이 재차 말했다. 그는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상사의 드문 발언을 해설하는 것을 즐겼다. 그에게 구렐이 불평할 만한 점은 오직 말이 너무 적다는 것뿐이었다. "당신은 드디어

당신에게 손색없는 상대와 맞서게 됩니다. 뤼팽은 당신에게 정복될 겁니다. 뤼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뤼팽은…”

“찾아봐.” 르노망이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사냥꾼이 개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구렐은 그의 주인 눈앞에서, 빠르고 지능적이며 호기심 많은 좋은 개처럼 찾아다녔다. 르노망은 지팡이 끝으로 방 안의 구석이나 의자를 가리켰다. 마치 신중하게 덤불이나 풀밭을 지목하듯 말이다.

“아무것도 없군,” 부장이 결론을 내렸다.

“자네한테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 르노망 씨가 투덜거렸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국장님께는 사람처럼 말을 거는 것들, 진짜 증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어쨌든 뤼팽 씨의 소행 목록에 확실한 살인 사건이 하나 올라온 셈이지요.”

“첫 번째로군.” 르노망 씨가 짚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죠. 하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상황에 떠밀려 살인이라는 길로 내몰리기 마련이니까요. 케셀바흐 씨도 저항했을 테고요.”

“아니, 묶여 있었잖나.”

"그렇군요." 구렐이 당황한 듯 인정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이미 꼼짝 못 하게 된 적을 왜 죽였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어제 현관 입구에서 그놈과 얼굴을 마주쳤을 때 제가 덜미를 잡았더라면…"

르노망 씨는 발코니로 나갔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있는 케셀바흐 씨의 방을 둘러보고, 창문과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이 두 방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구렐이 단언했다.

"잠겨 있었나, 아니면 그냥 닫아만 둔 거였나?"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국장님."

말소리가 들려와 그들은 거실로 다시 돌아왔다. 거실에는 시신을 검시하고 있던 법의관과 예심판사 포르메리 씨가 있었다.

포르메리 씨가 외쳤다.

"아르센 뤼팽! 드디어! 호의적인 우연 덕에 이 악당과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 기쁘기 그지없군! 그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다!… 게다가 이번에는 살인범이야!… 자, 뤼팽 선생, 어디 한번 둘이서 겨뤄 보자고!"

포르메리 씨는 몇 해 전 람발 공작부인의 보관(寶冠)을 둘러싼 기이한 사건과, 그때 뤼팽이 자신을 보기 좋게 속여 넘긴 그 절묘한 수법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일은 법원 기록에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을 웃음거리로 삼았지만, 포르메리 씨로서는 당연한 앙심을 품은 채 화려한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다.

"범죄는 명백합니다." 그가 더없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동기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 잘되고 있군요, 르노망 씨. 그럼 이만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르메리 씨는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르노망 씨가 곁에 있는 것이 영 마뜩잖았다. 치안국장이 그를 향한 경멸을 거의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여전히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박사님, 사망한 지 대략 열두 시간쯤, 어쩌면 그보다 더 됐다고 보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추측합니다… 우리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군요… 그런데 범행 도구는?"

"칼날이 아주 가느다란 칼입니다, 예심판사님." 의사가 대답했다. "자, 보십시오. 죽은 사람 본인의 손수건으로 칼날을 닦아냈더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렇네요… 자국이 선명히 보입니다… 이제 케셀바흐 씨의 비서와 하인을 심문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술이 분명 어떤 실마리를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채프먼과 에드워즈는 거실 왼쪽에 있는 채프먼의 방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두 사람은 이미 위기를 벗어난 상태였다. 채프먼은 전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케셀바흐 씨의 불안, 자칭 대령의 방문,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습격 사건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아, 그렇군! 공범이 있는 게 분명해." 포르메리가 외쳤다. "게다가 그 공범의 이름까지 들었다고? 마르코라 했나? 이건 매우 중요해. 공범을 잡으면 일이 한결 수월해질 거야."

"네, 하지만 아직 그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르노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차 알게 되겠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채프먼 씨, 고렐 씨의 초인종 소리가 난 직후 마르코는 곧장 떠났나요?"

"네, 떠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나요?"

"네, 가끔 들렸지만 흐릿했어요. 문은 닫혀 있었죠."

"어떤 소리였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남자, 즉…"

"이름을 대시오,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이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시내 통화 연결을 담당하는 호텔 직원을 심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자가 나가는 소리도 들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15분쯤 지나 복도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네, 범행을 끝낸 직후였군요.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군요. 그 후로는?"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밤이 지나갔고, 피로에 잠이 들었죠.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군요."

그는 자신의 수사를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갔다. 마치 미지의 적에게 거둔 승리를 기록하듯, 그는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공범, 전화기, 범행 시간, 들린 소음들. 음, 좋아. 정말 좋아. 이제 남은 건 범행 동기야. 이 사안은 뤼팽이 관여한 일이니 동기는 분명해. 르노망 씨,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도가 피해자 몸에서 직접 털었을 가능성이 높군. 지갑은 찾아냈나?"

"제 재킷 안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고렐이 말했다.

그들은 모두 거실로 이동했다. 포르메리 씨는 지갑을 확인했다. 안에는 명함 몇 장과 신분증 서류들만 들어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군요. 채프먼 씨, 케셀바흐 씨가 몸에 현금을 지니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월요일에 우리는 크레디 리오네 은행에 갔습니다. 케셀바흐 씨가 거기서 금고를 하나 빌렸거든요."

"크레디 리오네 은행의 금고라… 알겠군. 그쪽을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떠나기 전에 케셀바흐 씨는 계좌도 하나 개설했고, 지폐로 오천에서 육천 프랑쯤을 챙겨 나갔습니다."

"완벽하군. 이제 윤곽이 잡혔어."

채프먼이 다시 말을 이었다.

"예심판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케셀바흐 씨는 며칠 전부터 몹시 불안해하셨는데 —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 케셀바흐 씨는 특히 두 가지를 각별히 챙기셨습니다. 하나는 흑단으로 만든 작은 함인데, 이 함은 크레디 리오네에 안전하게 맡겨 두셨고요. 다른 하나는 서류 몇 장을 넣어 둔 검은 모로코가죽 봉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는?"

"뤼팽이 오기 전에, 그분은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봉투를 이 여행 가방에 넣어 두셨습니다."

포르메리 판사가 가방을 받아 뒤져 보았다. 봉투는 없었다. 그는 손을 비볐다.

"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군. 범인과 범행 정황, 그리고 동기까지 모두 알아냈어. 이 사건은 오래 끌지 않을 거야. 르노망 씨, 우리 의견이 모든 점에서 일치하죠?"

"어느 것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새 경찰서장이 도착해 있었고, 그 뒤로는 문을 지키던 경관들에도 불구하고 기자 무리와 호텔 직원들이 입구를 밀치고 들어와 대기실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노인의 거친 성격은 익히 알려져 있었고 — 때로 무례하다 싶을 정도여서 이미 윗선에서 몇 차례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 그 퉁명스러운 대답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포르메리 씨는 어리둥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아주 간단한 일 아닙니까. 뤼팽이 도둑이고…"

"왜 그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르노망이 쏘아붙였다.

"훔치기 위해서죠."

"잠깐만요.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도둑질이 살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케셀바흐 씨는 먼저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뒤에 재물을 빼앗겼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 없는 뤼팽이, 이미 제압당해 무력해진 데다 가진 것까지 털린 사람을 무엇 때문에 죽였겠습니까?"

예심판사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면 으레 하던 버릇대로, 길고 노란 구레나룻을 쓰다듬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어조로 대답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요소에 달려 있죠… 게다가 그 반박은 동기의 성격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번에도 그의 말은 단호하고 날카로웠으며, 거의 무례하다 싶을 정도였다. 완전히 어쩔 줄 모르게 된 판사는 감히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이 기이한 협력자 앞에서 멍하니 굳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람마다 각자 방식이 있는 법이지. 당신 방식이 궁금하군."

"저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보안국장이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몇 걸음 거닐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쇠약하고 구부정한 이 노인이,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되는 권위의 힘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모습은 자못 기이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이 아파트와 붙어 있는 방들을 둘러보고 싶소.”

지배인이 호텔 평면도를 펼쳐 보였다. 오른쪽 방, 즉 케셀바흐 씨의 방은 이 스위트룸의 현관 말고는 다른 출입구가 없었다. 하지만 왼쪽 방, 즉 비서의 방은 다른 방과 통해 있었다.

“그 방을 둘러봅시다.” 그가 말했다.

포르메리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연결 문은 잠겨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요.”

“그 방을 둘러봅시다.” 르노망 씨가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그를 그 방으로 안내했다. 케셀바흐 씨를 위해 잡아 둔 다섯 개의 방 가운데 첫 번째 방이었다. 이어 그의 요청에 따라 그다음 방들로도 안내했다. 연결 문은 모두 양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가 물었다.

“이 방들 중에 쓰고 있는 방은 하나도 없소?”

"없습니다."

"열쇠는?"

"열쇠는 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건가?…"

"환기와 먼지 털이를 맡은 층 담당 종업원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시오."

귀스타브 뵈도라는 이름의 그 종업원은, 전날 지시에 따라 다섯 방의 창문을 모두 닫았다고 답했다.

"몇 시쯤이었소?"

"저녁 여섯 시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소?"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럼 오늘 아침에는?"

"오늘 아침 여덟 시쯤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소?"

"아니요… 아무것도… 아, 그런데…"

그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다그치자 그는 마침내 털어놓았다.

"실은 420호 벽난로 근처에서 담배 케이스 하나를 주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무실에 갖다주려던 참이었죠."

"지금 가지고 있소?"

"아니요, 제 방에 있습니다. 거뭇하게 산화 처리한 강철로 만든 케이스인데요. 한쪽에는 담배와 궐련지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성냥을 넣습니다. 금으로 새긴 이니셜이 두 개 있고요… L과 M입니다."

"뭐라고요?"

채프먼이 앞으로 나선 것이었다. 그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종업원에게 물었다.

"거뭇한 강철 케이스라고 하셨습니까?"

"담배, 궐련지, 성냥을 넣는 세 칸짜리요… 러시아 담배였죠, 그렇죠? 가늘고 빛깔이 옅은 금빛의…"

"가져와 보시오…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소…"

보안국장이 손짓하자 귀스타브 뵈도가 물러갔다.

르노망 씨는 자리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펫과 가구, 커튼을 살폈다. 그러고는 물었다.

"여기가 정말 420호 맞습니까?"

판사가 비웃듯 웃었다.

"그 사건이 이번 참극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정말 알고 싶군요. 케셀바흐가 살해된 방까지는 잠긴 문 다섯 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오."

르노망 씨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귀스타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디서 잡니까, 지배인님?" 국장이 물었다.

"쥐데 거리 쪽 육 층, 그러니까 우리 바로 위층입니다. 아직 안 오다니 이상하군요."

"수고스럽겠지만 누구 좀 보내 주시겠소?"

지배인이 채프먼과 함께 직접 올라갔다. 몇 분 뒤, 그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뛰어서 혼자 돌아왔다.

"어떻게 됐소?"

"살해됐다고?"

"아, 저 자식들, 제법 재주가 있군!" 르노망이 중얼거렸다.

"서둘러, 구렐, 호텔 문을 닫게 하게. 출구도 잘 감시하고. 그리고 소장님, 우리를 구스타브 뵈도의 방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소장이 나갔다. 하지만 방을 떠나려던 르노망이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원형 종이 조각을 주워 들었다. 그건 이미 그의 시선을 끌었던 물건이었다.

파란 테두리가 쳐진 라벨이었다. 위에는 숫자 '813'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무래도 도움이 될지 몰라 그는 그것을 지갑에 챙겨 넣고 다른 이들과 합류했다.

등에, 두 견갑골 사이에 난 가느다란 상처 하나.

의사가 말했다.

"케셀바흐 씨의 상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군." 르노망이 말했다. "같은 손이 내리친 것이고, 같은 무기가 쓰였어."

시체 위치를 보면, 그 남자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중 급습을 당한 듯했다. 그는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담배갑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팔은 아직 매트리스와 침대 받침대 사이에 끼인 채였지만, 담배갑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물건이 어지간히도 위험한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포메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더 이상 단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는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당연하지." 안전부장이 짧게 내뱉었다.

"하지만 이니셜은 알고 있습니다. L과 M이죠. 게다가 채프먼 씨가 알고 있는 듯한 내용까지 더하면, 우리는 쉽게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르노망 씨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채프먼? 그가 어디 있나?"

그들은 복도로 시선을 돌렸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하지만 채프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채프먼 씨가 저와 함께 올라왔었습니다." 소장이 말했다.

"네,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과 함께 다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네, 시체 곁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두고 왔다고요?… 혼자?"

"'그 자리에 있게, 움직이지 말게'라고 말해 뒀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무도 보지 못하셨고요?"

"복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인접한 다락방은요? 아니면, 자, 저 모퉁이를 돈 곳은요? 거기 아무도 숨어 있지 않았나요?"

르노망 씨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오가더니, 방문들을 열어 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믿기 어려울 만큼 민첩하게 뛰쳐나갔다.

그는 여섯 층을 단숨에 뛰어 내려갔고, 소장과 수사판사가 먼발치에서 뒤따랐다. 1층에 도착하자 큰 문 앞에서 구렐과 다시 마주쳤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나?"

"없습니다."

"오르비에토 거리 쪽 다른 문은?"

"디우시를 보초로 세워 뒀습니다."

"확실한 명령과 함께 말이지?"

"네, 본부장님."

호텔의 넓은 홀에는 여행객들이 불안한 기색으로 몰려들어, 사건에 대해 들려오는 갖가지 부정확한 소문을 두고 수군거렸다. 전화로 소집된 하인들은 하나둘씩 도착했다. 르노망 씨는 그들을 즉시 심문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단서 하나 내놓지 못했다. 그때 5층의 하녀 한 명이 나섰다.

그녀는 십 분쯤 전에, 4층과 5층 사이의 직원용 계단을 내려오던 두 남자를 마주쳤다고 했다.

"두 사람이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앞선 남자가 뒤따르는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죠. 직원용 계단에 두 신사가 있는 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들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모릅니다. 고개를 돌렸거든요. 호리호리하고 금발인 남자였어요. 검은 소프트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었죠."

"다른 한 명은요?"

"아, 다른 한 명은 영국인이었어요. 수염을 말끔히 민 큼직한 얼굴에 체크무늬 옷을 입었고, 모자는 쓰지 않았어요."

이 인상착의는 분명 채프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자가 덧붙였다.

"그 사람 표정이… 좀 묘했어요. 마치 미친 사람 같았죠."

구렐의 진술만으로는 르노망 씨가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두 문 앞에 서 있던 사환들을 차례로 불러 물었다.

"채프먼 씨를 아나?"

"네, 선생님. 늘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나?"

"네,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르노망 씨는 경찰서장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서장, 부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넷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비서에게 연락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출입구에 대한 감시를 직접 가장 철저하게 짜 주십시오. 계엄 상태입니다, 서장님."

"하지만 말입니다," 소장이 항의했다. "제 손님들이…"

"손님이고 뭐고 알 바 아닙니다, 선생님. 무엇보다 제 임무가 먼저고, 제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엔…?" 수사판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중 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직 이 호텔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채프먼은…"

"지금으로선 채프먼이 아직 살아 있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몇 분, 몇 초가 걸린 문제죠. 구렐, 자네는 두 사람을 데리고 4층의 모든 방을 수색하게. 소장님, 직원 한 명을 딸려 보내 주십시오. 다른

층들은 지원대가 도착하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자, 구렐, 사냥을 시작하지. 눈을 부릅뜨게. 큰 사냥감이야."

구렐과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움직였다. 르노망 씨는 홀에 남아 호텔 사무실 근처를 지켰다. 이번에는 평소 습관과 달리 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에서 오르비에토 거리 쪽 입구로, 다시 제자리로 오가며 걸었다.

때때로 그는 명령을 내렸다.

"소장님, 부엌을 감시하게 하십시오.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님, 전화 교환원에게 일러 두십시오. 호텔 안의 누구라도 외부로 전화를 걸려고 하면 절대 연결해 주지 말라고요. 만약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요청한 상대에게 연결은 해 주되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적어 두게 하세요."

"소장님, 성이 L이나 M으로 시작하는 손님 명단을 작성하게 하십시오."

그는 마치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명령을 부관들에게 내리는 장군처럼, 이 모든 것을 큰 소리로 지시했다.

파리 한복판의 우아한 궁전 같은 호텔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하고 끔찍한 것이었다.

한쪽에는 수장의 위력을 떨치는 보안국 국장이 있었다. 다른 한쪽은 쫓기고, 추적당하며, 이미 포로가 된 듯한 신세였지만, 그 지능과 야만성 앞에서는 당해낼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었다.

관중들은 모두 홀 중앙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사소한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떨었고, 악마 같은 살인자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곧 모습을 드러낼까? 혹시 그들 중 한 명은 아닐까?

아마 이 사람일지도? 아니면 저 사람?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어서, 만약 그 거장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누군가는 반발심에 문을 부수고 거리로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심하고 진정할 수 있었다. 마치 훌륭한 선장이 이끄는 배 위의 승객들처럼,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모두의 시선은 안경을 끼고 회색 머리에, 올리브색 르댕고트와 갈색 스카프를 두른 그 노신사에게로 쏠렸다. 그는 등을 구부린 채 비틀거리는 다리로 거닐고 있었다.

때때로 구렐이 보낸, 반장의 수사를 돕던 사환들 중 한 명이 달려왔다.

“새로운 것은 없나?” 르노망 씨가 물었다.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소장은 두 차례나 그 지시를 누그러뜨려 보려 했다.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사무실에는 용무 때문에 불려 나왔거나 곧 떠나야 하는 여행객 여럿이 항의하고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르노망 씨가 되풀이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다 압니다."

"그거 당신한테는 잘된 일이군요."

"당신은 권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압니다."

"나중에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수사판사님 본인께서도…"

"포르메리 판사님은 날 좀 가만 놔두시오! 지금 하시는 대로 하인들을 심문하는 것 말고는 그분이 하실 더 나은 일도 없으니까. 나머지는 예심이 아닙니다. 경찰 업무죠. 그건 내 소관이오."

그때 경관 한 무리가 호텔 안으로 들이닥쳤다. 안전부장은 그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 3층으로 보낸 뒤, 경찰서장에게 말했다.

"서장, 감시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부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그는 2층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60개나 되는 방의 문을 모두 열고, 욕실과 골방, 벽장, 구석구석을 모두 살펴야 했기에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 수색도 헛수고였다. 한 시간 뒤 정오 무렵, 르노망 씨는 겨우 2층을 다 둘러본 참이었다. 다른 형사들은 아직 위층들을 끝내지 못했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르노망은 망설였다. 범인이 다락방 쪽으로 다시 올라갔을까?

그러나 그가 막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케셀바흐 부인이 말동무 여인을 데리고 막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다. 신임받는 늙은 하인 에드워즈가 부인에게 케셀바흐 씨의 죽음을 알리는 일을 맡았다.

르노망은 살롱 중 한 곳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은 없었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몸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갈색 머리였다. 검은 눈동자는 아름답기 그지없었고, 그 안에는 작은 금빛 점들이 가득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금박 조각들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남편은 네덜란드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돌로레스는 스페인계 혈통의 오래된 가문, 아몬티 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고, 지난 사 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애정과 헌신으로 단단히 맺어져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르노망 씨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흐느끼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남편 곁으로 데려다달라고 청했다.

현관에서 르노망 씨는 자신을 찾고 있던 구렐을 만났다. 구렐은 손에 쥐고 있던 모자를 급히 르노망 씨에게 내밀었다.

"이걸 주워 왔습니다, 주인님. 출처는 틀림없어요."

부드러운 검은 펠트 모자였다. 안쪽에는 안감도, 상표도 없었다.

"어디서 주웠어?"

"2층 서비스 계단 층계참에서요."

"다른 층은? 아무것도 없나?"

"없습니다. 다 뒤졌어요. 이제 1층만 남았죠. 이 모자는 그자가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주인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계단 아래에서 르노망 씨가 발을 멈췄다.

"경찰서장에게 가서 지시를 전하게. 계단 네 곳마다 맨 아래에 두 명씩, 권총을 손에 쥐고 배치해. 필요하면 쏘도록 하고. 이걸 명심해, 구렐. 채프먼을 구하지 못하거나 그자가 빠져나가면 내 목이 날아가. 두 시간째 헛다리만 짚고 있어."

그는 계단을 올랐다. 1층에서 그는 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한 방에서 나오는 두 요원과 마주쳤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그곳에 발을 들이기를 주저했고, 일부 투숙객은 자기 방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래서 문이 열리기까지 오래 두드리며 신분을 밝혀야 했다.

조금 더 가서 르노망 씨는 다른 요원들이 주방을 수색하는 것을 보았고, 긴 복도 끝에서는 또 다른 요원들이 모퉁이 쪽으로, 즉 유다 거리 쪽 방들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쪽 요원들이 탄성을 지르더니 뛰어가 사라졌다.

그는 서둘렀다.

경찰관들은 복도 한복판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길을 가로막은 채, 얼굴을 카펫에 묻은 시신 하나가 누워 있었다.

르노망 씨가 몸을 굽혀 움직이지 않는 머리를 두 손으로 쥐었다.

"채프먼……." 그가 중얼거렸다. "죽었군."

그가 시신을 살폈다. 흰색 니트 실크 스카프가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는 스카프를 풀었다. 붉은 얼룩이 드러났고, 그는 목덜미에 피투성이가 된 두꺼운 솜뭉치가 그 스카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작은 상처였다. 또렷하고, 깔끔하며, 가차 없는 상처였다.

즉시 통보를 받은 포르메리 씨와 경찰서장이 달려왔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반장이 물었다. "경보도 전혀 없었고요?"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말했다. "계단마다 아래쪽에 두 명씩 보초를 세웠습니다."

"혹시 다시 위로 올라간 건 아닐까요?" 포르메리 씨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목격했을 텐데요."

"아니야. 이 일은 훨씬 전에 이미 끝났어. 시신은 이미 식었지. 다른 사건 직후, 아니 두 남자가 뒷계단을 통해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쯤에 저지른 살인일 거야."

"그런데 시신을 보지 못했나요? 두 시간 동안 여기로 오간 사람이 오십 명이나 됩니다."

"시신은 여기 없었어."

"그럼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나야 어떻게 알겠나!" 안전부장이 거칠게 받아쳤다. "저나 하듯 찾아보십시오. 말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는 초조한 손으로 지팡이 손잡이를 격렬하게 두드렸다. 그러고는 시신을 응시한 채, 침묵과 깊은 사색에 잠겨 섰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경찰서장님, 피해자를 빈 방으로 옮겨 주시겠습니까. 의사를 부르도록 하지요. 지배인님, 이 복도의 모든 방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왼쪽에는 방 세 개와 응접실 두 개가 있어 비어 있는 한 객실을 이루고 있었는데, 르노망은 그곳을 둘러보았다.

오른쪽에는 방이 네 개 있었다. 두 방에는 르베르다 씨와 이탈리아인 자코미치 남작이 묵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 시간에는 외출하고 없었다.

세 번째 방에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영국인 노처녀가 있었고, 네 번째 방에서는 한 영국인이 복도의 소음에도 아랑곳없이 조용히 책을 읽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파버리 소령이었다.

수색과 심문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 영국인 노처녀는 요원들의 탄성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몸싸움 소리도, 단말마의 비명도, 말다툼도 없었다. 파버리 소령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모호한 단서도, 피 자국도, 불운한 채프먼이 이 방들 가운데 한 곳을 지나갔으리라 짐작하게 할 만한 흔적도 전혀 찾지 못했다.

"이상하군." 예심판사가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러고는 순진하게 덧붙였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일부 정황이 내겐 도무지 잡히질 않아. 르노망 씨, 어떻게 생각하시오?"

르노망 씨는 평소의 언짢은 기분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반박을 쏘아붙이려던 참이었다. 그때 구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반장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층 호텔 사무실 의자 위에서요."

크기가 작은 꾸러미였다. 검은 서지 천 보자기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열어 봤나?" 반장이 물었다.

"네, 하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자마자 원래 그대로 다시 쌌습니다. 아주 단단히 묶어 두었죠. 보시면 아실 겁니다."

"풀어 봐!"

구렐이 보자기를 벗기자 검은 융으로 된 바지와 윗옷이 나왔다. 천에 잡힌 주름을 보면 급하게 둘둘 뭉쳐 둔 것이 분명했다.

그 한가운데에는 피로 온통 얼룩진 수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거기에 닦은 손자국을 지우려고 물에 담갔던 모양이었다.

그 수건 속에는 손잡이에 금이 박힌 강철 단검이 들어 있었다. 단검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넓은 호텔 안을 오가는 삼백 명의 인파 속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베인 세 사람의 피였다.

하인 에드워즈는 그 단검이 케셀바흐 씨의 것임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바로 전날, 뤼팽의 습격이 있기 전에도 에드워즈는 그 단검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지배인님, 통제를 해제합니다." 안전부장이 말했다. "구렐이 문을 모두 열라고 지시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뤼팽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포르메리 씨가 물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세 건의 살인을 저지른 자는 이 호텔 안에 있습니다. 객실 중 한 곳에 있거나, 차라리 로비나 응접실에 있는

투숙객들 사이에 섞여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자가 이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게다가 그자가 어디서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슨 옷을 입고 있겠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합니다."

"그런데도 그자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자는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떠나 버릴 텐데요."

"짐도 없이 그렇게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투숙객, 그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배인님,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고객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 르노망 씨는 케셀바흐 씨 앞으로 온 편지 몇 통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예심판사에게 건넸다.

그때 파리 우편소포 서비스에서 방금 배달해 온 소포 한 통이 있었다. 포장을 감싸던 종이가 일부 찢겨 나간 탓에, 르노망 씨는 소포 안에 '루돌프 케셀바흐'라는 이름이 새겨진 흑단 상자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르노망 씨는 상자를 열었다. 뚜껑 안쪽에는 거울이 놓여 있던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고, 깨진 거울 조각들과 함께 아르센 뤼팽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가 보안국장의 눈길을 끄는 듯했다. 상자 바깥쪽 밑면에 푸른 테두리를 두른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라벨은 네 번째 층 방, 담배갑을 발견했던 그 방에서 주워 온 것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라벨에도 역시 '81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제2장

"오귀스트, 르노망 씨를 들여보내게."

안내원이 나가더니 몇 초 뒤 보안국장을 안으로 안내했다.

보보 광장에 있는 내무부의 널찍한 집무실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30년째 급진당의 영수로 군림해 온 그 유명한 발랑글레, 현재 국무총리 겸 내무장관인 그와, 검찰총장 테스타르, 그리고 경찰청장 델롬이었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방금 국무총리와 나눈 긴 대화 동안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국장의 손을 잡으며 더없이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친애하는 르노망, 내가 왜 당신을 오라고 했는지 당신은 분명 알고 있겠지요?"

「케셀바흐 사건?」

케셀바흐 사건! 이 사건만큼 많은 이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일도 드물다. 내가 그 복잡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나섰던 그 비극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우리 모두를 열광하게 만든 드라마의 모든 세부적인 전개까지. 그리고 프랑스 안팎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이 불러일으켰던 엄청난 충격 역시 누구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상황 속에서 저질러진 삼중 살인 사건이라서, 혹은 그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학살의 비참함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바로 아르센 뤼팽의 재현현, 아니 부활이었다.

아르센 뤼팽!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 사 년이 지났다. 그사이 그의 이름은 세상에 완전히 잊혔다. 그가 놀랍고도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었던 그 때, 즉 '구멍 뚫린 바늘' 사건 이후부터다.

헐록 숌즈와 이지도르 보트의let의 눈앞에서, 그가 사랑하는 여자의 시체를 등에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날, 그리고 그의 옛 하녀 빅투아르가 뒤를 따라간 그 날 이후였다.

그 날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죽은 줄로 알았다.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다. 경찰은 그의 흔적을 하나도 찾지 못했기에, 그냥 묻어버린 셈이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그가 살아남았다고 믿었다. 그는 평온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원을 가꾸며 아내와 아이들 곁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슬픔에 짓눌려, 이 세상의 허망함에 지친 나머지 트라프ist 수도원에 숨어 지내며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가 다시금 사회와의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르센 뤼팽이 다시 아르센 뤼팽이 되었다. 기발하고, 손이 가지 않으며, 당황하게 하고, 대담하며, 천재적인 아르센 뤼팽이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아르센 뤼팽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의 행위는 야만적이고 잔혹했으며, 냉혹한 냉소주의가 가득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이제껏 사람들이 믿어 왔던 그 호감 가는 영웅, 기사도적 모험가, 필요하면 감성적인 면모까지 갖춘 그의 전설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대신 인간성을 잃고 피를 갈망하는 사나운 괴물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군중은 이제 자신의 옛 우상을 저주하며 두려워했다. 그 증오와 공포는 더욱 격렬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에게 경쾌한 우아함과 재치 넘치는 유머로 가득 찬 좋은 기질을 보며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포에 질린 군중의 분노는 이제 경찰을 향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웃었다. komisar가 구타당해도, 그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맞았는지 보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장난은 너무 길어졌다. 이제 사람들은 분노와 격분으로, 권력이 막을 수 없는 죄악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런 분노는 신문과 공개 모임, 거리, 심지어 의회 연단에서도 폭발했다. 정부는 이에 동요하며 모든 수단으로 대중의 고조를 진정시키려 했다.

발랑글레 총리는 경찰 관련 사안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수장관과 함께 중요한 사건들을 면밀히 추적하곤 했는데, 그에게서 독립적인 자질과 품성을 높이 사던 탓이었다.

총리는 자신의 집무실로 치안총감과 검찰총장을 불러들였다. 두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르노망 씨를 불렀다.

"네, 르노망 씨. 케셀바흐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특히 치안총감을 괴롭히는 문제지."

"델롬 씨, 르노망 씨에게 설명해 주시겠소?"

"오, 르노망 씨라면 이 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총경은 부하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어조로 말했다. "나도 그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 팔라스 호텔에서 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내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르노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발랑글레가 물었다.

"제 사임장입니다, 회장님."

발랑글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사임이라니? 총감이 별일 아닌 건으로 지적했을 뿐인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렇지, 델로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네, 레노르망 씨. 너 정말 성미가 고약하군. 자, 그 종이를 주워 넣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보안국장은 자리에 다시 앉았다. 총감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발랑글레가 침묵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두 마디로 정리하자, 레노르망. 뤼팽이 다시 등장한 건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 녀석이 우리들을 오랫동안 조롱해 왔지. 인정하지만, 그때는 재밌었다. 나조차도 먼저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인 사건이다. 뤼팽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때는 참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죽인다면, 그건 안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 각하,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음,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그의 체포, 그다음은 그의 목입니다."

"체포는 언젠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체포만 되면 공판법정으로 가는 것은 물론, 유죄 판결과 단두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뤼팽은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뭐라고? 넌 미쳤나, 르노망. 팔라스 호텔 시신들은 그냥 허구일지도 몰라. 삼중 살인 사건 따위는 없었던 거야?"

"맞아요. 하지만 그건 뤼팽이 저지른 게 아니에요."

르노망은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평정심과 확신을 담아 그 말을 꺼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반박했다. 하지만 발랑글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르노망, 넌 이 추측을 무작정 내세우는 게 아니지? 뭔가 심각한 근거가 있는 거야?"

"그건 추측이 아닙니다."

"증거는?"

"두 가지, 먼저 도덕적 성격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즉시 검사에게 밝혔고, 신문들도 강조했죠. 첫째, 뤼팽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의 목적은 절도였는데, 이미 그 목적은 달성했고, 묶이고 입마개를 한 상대에게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 죽였겠습니까?"

"좋소.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이성과 논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실은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죠. 담배갑이 발견된 방에 뤼팽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발견된 검은 옷은 분명 살인자의 것이었겠지만, 그 크기가 아르센 뤼팽의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아는군요?"

"나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에드워스는 봤고, 구렐도 봤다. 그들이 본 사람은, 하녀가 계단에서 채프먼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본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럼 당신의 결론은 무엇인가?"

"'진실'이라고 하시는 건가, 대통령閣下. 알겠다. 내가 아는 진실을 말해주마. 4월 16일 화요일, 오후 두 시쯤 한 남자가 켈스바흐 씨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 남자는…… 뤼팽이었다."

레노르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바가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건 경찰청장이었다.

"레노르망 씨,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마시오. 그날 오후 세 시, 켈스바흐 씨가 리옹 은행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금고실로 내려갔고, 등기부에 그의 서명이 남아 있죠."

레노르망 씨는 상관이 말을 마칠 때까지 정중하게 기다렸다. 그러고는 공격에 바로 대답하는 수고조차 생략한 채, 그는 계속했다.

오후 두 시쯤, 뤼팽은 동조자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케셀바흐 씨를 묶고, 가진 현금을 모두 빼앗았다. 그리고 리옹 신용은행 금고 비밀번호까지 빼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순간, 마르코는 곧장 떠났다. 그는 다른 동조자 한 명과 합류했다. 그 사람은 케셀바흐 씨와 외모가 비슷했다. 그는 이날 케셀바흐 씨와 비슷한 옷을 입고 금안경을 써서 그 유사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리옹 신용은행에 들어갔다. 케셀바흐 씨의 서명을 모방해 금고의 돈을 모두 꺼내 나갔다. 마르코가 동행했다. 마르코는 즉시 뤼팽에게 전화를 걸었다.

뤼팽은 케셀바흐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목적도 달성했으므로,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발랑글레는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그래, 그래. 그렇게 치자. 하지만 뤼팽 같은 남자가 그토록 큰 모험을 감수한 이유가, 지독히 초라한 이득 때문이라는 게 의아하군. 지폐 몇 장과, 여전히 불확실한 금고 속 내용물 따위 때문에?"

"뤼팽이 노린 것은 그 이상이었다. 여행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마로컨 가죽 봉투, 혹은 금고 속에 있던 흑단 상자를 원했지. 상자는 이미 확보했어. 비어 있는 상태로 돌려보냈으니까. 그러니 오늘쯤이면, 혹은 곧 알게 될 거야. 켈스바흐 씨가 죽기 직전 비서에게 털어놓았던 그 유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대체 뭐지?"

"모르겠습니다. 케셀바흐 씨가 그 일을 털어놓았던 흥신소 소장 바바뢰의 말로는, 케셀바흐 씨가 어떤 인물을—몰락한 자로 보이는, 피에르 르뒤크라는 이름의 사내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찾았을까요? 또 그 일이 그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좋소." 발랑글레가 결론지었다. "아르센 뤼팽에 관해선 그렇다 치고. 그의 역할은 끝났소. 케셀바흐 씨는 묶이고 털렸지만…… 살아 있었지! 그런데 그가 시체로 발견되기까지, 그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밤사이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소?"

"420호실로요. 케셀바흐 씨가 잡아둔 방 중 하나였죠. 그자는 분명 가짜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외쳤다. "그 방과 객실 사이엔 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그것도 다섯 개나 됩니다!"

"발코니가 남았죠."

"발코니라!"

"네. 유대 거리에 면한 발코니는 그 층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칸막이는요?"

"날쌘 사내라면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대는 실제로 넘었고요. 제가 그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객실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사건 뒤에도 여전히 닫혀 있던 것이 확인됐는데요."

"하나만 빼고요. 비서 채프먼의 방 창문 말입니다. 그건 걸쇠를 채우지 않고 그냥 닫아둔 상태였죠.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총리도 다소 흔들리는 기색이었다. 르노망 씨의 설명이 그만큼 논리적이고 치밀하며 확실한 사실들로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커지는 관심을 띠고 물었다.

"그 남자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왔단 말이오?"

"모르겠습니다."

"아, 모른다…"

"네, 그자의 이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럼 왜 죽인 거요?"

"그것도 모릅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그자는 죽일 의도로 온 게 아니라, 그 역시 마로킨 가죽 봉투와 상자에 든 문서를 손에 넣으려는 생각으로 왔던 것이며, 우연히 무력해진 적과 맞닥뜨리게 되자 그를 죽여버렸다고요."

발랑글레가 중얼거렸다.

"그럴 수도 있겠군… 그래,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당신 생각엔, 그자가 그 문서를 찾아냈을 것 같소?"

"그는 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거기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 가방 바닥에서 검은 마로킨 가죽 봉투를 찾아냈죠. 그래서 뤼팽과… 그 다른 자는 둘 다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둘 다 케셀바흐의 계획에 관해 똑같은 것을 알고 있는 셈이죠."

"즉, 둘이 서로 맞붙게 된다는 말이군." 총리가 지적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됐죠. 살인자는 아르센 뤼팽의 명함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시체에 핀으로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황이 아르센 뤼팽에게 불리해지죠. 따라서 아르센 뤼팽이 범인이 되는 겁니다."

"과연… 과연 그렇군." 발랑글레가 말했다. "계산이 빈틈없었어."

"또 다른 우연이, 그것도 이번엔 불운한 우연이 없었더라면 그 계략은 성공했을 겁니다." 르노망 씨가 말을 이었다. "살인자가—갈 때든 돌아올 때든—420호실에 담배 케이스를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또 호텔 보이 구스타브 뵈도가 그것을 줍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그때부터 그자는 자신이 발각됐거나 곧 발각되리란 걸 알고…"

"그걸 어떻게 알았답니까?"

"어떻게라뇨? 바로 예심판사 포메리 본인을 통해서죠. 수사가 문을 죄다 열어놓은 채 진행됐으니까요! 예심판사가 구스타브 뵈도를 다락방으로 담배 케이스를 가지러 보냈을 때, 살인자는 분명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즉 호텔 직원이나 기자들 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뵈도가 올라갔죠. 그자가 뒤따라가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건은 차근차근 재구성되었고, 그 모습은 현실감과 그럴듯한 정확성으로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럼 세 번째 희생자는요?" 발랑글레가 물었다.

"그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셈이죠. 뵈도가 돌아오지 않자, 채프먼은 직접 그 담배 케이스를 살펴보고 싶은 호기심에 호텔 지배인과 함께 나섰습니다. 그러다 살인자에게 들켜 그자에게 이끌려 어느 방으로 들어갔고, 그 역시 살해당한 거죠."

"하지만 케셀바흐 씨와 구스타브 뵈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걸 빤히 알면서, 어째서 그자에게 순순히 끌려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범행이 저질러진 방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범인이 정말 기적처럼 빠져나간 방법도 짐작이 안 갑니다."

"파란색 라벨 두 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네, 하나는 뤼팽이 돌려보낸 상자에 들어 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아마 살인자가 훔쳐간 마로킨 가죽 봉투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저로선 그 두 장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작 의미가 있는 건 케셀바흐 씨가 두 장 모두에 적어 넣은 813이라는 숫자죠. 필적이 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813이라는 숫자는요?"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혀 모릅니다."

"의심 가는 자는 없소?"

"전혀 없습니다. 제 부하 두 명이 채프먼의 시신이 발견된 층에서 팔라스 호텔 객실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호텔의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죠. 범인은 이미 떠난 사람들 중엔 없습니다."

"그 참극이 벌어지는 동안 전화가 걸려온 적은 없소?"

"네. 시내에서 누군가 파버리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층 복도에 머무는 네 사람 중 하나였죠."

"그 소령은요?"

"제 부하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에게서 수상한 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수사를 하실 거요?"

"아, 아주 명확한 방향입니다. 제 생각에 살인자는 케셀바흐 부부의 친구나 지인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뒤를 밟았고, 그들의 습관을 알고 있었으며, 케셀바흐 씨가 파리에 온 이유도 알고, 적어도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전문 범죄자는 아니라는 말이오?"

"아니요, 아닙니다. 천 번이고 아닙니다. 이 범행은 유례없는 솜씨와 대담함으로 저질러졌지만, 결국은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인은 케셀바흐 부부의 주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증거로, 케셀바흐 씨를 죽인 자가 구스타브 뵈도를 죽인 건 오로지 그 호텔 보이가 담배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채프먼을 죽인 건 그 비서가 담배 케이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프먼이 동요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담배 케이스에 대한 설명만 듣고도 채프먼은 사건의 진상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그가 담배 케이스를 직접 봤더라면 우리는 진상을 알게 됐을 겁니다. 정체불명의 그자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채프먼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머리글자 L과 M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건 총리님의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채프먼이 그 남자를 이미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면, 호텔 복도와 계단을 따라 그자를 쫓아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진실이, 적어도 그럴듯한 진실이 점점 더 단단해졌다. 어쩌면 가장 흥미로울 많은 대목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무슨 빛인가! 그 행위들을 불러일으킨 동기는 알 수 없어도, 그 비극적인 아침에 벌어진 일련의 행동만큼은 얼마나 또렷이 보였던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마다 곰곰이 생각하며 논거와 반론을 찾았다. 마침내 발랑글레가 외쳤다.

"여보게 르노망, 다 훌륭하네… 자네 말에 설득됐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더 나아간 건 없잖나."

"어째서요?"

"당연하죠. 우리 회담의 목적은 수수께끼의 일부를 푸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전체를 풀어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최대한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뤼팽이든 아니든, 용의자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아니면 한 명뿐이든, 그건 용의자의 이름도, 체포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대중은 늘 이런 끔찍한 인상을 받습니다. 즉, 정의가 무력하다는 인상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확히 말해, 대중이 원하는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뿐이죠. 대중은 행동을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즉 체포만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젠장, 젠장! 그래도 아무나 붙잡을 수는 없잖소."

"아무도 잡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 발랑글레가 웃으며 말했다. "자, 잘 찾아보게. 케셀바흐의 하인 에드워즈는 확신하나?"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총리님. 그건 위험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이며, 검찰총장님 본인도 분명… 우리가 체포할 권리가 있는 자는 둘뿐입니다. 살인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아르센 뤼팽이죠."

"그래서?"

"아르센 뤼팽은 잡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시간이 필요하죠. 일련의 조치를 갖춰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걸 짜맞출 겨를이 없었습니다. 뤼팽은 손을 씻었거나 죽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발랑글레는 자신의 바람이 그 자리에서 당장 이뤄지길 좋아하는 사람답게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하지만… 하지만… 친애하는 르노망 씨,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당신에게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 있지 않았다면… 결국, 당신이 이렇게 발을 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범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뤼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코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옹 신용은행 지하로 내려가려고 케셀바흐 씨로 분장했던 그 악당도 있습니다."

"그자 하나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충분하고말고요! 이런,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렇다면 8일만 주십시오."

"8일이라니! 그건 며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애하는 르노망 씨. 그저 몇 시간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발랑글레는 시계를 꺼내며 비웃듯 웃었다.

"10분만 드리죠, 르노망 씨."

안전부장이 시계를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4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각하."

발랑글레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4분이 너무 많다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 허락하신 10분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딱 6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봐요, 르노망… 농담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는데…"

안전부장은 창가로 다가가, 안뜰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거니는 두 사람에게 손짓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검찰총장님, 다일롱 오귀스트-마크시맹-필리프라는 이름으로 체포 영장을 써 주십시오. 나이는 마흔일곱 살입니다. 직업란은 비워 두세요."

그는 현관문을 열었다.

"와도 돼, 구렐… 디우지도."

구렐이 디우지 형사를 데리고 나타났다.

"수갑 가져왔어, 구렐?"

"네, 청장님."

르노망 씨가 발랑글레 쪽으로 다가섰다.

"대통령 각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체포를 단념해 주시도록 가장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체포는 제 모든 계획을 헝클어뜨립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만족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르노망 씨, 한 가지 일러두자면 당신에게는 이제 8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장은 짜증을 억누르며 지팡이를 짚고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마치 입을 다물기로 작정한 듯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정한 듯 말했다.

"대통령 각하, 이 방에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각하께서 체포를 원하셨던 그 사람입니다… 제 뜻에 반하는 일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5초 남았습니다, 르노망."

"구렐… 디우지… 첫 번째 사람, 맞죠? 검찰총장 각하, 서명하셨습니까?"

"10초 남았습니다, 르노망."

"대통령 각하, 종을 울려 주시겠습니까?"

발랑글레가 종을 울렸다.

수위 한 사람이 문턱에 나타나 기다렸다.

발랑글레가 수장을 돌아보았다.

"자, 르노망.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들여보내야 합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체포를 약속한 그 악당은요? 6분은 이미 충분히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악당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참… 르노망, 나를 놀리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 방에 네 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은 다섯 명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들어온 것입니다."

발랑글레가 흠칫 놀랐다.

"뭐요? 미친 소리군… 무슨 뜻이오…"

두 형사가 문과 수위 사이로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르노망은 수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말했다.

"법령에 따라, 당신을 체포합니다. 다일롱 오귀스트-마크시맹-필리프, 국무총리청 수위장."

발랑글레는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참으로 유쾌하군. 이거 정말 재미있어. 그 능청맞은 르노망이 또 별난 짓을 하는군! 잘했어, 르노망.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 보는군…"

르노망은 검찰총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검찰총장님, 체포영장에 다일롱 씨의 직업을 적어 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무총리청 수위장이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국무총리청 수위장 말이지…" 발랑글레가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아, 이 사람 르노망은 정말 천재적인 발상을 한다니까… 대중은 체포를 원했지. 그러자 쾅, 그들 머리 위로 누구를 던져 주느냐? 바로 내 수위장 오귀스트… 모범적인 하인 말이야… 이거 참, 르노망, 자네에게 어느 정도 엉뚱한 구석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 사람아!… 정말 대담하군!"

장면이 시작된 이후 오귀스트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충직하고 성실한 하급자다운 선량한 얼굴에는 완전히 얼이 빠진 기색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상대방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르노망이 구렐에게 몇 마디 건네자 구렐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 나서 르노망은 오귀스트에게 다가가 또렷하게 말했다.

"소용없어. 넌 붙잡혔어. 판이 졌을 때는 차라리 패를 내려놓는 게 낫지. 화요일에 뭘 했어?"

"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 있었죠."

"거짓말이야. 화요일은 네 휴일이었잖아. 넌 밖에 나갔어."

"그렇긴 합니다… 이제 기억나네요…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불로뉴 숲을 거닐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마르코였지. 그리고 너희가 거닌 곳은 크레디 리오네 은행의 지하 금고였어."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르코? 그런 이름은 모릅니다."

"그럼 이건 아나?"

청장이 금테 안경 하나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며 외쳤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쓰지, 크레디 리오네 은행에 가서 케셀바흐 씨로 행세할 때는 말이야. 그 안경은 네가 제롬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콜리제 거리 5번지의 방에서 나온 거야."

"제가요? 방이라니요? 저는 청사에서 잡니다."

"하지만 거기서 옷을 갈아입지. 뤼팽 일당에서 네 역을 연기하려고."

상대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으로 문질렀다. 그는 새파랗게 질려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더 알아듣기 쉬운 게 필요한가? 자, 바로 이곳, 네 대기실 책상 아래 휴지통에 네가 버린 종이 쪼가리들 사이에서 나온 거야."

르노망은 부처의 레터헤드가 찍힌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여기저기, 더듬거리는 필체로 '루돌프 케셀바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자, 이건 어떤가, 갸륵한 하인 양반?"

르노망이 물었다.

"케셀바흐 씨의 서명 연습이잖아. 이게 증거가 안 되겠나?"

그때였다. 한 주먹이 르노망의 가슴 한복판을 강타했다. 그는 휘청 비틀거렸다.

오귀스트는 단숨에 열린 창문 앞으로 가더니, 창턱을 넘어 안뜰로 뛰어내렸다.

"젠장!" 발랑글레가 외쳤다. "아, 저 악당!"

그는 종을 울리고 달려가 창문 너머로 부르려 했지만, 르노망은 더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각하…"

"하지만 저 오귀스트라는 악당이…"

"잠시만요. 부디요."

그가 말했다.

"이런 결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일이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자백은 없습니다."

그토록 냉정한 태도에 압도당한 발랑글레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구렐이 '제롬'이라 불리는 국무총리청 수위장 다일롱 오귀스트-마크시맹-필리프의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들어왔다.

"데려왔구나, 구렐."

르노망 씨가 말했다. 사냥감을 입에 물고 돌아온 훌륭한 사냥개에게 "가져와!"라고 부르듯이.

"순순히 잡혔나?"

"조금 물긴 했습니다만, 제가 단단히 쥐고 있었죠."

반장이 크고 울퉁불퉁한 손을 내보이며 대답했다.

"좋아, 구렐. 이제 이 친구를 삯마차에 태워 유치장으로 데려가게. 작별 인사는 않겠네, 제롬 씨."

발랑글레는 무척 즐거워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웃었다. 자기 수위장이 뤼팽의 공범 가운데 하나였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더없이 유쾌하고 아이러니한 사건처럼 느껴졌다.

"잘했네, 친애하는 르노망. 모든 게 훌륭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손을 쓴 건가?"

"아,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케셀바흐 씨가 바르바뢰 흥신소에 의뢰했다는 것, 그리고 뤼팽이 그 흥신소에서 보낸 사람인 척하며 케셀바흐 씨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사를 했고, 케셀바흐 씨와 바르바뢰에게 손해를 끼친 그 정보 누설이 흥신소 직원과 친구 사이인 제롬이라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만약 각하께서 일을 서두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수위를 감시하다가 마르코에게, 그리고 뤼팽에게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요, 르노망. 내가 장담하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광경을 보게 될 거야. 바로 뤼팽과 당신의 대결 말일세. 나는 당신에게 걸겠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실었다.

"친애하는 선생이자 벗이여, 수위 제롬을 체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정말 훌륭하고 빈틈없는, 당신다운 솜씨였소."

"제게도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총리에게 제가 케셀바흐의 살인자가 아님을 입증하신 그 기막힌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논증은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진실이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대인들의 존경과 당신의 존경은, 친애하는 선생이자 벗이여,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그 흉악한 살인자를 쫓는 일을 제가 돕고, 케셀바흐 사건에 한 번 더 힘을 보태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어찌나 흥미롭고 제 관심을 끌 만한지, 저는 지난 사 년간 책과 충실한 개 셜록과 함께 보내던 은둔 생활을 떨치고, 옛 동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다시 싸움판에 뛰어듭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뜻밖의 반전을 가져오는군요! 이제 저는 당신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선생이자 벗이여, 제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운명이 내려 준 이 행운을 그 가치만큼 제대로 음미하고 있음을 믿어 주십시오."

추신. —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신도 분명 동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깃발 아래에서 싸우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던 신사가 당신네 감옥의 축축한 짚더미 위에서 썩어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미리 알려 드립니다. 5주 후인 5월 31일 금요일에, 저는 제롬 씨를 풀어 줄 것입니다. 그는 제가 총리실의 수위장(廷吏 우두머리)으로 승진시킨 사람입니다. 날짜를 잊지 마십시오.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 A. L.

제3장

오스만 대로와 쿠르셀 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1층. 바로 거기에 세르닌 공작이 산다. 그는 파리의 러시아인 사교계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의 이름은 신문의 '출장 및 휴양지'란에 수시로 오르내린다.

오전 11시. 공작이 서재로 들어선다. 그는 서른다섯에서 마흔 살쯤 된 남자로,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 머리카락 몇 올이 섞여 있다. 혈색은 건강해 보이고, 굵은 콧수염을 길렀으며, 구레나룻은 싱싱한 뺨 위에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아주 짧게 깎여 있다. 그는 허리를 조이는 회색 프록코트를 단정하게 걸치고, 흰 능직천이 드러나 보이는 조끼를 받쳐 입었다.

"자, 오늘 하루는 만만치 않겠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몇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넓은 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말했다.

"바르니에가 있나? 들어와, 바르니에."

그가 부르자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작은 부르주아 같은 풍채의 그 남자는 다부지고 튼튼했으며, 두 다리로 굳건히 버티고 섰다. 공작은 그 남자가 들어오자 문을 닫았다.

"자, 상황은 어떤가, 바르니에?"

"오늘 밤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상사님."

"좋아. 간단히 설명해 봐."

"이렇습니다. 남편이 피살당한 이후, 케셀바흐 부인은 상사님이 보내게 한 전단지를 믿고 거르슈에 있는 부인 전용 요양원을 거처로 골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입소객들과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원하는 부인들에게 관리측이 임대해 주는 네 개의 별채 중, 정원 끝자락의 마지막 별채인 '황후의 별채'에 살고 있습니다."

"사용인은?"

"그녀의 말벗인 제르트루드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 뒤 부인과 함께 도착했지요. 그리고 제르트루드의 자매인 수잔도 있습니다. 부인이 몬테카를로에서 불러와 하녀로 쓰고 있고요. 두 자매는 부인에게 더없이 헌신적입니다."

"에드워즈, 그 시종은?"

"부인이 그를 두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외부인과 만나나?"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긴 의자에 누워서 지냅니다. 몹시 허약하고 병약해 보입니다. 눈물도 많고요. 어제는 예심판사가 두 시간이나 부인 곁에 머물렀습니다."

"좋아. 이제 그 아가씨 얘기로군."

"제네브르브 에르몽은 도로 건너편에 삽니다. 들판 쪽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인데, 그 골목 오른쪽에서 세 번째 집입니다. 그녀는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몽 할머니도 함께 살고 계시고요."

"네가 편지로 써 준 대로라면, 제네브르브 에르몽과 케셀바흐 부인이 서로 알게 됐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아가씨가 학교 운영비를 보태 달라고 케셀바흐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둘은 서로 마음이 맞은 모양인지, 나흘 전부터 빌뇌브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은 요양원 정원이 딸려 있는 곳이고요."

"언제 나가나?"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입니다. 여섯 시 정각이 되면 아가씨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준비해 뒀다는 거지……."

"오늘은 여섯 시야. 준비는 다 됐어."

"사람은 없겠지?"

"이 시간에 공원에는 언제나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 내가 가지. 가 봐."

그는 현관문으로 그를 내보낸 뒤, 대기실로 돌아와 불렀다.

"두데빌 형제."

두 젊은이가 들어왔다. 옷차림은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멋을 부렸고, 눈빛은 생기 있었으며 표정은 호감이 갔다.

"안녕, 장. 안녕, 자크. 경찰청 쪽에 새 소식은 없나?"

"별것 없습니다, 상사."

"르노망 씨는 여전히 자네들을 신뢰하고 있나?"

"늘 그렇습니다. 구렐 다음으로 우리가 그분이 가장 아끼는 형사들이니까요. 그 증거로, 채프먼이 살해당할 당시 2층 복도에 살던 사람들을 감시하라고 그분이 우리를 팰리스 호텔에 배치하셨죠. 매일 아침 구렐이 와서, 우리는 당신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보고를 그에게 합니다."

"좋아. 경찰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말이 오가는지 내가 빠짐없이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르노망이 자네들을 자기 부하로 믿는

한, 나는 상황을 손에 쥐고 있는 거야. 그래, 호텔에서는 무슨 단서라도 찾아냈나?"

형인 장 두데빌이 대답했다.

"방 하나를 쓰던 그 영국인 여자가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 여자에 관한 정보는 이미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옆방에 살던 파버리 소령은?"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파버리 소령이 정오 오십 분 기차에 부치려고 자기 짐을 북역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자동차로 따로 떠났습니다. 저희가 기차 출발 시간에 맞춰 나가 봤지만, 소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짐은?"

"역에서 도로 찾아갔습니다."

"누가?"

"들은 바로는 심부름꾼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방은 묘연해진 셈이군?"

"드디어!" 공작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다른 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가 말했다. "바로 이게 단서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채프먼 살해는 이 복도에 있는 방들 가운데 하나에서 저질러질 수밖에 없었어. 케셀바흐 씨의 살인범이 비서를 데려간 곳도, 그를 죽인 곳도, 옷을 갈아입은 곳도 바로 거기야. 그리고 살인범이 떠난 뒤 시신을 복도에 내다 놓은 건 공범이지. 그런데 그 공범이 누구냐? 파버리 소령이 사라진 방식을 보면 그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 어서 르노망 씨나 구렐 씨에게 이 희소식을 전화로 알려. 경찰청이 최대한 빨리 알아야 해. 그 양반들과 나는 손을 맞잡고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는 그들에게, 세르닌 공작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경찰 형사 노릇도 하는 이중 역할에 관해 몇 가지를 더 당부한 뒤 돌려보냈다.

대기실에는 아직 두 명의 손님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중 한 명을 안으로 들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사님. 이제 온전히 당신 차례입니다. 피에르 르듀는 어떻습니까?"

"오, 이런!" 세르닌이 말했다. "오늘 아침 당신 쪽지를 받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소. 하지만 그래도 가엾은 친구가 오래 버티지는 못했군……."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졸도 한 번에 그것으로 끝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당신은 확신하오? 벨빌의 음침한 주막에서 우리 둘이 함께 그자를 끌어냈던 날 이후로, 당신의 병원에서는 아무도 그이가 바로 경찰이 쫓고 있는 신비한 피에르 르듀, 케셀바흐가 필사적으로 찾고자 했던 바로 그 피에르 르듀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별도의 방을 쓰고 있었죠. 게다가 저는 그의 왼손을 붕대로 감싸서, 새끼손가락의 상처가 보이지 않게 했어요. 뺨의 흉터는 수염 아래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직접 감시했소?"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시에 따라, 그가 가장 정신이 맑아 보이는 순간을 틈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뚜렷하지 않은 중얼거림뿐이었습니다."

공작이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죽었다……. 피에르 르듀가 죽었어……. 케셀바흐 사건 전체가 분명 그에게 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자기 자신과 자기 과거에 대해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리다니…….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이 모험에 내가 뛰어들어야 하나? 위험해……. 나도 가라앉을 수 있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외쳤다.

"아! 될 대로 되라지! 그래도 나는 간다. 피에르 르듀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 판을 그만둘 이유는 없지. 오히려 반대야! 기회가 너무나 구미가 당겨. 피에르 르듀는 죽었다. 피에르 르듀 만세! …… 가시오, 박사님. 댁으로 돌아가시오. 오늘 밤 전화하겠소."

박사가 나갔다.

"자, 이제 우리 둘 차례군, 필리프." 세르닌이 마지막 방문객에게 말했다. 회색 머리의 자그마한 남자로, 호텔 보이 같은 차림이었지만 그것도 아주 삼류 호텔 보이 같은 행색이었다.

"사장님," 필리프가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사장님께서 저를 베르사유의 두 황제 호텔(되장페뢰르)에 시종으로 들여보내, 한 젊은이를 감시하게 하셨죠."

"그래, 알고 있어… 제라르 보프레 말이야. 어떻게 돼 가나?"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고?"

"여전합니다. 자살하려 합니다."

"진심인가?"

"아주 진지합니다. 그의 서류 속에서 연필로 쓴 이 짤막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 오!" 세르닌이 메모를 읽으며 말했다. "자기 죽음을 예고하고 있군… 그것도 오늘 밤에!"

"네, 사장님. 밧줄도 샀고 천장에 갈고리도 박아 뒀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그에게 접근했더니,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세르닌 공작은 부자이시고 인심도 후하시니, 어쩌면 도와주실 거요'라고요."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그가 오겠다는 거지?"

"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제가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파리행 기차를 탔고, 지금은 큰길에서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습니다. 곧 결심을 굳힐 겁니다."

그때 하인이 명함을 가져왔다. 공작은 그것을 읽고 말했다.

"제라르 보프레 씨를 들여보내게."

그리고 필리프를 향해 말했다.

"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듣되 꼼짝 말고 있어."

혼자 남은 공작은 중얼거렸다.

"내가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나? 운명이 보내 준 거지, 바로 저 친구를…"

몇 분 뒤, 키가 크고 깡마른 금발 청년이 들어왔다. 야윈 얼굴에 눈빛은 열에 들뜬 듯했다. 그는 문턱에 서서 당황한 듯 망설였다. 손을 내밀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거지 같은 모습이었다.

대화는 짧았다.

"제라르 보프레 씨 맞습니까?"

"네… 네, 접니다."

"초면인 것 같은데요…"

"저, 선생님… 그게… 누가 말하길…"

"누가 말이오?"

"선생님 댁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호텔 보이가…"

"그래서, 요컨대?"

"그게…"

청년은 공작의 오만한 태도에 기가 죽어 말을 멈췄다. 공작이 외쳤다.

"그래도 선생, 어쩌면 말씀을 해 주셔야…"

"저, 선생님… 선생님께서 무척 부유하고 인심이 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라면…"

그는 간청과 굴욕이 담긴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말을 멈췄다.

세르닌이 그에게 다가갔다.

"제라르 보프레 씨, '봄의 미소'라는 시집을 내신 적 있지요?"

"네, 네!"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다. "읽어 보셨습니까?"

"네… 아주 좋더군요, 당신 시…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시들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살 작정인가요?"

"물론…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까마득하겠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나한테 먹고살 거리를 청하러 온 거고요?"

"먹을 것 말입니다, 선생님."

세르닌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갑게 말했다.

"시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운율과 꿈으로 산다고 하죠. 그러니 손 내밀지 마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젊은이는 모욕에 몸이 떨렸다. 말 없이, 그러나 빠르게 문쪽으로 향했다.

세르닌이 그를 막아섰다.

"한 마디만 더 하죠, 선생님.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뭔가를 보내달라고 간곡히 청했죠. 오늘 그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답장이 오지 않으면, 아마도 오늘 밤 바로……"

"네, 선생님."

그는 담담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르닌은 폭소했다.

"이런! 당신 참 우습군요, 착한 젊은이! 그 순진한 확신이라니! 내년에 다시 날 보러 와요, 그래 주겠어요? 그때 이 모든 걸 다시 이야기합시다…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고… 무엇보다 우스워요, 하하하!"

그러고는 웃음에 들썩이며 과장된 몸짓과 인사로 그를 문밖으로 내보냈다.

"필리프," 그는 호텔 보이에게 문을 열어 주며 말했다. "들었나?"

"네, 사장님."

"제라르 보프레가 오늘 오후에 전보를,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

"네, 마지막 탄환이죠."

"그 전보를, 그가 받게 해선 안 돼. 도착하면 중간에서 가로채 찢어버려."

"알겠습니다, 사장님."

"호텔에 너 혼자 있나?"

"네, 입주하지 않고 밤이면 돌아가는 여자 요리사 말고는 저 혼자입니다. 주인은 출타 중이고요."

"좋아.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오늘 밤, 열한 시쯤 보자고. 가 봐."

세르닌 공작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하인을 불렀다.

"모자와 장갑, 지팡이를 가져오게. 차는 와 있나?"

"네, 나리."

그는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가, 넓고 안락한 리무진에 올랐다. 차는 그를 불로뉴 숲에 있는 가스틴 후작 부부의 저택으로 데려갔고, 그는 그곳 점심에 초대받은 터였다.

두 시 반, 그는 자신을 초대한 주인 부부와 작별하고 클레베르 거리에 들렀다. 거기서 친구 두 명과 의사 한 명을 태우고, 세 시 오 분 전에 프랭스 공원에 도착했다.

세 시, 그는 이탈리아인 스피넬리 소령과 사브르로 결투를 벌여 첫 합에 상대의 귀를 베어 냈다. 세 시 사십오 분에는 캉봉 거리의 한 클럽에서 도박판의 물주를 잡아, 다섯 시 이십 분에 사만 칠천 프랑의 이득을 챙기고 자리를 떴다.

그 모든 일을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오만한 무심함으로 해치웠다. 마치 그의 삶을 행동과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는 그 격렬한 움직임이, 더없이 평온한 일상의 규칙이기라도 한 것처럼.

"옥타브," 그가 운전수에게 말했다. "가르슈로 가지."

그리고 여섯 시 십 분 전, 그는 빌뇌브 공원의 낡은 담장 앞에서 차를 내렸다.

이제 헐리고 망가졌지만, 빌뇌브 영지는 외제니 황후가 이곳에 와 해산하던 시절의 영화를 아직 얼마간 간직하고 있다. 오래된 나무들과 연못, 생클루 숲이 펼쳐 보이는 우거진 잎의 지평선이 어우러진 그 풍경에는 우아함과 애수가 깃들어 있다.

영지의 상당 부분은 파스퇴르 연구소에 기증되었다. 그보다 작은 한 구역은, 일반에 개방된 공간 전체에 의해 앞의 구역과 갈라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꽤 넓은 사유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 안에는 요양원을 중심으로 외딴 별채 네 채가 서 있었다.

‘저기가 케셀바흐 부인이 사는 곳이군.’ 공작은 멀리 주택과 네 별채의 지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그는 공원을 가로질러 연못 쪽으로 향했다.

그는 갑자기 나무 무리 뒤에서 걸음을 멈췄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 난간에 기대선 두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바르니에와 그 부하들이 근처에 있을 텐데. 한데, 제기랄, 어찌나 잘 숨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두 여인은 이제 우람한 고목들 아래 잔디밭 풀을 밟으며 거닐고 있었다. 잔잔한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푸른 하늘이 비쳤고, 공기에는 봄과 갓 돋은 초목의 내음이 감돌았다.

고요한 물가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잔디 비탈에는 데이지, 양앵두꽃, 제비꽃, 수선화, 은방울꽃 등 4월과 5월의 온갖 작은 꽃들이 무리 지어, 여기저기 갖가지 빛깔의 별자리를 이루고 있었다. 해는 지평선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세 남자가 덤불에서 튀어나와 산책하던 두 여인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두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몇 마디 말이 오갔다. 두 여인은 눈에 띄게 겁에 질린 기색이었다. 그중 한 남자가 키 작은 쪽으로 다가가, 그녀가 손에 쥔 금빛 돈주머니를 낚아채려 했다.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자, 세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지금이야말로 나설 때다.' 공작은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날렸다.

십 초도 안 되어 그는 거의 물가에 다다랐다.

그가 다가오자 세 남자는 달아났다.

"도망쳐라, 악당들아." 그가 비웃었다. "죽어라 줄행랑쳐라. 구원자가 나타나셨으니."

그러고는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인들 중 하나가 그에게 애원했다.

"오, 선생님, 제발요. 제 친구가 아파서요."

사실 두 산책객 가운데 키 작은 쪽은 잔디밭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발길을 돌려 다가오며 근심스레 물었다.

"다친 건 아닙니까? 혹시 그 악당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 놀라서 그래요…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곧 아시겠지만… 이분이 케셀바흐 부인이세요…"

"아!" 그가 탄성을 질렀다.

그가 각성제 병을 건네자, 젊은 여인이 곧바로 친구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그가 덧붙였다.

"마개로 된 자수정을 들어 올리세요. 작은 갑이 있고, 그 안에 알약이 들어 있습니다. 부인께 한 알만 드리도록 하세요… 한 알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약효가 아주 셉니다…"

그는 젊은 여인이 친구를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금발에 차림새가 무척 소박했고, 얼굴은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으며, 웃고 있지 않을 때조차 이목구비에 생기를 불어넣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제네비브로구나.'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감격에 겨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제네비브… 제네비브…'

한편 켈스바흐 여사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놀란 듯 영문을 모르는 기색이었다. 그러다 기억이 돌아오자, 고개를 끄덕여 구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때 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세르닌 공작입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인. 감사해야 할 건 우연이에요. 우연이 저의 산책을 이쪽으로 이끈 것이죠. 그런데 제 팔을 잡으시겠어요?"

몇 분 후, 켈스바흐 여사는 요양원에 도착해 종을 울렸고, 공작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인, 그것만이 진상을 알아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상을 알려면 수사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제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심문을 받고, 지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기력이 다했습니다."

공작은 더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가끔 안부를 여쭤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그녀는 제네비브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세르닌은 제네비브가 혼자 돌아가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오솔길로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떨어져 나온 한 그림자가 그들 쪽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제네비브가 외쳤다.

그녀는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퍼붓는 노파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 내 사랑, 내 사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이렇게 늦었어?… 늘 시간을 잘 지키던 네가!"

제네비브가 소개했다.

"할머니, 이분은 세르닌 공작님이세요… 공작님, 제 할머니 에르몽 부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네비브는 그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에르몽 부인은 거듭 말했다.

"오, 내 사랑, 얼마나 무서웠겠니!… 선생님,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맹세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겠구나, 내 가엾은 것!"

"자, 할머니, 제가 이렇게 무사히 왔으니 진정하세요…"

"그래도 그 놀란 충격 때문에 탈이 날 수도 있어… 후유증은 알 수 없는 거란다… 오, 끔찍해라…"

그들은 울타리를 따라 걸었다. 그 너머로 나무가 심긴 마당과 몇몇 화단, 지붕이 있는 운동장, 그리고 하얀 집이 어렴풋이 보였다.

집 뒤편에는 정자처럼 우거진 딱총나무 덤불에 가려 작은 쪽문이 나 있었다.

노부인은 세르닌 공작에게 들어오기를 청하며, 응접실을 겸한 작은 거실로 그를 안내했다.

제네비브는 학생들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잠시 그들을 보러 가도 되겠냐고 공작에게 양해를 구했다.

공작과 에르몽 부인만 남았다.

노부인은 흰머리 아래로 창백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가운데로 갈라 빗은 머리는 양옆에서 두 가닥의 세로 곱슬로 늘어져 있었다. 몸집이 너무 비대하고 걸음이 둔중한 그녀는, 귀부인다운 외모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다소 천박한 데가 있었지만, 두 눈만은 한없이 선했다.

그녀가 걱정을 늘어놓으며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세르닌 공작이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 쥐고 양 뺨에 입을 맞췄다.

"그래, 할멈, 잘 지냈어?"

노부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은 넋이 나가고 입은 벌어진 채였다.

공작은 다시 웃으며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녀는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너… 너로구나! 아, 맙소사… 맙소사… 이게 정말이니!… 맙소사!…"

"내 착한 빅투아르!"

"그렇게 부르지 마!" 그녀가 몸서리치며 외쳤다. "빅투아르는 죽었어… 네 늙은 유모는 이제 없어. 나는 이제 온전히 제네비브의 사람이야…"

그녀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 맙소사… 신문에서 네 이름을 똑똑히 봤어… 그래서, 정말 다시 그 나쁜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

"보다시피."

"그런데도 너는 다 끝났다고, 영영 떠난다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나한테 맹세했잖아."

"노력했지. 벌써 4년째 애쓰고 있어… 이 4년 동안 내가 세간의 입길에 오른 적 있다고는 못 하겠지?"

"그래서?"

"그래서, 따분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여전하구나… 넌 하나도 안 변했어… 아, 이젠 확실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켈스바흐 사건에 끼어든 거니?"

"물론이지! 안 그러면 뭐하러 굳이 여섯 시에 켈스바흐 부인을 노린 습격을 꾸며 놓고, 여섯 시 오 분에 그녀를 내 부하들의 손아귀에서 빼내는 수고를 했겠어? 내가 구해 줬으니 부인은 나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나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선 거야. 미망인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는 거지. 아, 어쩌겠어, 내가 사는 방식으로는 한 가로이 거닐며 자잘한 배려나 곁들이 요리 같은 걸 챙길 여유가 없어. 나는 극적인 한 방으로, 무자비한 승리로 움직여야 해."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살피며 더듬거렸다.

"알겠어… 알겠어… 이 모든 게 거짓이구나… 그런데 그럼 제네비브는…"

"흥!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 셈이었지. 어차피 구출극을 꾸미는 김에, 두 사람 몫으로 하는 게 낫잖아. 생각해 봐, 이 아이와 가까워지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쩌면 헛수고가 될지도 모를 노력을 들여야 했겠어! 그 애한테 나는 뭐였지? 앞으로도 뭐가 될 수 있었겠어? 모르는 사람… 생판 남이지. 그런데 지금은 구원자야. 한 시간 뒤면… 친구가 될 거고."

그녀가 떨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너는 제네비브를 구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너는 우리를 네 일에 끌어들이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반발심이 치밀어, 그의 어깨를 움켜쥐며 말했다.

"그래, 안 돼, 난 이제 지긋지긋해, 알겠니? 언젠가 너는 이 아이를 나한테 데려와서 이렇게 말했지. '자, 이 애를 너한테 맡길게… 부모는 죽었어… 네가 맡아 줘.' 그래, 그 애는 여기, 내 보호 아래 있어. 그리고 나는 너로부터, 네 온갖 술책으로부터 이 애를 지켜낼 거야."

두 주먹을 꽉 쥐고 단단히 버티고 선 에르몽 부인은, 결연한 얼굴로 어떤 일이든 각오한 듯 보였다.

세르닌 공작은 거칠지 않게, 차분히 자신을 움켜쥔 두 손을 하나씩 떼어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자신이 노부인의 양어깨를 붙잡아 안락의자에 앉히고, 그녀에게 몸을 굽혀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곧바로 굴복해 울음을 터뜨리며, 세르닌 앞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둬.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나는 네가 우리를 잊은 줄 알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늘에 감사했단다.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무척 아껴. 하지만 제네비브는… 있잖니, 그 애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 애가 내 마음속에서 네 자리를 대신했거든."

"그런 것 같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할멈은 기꺼이 날 지옥으로 쫓아 버리고 싶겠지. 자, 실없는 소리는 그만! 나는 허비할 시간이 없어. 제네비브와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 애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죄라도 되나?"

"그 애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

"비밀이야… 아주 중대한 비밀… 아주 가슴 뭉클한 비밀이지…"

노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게 혹시 그 애를 슬프게 하는 건 아니고?… 오, 나는 다 무서워… 그 애 일이라면 뭐든 무서워…"

"저기 오는군." 그가 말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아니, 들려, 그 애 소리가 들려… 눈물 닦고 정신 좀 차려…"

"들어 봐." 그녀가 다급히 말했다. "들어 봐,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애한테 어떤 비밀을 털어놓을지 나는 몰라… 하지만 그 애를 아는 내가 너한테 이것만은 말해 두마. 제네비브는 기개 있고 강인하지만, 동시에 무척 예민한 아이야. 말조심해… 너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감정을 그 애 마음속에서 건드릴지도 몰라…"

"대체 왜 그런데?"

"그 애는 너와는 다른 부류,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다른 세계 말이야… 지금의 네가 이해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 너희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단다… 제네비브는 더없이 순수하고 드높은 양심을 지녔어… 그런데 너는…"

"나는?"

"그리고 너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제네비브가 들어왔다.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십 분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영 이상하신데… 또 그 사건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아가씨." 세르닌이 말했다. "할머님을 안심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신에 대해,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어요. 할머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면 감정이 북받치시는 듯하더군요."

"제 어린 시절이요?…" 제네비브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오, 할머니도 참!…"

"할머님을 나무라지 마세요, 아가씨. 우연히 대화가 그쪽으로 흘러간 것뿐입니다. 마침 제가 당신이 자란 작은 마을을 자주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스프르몽이요?"

"니스 근처 아스프르몽이죠… 거기서 온통 하얀, 새로 지은 집에 사셨고요…"

"네." 그녀가 말했다. "온통 하얀 집이었어요, 창문 둘레에 파란 페인트를 조금 칠한… 일곱 살에 아스프르몽을 떠났으니 아주 어렸지만, 그 시절의 사소한 것들까지 다 기억나요. 하얀 정면 벽에 쏟아지던 햇살도, 정원 끝의 유칼립투스 그림자도 잊지 않았어요…"

"정원 끝에는 올리브나무 밭이 있었죠, 아가씨.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 한 그루 아래에는 더운 날이면 어머니가 일하시던 탁자가 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녀는 몹시 마음이 흔들린 채 말했다. "저는 그 옆에서 놀았고요…"

"바로 그곳에서 저는 당신 어머니를 여러 번 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을 보자마자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더 밝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불행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던 날 돌아가셨고, 그분은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에 잠기셨죠.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던 작은 손수건이 아직 제게 남아 있거든요."

"분홍색 무늬가 있는 작은 손수건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놀랍네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위로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본 순간부터 잊히지 않았죠."

그녀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의 눈빛과 목소리… 기억나네요."

그녀는 잠시 눈꺼풀을 내렸고, 잊혀져 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 고요히 몸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머니를 알고 있었나요?"

"저는 아스프르몽 근처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죠. 마지막에 봤을 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슬려 보였고, 얼굴빛도 더 창백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이미 끝난 일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제네비브가 말했다. "네, 그녀는 몇 주 만에 아주 빠르게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고, 그녀를 돌봐주던 이웃들만 있었죠. 그리고 어느 아침, 그들이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날 밤, 제가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불로 저를 감싸주고…"

"남자였나요?" 공작이 물었다.

"네, 남자였어요. 그는 아주 낮고 부드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저에게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저를 도로로 데려가고, 밤중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는 저를 달래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같은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그를 바라보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낯선 느낌을 제대로 붙잡으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가 물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거기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요.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진 것만 같아요. 문득 깨어나 보니, 저는 비엔드 지방의 마을, 몽테규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에요. 이제로 부부 밑에

서 자랐죠. 정말 착한 분들이었죠. 저를 먹이고 기르고 키워 주셨어요. 그들의 헌신과 다정함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들도 이미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장티푸스 유행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병이 시작된 순간, 저는 처음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저를 데려갔죠. 이불로 저를 감싸 안은 채로요.

다만 이번에는 제가 더 컸습니다. 몸부림쳤고, 비명을 지르려 했죠. 그래서 그는 손수건으로 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몇 살이었나요?"

"열네 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자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겠네요?"

"아니요. 이번에는 그가 더 철저히 숨었습니다.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세심한 배려와, 조심스러운 손길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엔 어땠나요?"

"그리고 나서, 옛날처럼 잊혀짐과 잠이 찾아왔지. 이번엔 내가 아팠나 봐. 열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밝고 화사한 방에서 눈을 떴어.

하얀 머리카락의 한 아가씨가 내 곁에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지. 바로 할머니셨어. 그리고 그 방은 내가 위에서 쓰는 방이었지."

그녀는 다시 행복한 표정을 짓고, 빛나는 듯한 아름다운 표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서 에르몽 부인이 어느 날 밤, 문턱에서 잠든 나를 발견했다는 거야. 그녀가 나를 거두어 주었고, 할머니가 되어 주셨지. 그리고 몇 가지 시련을 겪은 끝에, 아스프르몽의 작은 딸은 평온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반항적이거나 게으른 소녀들에게 계산과 문법을 가르치고 있어. 하지만 그 소녀들은 그녀를 정말 좋아해."

그녀는 밝게 말을 이었다. 생각에 잠긴 듯하면서도 경쾌한 어조였다. 그 안에는 이성적인 본성이 가진 균형이 느껴졌다.

세르닌은 점점 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요."

"그렇군요, 미스."

자네비브가 몸을 떨었다.

"무언가 아시죠.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의 시선은 자네비브에게 머물렀다. 그는 더 정확한 단어를 찾아 대답하려는 듯했다.

말할 것인가?

에르몽 씨는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그 여자의 평화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제네비브 옆으로 돌아와 앉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아니요… 제게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요."

"기억이라니요? 그러면 어쨌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 저를 오해하게 만든 몇 가지 단서가 있었죠."

"정말 그러십니까?"

그는 다시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에," 그녀가 실망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이미 짐작했어요… 당신이 알고 계신다고…"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물었지만 정작 그 질문을 입에 담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에르몽 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제가 그중 한 명에게 키스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잠들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왕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

"떠나시나요?" 그가 재촉하듯 물었다.

"미안해요. 할머니가 모셔다드릴게요."

그녀에게 고개를 숙인 왕자는 그녀의 손을 입에 대었다. 문을 열려던 순간, 그녀가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왕자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감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 말하지 않았어?" 노부인이 물었다.

"그 비밀을…"

"나중에 해. 오늘은… 이상하군. 내가 할 수 없었어."

"그렇게 어렵던 일이었나요? 그녀가 당신이 두 번이나 그녀를 데려갔던 그 낯선 사람임을 느끼지 못했나요? 말 한마면 됐는데."

"나중이야… 나중이라고." 그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했다. "잘 알아듣게. 이 아이는 나를 아직 잘 모르거든. 먼저 그녀의 affection과 tenderness를 얻기 위한 자격을 차려야 해.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동화 속처럼 놀라운 삶을 선물한 뒤에야 말을 꺼낼 거야."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제네비브는 그런 화려한 삶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녀는 소박한 취향을 가진 아이야."

"그녀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취향을 가져. 그리고 부와 사치, 권력은 어떤 여자든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기쁨을 주지."

"제네비브는 달라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그렇지. 잘 보자. 지금은 내가 할 일을 하게 해 줘. 안심해. 네가 말한 대로, 제네비브를 내 모든 음모에 끌어들일 생각은 전혀 없어. 그녀가 나를 볼 기회는 거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연락은 취해야 했지. 이제 그건 끝났어. 안녕."

그는 학교를 나서서 자동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매력적이고, 너무도 다정하고, 너무도 진지한 아이야. 어머니의 눈, 그 눈은 늘 나를 눈물나게 만들었지…… 신이시여,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야. 조금은 슬프지만, 그래도 너무도 아름다워."

그는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물론이지.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내가 나서겠어. 당장, 지금 바로! 그리고 오늘 밤부터! 그래, 오늘 밤부터 그녀는 약혼자를 갖게 될 거야. 젊은 여자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겠어?"

그는 대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찾아냈다.

"집으로 갑시다." 그가 오택에게 말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누이유로 전화를 연결했다. 그가 '의사'라고 부르던 친구에게 지시를 내린 뒤, 옷을 갈아입었다.

캉봉가 사교클럽에서 저녁을 먹은 그는 오페라 극장에 한 시간쯤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자동차로 올라탔다.

"누이유로 갑시다, 오택.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가는 길입니다. 몇 시죠?"

"열한 시 사십 오 분입니다."

"헛! 서두르세요!"

십 분 후, 자동차는 잉케르만 대로 끝자락에 멈췄다. 한적한 빌라 앞이었다. 경적 소리에 '의사'가 내려왔다. 공작이 물었다.

"저 녀석은 준비됐나요?"

"포장도 끝났고, 묶고 밀봉까지 다 했습니다."

"상태는 괜찮나요?"

"완벽합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된다면, 경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태워 갑시다."

그들은 자동차로 긴 주머니 같은 것을 실었다. 사람 모양을 한 그 주머니는 생각보다 꽤 무거워 보였다.

왕자가 명령했다.

"베르사유로 갑니다, 오크타브. 빌랭 거리 2번지, 드맹즈에르페아르 호텔 앞입니다."

"그 호텔은 음탕한 곳 아닙니까?" 의사가 지적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게는 고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천만에, 제 자리를 다른 부자들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인생이 단조롭다고 했나요?"

드맹즈에르페아르 호텔. 진흙투성이의 길. 두 계단을 내려가면 등불의 희미한 빛이 비치는 복도가 나온다.

세르닌이 작은 문에 주먹으로 툭 치었다.

호텔 소년이 나타났다. 바로 아침에 세르닌이 제라르 보프레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던 필리프였다.

"지금도 거기 있나?" 공작이 물었다.

"줄은?"

"매듭은 완성됐소."

"바랐던 전보를 받지 못했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로챘죠."

세르닌이 파란 종이를 받아 들고 읽었다.

"이런, 때맞춰 왔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 천 프랑짜리 지폐를 보내준다는 내용이었군. 자, 운이 따르는군. 자정 십오 분 전. 십오 분 뒤면 그 불쌍한 녀석이 영원으로 날아갈 거야. 안내해라, 필리프. 거기서 기다려, 의사."

소년이 촛불을 받아들었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 발끝으로 걸으며 낮고 악취 나는 복도를 따라갔다. 복도에는 다락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끝에는 곰팡이 슨 카펫 조각이 남은 목재 계단이 있었다.

"누구도 내 소리를 듣지 못하겠지?" 세르닌이 물었다.

"아무도 못 들어. 두 방은 따로 떨어져 있어. 하지만 헷갈리지 마, 그는 왼쪽 방에 있어."

"좋아. 이제 내려가. 자정이 되면 의사와 옥타브, 그리고 너, 셋이서 그 남자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기다려."

목재 계단은 열 단이었고, 공작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계단을 올랐다.

위에는 층계참과 두 개의 문이 있었다. 세르닌은 삐걱 소리 하나 정적을 깨뜨리지 않고 오른쪽 문을 여는 데 5분이라는 긴 시간을 들였다.

방 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그는 의자에 부딪치지 않으려 더듬거리며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빛은 옆방에서 나왔고, 커튼 조각으로 가려진 유리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공작은 커튼 조각을 치웠다. 유리창은 뿌옇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여기저기 흠집이 나서 몇 군데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눈을 가까이 대면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시인 제라르 보프레였다.

그는 촛불빛 아래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천장에 고정된 고리에 매달린 밧줄이 늘어져 있었다. 밧줄 끝에는 올가미 매듭이 둥글게 형성되어 있었다.

도시의 시계가 가볍게 한 번 울렸다.

'자정 5분 전이군.' 세르닌은 생각했다. '아직 5분 남았어.'

젊은이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잉크로 검게 채운 열 장 혹은 열두 장의 종이를 정리한 뒤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그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는 원고를 찢어 그 조각들을 촛불 불꽃에 태웠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종이에 몇 마디를 적고, 거칠게 서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머리 위 십 인치쯤에 매달린 밧줄을 본 순간, 그는 공포로 크게 몸을 떨며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르닌은 그 창백한 얼굴을 또렷이 보았다. 그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볼에 댔다.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다. 오직 하나뿐인, 느리고도 쓸쓸한 눈물이었다.

그의 시선은 공허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슬픔이 가득한, 이미 두려운 허무를 바라보는 듯한 눈이었다.

그 얼굴은 너무나도 젊었다. 주름살이라는 흉터 하나 없이, 아직까지도 연약한 볼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눈은 동양적인 하늘빛의 푸르름이었다.

자정이었다.

자정의 열두 타격. 수많은 절망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매달았던 비극적인 시간이었다.

열두 번째 타격이 울리자,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담대했다. 떨림 없이, 그는 끔찍한 밧줄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조차 시도했다.

비참한 미소였다. 이미 죽음에게 사로잡힌 죄수의 애처로운 찌푸림이었다.

그는 재빨리 의자에 올라 한 손으로 줄을 잡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망설이거나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 즉 치명적인 행동을 하기 직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을 비참한 곳으로 몰아넣은 불운한 운명을, 그리고 그 방을 바라보았다. 추악한 벽지, 처량한 침대.

책상 위에는 책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팔려나갔다. 사진도, 편지 봉투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도, 가족도 없었다.

그를 생에 묶어두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급작스러운 동작으로 머리를 올가미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목이 조여올 때까지 줄을 당겼다.

그리고 두 발로 의자를 차고서 공중으로 뛰어내렸다.

십 초가 흘렀다. 이십 초가 흘렀다. 이십 초는 끔찍했고,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체는 두세 번 경련을 일으켰다. 다리는 본능적으로 받침대를 찾았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초가 더 지나자, 작은 유리문이 열렸다.

세르닌이 들어섰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젊은이가 서명한 종이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삶이 지겹고, 병들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내 죽음에 대해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

그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눈에 잘 띄는 자리였다. 그리고 의자를 가져와 젊은이의 발밑에 놓았다.

그는 스스로 테이블 위로 올라탔다. 시체를 자신의 몸에 꼭 붙인 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올가미 매듭을 풀었다. 머리를 빼냈다.

그의 품에서 시체는 축 처졌다. 그는 시체를 책상 위로 미끄러뜨려 내려놓더니, 바닥으로 뛰어내려 시체를 침대에 눕혔다.

그러고는 여전히 차분하게 출입문을 살짝 열었다.

"세 사람 다 와 있나?" 그가 속삭였다.

그 옆, 나무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대답했다.

"다 있습니다. 짐을 올릴까요?"

"올려라."

그가 촛대를 들어 그들을 비췄다.

세 남자는 힘겹게, 사람이 묶여 든 자루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여기에 내려놓아라." 그가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주머니칼로 자루를 묶은 끈을 잘랐다. 흰 천이 드러나자 그것을 젖혔다.

그 천 속에는 시체가 있었다. 피에르 르뒤크의 시체였다.

"가엾은 피에르 르뒤크," 세르닌이 말했다. "너는 그토록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무엇을 잃었는지 영영 모르겠지! 내가 너를 멀리까지 데려갔을 텐데, 이 친구야. 하는 수 없지, 네 도움 없이 해나가야겠군… 자, 필리프, 책상 위로 올라가. 그리고 옥타브, 너는 의자 위로.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올가미를 걸어."

2분 뒤, 피에르 르뒤크의 시체는 밧줄 끝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완벽해. 시체를 바꾸는 일, 이 정도면 그리 어렵지 않지. 이제 다들 물러가도 돼. 의사, 너는 내일 아침 다시 여기로 와. 제라르 보프레 씨가 자살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알겠나, 제라르 보프레다 — 여기 그의 유서도 있고 — 법의관과 경찰서장을 부르고, 두 사람 모두 죽은 이의 손가락이 잘려 있고 뺨에 흉터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잘 처리해…"

"쉽죠."

"그리고 즉시, 네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하게 해."

"쉽죠."

"마지막으로, 시체 안치소로 보내는 일은 피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매장 허가가 나도록 해."

"그건 좀 어렵네요."

"해 봐. 저 친구는 살펴봤나?"

그는 침대 위에 꼼짝없이 누운 젊은이를 가리켰다.

"네," 의사가 단언했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큰 위험을 무릅쓴 거죠… 경동맥이 잘못됐을 수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얼마나 있으면 의식을 회복할까?"

"몇 분 안에요."

"좋아. 아, 아직 가지 마, 의사. 아래층에 있어. 오늘 밤 네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혼자 남은 공작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천장으로 푸른 연기 고리를 몇 개 내뿜으며 느긋하게 피웠다.

한숨 소리가 그를 몽상에서 끌어냈다. 그는 침대로 다가갔다. 청년이 악몽에 시달리는 잠든 사람처럼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듯 두 손을 목으로 가져갔고, 그 동작에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단번에 벌떡 일어났다…

그때, 그는 정면에서 세르닌을 발견했다.

"당신!" 그가 영문을 모른 채 속삭였다. "당신이…!"

그는 멍한 눈빛으로, 마치 유령을 바라보듯 그를 응시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의 목을 만지고, 목과 목덜미를 더듬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쉰 비명을 질렀다. 공포에 질린 광기가 그의 눈을 크게 부릅뜨게 하고, 머리칼을 곤두서게 했으며, 온몸을 나뭇잎처럼 떨게 했다! 공작이 옆으로 비켜서자, 그는 밧줄 끝에 매달린 시체를 본 것이다, 보고 있었다!

그는 벽까지 물러섰다. 저 남자, 저 매달린 시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 자신이었다. 그는 죽었고, 죽은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다! 죽음 뒤에 찾아오는 끔찍한 꿈인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혼란에 빠진 뇌가 아직 생명의 잔재로 떨고 있는 환각인가?…

그의 팔이 허공을 휘저었다. 잠시 그는 그 추악한 환영에 맞서 버둥거리는 듯했다. 하지만 기진맥진하여 두 번째로 무릎 꿇은 그는 정신을 잃었다.

"훌륭하군." 공작이 비웃었다. "예민한 성격이야… 감수성도 풍부하고… 지금은 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지… 자, 좋은 기회다… 하지만 20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그를 놓치고 만다…"

그는 두 다락방을 가르던 문을 밀어 열고 침대로 돌아와, 젊은이를 안아 들어 옆방 침대로 옮겼다.

그러고는 찬물로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고, 각성용 소금 냄새를 맡게 했다.

이번에는 실신이 오래가지 않았다.

제라르는 조심스럽게 눈꺼풀을 살짝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환영은 끝나 있었다.

가구 배치, 테이블과 벽난로의 위치, 그리고 몇 가지 디테일들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기억도 떠올랐다. 목에 느껴지는 고통까지.

그가 공작에게 물었다.

"제가 꿈을 꾸었던 거죠, 맞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라고요…"

그러다 그는 문득 기억해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죽으려 했어요… 심지어…"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몸을 굽혔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그 환상은요?"

"어떤 환상요?"

"그 남자… 밧줄… 그것도 꿈이었나요?"

"아니요, 세르닌이 단정했다. 그것도 현실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오, 아니요… 제발요… 제가 자고 있다면 깨워주세요… 아니면 저를 죽여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시체의 악몽인 거죠! 아,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제발요…"

세르닌은 부드럽게 젊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몸을 숙였다.

“내 말 들어. 잘 들어. 그리고 이해해. 너는 살아 있다. 너의 실체와 생각은 그대로 살아 있어. 하지만 제라르 보프레는 죽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회적 존재로서 제라르 보프레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너 자신이 그 사람을 없앤 거야. 내일이면 호적부에는 네가 쓰던 이름 옆에 ‘사망’이라는 문구와 사망 날짜가 적히게 될 거야.”

“거짓말! 거짓말!” 젊은이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내가 여기 있잖아, 바로 나, 제라르 보프레가!”

“너는 제라르 보프레가 아니야.” 세르닌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열린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라르 보프레가 옆방에 있어. 보고 싶니? 네가 걸어둔 못에 매달려 있단다. 책상 위에는 네가 그의 죽음을 서명한 편지가 놓여 있다. 모든 절차는 완벽하고 확정적이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잔인한 사실이 하나 생겼지. 제라르 보프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젊은 남자는 황급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제 사건의 성격이 덜 비극적으로 변하자, 그는 조금 진정하며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이야기합시다."

"네… 네, 이야기해요."

"담배 한 대 어때?" 공작이 물었다. "받겠지? 아, 네가 여전히 삶에 집착하는구나. 다행이야. 우리는 금방 뜻을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는 젊은이의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것도 피웠다. 그리고 곧장, 짧은 말로, 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고인이 된 제라르 보프레, 너는 사는 게 지쳤지. 병들고, 돈 없고, 희망도 없었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싶니?"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한 일이지. 우연히 네가 내 앞에 나타났어. 너는 젊고, 잘생겼고, 시인이야. 똑똑하고, 절망적인 행동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아

주 정직해. 이런 자질들은 좀처럼 한데 모여 있지 않아. 나는 그걸 높이 사고, 내 것으로 삼겠어."

"그건 파는 게 아니에요."

"바보야! 누가 사고판다고 했어? 양심은 그대로 가져가. 그건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 내가 빼앗지 않을 거야."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거죠?"

"너의 삶이야!"

그는 아직 멍이 든 젊은이의 목을 가리켰다.

"너의 인생이로구나! 너는 그 인생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너는 그 인생을 망치고, 잃어버리고, 파괴해 버렸다. 하지만 내가 다시 만들어 주마. 아름다움과 위대함, 그리고 고귀함이라는 이상을 따라."

만약 네가 내 마음속 깊숙이 숨겨진 그 심연의 끝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넌 현기증이 날 거다, 내 친구야.

그는 제라르의 머리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어조로 계속했다.

"너는 자유다! 사슬이 없다! 네 이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 사회가 벌겋게 달군 쇠를 어깨에 낙인찍듯 너에게 새겨 넣었던 그 일련번호도 지워버렸다. 너는 자유다!"

"이 세상은 모두가 노예다. 각자 자기 꼬리표를 달고 살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마치 기게스의 반지를 가진 자처럼, 알려지지도 보이지도 않은 채 이리저리 다닐 수도 있다. 아니면 마음에 드는 꼬리표를 직접 고를 수도 있다."

"이해가 가나? 네가 예술가에게, 그리고 원한다면 너 자신에게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지 알겠나? 깨끗하고 새로운 삶 말이다.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밀랍과 같다. 상상의 변덕에 따라, 혹은 이성의 조언에 따라 자유롭게."

젊은이가 지친 듯 손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 보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지금까지 내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줘."

"그걸로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네가 예술가가 아니라면, 나는 예술가야. 열정적이고, 끝이 없고, 잡을 수 없고, 넘쳐흐르는 사람이란 말이지. 네가 성스러운 불꽃을 지니지 못했다면, 나는 가지고 있어. 네가 실패한 곳에서, 내가 성공할 거야. 네 삶을 내게 줘."

"말뿐이야, 약속뿐이야!" 얼굴에 생기가 돌며 젊은이가 외쳤다. "헛된 꿈일 뿐이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낙담해 있

는지, 얼마나 무력하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내 모든 비참함을 잘 알고 있어.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나에겐 없는 의지가 필요해."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있어."

"친구들이 필요해."

"너는 친구를 얻게 될 거야."

"재정이 필요해."

"내가 가져다주마, 그것도 엄청난 자원을! 마법의 상자에서 퍼내듯, 그저 퍼내기만 하면 된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죠?" 젊은이가 넋을 잃고 외쳤다.

"남들에게는 세르닌 공작이지. 하지만 너에게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공작보다도,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더한 존재다."

"당신은 누구죠?… 누구신지요?…" 보프레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주인이다.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자. 행동하는 자. 나의 의지에는 한계가 없다. 나의 힘에도 한계가 없다. 나는 가장 부유한 자보다 더 부유하다. 그의 재산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 그들의 힘이 나를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젊은이의 머리를 잡고, 시선으로 그를 깊이 꿰뚫었다.

"너도 부자가 되어라. 강해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이다. 삶의 달콤함. 시인의 머리를 위한 평온. 그리고 영광까지도. 받아들이겠는가?"

"네… 네…" 제라르가 눈이 부신 듯 압도되어 속삭였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 계획의 모든 골격은 너를 바탕으로 하지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지 않아. 당분간 너는 그저 단역에 불과해. 아니, 그것조차 아니다. 내가 밀고 다니는 졸 하나일 뿐이야."

"그럼 나는 뭘 하죠?"

"아무것도. 시나 써. 네 뜻대로 살아. 돈도 생길 거야. 인생을 만끽하면 돼. 나는 너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지만, 내 모험에서 너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누구죠?"

세르닌이 팔을 뻗어 옆방을 가리켰다.

"너는 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거다. 너는 바로 저 사람이다."

제라르는 분노와 혐오에 떨었다.

"아니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건 범죄잖아요. 저는 저를 위한, 저를 위해 상상된 새로운 삶을 원해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요."

"그 사람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세르닌이 에너지와 권위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그 사람이 될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이어야 해. 그 사람의 운명은 경이롭고, 이름은 찬란하며,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귀족성과 자부심의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기 때문이야."

"그건 범죄예요." 보프레가 기운 없이 신음했다.

"너는 그 사람이 될 거야." 세르닌이 전례 없는 폭력적인 어조로 내뱉었다. "그 사람! 아니라면 너는 다시 보프레가 될 거야. 그리고 보프레에 대해서는 내가 생사권을 쥐고 있어. 선택해."

그는 권총을 꺼내 장전하고, 젊은이에게 겨눴다.

"선택해." 그가 다시 말했다.

그의 얼굴 표정은 가차없었다. 제라르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침대에 쓰러졌다.

"저는 살고 싶어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게 원하느냐?"

"네, 천 번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 끔찍한 일을 저지른 뒤로 죽음이 무서워요. 무엇이든 좋아요. 죽음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요! 고통이든, 굶주림이든, 병이든, 온갖 고문과 치욕이든, 필요하다면 범죄라도요. 하지만 죽음은 안 돼요."

그는 열과 불안으로 온몸을 떨었다. 마치 그 거대한 적이 아직 주위를 맴돌고 있고, 그 발톱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힘이 자기에겐 없다고 느끼는 듯했다.

공작은 더욱 힘을 주어, 그를 먹잇감처럼 제 아래 누르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불가능한 것도, 나쁜 일도 요구하지 않아. 만약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아니, 살인은 아니야. 그냥 조금의 고통만, 많아야 네 피가 몇 방울 흐르는 정도일 뿐이야. 하지만 죽음을 앞둔 공포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고통 따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세르닌이 외쳤다. "지금 당장! 십 초만 고통을 겪으면 끝이야. 십 초만, 그리고 너는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손에 넣게 될 거야."

그는 그를 양팔로 껴안더니, 의자에 굽혀 앉힌 채 그의 왼손을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펴 쥐었다. 다섯 손가락을 벌린 채였다. 세르닌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날을 새끼손가락의 첫마디와 두 번째 마디 사이에 대고는 명령했다.

"쳐라! 네 자신을 쳐라! 주먹 하나만 내려치면 돼!"

그는 제르드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손을 망치처럼 다른 손 위로 내리치려 했다.

제르드는 공포에 질려 몸을 비틀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절대 안 돼!" 그가 더듬거렸다. "절대!"

"내려쳐라. 딱 한 번만 치면 끝이다. 한 번만 치면 너는 그 사람과 똑같아진다.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내려쳐라……"

"절대 안 돼! 오, 이 지옥 같은 고통…… 제발 나중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한다…… 그래야만 해."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려쳐라, 바보야. 부와 명예, 사랑이 걸린 일이다."

제르드는 충동적으로 주먹을 들어 올렸다.

"사랑……" 그가 말했다. "네…… 그것을 위해서라면…… 네."

"너는 사랑할 것이고, 또한 사랑받을 것이다." 세르닌이 말했다. "너의 약혼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직접 고른 여인이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순결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 하지만 그 여자를 얻으려면…… 내려쳐라!"

팔이 치명적인 일격을 위해 굳어졌지만, 본능이 더 강했다. 초인적인 힘이 그 젊은이의 몸을 뒤흔들었다. 그는 순간 세르닌의 손아귀를 뿌리치고 도망쳤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방으로 달려갔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공포의 비명을 지르더니, 다시 돌아와 테이블 옆에, 세르닌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내려쳐." 세르닌이 다시 다섯 손가락을 펼치고 칼날을 갖다 대며 말했다.

그것은 기계적이었다. 자동인형 같은 동작으로, 눈은 흐릿하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젊은이는 주먹을 들어 내리쳤다.

"아!"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렸다.

작은 살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피가 흘렀다. 그는 세 번째로 의식을 잃었다.

세르닌은 그를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가엾은 아이여. 그래,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백 배로."

"나는 항상 왕처럼 갚는 법이지."

그는 내려가서 아래층에서 의사를 다시 만났다.

"끝났네. 이제 네 차례야. 올라가서 피에르 르뒤의 뺨에 난 상처와 똑같이, 오른쪽 뺨에 절개를 해줘. 두 흉터가 완전히 동일해야 해. 한 시간 뒤에 내가 데리러 올게."

"어디 가시는 건가요?"

"바람 좀 쐬러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서요."

바깥으로 나온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였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가 속삭였다. "조금 바쁘고, 조금 지치지만, 정말로 결실이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는 돌로레스 케셀바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네비브의 친구이기도 하죠. 제가 직접 만든 피에르 르두라는 인물도 아주 그럴싸하고, 제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네비브를 위한 남편도 구했습니다. 흔치 않은 좋은 남자를요.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제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것뿐이죠. 미스터 르노망, 이제부터는 당신이 일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약속으로 눈이 먼 불쌍한 그 절름발이를 생각하며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 걸려요. 제가 그 착한 청년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자리, 그 피에르 르듀크라는 인물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결국, 피에르 르듀크가 정육점 장수의 아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제4장

5월 31일 아침, 모든 신문은 뤼팽이 르노르망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로 이 날짜에 집행관 제롬의 탈옥을 예고했다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중 한 신문은 그날까지의 상황을 아주 잘 요약했다.

"팔레스 호텔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육 사건은 4월 17일에 일어났다. 그 이후로 무엇이 밝혀졌는가? 아무것도 없다.

"세 가지 단서가 있었다. 담배갑, L과 M이라는 글자, 그리고 호텔 사무실에 버려진 옷 꾸러미였다. 그것으로 무슨 이득을 얻었는가? 전혀 없다.

"1층에 묵었고 그 종적이 수상해 보이는 투숙객 한 명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를 찾아냈는가? 그의 신원을 밝혀냈는가? 아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신비롭고, 어둠은 여전히 짙기만 하다.

이런 상황까지 더해졌다는 소식이다. 경찰청장과 그 부하인 르노르망 간에 불화가 있다는 것이다. 르노르망은 내각 총리대신의 지지를 덜 받고 있어, 이미 며칠 전부터 사실상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케셀바흐 사건은 르노르망의 개인적인 적인 안전부 차장 웨버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요약하자면, 혼란과 무질서다.

반면 뤼팽 쪽은 다르다. 바로 방법론과 에너지,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신이다.

우리의 결론은 간단하다. 뤼팽은 오늘, 5월 31일, 자신이 예고한 대로 동료를 구출해 낼 것이다.

이 결론은 다른 모든 신문에서도 똑같이 등장했고, 대중 역시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위협이 고위층에도 적잖이 먹혀들었음이 분명했다. 경찰청장과, 그리고 '병중'이라는 핑계로 자리를 비운 르노르망 씨를 대신해 보안국 차장 웨버 씨가, 사법궁은 물론 피고인이 수감된 상테 형무소에서까지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체면 때문인지 그날도 포르메리 씨의 매일 정례 심문은 차마 중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형무소에서 불바르 뒤 팔레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그야말로 경찰력이 총동원되어 행렬이 지나는 거리를 지켰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5월 31일이 지나갔지만, 예고된 탈옥은 일어나지 않았다.

분명 무언가 있긴 했다. 실행의 첫 단계라 할 만한 일이 있었으니, 호송차가 지나갈 때 트램과 합승마차, 짐마차가 뒤엉키고 그 호송차의 바퀴 하나가 까닭 없이 부러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도는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았다.

결국 실패였다. 대중은 거의 실망했고, 경찰은 시끄럽게 승리를 자축했다.

그런데 다음 날, 토요일이 되자 믿기 힘든 소문이 사법궁 안에 퍼지고, 신문 편집국들 사이로 번졌다. 집행관 제롬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호외판들이 그 소식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여섯 시, 『라 데페슈 뒤 수아르』지가 발표한 기사를 통해 그 소식은 공식화되었다.

우리는 아르센 뤼팽의 서명이 담긴 다음 서신을 받았다. 뤼팽이 최근 언론에 보낸 회람에 따라 이 서신에 찍힌 특별한 소인이 문서의 진위를 보증한다.

"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대중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마지막 순간에야 5월 31일이 금요일임을 깨달았다. 금요일에 내 친구에게 자유를 되찾아 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런 책임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는 평소처럼 솔직하게, 이 작은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도 사과드린다. 제 수법이 너무나 기발하고 단순해서, 그것을 밝히면 모든 악당들이 본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 '이게 다라고?' 하고들 말하겠지. 그렇다, 이게 전부다. 다만 그것을 떠올릴 줄 알아야 했을 뿐이다.

편집국장님, 부디 안녕히 계시기를."

한 시간 뒤, 르노르망은 전화를 받았다. 내각 총리 발랑글레가 내무부로 그를 부른 것이다.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르노르망! 나는 자네가 아프다기에 방해할까 봐 망설였는데 말이야!"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총리님."

"그래, 그 결근은 토라져서 그런 건가?…… 여전히 그 못된 성미로군."

"제 성미가 못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총리님…… 하지만 토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네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 틈에 뤼팽은 제 친구들을 빼돌렸지 않은가……"

"제가 그걸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린가! 뤼팽의 술수는 빤한 것이야. 늘 쓰는 수법대로, 그는 탈옥 날짜를 미리 알렸고, 모두가 그 말을 믿었지. 그럴듯한 시도가 한 번 흉내 내듯 벌어졌지만 탈옥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다 이튿날, 아무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 때, 휙 하고 새들이 날아가 버린 거지."

"총리님." 보안국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뤼팽은 우리가 그가 작정한 일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옥은 확실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분명한 일이었죠. 저는 손을 떼고 망신은 남들에게 넘기는 편을 택했습니다."

발랑글레가 비웃듯 말했다.

"하긴 지금쯤 경찰청장이며 웨버 씨가 마냥 기뻐할 처지는 아니겠지…… 그건 그렇고, 르노르망,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나?"

"알려진 것이라고는, 탈옥이 사법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총리님. 피고인은 호송차에 실려 포르메리 씨의 사무실로 끌려갔지만, 사법궁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가 막히는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단 말인가?"

"찾았습니다. 예심판사 사무실들과 나란히 난 내부 복도가 평소엔 볼 수 없는 기이한 인파로 붐볐습니다. 피고인, 경비, 변호사, 집행관들이 몰려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같은 시각에 출두하라는 가짜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그들을 소환했다는 예심판사들은 그날 누구도 자기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 명의의 가짜 소환장이 그들을 파리 곳곳과…… 교외로 흩어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시 경비대원 두 명과 피고인 한 명이 안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밖에는 삯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모두 그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자네 가설은 무엇인가, 르노르망? 자네 생각은?"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두 명의 시 경비대원은 공범이었습니다. 복도의 혼란을 틈타 진짜 경비병들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엔, 이 탈옥은 워낙 특별한 상황, 그토록 기묘한 일련의 정황이 맞물렸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법한 공모 관계조차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뤼팽은 법원에도, 다른 곳에도 우리의 모든 계산을 무력화시키는 연줄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청 안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조직이에요. 제가 지휘하는 조직보다 천 배는 더 능란하고 대담하며, 다채롭고 유연한 치안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참고 있단 말이오, 르노망!"

"그런데 왜 사건 초반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뤼팽을 막으려 무슨 수를 썼습니까?"

"저는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 훌륭하군요! 그런데 준비하는 동안 그는 움직이고 있었군요."

"저도 움직였습니다."

"그럼 뭔가를 아시는 건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해 주십시오."

르노망 씨는 지팡이에 기대어 넓은 방 안을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발랑글레와 마주 앉아 올리브색 재킷의 소매 끝을 손끝으로 살며시 털었다. 은테 안경을 코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통령 각하, 제게는 으뜸패가 세 장 있습니다. 첫째, 현재 아르센 뤼팽이 숨어 쓰고 있는 이름을 제가 안다는 점입니다. 오스만 대로에 살면서 매일 부하들을 맞이하고, 자기 일당을 재건하고 지휘하던 바로 그 이름이죠."

"그렇다면, 제기랄, 대체 왜 그를 체포하지 않는 거요?"

"그 정보를 얻은 건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 후 공작은…… 별명을 붙이자면 '삼성 공작'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른 용무로 해외에 나가 있죠."

"만약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가 맡은 자리와 케셀바흐 사건에 깊이 관여한 방식을 볼 때, 그는 반드시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도 같은 이름으로요."

"그렇지만……"

"대통령 각하, 이제 두 번째 으뜸패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피에르 르뒤크를 찾아냈습니다."

"세상에!"

"아니, 발견한 건 뤼팽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그를 파리 근교의 작은 빌라에 들여앉힌 것도 뤼팽이고요."

"세상에! 대체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오, 간단하죠. 뤼팽은 피에르 르뒤크를 감시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공범 두 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들이 다 제 첩자예요. 형제지간인 데다 제가 극비리에 부리는 자들이라, 기회가 닿는 대로 뤼팽을 제게 넘겨줄 겁니다."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에르 르뒤크는 말하자면 그 유명한 케셀바흐의 비밀을 쫓는 모든 자들의 노력이 한데 모이는 중심점이라 할 수 있죠. 피에르 르뒤크를 통해서 저는 언젠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삼중 살인범입니다. 이 악당은 거대하면서도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고 케셀바흐 씨를 대신했고, 케셀바흐 씨 역시 그 계획을 완수하려면 피에르 르뒤크를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둘째, 아르센 뤼팽입니다. 뤼팽도 바로 같은 목표를 쫓고 있으니까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피에르 르뒤크는 적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는 군요."

"그리고 물고기가 미끼를 뭅니다, 대통령 각하. 방금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비밀 요원 두 명의 보호 아래 피에르 르뒤크가 머무는 작은 빌라 주변을, 조금 전 한 수상한 자가 어슬렁거리는 것이 목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간 뒤면 제가 현장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으뜸패는요, 르노망?"

"대통령 각하, 어제 루돌프 케셀바흐 씨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제가 가로챘습니다……"

"가로챘다…… 대단하시군요."

"……그 편지를 뜯어보고 제가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두 달 전 것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부친 것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친애하는 루돌프, 나는 6월 1일에 파리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자네가 날 도와줬을 때처럼 여전히 빈털터리겠지. 하지만 내가 일러 준 그 피에르 르뒤크 건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네. 정말 기묘한 이야기야! 그를 다시 찾아냈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어서 알고 싶군."

"6월 1일이면 바로 오늘입니다." 르노망이 말을 이었다. "스테인베크라는 자를 찾아내라고 형사 한 명을 시켜 두었습니다. 성공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도 의심치 않습니다." 발랑글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친애하는 르노망,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고백하지요. 저는 당신을 내칠 참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말입니다! 내일 경찰청장과 베버 씨를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말도 안 돼."

"안 그랬으면 제가 굳이 움직였겠습니까? 오늘 제 작전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인자가 결국 걸려들 덫을 놓습니다. 피에르 르뒤크나 스테인베크가 그자를 제게 넘겨줄 테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뤼팽 주위를 맴돕니다. 그의 부하 두 명이 제게 매수되어 있는데, 뤼팽은 그들을 가장 충직한 협력자로 믿고 있죠. 게다

가 뤼팽은 저를 위해 일하는 셈입니다. 저처럼 삼중 살인범을 쫓고 있으니까요. 다만 뤼팽은 자기가 저를 속이고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속고 있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공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제게 전권을 주셔서, 조급해하는 여론이나 저를 음해하는 상관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 각하, 며칠 안에 저는 승리하거나 죽어 있을 겁니다."

생클루.

고원에서 가장 높은 지점 가운데 하나에 자리한 작은 빌라였다. 인적이 드문 길가에 있었다.

밤 열한 시. 르노망 씨는 생클루에 자동차를 세워 두고,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다가갔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냐, 구렐?"

"네, 국장님."

"두데빌 형제에게 내가 온다고 알렸나?"

"네, 국장님. 방도 준비됐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 누가 피에르 르뒤크를 빼내려 들지도 모릅니다. 두데빌 형제가 목격한 그자의 수작을 보면,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요."

그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다. 장과 자크 두데빌 형제가 그곳에 있었다.

"세르닌 공작 소식은 없나?" 그가 물었다.

"없습니다, 국장님."

"피에르 르뒤크는?"

"그는 하루 종일 1층 자기 방이나 정원에 누워 지냅니다. 저희를 보러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태는 나아졌나?"

"훨씬 나아졌습니다. 쉬게 해 주니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뤼팽에게 완전히 충성하고 있나?"

"차라리 세르닌 공작에게죠. 둘이 같은 사람인 줄은 그도 의심조차 못 하니까요. 적어도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통 입을 열지 않으니까요. 아, 참 별난 친구예요. 그를

활기차게 만들고, 말문을 트게 하고, 심지어 웃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죠. 가르슈에 사는 젊은 아가씨인데, 세르닌 공작이 소개해 줬습니다. 제네비에브 에르느몽이라고요. 벌써 세 번이나 왔고…… 오늘도 또 왔어요……"

그가 농담조로 덧붙였다.

"제가 보기엔 둘이 좀 눈이 맞은 것 같습니다…… 세르닌 공작 전하와 케셀바흐 부인 사이처럼요…… 공작이 부인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 망할 뤼팽 같으니!……"

르노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기억 깊숙이 새겨 두고 있었다. 언젠가 그것들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내야 할 때를 위해서였다.

그는 시가에 불을 붙였지만 피우지는 않고 입안에서 우물거리기만 했다. 그러고는 다시 불을 붙였다가 이내 떨어뜨렸다.

그는 두세 가지를 더 물은 뒤,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무슨 일이든 생기면 반드시 깨워라…… 아니면 자겠다. 가라…… 각자 제자리로."

다른 사람들이 나갔다. 한 시간이 흘렀다. 두 시간이……

갑자기 르노망은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구렐이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국장님. 쪽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인가, 두 명인가?"

"한 명만 봤습니다…… 마침 달이 떴는데, 그자가 덤불 옆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데빌 형제는?"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뒤쪽으로요. 때가 되면 퇴로를 끊을 겁니다."

구렐은 르노망 씨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다시 어두운 방 안으로 데려갔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국장님. 지금 저희는 피에르 르뒤크의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그가 자는 골방의 문을 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매일 밤처럼 베로날을 먹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 않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어떻습니까, 숨을 자리가 괜찮죠?…… 바로 그의 침대 커튼입니다…… 여기서는 창문과, 침대에서 창문까지 이어지는 방 한쪽이 다 보입니다."

그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흐릿한 빛이 새어 들었다. 달이 구름의 장막을 걷어 낼 때면 이따금 그 빛이 또렷해지곤 했다.

두 사람은 텅 빈 창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기다리던 일이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리라 확신하면서.

가벼운 소리…… 무언가 삐걱하는 소리……

"격자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렐이 속삭였다.

"높은가?"

"2미터…… 2미터 50쯤……"

삐걱대는 소리가 또렷해졌다.

"가게, 구렐." 르노망이 속삭였다. "두데빌 형제와 합류해서…… 그들을 담 밑으로 데려와, 여기서 내려오는 자는 누구든 길을 막게."

구렐이 떠났다.

바로 그 순간 창문 높이로 머리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림자 하나가 발코니를 넘었다. 르노망은 키가 평균보다 작고 마른 체격에, 짙은 색 옷을 입고 모자도 쓰지 않은 사내를 알아보았다.

남자가 몸을 돌렸다. 그는 발코니 너머로 몸을 내밀어 잠시 동안 공중을 응시했다. 아무런 위협도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러고는 몸을 굽혀 바닥에 엎드렸다.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르노망 씨는 깨달았다. 어둠 속에 검은 얼룩처럼 보이던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르노망 씨는 그 존재의 숨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눈이 보인다는 예감이 들었다.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 불꽃 같은 빛줄기처럼 어둠을 뚫고 보는 눈. 그 눈들은 어둠을 통과해 사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피에르 뤼도가 깊은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 존재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으로 침대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고, 늘어진 흰 시트를 배경으로 어두운 실루엣이 또렷이 드러났다.

르노망이 팔을 뻗었다면, 그는 바로 그 존재를 만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잠자는 이의 숨소리와 교차하는 새로운 숨소리를 또렷이 구분할 수 있었다. 그는 마치 뛰는 심장 소리까지도 감지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순간, 빛줄기가 쏟아졌다. 남자가 투광식 손전등의 스프링을 작동시키자, 피에르 뤼도의 얼굴 정면이 환히 비쳤다. 하지만 남자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서, 르노망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빛이 비치는 자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몸이 저절로 움찔했다.

칼날이었다. 날카롭고 가느다란 칼이었다. 어찌나 가는지 단도라기보다는 스틸레토에 가까웠다.

그는 그 칼이 채프먼의 시체 근처에서 주워 들었던 칼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채프먼은 르노망 씨의 비서였다.

그는 온 의지를 다해 그 남자에게 덤벼들지 않으려 참았다. 먼저 그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보고 싶었다.

남자의 손이 올라갔다. 내리치려는 것일까?

르노망 씨는 거리를 재어 그 타격을 막을 수 있을지 계산했다. 하지만 그것은 살인 행위가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피에르 뤼도가 움직이거나, 외치려 든다면 그 손이 내려앉을 것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잠자는 자 쪽으로 몸을 숙였다.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듯한 자세였다.

르노망 씨가 생각했다. 오른쪽 뺨… 오른쪽 뺨의 흉터… 그는 이 사람이 바로 피에르 뤼도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남자는 몸을 조금 돌려서, 그의 어깨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은 옷, 특히 외투가 너무 가까워서, 르노망 씨가 숨어 있던 뒤쪽 커튼을 스칠 지경이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불안한 떨림이라도 보인다면, 나는 바로 그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조사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단검을 등불 든 손으로 옮겨 쥔 뒤, 이불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살짝, 그다음엔 조금 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들어 올렸다. 그러자 잠자는 사람의 왼쪽 팔이 드러났고, 손도 맨살 그대로 드러났다.

랜턴 빛이 그 손을 비췄다. 네 손가락이 벌려 있었다. 다섯째 손가락은 제2마디에서 잘려 나간 뒤였다.

피에르 뤼도가 두 번째로 몸을 움직였다. 곧바로 빛이 꺼졌고, 남자는 잠시 동안 침대 곁에 꼿꼿이 선 채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내리치려는 걸까? 르노망 씨는 너무도 쉽게 막을 수 있는 그 범죄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막고 싶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주 긴 침묵이었다. 갑자기 그는 한쪽 팔이 올라가는, 실은 정확하지 않은 환영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그는 몸을 움직여 잠든 사람 위로 손을 뻗었다. 그 동작에서 그는 남자와 부딪쳤다.

둔탁한 비명이 새어 나왔다. 남자는 허공을 내리치며 닥치는 대로 몸을 막다가 창문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르노망 씨가 그를 덮쳤다. 두 팔로 그의 어깨를 꽉 감쌌다.

즉시 그는 남자가 저항을 멈추는 것을 느꼈다. 힘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싸움에서 벗어나려 그의 팔 사이로 미끄러지려 했다.

르노망 씨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자신에게 밀착시켰다. 남자를 두 동강으로 구부려서 바닥에 뒤로 눕혔다.

"아, 이제 잡았군… 잡았어."

그가 의기양양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거역할 수 없는 두 팔의 포옹으로 이 끔찍한 범죄자를,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괴물을 가두었다는 사실에 기묘한 도취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살아서 떨고 있음을, 분노하면서도 절망하고 있음을 느꼈다. 두 사람의 존재가 뒤섞이고, 숨결이 하나로 엉켰다.

"너는 누구냐? 누구냐?"

그가 물었다.

"말해야 해. 결국 말해야지."

그는 적의 몸을 점점 더 강하게 조였다. 몸이 자신의 팔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고, 사라져 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조였다. 그리고 더 조였다.

그런데 갑자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율이 일었다. 목구멍에 아주 작은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조였다. 통증은 커졌다.

그제야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팔을 비틀어 손을 가슴까지 밀어 넣고, 단도를 세워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팔은 물론 움직이지 못했지만, 르노망이 포옹의 매듭을 더 조일수록 단도의 끝이 드러난 살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그 끝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혔다. 하지만 단도의 끝도 그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고, 상처는 더 벌어졌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세 가지 살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그를 덮쳤고, 자신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작은 강철 바늘이 지닌 끔찍함과 잔인함, 그리고 운명적인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 바늘은 냉정하게도, 멈출 줄 모르고 깊이 파고들었다.

순간, 그는 힘을 놓으며 뒤로 뛰어나갔다. 곧장 반격을 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남자는 창문을 넘어 뛰어내렸다.

"조심해, 구렐!"

그는 구렐이 그곳에 있어 도주자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소리쳤다.

그는 몸을 내밀어 내려다보았다. 자갈이 긁히는 소리, 두 나무 사이를 스치는 그림자, 울타리가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는 없었다. 아무런 개입도 없었다.

그는 피에르 뤼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쳐 불렀다.

"구렐! …두드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농촌의 밤이 가져온 거대한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삼중 살인 사건과 강철 스틸레토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그 남자에게는 찌를 시간이 없었고, 길이 막힘없이 열려 있었으니 애초에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이번에는 그가 뛰어내렸다. 손전등의 스프링을 작동시키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렐의 모습이 보였다.

"크레블루!"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누군가 톡톡히 대가를 치를 거야."

하지만 구렐은 죽지 않았다. 그저 어지러울 뿐이었다. 몇 분 뒤, 의식을 되찾은 그는 투덜거렸다.

"주먹 한 방이었어, 보스… 가슴통에 날아온 단순한 주먹 하나였지. 하지만 그 녀석이 얼마나 강인한지 알겠나?"

"그럼 두 명이었나?"

"네. 한 명은 작은 키로 올라갔고, 다른 한 명은 내가 경계하는 틈을 타 나를 기습했어."

"두드빌 형제는?"

"보지 못했어."

두 사람 중 한 명인 자크는 울타리 근처에서 발견됐다.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턱뼈가 으스러져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가슴이 함몰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르노망 씨가 물었다.

자크는 형과 자신이 한 남자에게 습격당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방어할 새도 없이 제압당했다고 했다.

"그는 혼자였나?"

"아니요. 다시 우리 옆을 지나갈 때는 다른 동료와 함께였습니다. 키는 그보다 작았죠."

"너를 때린 사람을 알아봤나?"

"몸집을 보니, 팔라스 호텔에서 묵었던 영국인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호텔을 떠났고, 우리는 그의 행방을 놓쳤죠."

"소령 말인가?"

"네, 파버리 소령입니다."

르노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다. 케셀바흐 사건에는 두 명이 관여했다. 칼로 살해한 범인과, 그의 공범인 소령."

"셀닌 공작의 의견이오." 자크 두데빌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오늘 밤도 바로 그들이다… 같은 두 사람이야."

안전부장이 그렇게 말을 이었다.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오히려 잘됐다. 한 명보다 두 명을 잡을 확률이 백 배는 높으니까."

르노망은 부상자들을 돌보게 하고 침대에 눕힌 뒤, 습격자들이 어떤 물건이라도 떨어뜨렸는지,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구렐과 두데빌 형제는 부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으므로, 르노망은 두 형제에게 주변을 수색하라고 명하고, 자신은 구렐과 함께 파리로 향했다.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두 시, 그는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다. 가장 유능한 요원 중 한 명인 디우지가 마르세유발 열차에서 내리던 독일인 스타인웨이를 붙잡은 것이다. 스타인웨이는 루돌프 케셀바흐의 연락 상대였다.

"디우지가 여기 있나?"

"네, 상사님. 독일인과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 데려오라."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가르슈의 사무실에서 장 두데빌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통화는 짧았다.

"장인가? 뭔가 찾았나?"

"네, 상사님. 파버리 소령이……"

"그래?"

"찾았습니다. 스페인 사람 행세를 하며 피부도 까맣게 태웠더군요. 방금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가르슈의 자유학교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 아가씨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르닌 공작을 아는, 제네비브 에르몽이라는 젊은 아가씨 말입니다."

"천벌이 내려라!"

르노망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재촉하듯 모자를 집어 들고는 복도로 뛰어나갔다. 디외지와 독일인을 만나 외쳤다.

"여섯 시. 여기서 만나자."

그는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구렐과 길에서 만난 형사 세 명이 뒤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에 몸을 던졌다.

"가르슈로. 팁으로 십 프랑."

빌뇌브 공원 근처, 학교로 이어지는 골목길 꺾임 지점에서 그는 차를 세웠다. 기다리고 있던 장 두드빌이 즉시 외쳤다.

"그 녀석은 열 분 전에 골목 반대편으로 달아났소."

"혼자였나?"

"아니요, 그 소녀와 함께였죠."

르노망 씨는 두드빌의 옷깃을 확 잡아끌었다.

"바보 같은 놈! 놔줄 게 아니었어! 어쨌든……"

"제 동생이 이미 그 뒤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소. 네 동생은 따돌림당하고 말 거야. 너희는 감히 맞설 실력인가?"

르노망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구덩이와 덤불을 아랑곳하지 않고 결연하게 골목으로 들어섰다. 곧 그들은 시골 길로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다섯 갈래 길이 갈라지는 사거리로 이어졌다. 망설임 없이 르노망 씨는 왼쪽, 생쿠쿠파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실제로 그들은 연못 쪽으로 내려가는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다른 두드빌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두드빌 형제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그들은 마차를 탔습니다…… 일 킬로미터 앞이에요."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다. 차를 내리막길로 내달리게 하고, 코너를 미끄러지듯 지나 연못을 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승리의 환호를 내질렀다.

그들 앞에 솟은 작은 오르막 꼭대기에서, 그는 마차의 포장을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뒤였다. 차를 뒤로 빼야만 했다.

분기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차는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었다. 그가 핸들을 돌리는 순간, 한 여자가 마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발판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자가 팔을 뻗었다. 총성이 두 번 울려 퍼졌다.

아마도 명중을 놓쳤나 보다. 차양 너머로 머리가 하나 모습을 드러냈고, 그 남자는 자동차를 보고는 채찍을 세차게 휘둘렀다. 말은 곧장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코너가 차를 가렸다.

몇 초 만에 르노망 씨는 기동을 마쳤다. 그는 직진으로 언덕을 향해 돌진했다. 멈추지 않고 소녀를 지나쳐,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 길은 숲속을 내려가는 가파르고 바위투성이의 오솔길이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는 길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앞으로 스무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한 쌍의 바퀴를 가진 작은 마차가 돌투성이 길을 요란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말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을 내딛으며 마차를 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도망칠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두 대의 차량은 요동치며 거친 길을 내려갔다. 한때는 서로 너무 가까워져, 르노망 씨는 말에서 내려 부하들과 함께 달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에서 제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그는 계속 전진했다. 사냥감처럼 적을 눈앞에, 손끝에 닿을 듯이 바짝 쫓으며.

"이제 됐어요, 형사님…… 이제 됐어요……" 형사들은 이 뜻밖의 추격전에 긴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길 아래로 내려가면 센 강 쪽, 부지발로 이어지는 길이 나왔다. 평평한 지형이 되자 말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서두르지 않았고, 길 한가운데를 지키며 나아갔다.

차체가 거세게 흔들렸다. 차가 굴러가는 것보다, 맹수가 덤비는 듯 점프하듯 움직이는 듯했다. 절벽 옆을 미끄러지듯 달리며 모든 장애물을 부수기 직전, 그 마차를 따라잡아 나란히 달렸다. 그러고는 앞질렀다.

르노망 씨의 악담이 터져 나왔다. 분노에 찬 비명 소리들. 마차는 비어 있었다.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말은 평온하게 걸어가며, 등 위에 놓인 고삐를 끌고 갔다. 아마도 근처 여관 마구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은 하루 동안 빌린 것이었으니까.

수사국장은 분노를 억누른 채 그저 이렇게 말했다.

"소령은 내리막길 초입에서 우리가 잠깐 마차를 시야에서 놓친 그 몇 초 사이에 뛰어내렸을 거야."

"숲을 뒤지기만 하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게 뻔하지. 그 녀석은 이미 멀리 도망갔어. 하루에 두 번이나 잡힐 놈이 아니야. 젠장, 빌어먹을!"

그들은 젊은 아가씨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자크 두드빌과 함께 있었고, 방금 겪은 일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르노망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곧장 영국인 파버 소령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놀란 듯 말했다.

"그는 소령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에요. 파버라는 이름도 아니죠."

"그럼 이름이 뭐라고?"

"후안 리베이라예요. 스페인 사람이고, 프랑스 학교 제도를 연구하라는 명을 받아 온 사람입니다."

"좋아. 이름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맞지.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래 알았어?"

"보름쯤 됐습니다. 그는 제가 가르슈에 세운 학교 이야기를 듣고는 제 시도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제 학생들의 진전을 직접 확인해 볼 수만 있다면 매년 보조금을 주겠다고 제안할 정도였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상의했어야 했어요. 세르닌 공작과는 연락이 닿지 않나요? 그는 조언을 잘 해주는 분입니다."

"오, 전 그를 아주 신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행 중이세요."

"그의 주소를 몰랐나요?"

"몰랐어요. 게다가 그분께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은 처신이 아주 발랐는걸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가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또한 믿으셔도 됩니다."

"리베이라 씨가 방금 왔어요. 부지발에 잠시 들른 어느 프랑스 부인이 자기를 보냈다고 했죠. 그 부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아이의 교육을 제게 맡기고 싶어 하니, 지체 말고 와 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였어

요.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죠. 게다가 오늘이 휴일인 데다, 리베이라 씨가 길 끝에 마차를 빌려 대기시켜 두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마차에 올랐어요."

"그런데 대체 그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저 저를 납치하는 것이었어요. 삼십 분쯤 지나자 그는 그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 사람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나요?"

"그는 파리에 사나요?"

"그럴 거예요."

"그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그의 손글씨 몇 줄이라도, 잊고 간 물건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서라도 없나요?"

"단서라곤 없어요. 아, 그런데…… 하지만 아마 아무 의미도 없겠죠."

"말해 주시오. 제발요."

"그러고 보니, 이틀 전에 그분이 제 타자기를 쓰겠다고 허락을 구하더군요. 연습이 안 된 탓인지 어색하게 글자를 찍으며 편지를 썼고, 저는 우연히 그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주소가 뭐였소?"

"『주르날』 신문사로 보내는 편지였어요. 봉투 안에는 우표가 스무 장쯤 들어 있었죠."

"아, 신문의 광고란에 내려는 거겠군." 르노망이 말했다.

"오늘 자 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구렐이 말했다.

르노망 씨가 종이를 펼치고 여덟 번째 페이지를 확인했다. 잠시 후, 그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그가 읽은 문장은 관용적인 약자를 사용해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슈타인벡 씨를 아는 모든 분께, 그가 파리에 있는지, 그리고 주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경로로 회신 바랍니다.'

"슈타인벡?" 구렐이 외쳤다. "그건 바로 디외지가 우리 앞에 데려온 그 인물입니다."

르노망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 이자가 케셀바흐 씨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가로챘었지. 케셀바흐를 피에르 르듀의 자취로 이끈 바로 그 남자야. 그러니까 그들도 피에르 르듀와 그 과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들 역시 더듬거리고 있는 셈이지.'

그는 손을 비볐다. 슈타인벡이 이제 그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다.

한 시간도 안 되어 슈타인벡은 입을 열 것이다. 한 시간도 안 되어 어둠의 장막이 찢어질 것이다.

그 장막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케셀바흐 사건은 그에게 있어 가장 불안하고,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제5장

저녁 여섯 시, 르노망 씨가 경찰청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디외지를 불렀다.

"자네가 맡은 자는 와 있나? 그와는 어디까지 진척됐나?"

"별로 못 나갔습니다.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아요. 새로 나온 법령에 따라 외국인은 경찰청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일러두고, 이리, 국장님 비서실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직접 심문해 보겠다."

그때 사환 하나가 들어왔다.

"국장님, 한 부인이 지금 당장 뵙고 싶다고 합니다."

"명함이라도?"

"이거예요."

"케셀바흐 부인! 모시게."

르노망 씨가 직접 젊은 부인을 맞으러 나가,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비탄에 잠긴 눈빛과 병색이 도는 얼굴, 그리고 삶의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나는 극도의 피로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내밀며, 개인 통신란에서 슈타인베그 씨에 관한 줄을 가리켰다.

"슈타인베그 영감은 제 남편의 친구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분명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디우지," 르노망이 말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데려오게…… 부인, 방문하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들어올 때,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흰 수염이 턱을 감싼 노인으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옷차림은 초라했으며, 하루하루 끼니를 찾아 세상을 떠도는 가련한 사람들 특유의 쫓기는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는 문턱에 서서 눈을 깜박이며 르노망 씨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맞이한 침묵에 거북해진 듯, 어색하게 두 손으로 모자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깜짝 놀란 기색이 되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더듬거렸다.

"부인…… 케셀바흐 부인."

그는 젊은 여인을 알아본 것이다.

그러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어눌한 억양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 정말 기쁘군요…… 드디어!…… 영영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쪽에서는 소식도 없고…… 전보도 없고…… 그래, 그 좋은 루돌프 케셀바흐는 잘 지내나요?"

젊은 여인은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듯 움찔 뒤로 물러섰다. 그러더니 별안간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왜…… 왜 그러시죠?" 슈타인베그가 말했다.

르노망 씨가 즉시 끼어들었다.

"보았습니다, 선생님. 최근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오래전부터 여행 중이셨습니까?"

"네, 석 달째입니다. 저는 미네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와 루돌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포트사이드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루돌프가 제 편지를 받았겠지요?"

"그는 지금 없습니다. 그가 왜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정보를 더 듣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인연이 있던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케셀바흐 씨와 나눈 대화에서 그이를 '피에르 르뒤'라고 불렀죠."

"피에르 르뒤! 뭐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노인은 크게 당황했다.

"누가…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저에게 그 이름을 알려준 거죠?"

"케셀바흐 씨입니다."

"절대로요. 그건 제가 그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입니다. 루돌프는 비밀을 잘 지키죠…… 특히 이 비밀은 더더욱."

"하지만 반드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피에르 르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 수사는 지체 없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케셀바흐 씨가 이제 없으니, 우리에게 단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래,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슈타인베그가 결심한 듯 소리쳤다.

"피에르 르뒤를 아십니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죠. 시시콜콜 늘어놓을 것 없는 일들이 겹치고 여러 우연이 잇따른 끝에, 저는 제가 찾던 그 사람이 파리에서 무절제하게 살고 있으며 피에르 르뒤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건 본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 본인은, 자기 진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당신은요?"

"저는 압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는 망설이다가, 격하게 말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대체 왜요?"

"그럴 권리가 없으니까요.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루돌프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그걸 너무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제 침묵을 사는 대가로 거금을 주었고, 또 피에르 르뒤를 찾아낸 다음 그 비밀을 이용하게 되는 날에는 진짜 큰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거금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약속받은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러 온 거고요."

"케셀바흐 씨는 죽었습니다." 보안국장이 말했다.

슈타인베그가 벌떡 일어섰다.

"죽었다니! 그럴 리가! 아니, 함정이군. 케셀바흐 부인, 정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예기치 못한 그 소식에 짓눌린 듯했고, 동시에 그 소식이 그에게 한없이 고통스러웠던지 울기 시작했다.

"가엾은 루돌프. 나는 그 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봐 왔지…… 아우크스부르크로 나와 놀러 오곤 했어……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고는 케셀바흐 부인에게 증언을 구하듯 말했다.

"그 애도, 그렇죠 부인, 저를 무척 아꼈죠? 분명 당신께도 말했을 거예요…… 그 애가 저를 부르던 대로, '나의 늙은 슈타인베그 영감'이라고요."

르노망 씨가 그에게 다가가, 더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케셀바흐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소리쳐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는 살해당했고, 범행의 모든 정황은 범인이 바로 그 계획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계획의 성격에, 범인을 짐작하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슈타인베그는 망연자실한 채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그를 그 길로 끌어들이지만 않았더라면……"

케셀바흐 부인이 애원하듯 다가섰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오! 제발요, 슈타인베그 씨……"

"짐작 가는 건 없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케셀바흐 씨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르노망이 말했다. "그 무렵 당신들의 회동에 끼어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리는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돌로레스와 르노망, 두 사람은 그에게 몸을 기울인 채 그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보안국장이 다시 말했다. "살인자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는 각각 L과 M이오."

"L이라." 그가 되뇌었다. "모르겠는데…… L..... M....."

"그렇소. 그 글자들은 금으로 새겨져, 살인자가 가지고 있던 담배 케이스 모서리에 박혀 있었소."

"담배 케이스라." 슈타인베그가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검게 그을린 강철 재질이고…… 안쪽 칸 하나가 둘로 나뉘어, 작은 쪽에는 궐련지가, 다른 쪽에는 담배가 들어가게 돼 있소."

"둘로 나뉘어, 둘로 나뉘어……" 슈타인베그가 되뇌었다. 그 세부 사항이 그의 기억을 일깨우는 듯했다. "그 물건을 좀 보여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기 있소. 정확히 말하면 그걸 똑같이 복제한 것이오." 르노망이 담배 케이스를 건네며 말했다.

"아니! 뭐야!……" 슈타인베그가 케이스를 받아 들며 말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케이스를 바라보며 이리저리 살피고 온갖 방향으로 돌려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끔찍한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사람의 비명이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선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손을 떨며 넋 나간 눈을 하고 있었다.

"말해요, 어서 말해 보시오." 르노망이 명령했다.

"오!" 그가 빛에 눈이 먼 듯 외쳤다. "모든 게 설명되는군……"

"말해요, 어서 말해……"

그는 두 사람을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창가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 보안국장에게 달려들었다.

"선생님, 선생님…… 루돌프를 죽인 자가 누군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가 말을 멈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촉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토록 많은 고백과 고발을 들어 온 이 벽들 사이, 사무실의 깊은 정적 속에서 그 끔찍한 범죄자의 이름이 울려 퍼질 것인가? 르노망 씨는 자신이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했고,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로 점점 더 솟아오르는 듯했다…… 이제 몇 초만 더 있으면 알게 될 터였다……

"아니요." 슈타인베그가 속삭였다. "아니요, 저는 못 합니다……"

"무슨 소리요?" 보안국장이 분노에 차 외쳤다.

"못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입을 다물 권리가 없습니다! 정의가 요구하는 일입니다."

"내일, 내일 말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이면 피에르 르뒤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담배 케이스에

대해 제가 추측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약속드립니다……”

그에게서는, 아무리 강력한 노력으로도 헛되이 부딪히고 마는 그런 고집이 느껴졌다. 르노망은 양보했다.

“좋소. 내일까지 시간을 주겠소. 다만 내일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나는 예심판사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일러두겠소.”

그는 벨을 눌렀다. 그리고 디우지 형사를 따로 불러 말했다.

“이 사람을 호텔까지 데려가서 거기 같이 있게…… 동료 둘을 보내주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지켜봐. 누군가 이 사람을 우리한테서 빼내려 할지도 모르니까.”

형사가 슈타인베그를 데리고 나갔다. 르노망은 이 광경에 크게 동요한 케셀바흐 부인에게 돌아와 사과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인……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지 잘 압니다……”

그는 케셀바흐 씨가 늙은 슈타인베그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기와 그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그녀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지쳐 있었기에 더는 캐묻지 않았다.

“내일 다시 와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슈타인베그가 하는 말은 제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까지 제 팔을 잡고 가시겠습니까?…… 이 삼 층 계단을 내려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니까요."

그가 문을 열고 그녀에게 먼저 길을 내주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외침이 들리고 사람들이 달려왔다. 당직 형사들과 사환들이었다……

"국장님! 국장님!"

"무슨 일인가?"

"디우지가!……"

"방금 여기서 나갔는데……"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죽었나?……"

"아니요, 머리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 남자는?… 함께 있던 그 남자는?… 스타인웨그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제기랄!…"

그는 복도로 뛰쳐나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그를 돌보던 사람들 무리 한가운데서 2층 층계참에 쓰러져 있는 디우시를 발견했다.

그때 구렐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아, 구렐! 방금 아래에서 왔나? 누군가 마주쳤나?"

"아니요, 국장님…"

그러나 디우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눈을 채 뜨지도 못한 채 곧바로 중얼거렸다.

"여기, 층계참에, 작은 문이…"

"아, 제기랄, 일곱 번째 방의 문이로구나!" 치안국장이 외쳤다. "분명히 열쇠로 잠그라고 일러두었건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그는 손잡이로 달려들었다.

"이런 제기랄! 이제 빗장이 반대쪽에서 걸려 있군."

문은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는 권총 개머리판으로 유리창 하나를 깨뜨리고 빗장을 푼 뒤 구렐에게 말했다.

"저쪽으로 해서 도핀 광장 출구까지 뛰어가게…"

그러고는 다시 디우시에게 돌아섰다.

"자, 디우시, 말해 봐.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주먹 한 방 맞았습니다, 국장님…"

"그 늙은이의 주먹에?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늙은이가 아닙니다, 국장님. 스타인웨그가 국장님과 함께 있는 동안 복도를 서성이던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자도 떠나는 척하며 우리를 따라왔죠… 거기 이르렀을 때 제게 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성냥갑을 찾는 사이… 그 틈을 타 제 배에 주먹을 꽂았어요… 저는 쓰러졌고, 넘어지면서 그자가 이 문을 열고 늙은이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자를 알아볼 수 있겠나?"

"아, 물론입니다, 국장님. 건장한 사내로, 피부가 가무잡잡했습니다… 틀림없이 남부 지방 사람이에요…"

"리베이라로군…" 르노르망 씨가 이를 갈며 말했다. "또 그놈이야!… 리베이라, 일명 파버리… 아! 그 악당, 정말 대담하구나!… 스타인웨그 노인을 무서워하더니, 바로 여기, 내 코앞에서 그를 채 갔어!…"

그러고는 분노에 차 발을 굴렀다.

"대체 그 도적놈은 스타인웨그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불과 네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생쿠퀴파 숲에서 그를 쫓고 있었는데… 그런데 벌써 여기 나타나다니!…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내 속에 들어와 살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듯, 깊은 몽상에 빠져들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케셀바흐 부인이 인사를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도에서 들려온 발소리가 그의 멍한 상태를 흔들어 깨웠다.

"드디어 자네군, 구렐인가?…"

"네, 맞습니다, 국장님." 구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따라가서 도핀 광장으로 빠져나갔어요. 자동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부드러운 중절모를 눈까지 눌러쓴 남자와…"

"그놈이다." 르노르망 씨가 중얼거렸다. "그자가 암살범, 리베이라-파버리의 공범이야.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은, 말하자면 하녀 같은 여자였죠… 게다가 꽤 예뻤다고 합니다. 머리가 붉은색이었어요."

"뭐? 뭐라고! 그 여자가 붉은 머리였다고?"

르노르망 씨는 벌떡 돌아서서 계단을 네 칸씩 뛰어 내려갔고, 안뜰들을 가로질러 오르페브르 강둑으로 뛰쳐나왔다.

"멈춰!" 그가 외쳤다.

말 두 마리가 끄는 빅토리아 마차 한 대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케셀바흐 부인의 마차였다… 마부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 르노르망 씨는 이미 발판 위로 뛰어올라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동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구렐, 내 차는… 돌려보냈다고?… 그럼 다른 차, 아무 차나 가져오게…"

저마다 제각기 뛰어갔다. 하지만 삯 자동차 한 대를 끌고 오기까지 10분쯤 걸렸다. 르노르망 씨는 초조함에 애가 탔고, 케셀바흐 부인은 보도에 선 채 소금병을 손에 들고 비틀거렸다.

마침내 그들은 차에 올라탔다.

"구렐, 운전사 옆에 타고 곧장 가르슈로."

"제 집으로요?" 돌로레스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통행증을 흔들며, 거리의 교통을 정리하는 경관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다. 마침내 쿠르라 렌에 이르자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부인. 제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까 네 시쯤 제네비에브 에르몽 양을 만나셨지요?"

"제네비에브… 네… 저는 외출하려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스타인웨그에 관한 『주르날』 기사 게재 건을 부인께 이야기한 사람이 그녀였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고요?"

"에르몽 양이 찾아왔을 때 부인은 혼자 계셨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죠?"

"떠올려 보십시오. 하녀 중 한 명이 거기 있었습니까?"

"아마도요… 제가 옷을 입던 중이었으니…"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잔… 그리고 게르트루드예요."

"그 둘 중 한 명이 붉은 머리지요, 그렇죠?"

"네, 게르트루드예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습니까?"

"그 애 언니가 늘 저를 모셨어요… 게르트루드도 우리 집에 온 지 몇 해 됐고요… 헌신 그 자체에, 정말 정직한 아이예요…"

"요컨대, 그 애를 보증하신다는 거군요?"

"오, 물론이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일곱 시 반이었고, 자동차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햇빛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치안국장은 동행한 부인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경비실로 달려갔다.

"케셀바흐 부인의 하녀가 방금 들어왔지요?"

"누구 말입니까, 하녀라니요?"

"게르트루드 말이오. 두 자매 중 하나."

"하지만 게르트루드는 나간 적이 없을 텐데요, 나리. 저희는 그 애가 나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방금 누군가 들어왔단 말이오."

"아니요, 나리. 저녁 여섯 시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 말고 다른 출구는 없소?"

"없습니다. 담이 사방을 빙 두르고 있고, 또 아주 높습니다…"

"케셀바흐 부인." 르노르망 씨가 동행에게 말했다. "부인의 별장까지 가 봅시다."

세 사람은 함께 갔다. 열쇠가 없던 케셀바흐 부인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다른 자매인 수잔이었다.

"게르트루드가 여기 있나요?" 케셀바흐 부인이 물었다.

"네, 마님. 자기 방에 있어요."

"그 애를 데려오게, 아가씨." 치안국장이 명령했다.

잠시 후 게르트루드가 내려왔다. 자수로 장식된 흰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상냥하고 우아했다.

과연 그녀는 붉은 머리에 둘러싸인 꽤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르노르망 씨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순진해 보이는 눈동자 너머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1분쯤 지난 뒤, 그는 그저 간단히 말했다.

"됐네, 아가씨. 고맙네. 가지, 구렐?"

그는 순경과 함께 밖으로 나갔고, 곧바로 정원의 어두운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말했다.

"저 여자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렇게 태연해 보이는데요!"

"너무 태연해. 다른 사람이었다면 놀라서, 왜 자기를 불렀느냐고 물었을 거야. 그런데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안 물어. 그저 어떻게든 미소 지으려고 애쓰는 표정뿐이지. 다만, 관자놀이에서 땀 한 방울이 귀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게르트루드는 케셀바흐 사건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두 악당의 공범이야. 그자들은 그 유명한 계획을 알아내 실행에 옮기려 하거나, 아니면 과부의 수백만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지. 틀림없이 다른 자매도 음모에 끼어 있을 테고. 네 시쯤, 내가 『주르날』 광고를 알고 있다는 것, 게다가 스타인웨그와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는 걸 전해 들은 게르트루드는 여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파리로 달려가 리베이라와 부드러운 모자를 쓴 사내를 다시 만나서는, 그들을 법원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리베이라가 스타인웨그 영감을 제 잇속대로 가로채 버린 거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론을 내렸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건 이거야. 첫째, 그자들이 스타인웨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의 폭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둘째, 케셀바흐 부인을 둘러싸고 진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 셋째, 음모가 이미 무르익었으니 내겐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

"그렇군요." 구렐이 말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게르트루드가 우리가 있는 이 정원에서 나갔다가, 경비원들 몰래 다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악당들이 최근에 뚫어 놓았을 비밀 통로로 다닌 거지."

"그 통로가 아마 케셀바흐 부인의 별장으로 통하지 않을까요?" 구렐이 말했다.

"그래, 어쩌면." 르노르망 씨가 말했다. "어쩌면 말이야… 하지만 내겐 다른 생각이 있어…"

그들은 담장을 따라 걸었다. 밤은 환했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잘 분간되지 않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담벼락의 돌들을 살펴 아무리 교묘한 틈이라도 뚫린 데가 없는지 확인할 만큼은 충분히 볼 수 있었다.

"혹시 사다리 아닐까요?…" 구렐이 넌지시 말했다.

"아니야. 게르트루드는 대낮에도 드나드니까. 그런 통로가 바깥으로 통할 리는 없지. 입구가 이미 있는 어떤 건물에 가려져 있는 게 분명해."

"별장은 네 채뿐인데요. 게다가 전부 사람이 살고 있고요." 구렐이 반박했다.

"아니지, 세 번째 별장, 오르탕스 별장은 비어 있어."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경비원 때문이지. 케셀바흐 씨는 소음이 싫어서 자기 집과 가까운 이 별장을 빌렸어. 혹시 그렇게 한 데에는 게르트뤼드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는 집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덧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빗장을 들어 올렸다. 문이 열렸다.

"아, 구렐. 드디어 찾았군. 들어가자. 등불을 켜고…… 오, 현관과 거실, 식당은 볼 필요 없어. 부엌이 이 층에 없으니 지하실이 있을 게 분명해."

"이쪽입니다, 형사님. 여기가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꽤 넓은 부엌으로 내려갔다. 정원용 의자와 골풀로 엮은 의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세탁실 겸 저장고로 쓰이는 방도 이어져 있었는데, 여기 역시 물건들이 겹겹이 쌓여 똑같이 어수선했다.

"저기 반짝이는 게 뭐죠, 형사님?"

구렐이 몸을 굽혀 바닥에서 구리 핀을 하나 주워 올렸다. 머리에는 가짜 진주가 달려 있었다.

"진주가 아직 윤기가 나는군." 르노망이 말했다. "이 지하실에 오래 있었다면 이렇진 않았을 거야. 게르트뤼드가 여기를 지나갔어, 구렐."

구렐이 빈 통과 선반, 다리가 삐뚤어진 낡은 테이블 더미를 허물기 시작했다.

"시간 낭비야, 구렐. 통로가 저쪽에 있다면, 우선 저 물건들을 다 치우고 나서 다시 등 뒤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여유가 어디 있겠어? 봐, 여기 못에 걸려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못 쓰는 덧문이 하나 있군. 그걸 치워 봐."

구렐이 시키는 대로 했다.

덧문 뒤로 벽이 파여 있었다. 등불빛에 그들은 깊숙이 뻗어 들어간 지하 통로를 보았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르노망 씨가 말했다. "이 통로는 최근에 뚫은 거야. 봐, 급하게 한 공사인 데다 오래 쓸 것도 아니야. 벽돌 쌓기도 없고, 군데군데 십자로 엇갈린 들보 두 개와 천장 노릇을 하는 장선 하나가 전부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버티겠지만, 그래도 노리는 목적에는 충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말입니까, 형사님?"

"글쎄, 우선은 게르트뤼드와 그 공범들이 오갈 수 있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아 케셀바흐 씨를 납치하기 위해서지. 아니, 차라리 기적처럼 영문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는 거고."

그들은 그리 견고해 보이지 않는 몇몇 들보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언뜻 보기에도 터널 길이는, 별장과 정원 담장 사

이를 가르는 기껏해야 오십 미터의 거리보다 훨씬 길어 보였다. 그러니 터널은 담장에서 꽤 멀리, 영지를 따라 난 길 너머 어딘가에 이르러 있을 터였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빌뇌브나 연못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구렐이 물었다.

"전혀. 정반대 방향이야." 르노망 씨가 단언했다.

통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갔다. 계단이 하나, 또 하나 나오더니 길이 오른쪽으로 꺾였다. 그때 그들은 잘 다져 시멘트를 바른 막돌 사각 틀에 끼워진 문과 맞닥뜨렸다. 르노망 씨가 밀자 문이 열렸다.

"잠깐, 구렐." 그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생각 좀 해 보자… 어쩌면 발길을 돌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왜요?"

"리베라가 위험을 미리 내다봤을 거라고 봐야 해. 지하 통로가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손을 써 뒀을 거라고 말이야. 게다가 그는 우리가 정원을 뒤지고 있다는 걸 알아. 우리가 이 별장에 들어가는 것도 틀림없이 봤을 테고. 그가 우리한테 함정을 파 놓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우린 둘입니다, 형사님."

"그런데 저쪽은 스무 명이야."

그가 둘러보았다. 지하도는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다섯에서 여섯 미터쯤 떨어진 다른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여기까지 가 보자. 어찌 될지 봐야지."

그가 지나갔다. 뒤따르던 구렐에게 문은 열어둔 채로 두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른 문 쪽으로 향했다.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지만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자물쇠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열지 못했다.

"빗장이 채워졌군."

"소음은 피하고 돌아가자. 밖으로 나가서, 이 터널의 방향을 기준으로 다른 출구가 있을 만한 선을 그어야 하니까."

그들은 다시 첫 번째 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앞서 걷던 구렐이 갑자기 놀라는 소리를 질렀다.

"어라, 문이 닫혔네…"

"뭐라고? 열어 두라고 했잖아."

"열어 뒀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문짝이 저절로 다시 닫혀 버렸어요."

"말도 안 돼. 소리가 났으면 우리가 들었을 거야."

"그럼…?"

"그럼…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가 다가갔다.

"보자… 열쇠가 있군. 돌아가나?… 하지만 반대쪽에 빗장이 걸려 있을 텐데…."

"누가 걸었을까요?"

"당연히 저놈들이지! 우리 등 뒤에서 말이야. 이 통로와 나란히 다른 통로가 있거나, 아니면 저 빈 별장 안에 숨어 있었거나… 어쨌든 우린 함정에 걸린 거야."

그는 자물쇠에 매달려 칼을 틈새에 집어넣고 온갖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이내 지친 듯 내뱉었다.

"방법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님?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끝장인가요?"

"글쎄다…"

그들은 다른 문으로 갔다가 다시 첫 번째 문으로 돌아왔다. 두 문 모두 단단한 나무로 된 육중한 문이었고, 도무지 부술 수 없을 가로대로 보강되어 있었다.

"도끼가 있어야겠군." 치안국장이 말했다. "아니면 적어도 쓸 만한 연장이라도… 칼이라도 있으면 빗장이 있을 만한 자리를 도려내 보기라도 할 텐데. 그런데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어."

그는 갑자기 격분해, 그 장애물을 부숴 버리기라도 할 듯 몸을 던졌다. 그러나 어쩌지 못하고 패배한 그는 구렐에게 말했다.

"이봐, 한두 시간 뒤에 다시 보자… 난 완전히 녹초가 됐어, 좀 자야겠다… 그동안 네가 망을 봐… 혹시 누가 우릴 공격하러 오면…"

"아! 누가 와 준다면 오히려 살 수 있죠, 형사님." 구렐이 외쳤다. 아무리 승산 없는 싸움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차라리 마음이 놓일 사람 같았다.

르노망은 바닥에 드러누웠다. 1분도 안 돼 그는 잠들었다.

깨어난 그는 몇 초 동안 영문을 모른 채 멍하니 있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 고통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구렐." 그가 불렀다. "이봐, 구렐?"

대답이 없자 그는 손전등의 용수철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고, 곁에서 깊이 잠든 구렐을 발견했다.

'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그는 생각했다. '속이 진짜로 당기는데… 아, 이런! 배가 고픈 거잖아! 그냥 배가 고픈 거야… 배고파 죽겠네! 그런데 지금 몇 시지?'

시계는 일곱 시 이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감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구렐의 시계도 멈춰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구렐도 같은 위장 통증에 깨어난 터라, 두 사람은 점심때가 한참 지났을 것이고 이미 한낮의 일부를 잠으로 보냈으리라 짐작했다.

"다리가 완전히 저려요." 구렐이 말했다. "발은 꼭 얼음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는 다리를 문지르려다 다시 말했다.

"어, 그런데 발이 얼음 속에 있던 게 아니네요. 물속에 있었어요. 보세요, 형사님… 첫 번째 문 쪽은 영락없는 물웅덩이예요."

"물이 스며든 거야." 르노망 씨가 대답했다. "두 번째 문 쪽으로 올라가자. 그럼 몸이 마를 테니…."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형사님?"

"내가 이 지하실에 산 채로 묻힐 줄 알아?… 천만에,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 두 문이 다 잠겼으니, 벽이라도 뚫어 보자."

그는 지면 높이까지 비스듬히 올라가는 또 다른 통로를 뚫어 볼 생각으로, 손 닿는 높이에 튀어나온 돌들을 하나씩 떼어 냈다. 하지만 작업은 더디고 힘겨웠다. 지하의 이 부분은 돌들이 시멘트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님… 형사님…" 구렐이 목멘 소리로 더듬거렸다.

"왜?"

"발이 물에 잠겼어요."

"에이, 설마!… 어라, 정말이네… 어쩌겠어! 햇볕에 말리면 되지."

"그런데 안 보이세요?"

"뭐가?"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요, 형사님. 자꾸 차올라요…"

"뭐가 차오른다는 거야?"

"물이요…"

르노망은 살갗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단번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히 스며든 물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장치 덕분에 기계적으로, 거역할 수 없이 밀려오도록 교묘하게 꾸며진 침수였다.

"아, 이 악당 놈." 그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언젠가 그놈을 잡기만 하면!"

"네, 네, 형사님. 하지만 먼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저로서는…."

구렐은 완전히 풀이 죽어, 무슨 생각을 떠올리지도 무슨 방책을 내놓지도 못할 듯했다.

르노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가늠하고 있었다. 첫 번째 문은 거의 사분의 일쯤 잠겼고, 물은 두 번째 문까지 거리의 절반 지점까지 밀려와 있었다.

"물이 차오르는 건 더디지만 멈추질 않는군. 몇 시간 후면 머리 꼭대기까지 잠기겠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형님, 그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구렐이 비명처럼 신음을 흘렸다.

"아, 그러니 자네는 이제 그 푸념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겠지? 울고 싶으면 울게. 하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게."

"배가 고파 몸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형님.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럼 주먹이나 먹게."

구렐이 말한 대로 상황은 참혹했다. 르노망 씨의 기개가 조금만 약했더라면, 그는 이렇게 무의미한 싸움을 포기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리베라가 자비를 베풀어 그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형사들이 이 터널의 존재를 모르는 이상, 두데빌 형제가 그들을 구해주리라 기대할 수도 없었다.

결국 남은 희망이라곤 하나뿐이었다.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희망뿐이었다.

"자, 자, 보자고.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여기서 죽어넘어지진 않을 거잖아! 도대체 뭐라도 있을 거야. 구렐, 좀 비춰봐." 르노망 씨가 되뇌었다.

그는 두 번째 문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아래에서 위까지, 구석구석 살폈다. 이쪽에는, 아마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빗장이, 그것도 거대한 빗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칼날로 나사를 풀었고, 빗장이 툭 떨어져 나왔다.

"그다음은요?" 구렐이 물었다.

"그다음? 이 빗장은 철제다. 길고 끝이 거의 뾰족하지. 확실히 곡괭이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한 채, 도구를 갱도 벽에 박아 넣었다. 문짝의 경첩을 지탱하는 석조 기둥 조금 앞쪽이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시멘트와 돌로 된 첫 층을 뚫자, 바로 부드러운 흙이 드러났다.

"일 시작하자!" 그가 외쳤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하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해. 이 기둥 둘레를 파서 길이 삼사 미터쯤 되는 통로를 만드는 거야. 그 통로가 문 너머 터널과 이어지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되지."

"하지만 몇 시간이나 걸릴 텐데요. 그 사이 물이 차오릅니다."

"비춰 봐, 구렐."

"이십 분, 길어야 반 시간이면 물이 발에 닿을 겁니다."

"비춰 봐, 구렐."

르노망의 생각은 정확했다. 약간의 노력으로, 그는 연장으로 파낸 흙을 끌어당겨 터널 쪽으로 떨어뜨렸고, 곧 몸을 밀어 넣을 만큼 큰 구멍을 파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형사님!" 구렐이 말했다.

"오, 다시 살아났나? 좋아, 해봐. 기둥 둘레를 따라 파기만 하면 돼."

그때쯤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들은 시작한 일을 끝낼 시간이 있을까?

앞으로 갈수록 일은 더 어려워졌다. 파낸 흙이 점점 더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를 바닥에 붙이고 엎드린 채, 통로를 막는 잔해를 끊임없이 치워내야 했다.

두 시간이 지나고, 일은 아마도 사분의 삼까지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물이 그들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한 시간만 더 지나면, 물은 그들이 파고 있던 구멍 입구까지 파고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음식 부족에다 체격이 너무 커서 점점 좁아지는 이 터널을 오가기도 벅찼던 구렐은 이미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았다. 차가운 물이 자신을 서서히 묻어가는 그 감촉에 떨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르노망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일했다.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끔찍한 작업, 흰개미의 노역과도 같았다. 손은 피로 물들었고, 배가 고파 기운이 빠졌다. 부족한 공기 탓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구렐의 한숨은 굴 깊은 곳에서 그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일깨웠다.

하지만 무엇도 그를 단념시킬 수 없었다. 이제 그의 눈앞에 갱도 벽을 이루는, 시멘트로 굳힌 돌들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고비였지만, 목표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물이 차올라요!" 구렐이 목멘 소리로 외쳤다. "물이 차오른다고요."

르노망 씨는 더 힘껏 파냈다. 그러자 그가 쓰던 빗장 막대가 허공으로 쑥 빠져나갔다. 통로가 뚫린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공간을 넓히

는 것뿐이었고, 흙과 돌을 앞쪽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되자 작업은 훨씬 수월해졌다.

구렐은 공포에 질려 죽어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르노망은 그 소리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구원이 손끝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떨어지는 자갈 소리를 들으며 터널의 이 부분 역시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고 몇 초간 불안에 휩싸였다. 문이 완전히 밀폐된 둑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출구는 열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쓰면 되었다. 그는 빠져나갔다.

"가자, 구렐!" 그가 외치며 동료를 찾아 돌아왔다. 반쯤 죽어 있는 구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자, 정신 차려, 멍청아. 우린 살았어."

"정말요, 반장? 정말요? 가슴까지 물이 찼는데…"

"계속 가. 입 위로 물이 차오르기 전까진 괜찮아… 그런데 랜턴은?"

"이젠 안 켜져요."

"할 수 없지."

그가 기쁨에 찬 탄성을 터뜨렸다.

"계단 하나… 두 개!… 계단이야! 드디어!"

그들은 거의 자신들을 삼킬 뻔한 저주받은 물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황홀한 감각, 두 사람을 들뜨게 하는 해방이었다.

"멈춰!" 르노망이 속삭였다.

머리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는 팔을 뻗어 장애물을 버티며 밀었고, 그것은 곧 무너졌다. 들창의 문짝이었다. 뚜껑이 열리자, 환기창으로 맑은 밤빛이 스며드는 지하실이 나타났다.

그는 문짝을 젖히고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한 장의 천이 그를 덮쳤다. 여러 팔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담요인지 자루 같은 것에 둘둘 말리는 듯하더니, 곧 밧줄로 묶였다.

"다음 놈에게도." 한 목소리가 말했다.

구렐에게도 같은 일이 행해졌다. 같은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비명을 지르면 즉시 죽여라. 단검은 가지고 있나?"

"출발한다. 너희 둘은 이쪽을 들고, 너희 둘은 저쪽을 들어. 불빛도, 소리도 내지 마라. 들키면 큰일 난다! 오늘 아침부터 옆집 정원을 뒤지고 있어… 열에서 열다섯 명쯤이 설쳐대고 있다. 게르트루드, 별채로 돌아가. 무슨 낌새라도 있으면 즉시 파리에 있는 내게 전화해."

르노망 씨는 누군가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고, 잠시 후에는 밖으로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레를 가까이 대라." 목소리가 말했다.

르노망 씨는 수레와 말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그를 널빤지 위에 눕혔다. 구렐도 그 옆으로 들어 올려졌다. 말이 속보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동은 삼십 분쯤 걸렸다.

"멈춰!" 목소리가 명령했다. "그들을 내려라. 어이, 마부. 수레를 돌려서 뒤쪽이 다리 난간에 닿게 해라. 좋아. 센 강에 배는 없나? 없어?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자. 아, 그들에게 돌은 묶었나?"

"네, 포석입니다."

"그럼 시작해. 르노망 씨,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저는 파버리-리베라, 알텐하임 남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 됐나? 준비 끝났나? 그럼 잘 가시오, 르노망 씨!"

르노망 씨는 난간 위에 올려졌다. 누군가 그를 밀쳤다. 그는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여전히 비웃듯 울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잘 가시오!"

십 초 후, 구렐 경사의 차례였다.

제6장

작은 소녀들은 샤를로트 아가씨의 보살핌 아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제네비브의 새로운 조력자였다. 에르몽 부인은 소녀들에게 과자를 나눠 준 뒤, 거실 겸 접견실로 쓰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자마자 서류와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방 안에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 그녀가 외쳤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 거죠……?"

"쉿." 세르닌 공작이 말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맙시다. 제네비브는요?"

"케셀바흐 부인 댁에 방문 중이에요."

"여기 올까요?"

"한 시간은 있어야 올 거예요."

"그럼 두데빌 형제들을 부르겠어요. 제가 그들과 약속이 있거든요. 제네비브는 잘 지내나요?"

"아주 잘 지내요."

"내가 떠난 뒤, 지난 열흘 동안 그 여자가 피에르 르듀를 몇 번이나 만났나요?"

"세 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케셀바흐 부인 댁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당신이 시킨 대로, 그 애가 그 사람을 부인께 소개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피에르 르듀라는 놈은 제겐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제네비브는 차라리 자기와 비슷한 계층의 좋은 청년을 만나야 해요. 저기, 학교 선생님 같은 사람이요."

"미쳤어요? 제네비브가 학교 선생님과 결혼한다고?"

"아, 당신이 먼저 제네비브의 행복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젠장, 비크토아. 그 수다로 날 귀찮게 하는군. 내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있나? 나는 체스를 두고 있고, 말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아랑곳없이 밀어붙일 뿐이야. 이 판을 이기고 나면, 그때 가서 나이트인 피에르 르듀와 퀸인 제네비브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는지 신경 써주지."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들리세요? 호루라기 소리예요…"

"두데빌 형제야. 가서 데려오고, 우리만 있게 해줘."

형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평소처럼 빈틈없이 물었다.

"신문이 르노망과 구렐의 실종에 대해 뭐라고 보도했는지는 알고 있어. 자네들은 더 아는 게 있나?"

“아니요. 차장인 베버 씨가 사건을 직접 맡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전체 수사가 마비 상태입니다.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치안국 국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요!”

“두 하녀는요?”

“게르트루드는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자매인 수잔은요?”

“베버 씨와 포르메리 씨가 그녀를 심문했습니다. 그녀에게 의심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그게 내게 해 줄 말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르노망 씨의 마지막 이틀을 장식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피에르 르듀의 빌라에 든 두 도둑의 야간 침입, 이튿날 리베라

가 저지른 납치 미수와 생퀴퀴파 숲을 가로지른 추격전, 그리고 스타인웨그 노인의 등장과 케셀바흐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안국에서 이뤄진 그에 대한 심문, 이어 재판소에서의 탈출까지.

"당신들 말고는 이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디외지가 스타인웨그 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이죠."

"그럼 경시청에서는 여전히 당신들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나 신뢰하는지 우리를 공공연히 부릴 정도죠. 베버 씨는 우리 말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자, 다 끝난 건 아니야." 왕자가 말했다. "르노망 씨가 무모한 실수를 저질러 목숨을 잃었다면, 그건 내 추측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전에 이미 제 몫의 좋은 성과를 거뒀을 거야. 이제 남은 건 그걸 이어가는 것뿐이지. 적이 앞서 나갔지만,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겁니다, 두목."

"뭐가? 그저 스타인웨그 노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 수수께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그 노인이니까."

"그렇긴 한데, 리베라가 그 스타인웨그 노인을 어디에 가뒀을까요?"

"당연히 그자의 집이지."

"그럼 리베라가 어디 사는지부터 알아내야겠군요."

"당연하지!"

그들을 돌려보낸 왕자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자동차 몇 대가 서 있었고, 두 남자가 보초라도 서듯 오가고 있었다.

정원 한구석, 케셀바흐 부인의 별장 근처 벤치에서 그는 세 사람을 발견했다. 제네비브와 피에르 르듀, 그리고 단안경을 낀 육중한 체격의 남자가 함께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

곧 별장에서 여러 사람이 나왔다. 포르메리 씨, 베버 씨, 서기 한 명, 그리고 형사 두 명이었다. 제네비브가 안으로 들어가고, 단안경 남자는 판사와 치안국 차장에게 말을 건넨 뒤 천천히 그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피에르 르듀가 앉아 있던 벤치 옆으로 세르닌이 다가와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피에르 르듀. 나야."

"당신! … 당신!"

베르사유의 그 끔찍한 밤 이후로, 이 젊은이가 세르닌을 마주한 것은 세 번째였다. 그리고 매번 그것은 그를 뒤흔들어 놓았다.

"대답해라. 단안경 낀 남자는 누구냐?"

피에르 르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더듬었다. 세르닌이 그의 팔을 꽉 쥐었다.

"대답해, 제기랄! 대체 누구냐?"

"알텐하임 남작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케셀바흐 씨의 친구였습니다. 엿새 전 오스트리아에서 와서, 곧 케셀바흐 부인을 돕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법관들과 알텐하임 남작은 이미 정원을 빠져나간 뒤였다.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황후의 별관 쪽으로 걸어가며 계속 말했다.

"남작이 너를 심문했느냐?"

"네, 아주 많이요. 제 사정이 그에게 관심거리인 모양입니다. 제 가족을 찾도록 도와주겠다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너는 뭐라고 했느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제게 기억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다른 사람 자리에 앉혀 놓았을 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왕자가 비웃었다. "바로 그 점이 네 처지의 기묘한 부분이지."

"아, 당신 웃고 있군요… 늘 웃고만 계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온갖 더러운 일에 휘말려 있고, 게다가 제가 아닌 사람 행세를 하느라 위험까지 무릅쓰고 있어요."

"뭐? 네가 그 신분이 아니라고? 너는 적어도 내가 왕자인 만큼은 공작이야…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만약 네가 공작이 아니라면, 그냥 공작이 되어 버려, 제기랄! 제네비브는 공작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 저 아이를 봐… 저 아름다운 눈동자를 위해 네 영혼을 팔 만한 가치가 있느냐?"

피에르는 왕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아랑곳없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고, 계단 아래에서 제네비브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나타났다.

"돌아오셨군요." 그녀가 왕자에게 말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기뻐요. 돌로레스를 만나 보시겠어요?"

잠시 후, 그녀는 그를 케셀바흐 부인의 방으로 안내했다. 왕자는 깜짝 놀랐다. 돌로레스는 그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다. 소파에 누워 하얀 천에 감싸인 그녀는, 더 이상 싸우기를 포기한 환자처럼 보였다. 그녀가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해서였고, 또 자신을 거듭 내리치는 운명에 대해서였다.

세르닌은 깊은 연민과, 숨기려 하지 않는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보여 준 연민에 감사했다. 그리고 알텐하임 남작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어조로 이야기했다.

"그분을 예전에 아셨나요?" 그가 물었다.

"네, 이름은 맞아요.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죠. 둘이 아주 친했거든요."

"다루 거리에서 알텐하임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주소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몇 분간 수다를 떨던 세르닌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현관 복도에서 제네비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 그를 만났나요?"

"알텐하임 남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제가 알아봤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죠."

그녀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발걸음이 몹시 초조해 보였다.

"진정하세요, 제네비브."

"저를 납치하려던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예요. 불쌍한 르노망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장 났을 거예요. 어쨌든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당신이라면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럼, 진짜 이름은요?"

"리베라예요."

"확실해요?"

"그가 아무리 얼굴을 바꾸고 억양도 몸짓도 다 바꿨어도, 그가 제게 불러일으키는 혐오감만으로 저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케셀바흐 부인에게도 아무 말 안 했고요?"

"네. 부인이 남편의 친구를 다시 만났다며 무척 행복해하셔서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부인께 말씀해 주시겠죠? 부인을 지켜 주실 거죠… 그가 부인을,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르노망 씨가 이제 안 계시니,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합니다. 모든 걸 책임지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들은 문지기 초소 앞에 이르렀다.

문이 열렸다.

왕자가 다시 말했다.

"잘 있어요, 제네비브. 무엇보다 안심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는 문을 닫고 몸을 돌렸다가, 곧장 흠칫 뒤로 물러섰다.

정면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고개를 들고, 어깨는 넓고, 체격은 장대했다. 단안경을 낀 남자, 알텐하임 남작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삼 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작이 미소 지었다.

그가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뤼팽."

아무리 자제력이 강한 세르닌이라도 흠칫 놀랐다. 그는 상대의 정체를 밝히러 왔건만, 정작 상대가 단번에 먼저 그의 정체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그 상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당당하고도 뻔뻔하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 태도는 대담했고, 만만찮은 힘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적의를 드러내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세르닌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왜?"

"할 말이 있어서."

"언제로 할까?"

"내일. 레스토랑에서 같이 점심이나 하지."

"네 집에서는 안 되고?"

"넌 내 주소를 모르잖아."

왕자는 알텐하임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신문을 재빨리 집어 들었다. 아직 발송용 띠지가 붙어 있는 신문이었다. 그가 말했다.

"뒤퐁 빌라 29번지."

"잘했군." 상대가 말했다. "그럼 내일, 내 집에서."

"내일, 네 집에서. 몇 시에?"

"한 시."

"가지. 그럼 이만 실례하겠네."

두 사람은 헤어지려 했다. 그때 알텐하임이 발걸음을 멈췄다.

"아, 한마디 더, 왕자. 무기를 챙겨 와."

"왜?"

"내겐 하인이 넷이고, 너는 혼자일 테니까."

"내겐 주먹이 있어." 세르닌이 말했다. "그럼 공평한 승부가 되겠지."

그는 등을 돌렸다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아, 한마디 더, 남작. 하인을 네 명 더 고용해 둬."

"왜?"

"생각해 봤어. 채찍을 들고 가지."

정확히 한 시, 한 기수가 뒤퐁 빌라의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뒤퐁 빌라는 한적한 시골풍 거리로, 그 유일한 출구는 부아 대로에서 불과 두 걸음 떨어진 페르골레즈 거리로 이어졌다.

거리 양쪽으로는 정원과 예쁜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거리 끝은 일종의 작은 공원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고 큰 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다. 집에 바싹 붙어 순환 철도가 지나갔다.

바로 그 집, 29번지가 알텐하임 남작의 거처였다.

세르닌은 미리 보내 둔 하인에게 말의 고삐를 던지며 말했다.

"두 시 반에 말을 다시 데려와."

그가 종을 불렀다. 정문 문이 열리자,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거기서 복장을 갖춘 두 명의 거구 가신이 그를 맞이해 거대한 돌계단을 따라 안으로 안내했다. 냉랭하고 장식이 하나도 없는 홀이었다.

문 뒤에서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의 용기가 얼마나 강인하든, 이 고립된 감옥 같은 곳에서 적들로 둘러싸여 혼자 남았다는 생각은 피할 수 없는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세르닌 공작을 알리시오."

거실은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곧바로 안으로 들였다.

"아, 여기 계시군요, 친애하는 공작님." 남작이 그를 맞으며 말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도미니크, 20분 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오. 그전까지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상상해 보십시오, 친애하는 공작님. 저는 당신의 방문을 별로 믿지 않았소."

"아, 왜요?"

"대령, 오늘 아침의 선전포고는 너무도 명확해서 만나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선전포고라니요?"

남작은 <그랑조르날> 신사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한 기사의 일부를 가리켰다.

[성명서]

"르노망 씨의 실종 소식은 아르센 뤼팽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간략한 수사를 거친 뒤, 그는 케셀바흐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르노망 씨를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내기로 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연쇄 범죄의 주동자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당신답군요, 친애하는 공작님. 이 성명서는 당신의 작품이오?"

"당연하지."

"그렇다면 내가 맞았군. 전쟁이 시작된 거야."

알텐하임은 세르닌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자신도 자리에 앉더니, 화해를 바라는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군. 우리 같은 두 남자가 서로 싸우고 해를 끼칠 리가 없어. 그냥 서로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돼. 우리는 서로 통해야 해."

"오히려 우리 같은 두 남자는 서로 통해서는 안 된다고 봐."

상대는 참지 못해 몸을 움직이려다 다시 진정하며 말했다.

"들으라, 뤼팽… 그런데 내가 너를 뤼팽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그럼 나는 너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알텐하임? 리베이라? 아니면 파버리?"

"오호, 알겠군.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군. 무서운 놈이군. 더더욱 우리가 타협해야 할 이유지."

그는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듣게, 뤼팽. 내 말을 잘 생각해보라. 내가 한 마디도 가볍게 내뱉은 말이 없다. 자, 보자. 우리 둘의 실력은 서로 맞먹는다.

너 웃고 있군? 그게 잘못이다. 너에게 내가 모르는 비책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도 너가 모르는 무기가 있다. 게다가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양심이라는 게 별로 없다. 손재주도 좋고, 내 모습을 바꾸는 재주도 있다. 네 같은 명수라면 그 가치를 충분히 알겠지. 요컨대, 두 사람은 모두 동급의 상대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왜 우리는 적으로 서 있는가? 너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다음엔? 우리 사이의 경쟁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고 있나? 서로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상대방의 성과를 망친다. 결국 우리는 둘 다 그 목표를 놓치게 된다.

그 공은 누가 가져가는가? 아무런 관계 없는 르노망 같은 놈일까, 아니면 제삼의 도둑일까?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긴 해." 세르닌이 인정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어."

"어떤 거야?"

"물러서."

"장난하지 마. 진지한 이야기야. 내가 제안할 내용은 한번쯤은 따져봐야 할 만큼 중대한 거야. 간단히 말해 이렇지. 함께하자."

"오, 오!"

"물론 각자의 자유는 지켜. 우리 개인의 사정에는 간섭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일에서는 힘을 합쳐야 해. 어떻겠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네가 가져올 건 뭐야?"

"그건 그래. 내가 얼마나 되는 놈인지 너도 알잖아. 나는 이미 실력을 입증했어. 네가 제안한 이 파트너십에서, 내 몫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아? 그럼 네 몫은 어때?"

"슈타인벡."

"그건 좀 적군."

"엄청난 일입니다. 스타인웨그를 통해 피에르 르뒤의 진실을 알게 됐죠. 스타인웨그 덕분에 그 유명한 케셀바흐 계획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세르닌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걸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보자, 친구. 네 제의는 너무 유치해. 스타인웨그가 이미 네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내 협력을 구한다는 건 네가 그에게서 입을 열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만약 성공했다면 내 도움이 필요 없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어쩔 셈이오?"

"그럼 나는 거야!"

두 남자는 다시금 일어서서, 냉혹하고 격렬하게 맞섰다.

"거절합니다." 세르닌이 단호하게 말했다. "뤼팽은 행동할 때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걷는 자들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듯 저와 동등한 위치라면, 연합이라는 발상은 결코 떠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명령하는 법이지, 연합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연합한다는 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거절한다고? 거절한다고?" 알텐하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되물었다. 모욕에 분노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을 제 무리에 한 명 뽑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병으로요. 제 지휘 아래에서 장군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지, 그리고 전리품을 어떻게 혼자서 주머니에 쑤셔 넣는지 보여 드리죠. 알겠어요, 병정아?"

알텐하임은 치를 떨며 이를 갈았다. 격분한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가 잘못했어, 뤼팽. 정말 잘못했어. 나도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성사시킨 다른 사건들처럼, 이 일도 내게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아.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더 빠르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였지."

"네가 내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니야." 뤼팽이 경멸하는 듯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결국 한 사람만 목표에 도달할 거야."

"그건 나한테 충분해."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신을 밟고 지나가야만 도착할 거야. 뤼팽, 너는 그런 식의 결투를 각오할 수 있나? 죽고 사는 싸움이라는 거야. 칼로 찌르는 건 네가 경멸하는 방법이지만, 만약 네가 그 칼을 목구멍에 맞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아! 결국 네가 제안하는 건 그런 거였구나?"

"난 피 보는 게 별로야. 내 주먹을 봐. 내가 때리면 상대는 쓰러져. 나만의 타격이 있지. 하지만 저놈은 죽여. 기억나? 목의 작은 상처 말이야. 아, 그놈. 뤼팽, 그놈 조심해. 무섭고 냉정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전율할 정도로 감정을 담아 말했다.

"남작, 너는 동료를 무서워하는 것 같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서워. 우리 길을 막는 자들, 그리고 너를 위해. 뤼팽,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망하는 거야. 필요하면 나도 행동할 거야. 목표가 너무 가까워. 손에 잡힐 듯해. 가라, 뤼팽!"

그의 에너지와 격앙된 의지는 위력이 컸고, 너무도 거칠어서 즉시 적을 때릴 태세인 듯 보였다.

세르닌은 어깨를 으쓱였다.

"세상아, 배고파 죽겠다!" 그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너네 집은 왜 이렇게 늦게 먹나!"

문이 열렸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집사가 알렸다.

"아, 그 말이야말로 천사 소리가군!"

문턱에 선 알텐하임이 그를 잡아끌었다. 하인의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삭였다.

"좋은 충고 하나 해줄게. 들어라.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다. …제발, 들어라. 내가 맹세하건대, 그게 네게 이롭다. 정말로… 들어라."

"캐비어다!" 세르닌이 외쳤다. "아, 정말 다정하군. 네가 러시아 공주를 대접한다는 걸 잊지 않았구나."

그들은 마주 앉았다. 남작의 그레이하운드, 은빛 긴 털을 가진 큰 개가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건 시리우스입니다. 내 가장 충실한 친구요."

"동료입니다." 세르닌이 말했다. "제 생명을 구해 드렸을 때 차르께서 내게 내려주신 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영광을 누렸군요. 테러 음모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바로 제가 꾸몄죠. 세바스토폴이라는 개가 있었거든요."

점심은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 알텐하임은 다시 좋은 기분을 되찾았고, 두 남자는 재치와 예의를 겨뤘다. 세르닌이 일화를 들려주면 남작은 다른 일화로 맞받아쳤다. 사냥, 스포츠, 여행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중에는 유럽의 가장 오래된 명문가들이 수시로 등장했다. 스페인의

대공작, 영국의 경작, 헝가리의 마자르인, 오스트리아의 대공들 말이다.

"아, 참으로 훌륭한 직업이군. 우리 일이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으니까."

세르닌이 말했다.

"자, 시리우스. 트러플을 넣은 가금류 한 조각 어때?"

개는 눈을 떼지 않았다. 세르닌이 내민 음식을 주둥이로 확 집어 삼켰다.

"샹베르탱 한 잔 드릴까요, 폐하?"

"기꺼이, 남작."

"이 와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레오폴드 국왕의 지하 저장고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오."

"선물인가?"

"네,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선물이지."

"정말 맛있군…… 향이 훌륭해. 간 패테와 함께니 더할 나위 없소. 남작님, 셰프 실력이 일품이오."

"이 셰프로 말하자면 여자 요리사랍니다, 공작님. 사회주의 의원 르브로에게 천문학적인 값을 치르고 빼내 온 사람이죠. 자, 이 카카오 아

이스크림 차가운 요리를 한 번 드셔 보세요. 곁들인 비스킷도 눈여겨보십시오. 이 비스킷은 천재적인 발명품입니다."

"모양은 정말 예쁘군요." 세르닌이 직접 덜며 말했다. "맛도 모양만큼 좋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시리우스, 넌 이걸 좋아할 거야. 로쿠스타라도 이보다 잘 만들진 못했을걸."

그는 재빨리 비스킷 하나를 집어 개에게 건넸다. 개는 그것을 단숨에 삼켰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져 버렸다.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다.

세르닌은 하인 중 누군가에게 불시에 당하지 않으려 뒤로 몸을 빼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듣게나, 남작. 친구를 독살하려 할 때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고 손이 떨리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테니까. 그런데 너는 살인을 꺼리는 줄 알았는데?"

"칼로 찌르는 건 그렇지만, 누군가를 독살하는 건 늘 꿈꿔 왔지. 도대체 맛이 어떤지 궁금했거든."

"세상에! 좋은 걸 골랐네. 러시아 공작이라니."

세르닌은 알텐하임에게 다가가 은밀한 어조로 말했다.

"네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즉, 늦어도 세 시까지 내가 돌아오는 걸 내 친구들이 보지 못했다면 말이야. 음, 정확히 세 시 반이면 경찰청장

은 가짜 알텐하임 남작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을 거야. 그리고 그 남작은 그날이 저물기 전에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겠지."

알텐하임이 말했다. "하! 감옥은 탈출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내려던 그곳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

"물론이지. 하지만 우선 누군가 나를 그곳으로 보냈어야 했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 과자 한 조각만 먹으면 됐잖아."

"정말 그런 줄 알아?"

"시도해 봐."

"결국, 친구야, 넌 아직 '대모험'의 대가라 부르기엔 부족해. 아마 평생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할 거야. 넌 나에게 이런 함정을 놓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며 자부한다면, 그 삶을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해. 그러려면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지. 심지어 어떤 음흉한 놈이 독을 넣으려 해도 죽지 않도록 말이야."

"강인한 정신을 지닌, 공격 불가능한 몸. 바로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해."

"열심히 해, 친구. 난 이미 강인하고 공격 불가능해. 미트리다테스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밥이나 먹자!"

"내가 스스로 칭찬한 미덕을 증명하고 싶거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네 요리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그 과자 접시를 이리 줘."

세르닌은 그중 하나를 집어 반으로 쪼갠 뒤, 그 절반을 남작에게 내밀었다.

"먹어."

남작은 움찔 뒤로 물러섰다.

"겁쟁이!"

세르닌이 말했다.

남작과 그의 동조자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세르닌은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과자의 첫 번째 절반을 먹어 치웠다. 이어 두 번째 절반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후회될 듯한, 달콤한 간식을 먹는 듯한 태도였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날 저녁, 세르닌 공작은 알텐하임 남작을 바텔 카바레로 초대했다. 그리고 시인 한 명, 음악가 한 명, 금융가 한 명, 그리고 코메디 프랑세즈 소속의 아름다운 여배우 두 명과 함께 저녁을 들게 했다.

다음 날 그들은 부아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고, 저녁에는 오페라극장에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그들은 서로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듯했다. 신뢰와 존경, 동질감이 어우러진 깊은 우정이 그들을 묶고 있었다. 그들은 큰 즐거움을 누렸고, 좋은 와인을 마시며 훌륭한 시가를 피웠다. 그리고 미친 듯이 웃었다.

사실 그들은 맹수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다. 서로를 죽일 만큼 깊은 증오로 갈라진 두 사람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멈출 줄 모르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알텐하임은 세르닌을 제거할 타이밍을 노렸고, 세르닌은 알텐하임이 스스로 파놓은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순간을 기다렸다. 둘 다 결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쪽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그 시간은 몇 시간, 길어도 며칠 안에 닥칠 일이었다.

이것은 극적인 드라마였다. 세르닌 같은 남자라면 이런 묘하고 강렬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적을 알고도 그와 함께 지내며, 작은 실수나 방심만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 그건 곧 일종의 쾌감 아니었을까?

어느 날, 알텐하임도 회원으로 있던 캉봉가의 클럽 정원에서 두 사람은 단둘이 있었다. 6월의 해질녘, 저녁 식사를 시작할 무렵의 시간이었고, 저녁에 노름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직 없었다.

그들은 잔디밭 둘레를 거닐고 있었다. 잔디밭 가장자리에는 화단으로 둘러싸인 벽이 서 있었고, 그 벽에는 작은 문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때였다. 알텐하임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세르닌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거의 떨리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르닌은 곁눈으로 그를 살폈다. 알텐하임의 손은 재킷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천 너머로 세르닌은 그 손이 단검 자루를 꽉 쥔 채 망설이고 흔들리며, 때로는 결의에 차 있다가 때로는 힘을 잃는 것을 보았다.

아주 묘한 순간이었다. 그가 내리칠 것인가?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겁많은 본능이 이길까, 아니면 살인이라는 행위에 온통 팽팽히 긴장한 의식적 의지가 이길까?

세르닌은 가슴을 펴고 팔을 뒤로 한 채, 두려움과 쾌감이 뒤섞인 전율을 느끼며 기다렸다. 남작은 입을 다물었고,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아니, 어서 찔러!"

공작이 답답하다는 듯 외쳤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옆에 선 동료를 돌아보며 말했다.

"찔러, 이봐.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아무도 너를 볼 수 없어. 저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 열쇠는 마침 벽에 걸려 있잖아. 그럼 끝이야, 남작 양반.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러더니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 그렇군. 이건 다 짜인 일이었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게 바로 너잖아. 그런데 망설여? 어서 찔러!"

그는 상대의 눈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듯 쳐다보았다. 상대는 새파랗게 질린 채 무력한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물에 젖은 닭 같은 놈!" 세르닌이 비웃었다. "너 같은 놈으로는 내가 뭘 해낼 수 있겠나. 진실을 알고 싶니? 내가 말해 주마. 넌 내가 무서운 거야. 그래, 내 앞에 서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절대 확신하지 못하지. 네가 행동하고 싶어도, 정작 상황을 좌우하는 건 나의 행동,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야. 아니, 확실히 말하지만, 넌 아직 내 별을 흐리게 만들 만한 존재가 못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목을 잡혀 뒤로 끌려갔다. 작은 문 옆 덤불 속에 숨어 있던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움켜잡았던 것이다.

한 팔이 칼을 들고 높이 들어 올랐다. 날카로운 칼날이 빛나고 있었다. 팔이 내려찍혔고, 칼끝이 그의 목구멍을 정확히 찔렀다.

그와 동시에 알텐하임이 그에게 뛰어올라 마무리를 시도했다. 둘은 화단 위로 굴러떨어졌다. 고작 스물에서 서른 초쯤의 일이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레슬링에 얼마나 능숙하든, 알텐하임은 곧 비명을 지르며 저항을 멈췄다.

세르닌이 일어나 작은 문 쪽으로 달렸다. 방금 어두운 실루엣이 그 문으로 사라진 곳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물쇠에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아, 도둑놈! 내가 너를 잡는 날이 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첫 번째 살인이 될 거야! 하지만 신이여…"

그는 다시 돌아와 몸을 굽혔다. 자신을 찌르다 부러진 단검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알텐하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때, 남작. 좀 나아졌나? 이런 수법은 처음 봤지? 내가 '명치 정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촛불 끄듯 네 생명의 태양을 단번에 꺼버리는 거지. 깔끔하고 빠르며 고통도 없어… 게다가 절대 빗나가지 않아. 반면에 칼로 찌르는 건? 흥! 나처럼 강철 사슬로 짠 작은 목가리개만 두르면 누구도 두렵지 않아. 특히 네 검은 동료 녀석은 더더욱 그렇지. 그 멍청한 괴물은 늘 목만 노리니까! 자, 저 녀석이 아끼는 장난감을 봐… 부스러기만 남았잖아!"

그가 손을 내밀었다.

"자, 일어나, 남작. 내가 저녁을 대접하지. 그리고 내 우월함의 비결을 잘 기억해 둬. 공격할 수 없는 몸속에 깃든, 두려움을 모르는 영혼 말이야."

그는 서클의 접견실로 돌아와 두 명용 테이블을 예약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다.

"물론 이 게임은 재미있지만, 이제 위험해지고 있어. 빨리 끝내야 해. 안 그러면 그 녀석들이 내가 원하기 전에 나를 천국으로 보내버릴 거야."

"골치 아픈 건, 스타인벡 노인을 찾기 전까진 그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사실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스타인벡 노인뿐이거든. 남작에게 매달리는 것도, 어쨌든 단서를 하나라도 건질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야."

"도대체 그 노인을 어떻게 한 걸까?"

"알텐하임이 그 노인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건 분명해. 그리고 케셀바흐 계획에 관한 정보를 빼내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분명해."

"하지만 어디서 그를 만나고 있을까? 어디다 숨겨둔 걸까? 친구 집에? 아니면 듀퐁 빌라 29번지, 자기 집에?"

그는 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담배에 불을 붙여 세 모금 깊게 들이마신 뒤 담배꽁초를 던져버렸다. 그것은 분명 신호였다. 두 명의 젊은이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을 모르는 사람인 양 보였지만, 곧 그들과 은밀히 몇 마디를 나눴다.

그들은 바로 두드빌 형제였다. 이날의 그들은 단단히 차려입은 신사들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보스?"

"우리 사람 여섯 명 데리고 뒤퐁 빌라 29번지로 가서 들어가요."

"헛! 어떻게요?"

"법의 이름으로요. 당신들, 치안국 형사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데요…"

"그 권한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하인들은요? 저항하면?"

"네 명뿐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요?"

"지르지 않을 겁니다."

"알텐하임이 돌아오면요?"

"열 시가 돼야 돌아올 겁니다. 그건 내가 맡지요. 그러면 두 시간 반이 남는군요. 집을 구석구석 뒤지기엔 차고 넘치는 시간입니다. 만약 스타인웨그 노인을 찾으면 곧장 저에게 알려주세요."

알텐하임 남작이 다가오자, 그는 그를 맞으러 나아갔다.

"저녁 식사하실 거죠? 정원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 때문에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친애하는 남작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식사 후, 세르닌은 당구 게임을 제안했고, 알텐하임은 흔쾌히 수락했다. 당구 게임이 끝나자, 그들은 바카라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딜러가 외쳤다.

"은행 판돈은 50루이입니다. 받으실 분 없습니까?"

"100루이." 알텐하임이 말했다.

세르닌이 시계를 봤다. 열 시. 두드빌 형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즉, 수색은 헛수고가 된 셈이다.

"방코."

알텐하임이 자리에 앉아 카드를 나눴다.

"내가 돌리지."

"졌군." 세르닌이 말했다. "두 배로 방코?"

"좋지." 남작이 대답했다.

그가 카드를 나눠 주었다.

"여덟." 세르닌이 말했다.

"아홉." 남작이 패를 내려놓았다.

세르닌이 발꿈치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삼백 루이가 날아갔군. 하지만 안심이다. 저놈은 이제 꼼짝 못 할 테니까."

잠시 후, 그의 자동차는 뒤퐁 빌라 29번지 앞에 멈췄다. 그는 곧장 현관으로 들어갔고, 두드빌 형제와 그 부하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은 찾아냈나?"

"젠장!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하인들은 어디 있나?"

"여기, 식기실에 묶여 있습니다."

"좋아. 내가 눈에 띄는 건 원치 않네. 다들 물러가게. 장, 아래층에 남아 망을 보고. 자크, 내게 이 집을 구경시켜다오."

그는 지하실과 다락방을 빠르게 돌아다녔다. 거의 멈춰 서지 않았다. 자신의 부하들이 세 시간 동안 찾지 못한 것을, 자신이 몇 분 만에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방들의 구조와 연결 관계를 꼼꼼히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조사를 마친 그는 두드빌이 알텐하임의 방이라고 알려준 곳으로 돌아가, 그 방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거면 되겠군."

그가 옷으로 가득 찬 어두운 벽장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서라면 방 전체가 훤히 보이지."

"만약 남작이 집을 뒤지면 어떡합니까?"

"왜?"

"하인들 때문에 누군가 다녀갔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그래, 하지만 그는 우리 중 한 명이 자기 집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할 거야. 그저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고만 생각하겠지. 그러니 나는 여기 남는다."

"그럼 어떻게 나오시려고요?"

"아,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야. 중요한 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가, 두드빌. 문을 잠가. 네 형과 합류해서 얼른 사라져. 내일 보자… 아니, 그보다는…"

"그보다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는 옷장 깊숙이 놓인 작은 상자에 앉았다. 네 줄로 걸린 옷들이 그를 가려 주었다. 수색만 당하지 않는다면, 그가 있는 곳은 분명 안전했다.

열 분이 흘렀다.

그는 빌라 쪽에서 말의 둔탁한 발소리와 방울 소리를 들었다. 마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 아래층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곧이어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외침과 함께 일종의 소동이 점점 커져 갔다. 아마도 포로 중 한 명이 입막음 천에서 풀려난 모양이었다.

'이제 알겠군.'

그는 생각했다.

'남작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을 거야. 그는 이제 내가 오늘 밤 클럽에서 보여 준 행동의 이유를 깨달았을 테고, 내가 그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도 알겠지.'

하지만 '속였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스타인웨그가 여전히 내 손아귀를 빠져나가 있으니까.

‘남작이 먼저 할 일은 이것일 거야. 누가 자기에게서 스타인웨그를 도로 빼내 갔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걸 알아보려고 그는 숨겨 둔 곳으로 달려갈 거야. 만약 위로 올라간다면, 그 장소가 위층에 있다는 뜻이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지하에 있다는 뜻이지.’

그가 귀를 기울였다. 아래층 방에서는 목소리가 여전히 오갔지만, 아무도 움직이는 기색은 없었다. 알텐하임이 부하들을 심문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반 시간이 지나서야, 세르닌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래, 위층에 있는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모두 자러 가라.” 알텐하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작이 부하 한 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나도 자야겠다, 도미니크. 밤새 의논해 봤자 더 나아질 것도 없으니까.”

“제 생각엔, 저자가 스타인웨그를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봐. 그래서 속으로 웃는 거지. 스타인웨그는 여기 없으니까.”

“하지만 대체 그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놈을 어떻게 했길래?”

"그건 내 비밀이야. 내 비밀은 나 혼자 간직한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내가 너한테 해 줄 수 있는 말은, 감옥이 아주 튼튼하고 그놈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온다는 것뿐이야."

"그럼 왕자님은 빈손으로 돌아간 거군?"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그 멋진 성과를 거두느라 돈깨나 썼을걸. 정말이지, 어찌나 우스운지!… 가엾은 왕자님 같으니!"

"어쨌든," 다른 쪽이 다시 말했다. "어떻게든 그놈을 처리해야 해."

"걱정 마, 친구. 곧 해결될 거야. 여드레 안에, 뤼팽의 가죽으로 만든 명예의 지갑을 너한테 선물하지. 자, 이제 자게 해 줘. 졸려 죽겠어."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 남작이 빗장을 채우는 소리, 주머니를 비우는 소리, 시계의 태엽을 감는 소리,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으며, 심지어 큰 소리로 혼잣말까지 했다.

"그래, 뤼팽의 가죽으로 말이지… 그것도 여드레 안에… 아니 나흘 안에! 안 그러면 그 악당 녀석이 도리어 우리를 잡아먹을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오늘 밤 그놈은 헛다리를 짚었어. 계산은 정확했는데 말이야… 스타인웨그는 분명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다만, 그게 문제란 말이지…"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바로 전등을 껐다. 세르닌은 커튼 쪽으로 다가가 살짝 들어 올렸다. 창문으로 새어 든 희미한 밤빛이 보였고, 침대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역시 내가 호구로구나.'

그가 혼잣말을 했다.

'제대로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저자가 코를 골기 시작하면 바로 빠져나가야지…'

그때, 뜻밖의 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침대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었다. 마치 삐걱거리는 듯한, 게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한 소리였다.

"자, 스타인웨그,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바로 남작의 목소리였다!

그가 말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스타인웨그는 방에 없는데, 어떻게 남작이 그에게 말을 걸 수 있단 말인가?

알텐하임이 계속했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거냐?… 응?… 바보 같으니! 결국엔 네가 아는 걸 다 털어놓기로 마음먹어야 할 거다… 싫다고?… 그럼 잘 자고, 내일 보자."

'내가 꿈을 꾸는 건가, 꿈을 꾸는 건가.'

세르닌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면 저자가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는 걸까. 가만, 스타인웨그는 그 옆에 있지 않아. 옆방에도 없고, 심지어 이 집 안에도 없어. 알텐하임이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다면, 대체 이 어이없는 일은 뭐란 말인가?'

그는 망설였다. 남작에게 덤벼들어 목을 움켜쥐고, 꾀로 얻어 내지 못한 것을 힘과 협박으로 빼내야 할까?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었다. 알텐하임은 결코 위협에 굴복할 자가 아니었다.

'좋아, 가자.' 그가 중얼거렸다. '저녁나절 하나 허비한 셈 치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기다려야 했다. 우연이 아직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더없이 조심스럽게 네다섯 벌의 옷과 외투를 옷걸이에서 내려 바닥에 펼쳤다. 그러고는 자리를 잡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게 잠들었다.

남작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하인을 부르던 시각, 어딘가에서 시계가 아홉 시를 알렸다.

남작은 하인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는 말없이 옷을 입었다. 그러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인이 어제 입었던 옷을 찬장에 조심스럽게 걸어 두는 동안, 세르닌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중얼거렸다.

"가만, 이자의 명치를 한 방 갈겨 줘야 하나?"

열 시가 되자 남작이 명령했다.

"나가."

"그런데, 이 조끼가 또…"

"나가라니까. 부를 때까지 들어오지 마."

그는 하인을 내보낸 뒤 직접 문을 닫았다. 남을 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잠시 기다린 다음, 전화기가 놓인 탁자 쪽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교환원님, 가르슈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연결되면 신호를 주세요."

그는 전화기 곁에 서 있었다.

세르닌은 초조함으로 몸을 떨었다. 남작은 과연 자신의 수수께끼 같은 공범과 연락을 취할 것인가?

벨 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알텐하임입니다… 아, 가르슈군요… 좋습니다… 교환원님, 38번을 부탁합니다… 네, 38이요. 사의 두 배, 그 8 말입니다…"

몇 초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가능한 한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38번? … 나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어제? … 응, 정원에서 네가 그를 놓쳤지. 다른 기회도 있겠지만, 지금은 급해. 그자가 저녁에 사람을 시켜 집을 뒤지게 했거든.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물론 아무것도 못 찾았지. 뭐? … 여보세요? … 아니, 스타인베그 노인은 입을 열려고 하질 않아. 협박도 약속도 다 소용없었어. 여보세요… 그래, 당연하지, 그는 우리가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케셀바흐의 계획도 피에르 르두의 내력도 일부밖에 몰라. 수수께끼의 열쇠를 쥔 건 그 노인뿐이야… 오, 그는 말하게 될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하지… 그것도 바로 오늘 밤에… 안 그러면… 어! 어쩌겠어, 그를 놓치느니 무슨 짓이든 해야지! 그 공작이 그를 가로채 가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오! 그 공작 말인데, 사흘 안에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해… 좋은 생각이 있어? … 그렇군… 좋은 생각이야. 오, 오, 아주 훌륭해… 내가 처리하지… 언제 만날까? 화요일, 어때? 좋아. 화요일에 가지… 두 시에."

장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그는 방을 나갔다. 세르닌은 그가 명령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조심해, 알았지? 어제처럼 멍청하게 잡히지 마라. 나는 밤이 돼야 돌아올 테니까."

현관의 무거운 문이 닫혔다. 이어 정원 철문이 철컹 닫히는 소리가 났고, 멀어져 가는 말방울 소리가 들렸다.

스무 분쯤 지나 두 하인이 나타나 창문을 열고 방을 치우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하인들이 떠난 뒤에도 세르닌은 그들이 식사할 시간이 될 때까지 꽤 오래 기다렸다. 그들이 부엌에 둘러앉아 있으리라 짐작한 그는 옷장 밖으로 살그머니 빠져나와, 침대와 그 침대가 기대어 있는 벽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엔 특별한 게 전혀 없어. 침대에 이중 바닥도 없고, 밑에 비밀 문도 없어. 옆방을 보자."

그는 조심스럽게 옆방으로 넘어갔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방이었다.

"노인이 갇혀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 벽 속에? 그럴 리 없지, 이건 벽이라기보다 아주 얇은 칸막이야. 제기랄! 도무지 모르겠군."

그는 한 치 한 치 바닥과 벽과 침대를 짚어 가며, 쓸데없는 시도에 시간을 허비했다. 분명 여기엔 무슨 장치가 있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일 텐데, 지금으로선 도무지 알아챌 수가 없었다.

‘혹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알텐하임이 정말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면… 그것 말고는 받아들일 만한 추측이 없어.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면 방법은 하나뿐, 여기 남는 거야. 그래, 남자. 될 대로 되라지.’

그는 들킬까 봐 다시 은신처로 돌아가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멍하니 공상에 잠겼다 졸기를 반복했지만, 한편으로는 극심한 허기에 시달렸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렸다.

알텐하임은 자정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 자기 방으로 올라와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고, 어젯밤처럼 곧바로 전등을 껐다.

또다시 똑같이 불안한 기다림.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삐걱 소리. 그리고 알텐하임은 어젯밤과 똑같은 비웃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 좀 어떤가, 친구… 욕이라도 하겠다고? … 아니, 아니야, 영감, 우리가 자네한테 바라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자넨 헛다리를 짚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고백이야. 자네가 케셀바흐에게 털어놓은 모든 것, 그러니까 피에르 르두의 내력 같은 것 말이야, 빠짐없이 자세하게. 알아들었나?”

세르닌은 경악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틀림없었다. 남작은 정말로 스타인베그 노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섬뜩한 대화였다! 그는 마치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이한 대화를, 다른 세계에서 숨 쉬는 이름 없

는 존재,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존재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남작은 빈정대는 잔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배고픈가? 그럼 먹게, 영감. 다만 기억해 두라고. 내가 자네 빵을 한 꺼번에 통째로 줬다는 걸 말이야. 스물네 시간에 몇 부스러기씩 갉아먹는다 해도 길어야 일주일이면 동나지… 넉넉잡아 열흘이라 치세! 열흘 뒤면, 끽, 스타인베그 영감은 더 이상 없는 거야. 그 전에 자네가 입을 열기로 한다면 모를까. 싫다고? 그건 내일 두고 보지… 잘 자게, 영감."

다음 날 오후 한 시. 밤과 아침을 별일 없이 보낸 뒤, 세르닌 공작은 평온하게 뒤퐁 저택을 나섰다.

머리는 어질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향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화요일, 알텐하임과 팔레 호텔 살인범이 가르슈의 어느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 집 전화번호는 38번. 바로 그 화요일에 두 죄인을 넘기고 르노망 씨를 구해 내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이면 스타인베그 노인 차례지. 그러면 드디어 피에르 르두가 정육점 주인의 아들이 맞는지, 또 내가 떳떳하게 그를 제네비에브의 남편으로 삼아도 될 인물인지 알게 되겠지. 부디 그렇게 되기를!"

화요일 오전 열한 시쯤, 각료회의 의장 발랑글레는 경찰청장과 치안국 차장 웨버 씨를 불러, 방금 받은 속달 우편 한 통을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세르닌 공작의 서명이 있었다.

‘귀하께서 르노망 씨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신지 잘 알기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르노망 씨는 가르슈의 글리시나 빌라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은퇴자 요양소 바로 옆입니다.

팔레 호텔의 악당들은 오늘 오후 두 시에 그를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오후 한 시 삼십 분에 은퇴자 요양소 정원에 있거나, 제가 벗으로 모시는 영광을 누리는 케셀바흐 씨 댁에 있겠습니다.

각료회의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운운.’

“정말이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친애하는 웨버 씨.” 발랑글레가 말했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폴 세르닌 공작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그와 여러 번 저녁을 함께했어요. 진지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의장님,” 치안국 차장이 말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역시 받은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사건에 관한 건가?”

“어디 봅시다.”

그는 편지를 받아 들고 읽었다.

‘폴 세르닌 공작은 스스로 케셀바흐 씨의 친구라 하지만, 실은 다름 아닌 아르센 뤼팽입니다.

증거는 단 하나로 충분합니다. 폴 세르닌(Paul Sernine)은 아르센 뤼팽(Arsène Lupin)의 철자를 그대로 재배열한 애너그램입니다. 똑같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도 더하지도, 하나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발랑글레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 웨버 씨가 덧붙였다.

“이번에는 우리 친구 뤼팽이 제법 만만찮은 상대를 만났군요. 뤼팽이 저쪽을 고발하는 사이, 저쪽은 뤼팽을 우리 손에 넘겨주니 말입니다. 결국 여우가 제 덫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발랑글레가 물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의장님, 우리는 그 두 사람을 한자리에서 맞붙게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이백 명을 데려가겠습니다.”

제7장

정오 십오 분. 마들렌 근처의 한 식당. 공작이 점심을 먹고 있다.

옆 테이블에 젊은이 둘이 앉는다. 공작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우연히 만난 친구를 대하듯 말을 건다.

"자네들, 이번 작전에 끼었지?"

"다 합쳐서 몇 명이야?"

"여섯 명쯤 된다나 봐요. 각자 따로 움직이고요. 한 시 사십오 분에 은퇴자 요양소 근처에서 웨버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아, 나도 가지."

"네?"

"이 작전을 지휘하는 게 나 아닌가? 르노망 씨를 찾아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나인데, 당연히 내가 그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나?"

"그럼 보스는 르노망 씨가 죽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확신합니다. 그래요, 어제부터 나는 알텐하임 일당이 르노망 씨와 구렐을 부지발 다리로 끌고 가 강에 던졌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구렐은 가라앉아 죽었지만, 르노망 씨는 빠져나왔습니다. 때가 되면 필요한 증거를 모두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다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유로운 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군요. 그가 글리시나 빌라 지하실에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무슨 단서라도?"

"그건 제 비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반전이… 뭐랄까… 굉장할 거라는 점입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제 차가 마들렌 뒤편에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가르슈에 도착한 세르닌은 마차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제네비에브의 학교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그곳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잘 들어라, 얘들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너희는 은퇴자 주택에 가서 종을 눌러라. 형사 신분이니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겠지? 그러면 오르탕스 별관, 즉 비어 있는 그 건물로 가라. 거기서 지하실로 내려가면, 내가 며칠 전에 발견한 터널의 입구를 막고 있던 낡은 판자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다. 그 판자를 치우면 터널이 드러나고, 그 터널은 글리신 저택과 곧장 연결되어 있어. 바로 그 길로 게르트루드와 알텐하임 남작이 만나곤 했지. 그리고 르노르망 씨도 바로 그 길을 지나갔다가 결국 적들의 손에 떨어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목?"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이제 본론이다. 너희는 터널이 내가 어젯밤에 놔둔 그대로인지, 터널을 막은 두 개의 문이 모두 열려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문 근처 구멍에 내가 직접 넣어 둔 검은 서지 천 꾸러미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라."

"그 꾸러미를 풀어 봐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갈아입을 옷일 뿐이야. 어서 가라,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십 분 뒤, 그들이 돌아왔다.

"두 문 모두 열려 있습니다." 두두빌이 말했다.

"검은 서지 천 꾸러미는?"

"두 번째 문 근처 제자리에 있습니다."

"완벽해. 지금 한 시 이십오 분. 베버가 정예 부하들을 데리고 들이닥칠 시간이다. 빌라를 감시하자. 알텐하임이 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빌라를 포위한다. 나는 베버와 합의한 대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간다. 그다음부터는 내게 다 계획이 있지. 자, 아무래도 지루할 틈은 없겠어."

그리고 세르닌은 두 사람을 돌려보낸 뒤, 학교 쪽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어. 내가 고른 무대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나는 이길 수밖에 없고, 두 적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앞에 남는 건 케셀바흐 사건뿐이야. 그리고 나 혼자서 그 일에 매달리게 되지. 그건 좋은 수두루마리 두 장을 손에 쥔 셈이야. 피에르 뤼도와 스타인베크가 바로 그 수두루마리지. 더군다나 왕까지 있어. 아니, 비비 말이야.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알텐하임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분명 그도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야. 어디서 나를 노리고 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공격하지 않은 게 이상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져. 혹시 내가 경찰에 고발당한 건 아닐까?"

그는 학교의 작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학생들은 이미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는 정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어, 너였네." 에르몽이 문을 열며 말했다. "제네비브는 파리에 두고 온 거야?"

"그러려면 제네비에브가 파리에 있어야 했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애는 파리에 있었잖니. 네가 오게 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는 그녀의 팔을 움켜쥐며 외쳤다.

"어떻게라니? 네가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말해 봐요!"

"네가 제네비에브한테 생라자르 역으로 나오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니?"

"그래서 그 애가 떠났어요?"

"그럼. 둘이서 리츠 호텔에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편지… 그 편지를 좀 보여줘요."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편지를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이런 답답한 사람, 이게 위조라는 걸 못 봤어요? 필체는 그럴듯하게 흉내 냈지만 분명 가짜예요. 한눈에 봐도 빤히 보이잖아요."

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양쪽 관자놀이를 세게 눌렀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공격이 나왔군. 아! 비열한 놈! 그자는 그 애를 미끼로 나를 치는 거야… 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모를 거야… 벌써 두 번째로 같은 수를 쓰는 건데, 노리는 건 제네비에브야. 그 애한테 홀딱 반해 버린 거지… 오! 그건 안 돼, 절대로! 비크투아르, 들어 봐요… 그 애가 그자를 좋아하지 않는 게 확실해요?… 아, 이런! 내가 정신이 나갔군! 자… 자… 차분히 생각해야 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한 시 삼십오 분, 아직 시간이 있어… 멍청하긴! 시간이 있어 봤자 뭘 한다는 거야?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고, 늙은 유모는 그토록 흥분해 자제력을 잃은 그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그 애가 마지막 순간에 함정을 알아챘을지도 모르잖니."

"그럼 어디 있겠어요?"

"글쎄다… 어쩌면 케셀바흐 부인 댁에 있을지도 모르지…"

"맞아요, 맞아, 당신 말이 옳아요." 그가 갑자기 희망에 차 외쳤다.

그러고는 요양원을 향해 달려갔다.

길가, 정문 근처에서 그는 두두빌 형제와 마주쳤다. 형제는 관리인의 숙소로 들어가는 참이었는데, 그 숙소는 도로가 내려다보여 글리신 저택 주변을 감시하기에 좋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곧장 황후 별관으로 가 쉬잔을 부른 뒤, 케셀바흐 부인에게로 안내받았다.

"제네비에브는요?" 그가 물었다.

"제네비에브요?"

"네, 그 애가 오지 않았나요?"

"안 왔어요. 벌써 며칠째 안 오는걸요."

"하지만 올 텐데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어요. 그 애가 어디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네비에브와 저는 만나기로 한 적이 없는걸요."

그러고는 갑자기 겁에 질려 물었다.

"혹시 걱정되시는 거예요? 제네비에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를 뜬 뒤였다.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스쳤다. 알텐하임 남작이 글리신 저택에 없다면? 약속 시간이 바뀐 거라면?

'반드시 그를 만나야 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는 정신없는 걸음으로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달렸다. 그러나 관리인 숙소 앞에 이르자 그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았다. 보안국 차장이 정원에서 두두빌 형제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평소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다가가자 베버가 흠칫 떠는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베버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요?"

"세르닌 공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청장께서 공작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도움에 대해 미리 일러 주셨습니다."

"그 도움은 제가 그 도적들을 넘겨드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 도적들 중 한 명이 방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안경을 낀 꽤 건장한 사내였지요.”

“맞습니다, 바로 알텐하임 남작입니다. 베버 씨, 부하들은 와 있습니까?”

“네, 이백 미터쯤 떨어진 길가에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베버 씨. 그럼 그들을 모아 이 숙소 앞으로 데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빌라까지 갑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지요. 알텐하임 남작이 저를 아니, 문을 열어 줄 겁니다. 그러면 저도 들어가지요… 당신과 함께.”

"계획이 훌륭하군." 웨버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그는 정원을 빠져나와 길로 나섰다. 글리신 저택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세르닌은 재빨리 도데빌 형제 중 한 명의 팔을 붙잡았다.

"저 사람을 따라가, 자크. 내가 글리신 저택에 들어가는 동안 그를 붙잡아 둬. 가능한 한 공격을 늦춰. 구실이라도 만들어. 내겐 10분이 필요해. 빌라를 포위하되,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마. 그리고 자네, 장, 오르탕스 별장 지하 통로 입구에 숨어 있어. 남작이 그곳으로 빠져나가려 하면 머리를 박살 내."

도데빌 형제들이 사라졌다. 왕자는 밖으로 나와 높은 철제 담장으로 둘러싸인 글리신 저택 정문까지 달렸다.

그는 초인종을 누를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재빠르게 격자창으로 몸을 날렸다. 발끝을 자물쇠 가장자리에 걸친 채 철창에 매달렸다.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고 손목 힘으로 버티며, 끝내 철창을 넘어 안으로 뛰어들었다. 조금만 실수했어도 뾰족한 철봉 끝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는 바로 앞의 포석이 깔린 마당을 가로질러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열주 회랑의 계단을 올랐다. 회랑으로는 창문들이 나 있었는데, 그 창문들은 모두 바닥부터 채광창까지 빈틈없는 덧창으로 막혀 있었다.

그는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그 소리는 뒤퐁 빌라에서 들었던 문소리와 똑같았다. 그리고 알텐하임이 나타났다.

"이봐요, 공작님. 남의 집에 이렇게 침입하는 게 예의란 말이오? 차라리 헌병을 불러야겠군, 친애하는 친구."

세르닌이 남작의 목을 움켜쥐고 긴 의자에 밀어붙였다.

"제네비브를 어디다 뒀지? 제네비브가 어디 있냐고! 네가 그 애를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비열한 놈!"

남작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잠깐, 자네가 지금 내 말을 끊고 있다는 걸 좀 알아 두게."

세르닌이 손을 놓았다.

"본론만 말해! 빨리! 대답해. 제네비브는?"

"한 가지, 그보다 훨씬 급한 일이 있지." 남작이 대답했다. "우리 같은 자들한테는 특히 더 그래. 바로 제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닫고 빗장을 여러 개 걸어 잠갔다. 그리고 가구도 커튼도 하나 없는 옆방으로 세르닌을 이끌며 말했다.

"이제 내가 네 상대다. 무엇을 도와줄까, 공작 각하?"

"제네비브는?"

"아주 건강해."

"아! 인정하는구나…"

"물론이지. 오히려 네가 그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게 놀랍다.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됐어! 그녀는 어디 있냐?"

"예의가 없구나."

"내가 묻는 건 그녀가 어디 있냐는 거야!"

"사방 벽 안에 있지. 자유로운 몸이야…"

"자유롭다고?"

"그래. 한 벽에서 다른 벽으로 갈 수 있는 자유."

"뒤퐁 빌라? 네가 스타인웨그를 가두려고 꾸민 그 감옥이 맞지?"

"아! 그걸 알다니… 아니, 거기는 없어."

"그럼 대체 어디란 말이야? 말해, 안 그러면…"

"자, 공작 각하.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그 비밀을 순순히 털어놓을 만큼 내가 바보겠느냐? 너는 그 애를 좋아하잖아…"

"입 다물어!" 세르닌이 격분하며 외쳤다. "그만둬…"

"그래서 뭐? 그게 수치라도 된다는 거냐? 나도 그 애를 좋아해. 나도 그만큼 위험을 무릅썼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세르닌의 무서운 분노에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 분노는 억눌리고 소리 없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릴 만큼 강렬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각자 상대방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다.

마침내 세르닌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협정을 제안한다기보다 위협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내 말 들어. 네가 나한테 했던 그 제휴 제안을 기억하느냐? 케셀바흐 사건을 우리 둘이 함께… 함께 움직이고… 이익을 나누자던 것 말이다. 나는 거절했었지. 그걸 오늘 받아들이겠다…"

"너무 늦었어."

"잠깐. 그보다 더한 것도 받아들이마. 나는 그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 더는 아무 일에도 끼어들지 않겠다… 전부 네가 가져라… 필요하면 내가 돕기까지 하겠다."

"조건은 뭐야?"

"제네비브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다른 쪽은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 나이가 나이가니, 헛소리를 하시는군요, 뤼팽. 불쌍하네요.”

두 적대자 사이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거웠다.

남작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참으로 재미있군. 당신처럼 흐느끼며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 그냥 병사가 장군을 물리치는 중이군.”

“바보.” 세르닌이 낮게 중얼거렸다.

“왕자님, 오늘 밤 증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다면 말이죠.”

“바보.” 세르닌이 다시 말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당장 끝내시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왕자님. 당신의 최후가 왔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소 짓고 계십니까? 그것은 실수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가진 이점은 막대합니다. 저는 죽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바보.” 세르닌이 또다시 반복했다.

그는 시계를 꺼냈다.

"두 시야, 남작.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몇 분뿐이지. 두 시 오 분, 늦어도 두 시 십 분이면 웨버 씨와 양심이라곤 없는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네 은신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네 멱살을 잡을 거다.

미소 짓지 마.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믿고 있던 탈출구는 이미 발각됐어. 나도 알고 있고, 감시도 붙여 놨지. 넌 이제 완전히 독 안에 든 쥐다. 네 앞엔 단두대뿐이야, 친구."

알텐하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가… 네가 그런 짓을? 그렇게 비열한 짓을…"

"집이 포위됐어. 공격은 임박했다. 말하면 살려 주지."

"어떻게?"

"별장 출구를 지키는 자들은 내 부하야. 그들에게 보내는 쪽지 한 장 써 주면 넌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말해."

알텐하임은 몇 초 동안 생각에 잠겨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선언했다.

"허풍이야. 넌 제 발로 늑대 아가리에 뛰어들 만큼 멍청하진 않을 테니까."

"제네비브를 잊고 있군. 그녀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말해 봐."

"좋아. 기다리자." 세르닌이 말했다. "담배 한 대 어때?"

"좋지."

잠시 후 세르닌이 물었다.

"들려?"

알텐하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 들려…"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르닌이 말했다.

"으레 하는 경고조차 없군… 아무런 예비 절차도 없이… 넌 여전히 결심했어?"

"그 어떤 때보다 확고해."

"그들이 가진 도구로는 오래가지 못할 거란 건 알지?"

"그들이 이 방에 들어와 있다 해도 나는 말하지 않겠어."

철문이 무너졌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체포당하는 건 용인하네,” 세르닌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스스로 수갑을 찬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자, 고집 부리지 마. 말하고 도망가.”

“그리고 너는?”

“나는 남는다. 내가 뭘 두려워하겠나?”

“봐.”

남작이 창문 틈새를 가리켰다. 세르닌이 그 틈으로 눈을 대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 저 개자식! 너도 나를 밀고했구나! 웨버가 데려온 건 열 명이 아니라 오십, 백, 아니 이백 명이나 돼…”

남작은 솔직하게 웃었다.

"그 많으면 뤼팽 문제인 게 분명해. 나 같은 놈에게는 여섯 명이면 충분했지."

"경찰에 알렸나?"

"무슨 증거를 줬나?"

"네 이름… 폴 세르닌, 즉 아르센 뤼팽."

"너 혼자서 그걸 알아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말이야? 그럴 리가 없지. 다른 놈이 알려준 거지, 인정해."

그는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형사들이 떼지어 빌라 주변을 뒤덮고 있었다. 이제는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제 물러설지, 아니면 구상해 둔 계획을 실행할지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알텐하임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었고, 남작에게 달아날 다른 출구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에 세르닌은 마음이 뒤흔들렸다. 자유로운 몸이 된 남작! 제네비브 곁으로 돌아가 그녀를 괴롭히고, 그 추악한 사랑에 굴복시킬 수 있는 남작!

계획이 틀어졌다. 그는 즉각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 모든 것을 제네비브가 겪는 위기에 맞춰야 했다. 세르닌은 극심한 갈등에 빠졌다. 남작과 눈이 마주친 채, 그는 남작의 비밀을 뽑아내고 도망가고 싶

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말이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의 생각에 잠기면서도, 남작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남작의 무기는 무엇이고, 구원의 희망은 무엇일까.

현관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철판으로 보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였다.

두 남자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와 단어의 의미는 그들의 귀에 들어왔다.

“자신만만해 보이는군,” 세르닌이 말했다.

"젠장!"

상대편이 소리치며 세르닌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세르닌은 곧바로 일어나, 큰 계단 아래로 난 작은 문—알텐하임이 사라진 그 문—을 지나, 돌계단을 단숨에 굴러 내려가듯 지하실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낮고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남작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난 함정문의 뚜껑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바보 같은 놈!"

세르닌이 남작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이 터널 끝에 내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그들은 너를 개처럼 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 혹시… 혹시 그 통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다른 출구라도 있다면 모를까… 옳지, 제기랄! 내가 알아냈다… 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싸움은 치열했다. 알텐하임은 유난히 발달한 근육을 지닌 진짜 거구였다. 그는 상대를 끌어안아 두 팔을 옭아매고 질식시키려 했다.

"당연하지… 당연해…" 상대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당연히, 잘도 짜놓았군… 내가 손을 써서 네 어딘가를 부러뜨릴 수 없는 한, 네가 유리하겠지…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겠어?"

그는 몸서리를 쳤다. 닫혀 있던 뚜껑문, 두 사람이 온몸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던 그 뚜껑문이 그들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누군가 그것을 들어 올리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고, 남작도 그것을 느꼈는지 뚜껑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싸움의 자리를 옮기려 했다.

'저 녀석이다!'

세르닌은 머릿속으로 외쳤다. 그 수수께끼 같은 존재를 마주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저 녀석이 지나가면, 나는 끝장이다.'

알텐하임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상대를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상대는 두 다리로 남작의 허벅지를 꽉 감고 매달린 채, 한 손을 서서히 풀려나게 만들었다.

그 위쪽에서 거대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방망이로 내리치는 소리였다.

'다섯 분밖에 남지 않았다.'

세르닌은 생각했다. '일분 안에, 이 자를……'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친구. 잘 붙잡고 있어."

그는 놀라운 기운을 짜내며 무릎을 서로 부딪쳤다. 남작은 비명을 지르며 한쪽 허벅지가 비틀렸다.

세르닌은 상대의 고통을 놓치지 않았다. 힘을 모아 오른손을 빼내자마자, 곧바로 남자의 목을 조랐다.

"완벽하군.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 칼을 찾지 마라. 찾다가는 닭처럼 목이 잘릴 테니까. 내가 좀 예의는 지키고 있어. 너무 세게 조르지는 않았어. 그냥 네가 덜덜 떨며 발버둥 치고 싶지 않을 만큼만."

말하면서도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가는 줄을 꺼냈다. 한 손으로, 놀라울 만큼 민첩하게 남자의 손목을 묶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남작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몇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세르닌은 그를 단단히 묶어 버렸다.

"정말 착하네! 잘했어! 네가 이렇게 변하리라곤 생각도 못했어. 자, 만약 네가 탈출하고 싶을 때를 위해, 내 작은 작업을 완성할 재료를 하나 더 준비했어. 철사 한 뭉치 말이야. 먼저 손목부터… 이제 발목도… 다 됐군. 하느님, 정말 고마운 친구야."

남작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말더듬듯 말했다.

"나를 넘기면, 제네비에브는 죽을 거야."

"정말? 어떻게? 설명해 봐."

"그녀는 감금되어 있어.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은 아무도 몰라. 내가 사라지면, 그녀는 굶어 죽을 거야. 스타인웨그처럼."

세르닌은 전율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하지만 넌 말할 거야."

"절대 안 해."

"할 거야. 지금은 아니지. 이미 늦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가 남작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알텐하임, 내 말 잘 들어. 곧 너는 잡힐 거야. 오늘 밤은 유치장에서 자게 될 거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지. 나조차

도 이제 그걸 바꿀 수는 없어. 내일이면 상테 형무소로 이송될 거고, 그 뒤엔 네가 잘 아는 곳으로 가게 되겠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살아날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오늘 밤, 알겠어, 바로 오늘 밤, 내가 유치장의 네 감방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는 제네비브가 어디 있는지 말해. 두 시간 뒤,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풀려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이 그리 아깝지 않다는 뜻이겠지."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르닌은 일어서서 귀를 기울였다. 위쪽에서 커다란 소음이 들렸다. 현관문이 부서지고 있었다. 발소리가 현관 바닥과 거실 마루를 울렸다. 베버 씨와 그의 부하들이 수색하고 있었다.

"안녕, 남작. 오늘 밤까지 생각해 봐. 감방이 좋은 조언자가 되어 줄 거야."

그는 죄인을 밀어내어 구덩이 뚜껑이 열리도록 했다. 그리고 뚜껑을 들어 올렸다. 예상대로, 계단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처럼 뚜껑을 열어 둔 채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스무 계단. 그 아래는 르노망 씨와 구레가 지나온 복도의 시작 부분이었다.

그는 복도로 들어섰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누군가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복도를 비췄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권총을 장전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쏠 거야."

대답은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아마 착각이겠지.' 그는 생각했다. '저 존재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 자, 성공해서 문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해… 옷 보따리를 넣어둔 구멍은 멀지 않아. 그걸 챙기면 끝나는 거지… 게다가 얼마나 멋진 수법인가! 뤼팽의 최고 수법 중 하나야….'

그는 열려 있는 문 하나를 발견하고는 곧장 멈춰 섰다. 오른쪽에는 움푹 파인 곳이 있었다. 르노망 씨가 차오르는 물을 피하려고 파놓은 그 구덩이였다.

그는 몸을 숙여 손전등 불빛을 그 구멍 안으로 비췄다.

'오!' 그는 흠칫 떨며 내뱉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두드빌이 보따리를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겠지.'

하지만 아무리 어둠 속을 뒤지고 살펴봐도 보따리는 더 이상 거기 없었다. 그는 이번에도 그 신비로운 존재가 그것을 훔쳐갔다고 확신했다.

"아깝다! 일이 그렇게 잘 짜여 있었는데! 모험은 다시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있었고, 나는 더 확실하게 끝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시바삐 튀는 수밖에 없어… 두드빌이 별관에 있으니… 내 퇴로는

확보돼 있어… 농담은 그만, 서둘러서 가능하면 일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야 해… 그자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 아, 그자도 내 손아귀를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러나 그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다른 쪽 문, 별관에 이르기 전 마지막 그 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에 몸을 내던졌다. 무슨 소용인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엔 정말 끝장이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일종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알텐하임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자, 어둠과 침묵에 싸인 그 인물은 그를 압도했고, 그의 모든 계략을 뒤엎었으며, 음흉하고 지독한 공격으로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패배했다.

베버는 동굴 깊숙이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웅크린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 안 돼, 안 돼!" 그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나 혼자라면 또 모르지!… 하지만 제네비브가 있어. 오늘 밤 반드시 구해내야 할 제네비브가… 어차피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아까 그자가 사라졌다는

건, 이 근처에 두 번째 출구가 있다는 뜻이지. 자, 자, 베버와 그 패거리가 아직 나를 잡은 건 아니야."

이미 그는 손에 등불을 들고 터널 안을 살피며 벽을 이룬 벽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비명 소리 하나가 그에게까지 들려왔다.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비명에 그는 불안으로 몸을 떨었다.

소리는 뚜껑문 쪽에서 들려왔다.

그는 문득 글리신 별장으로 다시 올라가려던 참에 그 뚜껑문을 열어둔 채로 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서둘러 발길을 돌려 첫 번째 문을 지났다. 가는 길에 등불이 꺼져 있던 터라, 무언가가, 정확히는 누군가가 자기 무릎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벽을 따라 기어가는 누군가였다. 그리고 곧 그 존재가 어디론가 사라져 자취를 감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는 계단 한 단에 부딪혔다.

'여기가 출구다.' 그는 생각했다. '그자가 드나드는 두 번째 출구.'

위쪽에서 비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조금 약했지만, 그 뒤로 신음과 가르랑거리는 숨소리가 이어졌다.

세르닌은 계단을 뛰어 올라 아래층 방으로 뛰어들어 남작에게 달려들었다.

알텐하임은 목에서 피를 쏟으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를 묶었던 끈은 잘려 있었지만, 손목과 발목을 묶은 철사는 그대로였다. 풀어줄 수 없게 되자 공범이 그의 목을 그어버린 것이다.

세르닌은 그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식은땀이 흘러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는 감금된 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제네비브를 떠올렸다. 그녀의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남작뿐이었으니까.

순경들이 현관의 작은 비밀문을 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들이 뒷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도 또렷이 들렸다.

이제 그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문 하나, 그가 있는 아래층 방의 문뿐이었다. 습격자들이 빗장 손잡이를 움켜쥐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문을 잠갔다.

그 옆에는 뚜껑문이 열려 있었다… 두 번째 출구가 아직 남아 있으니, 그것은 살길이 될 수 있었다.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제네비브가 먼저다.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나를 생각하자….'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남작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그는 몸을 더 숙였다.

"내 말 들리지, 응?"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다.

죽어가는 자에게 아직 한 가닥 숨이 붙어 있었다. 이 희미한 생명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마지막 방어선인 그 문을 순경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르닌이 중얼거렸다.

"내가 널 구해 주마. 확실한 약이 있다. 단 한 마디만… 제네비브?"

그 희망 찬 말이 기운을 불어넣는 듯했다. 알텐하임은 간신히 입을 열려 했다.

"대답해. 내가 널 구할 테니까." 세르닌이 재촉했다. "오늘은 생명, 내일은 자유야. 대답해!"

문이 발길질에 덜덜 떨렸다.

남작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남작에게 몸을 굽힌 채 놀란 얼굴로, 모든 에너지와 의지를 집중하고 있던 세르닌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경찰, 불가피한 체포, 감옥 생활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직 제네비브뿐이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제네비브. 그리고 그 비참한 남작의 단 한 마디가 그녀를 구할 열쇠였다는 사실만 떠올렸다.

"대답해야 해. 그래야 해."

명령이자 간청이었다. 알텐하임은 마취된 듯 더듬거렸다. 그 끊을 수 없는 권위에 완전히 무너진 듯했다.

"리… 리볼리…"

"리볼리 거리, 맞지? 그 거리의 어느 집에 그녀를 가뒀잖아… 번호는 몇 번이야?"

혼란이 일었다.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문이 무너져 내렸다.

"잡아라!" 웨버가 외쳤다. "붙잡아! 둘 다 붙잡아!"

세르닌이 무릎을 꿇었다.

"번호를 대… 답해. 네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답해. 왜 이제 와서 침묵이야?"

"스물… 스물일곱." 남작이 간신히 내뱉었다.

여러 손이 세르닌을 붙잡았다. 권총 열 자루가 그를 겨누었다.

세르닌이 경찰들을 향해 돌아서자,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뒤로 물러났다.

"움직이면 쏜다, 뤼팽." 웨버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쏘지 마세요." 세르닌이 진지하게 말했다. "소용없어요. 저는 항복합니다."

"장난하냐? 또 네 특유의 수작이지?"

"아니요." 세르닌이 다시 말했다. "싸움은 졌습니다. 당신에겐 쏠 권리가 없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총 두 자루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장난하냐!" 웨버가 냉혹하게 되받았다. "얘들아, 심장을 노려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쏴라.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쏴라."

그곳에는 열 명이 있었다. 웨버는 열다섯 명을 배치했다. 열다섯 개의 팔이 표적을 향했다. 그러고는 분노로, 기쁨과 두려움에 떨며 이를 갈았다.

"심장을! 머리를! 자비는 없다! 저자가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코앞에서 쏴버려라!"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세르닌은 미소 지었다. 그의 관자놀이 두 치 앞에서 죽음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 손가락들이 방아쇠를 바짝 당기고 있었다.

"아, 저 꼴을 보니 기분 좋군." 웨버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정중앙에 명중했어. 너한테는 아주 처참하게 말이야, 뤼팽 씨."

그는 커다란 채광창의 덧문을 열게 했고, 그리로 햇빛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알텐하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남작이 눈을 떴다. 흐릿하고 끔찍한, 이미 공허로 가득 찬 눈이었다.

남작은 웨버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가, 세르닌을 발견하자 분노로 경련했다. 마치 혼미함에서 깨어난 듯, 갑자기 되살아난 증오가 그에게 힘의 일부를 되돌려준 것 같았다.

남작은 두 손목으로 몸을 지탱하며 말을 하려 했다.

"저자를 알아보겠지, 응?" 웨버가 말했다.

"뤼팽이 맞지?"

"그래… 뤼팽이야."

세르닌은 여전히 미소 띤 채 듣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재미있군!" 그가 내뱉었다.

"더 할 말이 있소?" 웨버가 물었다. 남작의 입술이 절망적으로 달싹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르노망 씨에 관한 거요?"

"그를 가뒀소? 어디에? 대답하시오…"

알텐하임은 온몸을 일으키고 시선을 잔뜩 모아, 방 구석의 벽장을 가리켰다.

"저기… 저기…" 그가 말했다.

"오, 오! 거의 다 왔군." 뤼팽이 비웃듯 말했다.

웨버가 벽장을 열었다. 선반 하나에 검은 서지 천으로 싼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풀자 모자, 작은 상자, 옷가지가 나왔다.

그는 흠칫했다. 르노망 씨의 올리브색 프록코트를 알아본 것이다.

"아! 죽일 놈들!" 그가 외쳤다. "그를 죽였군."

"아니오." 알텐하임이 손짓으로 답했다.

"그럼?"

"바로 그자… 그자…"

"뭐라고, 저자가?… 두목을 죽인 게 뤼팽이라고?"

알텐하임은 사납게 고집을 부리며 삶에 매달렸다. 말하고 고발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밝히려던 비밀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더는 말로 옮길 수 없었다.

"이봐요." 부국장이 다그쳤다. "르노망 씨는 분명 죽었잖소?"

"살아 있다는 거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그럼 이 옷은? 이 프록코트는?"

알텐하임이 세르닌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웨버 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아! 알겠다! 뤼팽이 르노망 씨의 옷을 훔쳐서 그걸로 빠져나가려 했던 거군…"

"그래… 그래…"

"제법인데." 부국장이 외쳤다. "정말 그자다운 수법이야. 이 방에서 사람들은 르노망 씨로 변장한 뤼팽을, 아마 사슬에 묶인 채로 발견했겠지. 그게 그에겐 활로였어… 다만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 그래…"

하지만 죽어가는 남자의 눈빛을 보며 웨버 씨는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아직 그게 비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 죽어가는 자가 죽기 전에 밝히려던, 기이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무엇이었을까?

웨버 씨가 물었다.

"르노망 씨는 어디 있소?"

"여기라니?"

"이 방엔 우리뿐이잖소!"

"있어… 있어…"

"제발 말 좀 해 보시오…"

"있어… 세… 세르닌…"

"세르닌! 뭐? 뭐라고?"

"세르닌… 르노망…"

웨버 씨가 펄쩍 뛰었다. 갑작스러운 섬광이 그를 때렸다.

"아니, 아니, 그럴 리 없어. 미친 생각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죄수를 살폈다. 세르닌은 무척 즐거워 보였고, 마치 결말이 몹시 궁금한 한가한 구경꾼처럼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진맥진한 알텐하임은 다시 길게 뻗어 쓰러졌다. 그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던진 수수께끼의 답을 내놓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인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도 집요하게 따라붙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가설에 흔들리며, 웨버 씨는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말해 봐…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무슨 비밀이지?"

상대는 듣지 못하는 듯, 미동도 없이 눈만 고정되어 있었다.

웨버 씨는 그에게 바짝 몸을 붙이고, 한 음절 한 음절이 이미 어둠에 잠긴 그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도록 또렷이 끊어 말했다.

"들어 봐… 내가 잘 이해했지, 그렇지? 뤼팽과 르노망 씨가…"

그는 말을 잇기 위해 애썼다. 그 문장이 너무도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작의 흐릿한 눈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신성모독을 외치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을 이었다.

"그게 맞지? 그렇지? 넌 확신하는 거야? 두 사람이 사실 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입꼬리에서 피 한 줄기가 스며나왔다. 두세 번 경련하듯 숨을 헐떡이더니, 마지막 근육의 떨림이 일었다. 그리고 끝이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아래층 방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세르닌을 감시하던 요원들 대부분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놀란 얼굴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를 거부한 채, 그 강도가 아직 말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비난을 듣고 있었다.

웨버 씨는 검은 서지 천으로 싼 꾸러미에서 찾아낸 상자를 집어 열었다. 상자 안에는 회색 가발, 은테 안경, 갈색 목도리가 들어 있었고, 이중 바닥에는 화장용 단지들과 작은 회색 털 뭉치들이 든 칸이 있었다. 한마디로 르노망 씨의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 일습이었다.

그는 세르닌에게 다가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생각에 잠긴 채 이 사건의 모든 국면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던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사실이란 말이지?"

여전히 미소 띤 평정을 잃지 않은 세르닌이 대꾸했다.

"그 가설은 우아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군. 하지만 그전에, 부하들더러 그 장난감 좀 치우고 나를 가만 놔두라고 해."

"좋아." 웨버 씨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받아들였다. "자, 이제 대답해."

"무엇을?"

"당신, 르노망 씨인가?"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동생이 비밀 출구를 지키는 동안 그곳에 있던 장 뒤데빌, 세르닌의 공범인 바로 그 장 뒤데빌이 얼떨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웨버 씨도 숨이 막힌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놀랐지, 응?" 세르닌이 말했다. "인정하지, 꽤 우스운 일이야… 세상에, 우리 둘이 함께 일할 때, 국장과 부국장으로 말이야, 네가 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게다가 제일 우스운 건, 그 선량한 르노망 씨가 죽은 줄 네가 믿었다는 거야… 가엾은 구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천만에, 이 친구야, 그 작은 양반은 아직 살아 있었어…"

그는 알텐하임의 시체를 가리켰다.

"이봐, 바로 저 도적이 나를 자루에 넣고 허리에 돌을 묶어 물에 처넣었지. 다만, 내 칼을 빼앗는 걸 깜빡했어… 칼만 있으면 자루를 찢고 밧줄을 끊을 수 있거든. 그게 다야, 가엾은 알텐하임… 그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신세는 안 됐을 텐데… 자, 이만하면 됐어… 편히 잠들 거라!"

웨버 씨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듣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포기한 듯 절망적인 몸짓을 했다.

"수갑을 채워." 그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말했다.

"겨우 그게 다야?" 세르닌이 말했다. "상상력이 부족하군… 뭐, 그게 좋다면야."

그러고는 자기를 덮친 자들 맨 앞줄에 있는 뒤데빌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자, 친구. 네 차례야. 자네가 무리할 필요는 없어. 나는 정정당당하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의 어조는 도데빌에게 분명히 전달되었다. 지금의 싸움은 끝났으며,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도데빌이 수갑을 건넸다. 입술을 움직이지도, 얼굴 근육을 일그러뜨리지도 않은 채, 세르닌은 속삭였다.

"리볼리 거리 27번지. 제네비브."

웨버는 이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억누를 수 없었다.

"출발! 수사국으로!"

"그렇습니다. 수사국으로요." 세르닌이 외쳤다. "르노망 씨가 아르센 뤼팽을 투옥하면, 뤼팽이 다시 세르닌 공자를 투옥할 테니까요."

"자네는 영리하군, 뤼팽."

"맞아요, 웨버. 우리는 서로 통하지 못해요."

차 안에서는 그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세 대의 순찰차가 그를 호위하며 달리고 있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형사국에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베버는 뤼팽이 조직한 탈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를 인체측정실로 올려 보냈고, 그곳에서 다시 구치소로 데려갔다. 결국 그는 상테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전화로 미리 통보받은 형무소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감 절차와 수감실에서의 신원 확인은 빠르게 처리되었다.

저녁 일곱 시, 폴 세르닌 공작은 제2부 14호 감방의 문을 나섰다.

"아파트가 나쁘지 않군. 아주 괜찮아." 그가 말했다. "전기 조명에 중앙 난방, 화장실까지. 뭐, 현대적인 편의시설은 다 갖춰졌지. 완벽해. 그러니 계약하자, 이사장님. 이 아파트를 제가 맡겠습니다."

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사장님,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일 아침 열 시가 되기 전까지 초콜릿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피곤해서 잠이 쏟아집니다."

그는 벽을 등지고 돌아눕혔다.

다섯 분 후,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제8장

전 세계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물론 아르센 뤼팽의 체포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치켜세우며, 경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위대한 모험가는 붙잡혔다.

그토록 특이하고, 천재적이었으며, 보이지 않던 영웅도 이제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네 벽으로 둘러싸인 감방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금 '정의'라는 거대한 힘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 무너졌다. 정의는 늦든 빠르든, 반드시 장애물을 부수고 적들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이 모든 것이 말해지고, 인쇄되고, 반복되고, 논평되고, 또 다시 되풀이되었다. 경찰청장은 훈령십자장을 받았고, 웨버 씨는 훈령장을 받

았다. 그들의 가장 평범한 협력자들의 재주와 용기가 찬양받았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승리를 외쳤으며, 기사와 연설이 쏟아져 나왔다.

좋다. 하지만 이 놀라운 찬사의 합창, 이 시끄러운 환희, 이 모든 것을 압도한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광기 어린, 거대한, 자발적인, 멈출 줄 모르는, 소란스러운 웃음이었다.

아르센 뤼팽은 지난 4년 동안 형사국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그가 형사국장이 된 지 이미 4년이 지났다! 그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그 직위가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사의 존경과 정부의 총애, 그리고 모두의 감탄을 받고 있었다.

사실 네 해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평온과 재산 보호는 아르센 뤼팽이 맡고 있었다. 그는 법의 이행을 감시했고, 무고한 이들을 보호했으며, 유죄 자들을 쫓아다녔다.

그가 이룬 공로는 얼마나 막대한가. 그 어느 때보다 질서가 안정적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범죄가 확실하고 빠르게 적발되었다.

데니즈 사건, 리옹 신용은행 강도 사건, 오를레앙 급행열차 습격 사건, 도르프 남작 살해 사건……. 하나같이 뜻밖의 승리와 압도적인 쾌거였다. 이 위대한 업적은 가장 저명한 경찰들의 가장 유명한 승리들과도 비교할 만했다.

옛적, 루브르 박물관 화재와 범인 체포 사건을 계기로 발랑글레 총리가 연설한 적이 있다. 레르망의 다소 독단적인 처신을 옹호하기 위한 자리였다.

총리는 이렇게 외쳤다.

"그의 선견지명과 결단력, 그리고 실행력. 예상치 못한 수법과 끝없는 재주. 레르망 씨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건,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즉 아르센 뤼팽입니다. 레르망 씨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아르센 뤼팽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르망 씨는 바로 아르센 뤼팽 그 자체였다!

러시아 왕자라니, 누가 신경 썼겠는가. 뤼팽은 이런 변신을 밥 먹듯 했다. 하지만 사수르티의 수장이라니!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다. 그토록 특별한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유쾌하게 꾸려가는지.

르노망 씨! 아르센 뤼팽!

최근 경찰과 대중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이제야 이해된다. 정오의 법원에서 동생이 사라진 일도, 딱 정해진 날짜에 벌어진 일도 말이다. 본인이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탈출에 쓴 수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면, 다들 놀랄 거야."

"그게 다야?"

"맞아, 그게 다야. 하지만 그걸 생각해내야 했지."

사실 그 수법은 아이 수준으로 단순했다. 사수르티의 수장이면 됐으니까.

하지만 뤼팽은 형사국장이었다. 그의 명령을 따랐던 모든 요원들은 뤼팽의 무의식적이고도 불가피한 공범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정말 훌륭한 연극이었다. 놀라울 만큼 완벽한 블러핑! 비겁한 시대에 꼭 필요한 거대한 농담이자 위안이 아니던가. 비록 감옥에 갇혔고, 어찌할 수 없이 패배한 신세였지만, 뤼팽은 여전히 가장 큰 승자였다. 그의 감방에서 빛이 뻗어나와 파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같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인님'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방을 '상테-팔라스'라고 부르며 눈을 떴다. 그는 곧장 자신의 체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명확히 그려냈다. 세르닌과 르노망이라는 두 가지 이름, 그리고 공작과 형사국장이라는 두 가지 직함을 달고 체포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소란을 피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지. 바로 동시대인들의 인정이라니. 오, 영광이여! 살아있는 자들의 태양이여…"

그는 방 안의 밝은 빛을 더 좋아했다. 높은 곳에 난 창문 너머로 나뭇가지가 보였고, 그 사이로 푸른 하늘이 비쳤다.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바닥에 고정된 책상과 의자 하나뿐이었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겨워 보였다.

"자,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하지만 먼저 세수를 해야지. 필요한 건 다 챙겼나? 아니다. 그렇다면 여직원에게 두 번 울려라."

그는 문 근처에 있는 장치를 누르자, 복도에 신호음이 울렸다.

잠시 후, 철제 빗장이 밖에서 당겨졌다. 자물쇠가 돌아가고 간수가 나타났다.

"뜨거운 물 좀 가져다주게, 친구."

간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화가 난 표정으로 뤼팽을 바라보았다.

"아, 그리고 수건도!" 뤼팽이 외쳤다. "세탁용 수건이요! 천만에, 수건이 없군!"

남자가 중얼거렸다.

"장난하는 거야? 그런 짓은 하지 말지."

그가 물러서려던 찰나, 뤼팽이 그를 팔로 힘껏 붙잡았다.

"우편국에 이 편지를 가져다주면 백 프랑이야."

그는 수색을 피해 숨겨둔 지폐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편지라니…"

간수는 돈을 받으며 말했다.

"이제 썼소."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연필로 몇 마디를 적어 봉투에 넣은 뒤, 이렇게 썼다.

간수가 편지를 받아 들고 나갔다.

"이 편지는 내가 직접 가져다주든 마찬가지다.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답장이 올 거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처지를 점검할 시간을 벌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맡기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요약하자면, 현재 나는 두 적과 싸우고 있다. 첫째는 나를 붙잡아두지만 나는 전혀 무시하는 사회. 둘째는 나를 붙잡지 못하지만, 나는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미지의 인물."

"바로 그 자가 경찰에 내가 세르닌이라고 누설했다. 내가 르노망 씨라는 것도 그 자가 간파했다. 지하 통로의 문을 닫은 것도, 나를 감옥에 처넣은 것도 바로 그 자다."

아르센 뤼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결국 이 싸움은 그와 나 사이의 것이었다.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즉 케셀바흐 건을 밝혀내고 해결하기 위해,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반면, 그는 자유롭고,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가 내게 있다고 믿었던 두 장, 즉 피에르 르두와 늙은 슈타

인베크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었다. 요컨대, 그는 이미 목표에 다다르고 있었고, 나는 영원히 그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다.

잠시 묵상하는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독백이 이어졌다.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한쪽에는 모든 것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앞에는 나만큼이나 강한, 아니 오히려 더 강한 남자가 있다. 내가 거리낌을 두는 양심이라는 짐을 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를 공격할 무기는 없다."

그는 이 마지막 문장들을 기계적인 목소리로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러고는 입을 다물고, 이마를 양손으로 감싼 채 오랫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소장님." 문이 열리자 뤼팽이 말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소장님, 제가 오시라고 직접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시원이 그 편지를 전해 줄 거라고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확신했던지 봉투에 소장님의 이니셜 'S.B.'와 나이 '42'까지 적어 두었지요."

소장의 이름은 실제로 스타니슬라스 보렐리였고, 나이는 마흔두 살이었다. 그는 외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온화했으며, 가능한 한 관용을 베풀며 수감자들을 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뤼팽에게 말했다.

"당신은 제 부하의 정직함을 잘못 보지 않으셨군요. 여기 당신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석방될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색실'로 다시 가시지요."

뤼팽은 그 용도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보렐리를 따라 들어가 옷을 벗었고, 사람들이 정당한 의심을 품고 그의 옷을 살피는 동안 자신도 더없이 꼼꼼한 검사를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고, 보렐리 소장이 말했다.

"이제 마음이 놓이는군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소장님. 당신의 직원들은 이 일을 매우 세심하게 처리하더군요. 제 만족의 표시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100프랑 지폐 한 장을 보렐리에게 건넸고, 보렐리는 흠칫 놀랐다.

"아,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난 거죠?"

"소장님, 머리 쓰실 것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면서 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 아무리 괴로운 불운이 닥쳐도 당황하는 법이 없습니다. 투옥조차 마찬가지죠."

그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왼손 중지를 집더니 툭 하고 단번에 떼어 내어 태연히 보렐리에게 내밀었다.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소장님. 이건 제 손가락이 아니라 그저 풍선 고무로 만든 관일 뿐입니다. 정교하게 색칠해서 제 중지에 딱 맞게 씌우면 진짜 손가락처럼 보이죠."

그러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물론 백 프랑짜리 지폐 한 장을 더 숨기는 용도로도 쓰이죠… 어쩌겠습니까? 지갑이야 가질 수 있는 만큼 갖는 거고… 그걸 잘 활용해야 하니까요…"

그는 보렐리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부디, 소장님, 제가 이런 자잘한 재주로 소장님을 현혹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소장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좀… 특별한 부류의 손님임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곳의 일반 규칙을 어기는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소장은 마음을 추슬렀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그 규칙들을 따르리라 믿고 싶습니다. 제가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치들이 소장님을 괴롭게 하겠지요? 바로 그걸 면하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 조치들이 제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밖에서 제게 맡겨진 중대한 이익을 지키는 것도, 제가 부추기는 신문에 글을 싣는 것도, 제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탈출을 준비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는 걸 미리 증명해 드리지요."

"탈출이라뇨!"

뤼팽은 진심으로 껄껄 웃었다.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감옥에 있는 유일한 명분은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보렐리 소장에게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도 억지로 웃어 보였다.

"유비무환이라지요…"

"제가 바란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장님, 온갖 예방조치를 다 취하시고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누구도 소장님을 탓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 탈출 때문에 소장님이 어떤 곤란을 겪으시든 적어도 경력만큼은 손상되지 않도록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장님.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렐리 소장은 이 별난 수감자에게 깊은 혼란을 느끼고 다가올 일들을 몹시 걱정하며 자리를 떴다. 그사이 수감자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이런, 친구 뤼팽, 정말 배짱 한번 두둑하군! 마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벌써 다 알고 있다는 투야!"

상테 감옥은 방사형 구조로 지어졌다. 본관 중심부에는 모든 복도가 모여드는 원형 광장이 있는데, 그 구조 때문에 수감자는 광장 한가운데 유리 감시실에 배치된 간수들의 눈에 즉시 띄지 않고는 자기 감방에서 나올 수 없다.

감옥을 둘러보는 방문자가 가장 놀라는 점은, 호위 없이 마치 자유로운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듯한 수감자들을 시시각각 마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예컨대 자기 감방에서, 그들을 법원 즉 예심으로 데려가려고 마당에서 기다리는 호송차까지—이동할 때, 그들은 여러 개의 직선 구간을 지난다. 각 구간의 끝에는 간수가 열어 주는 문이 하나씩 있고, 그 간수의 임무는 오직 그 문을 열고 그 문이 통제하는 두 직선 구간을 감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수감자들은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 손에서 저 손으로 건네지는 소포처럼 문에서 문으로, 시선에서 시선으로 넘겨진다.

바깥에서는 시 경비대원들이 그 '물건'을 받아 '샐러드 바구니'(죄수 호송차)의 칸 하나에 밀어 넣는다.

그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뤼팽에게는 그런 절차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 이동도 의심했다. 호송차도 의심했다. 모든 것을 의심했다.

베버가 직접 나섰다. 이까지 무장한 최정예 요원 열두 명을 거느린 그는, 그 무시무시한 죄수를 방 문턱에서 붙잡아 마부까지 자기 부하인 삯마차에 태웠다. 좌우로, 앞뒤로 시 경비대원들이 말을 몰아 따라갔다.

"잘하는군!" 뤼팽이 외쳤다.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다니 감동인걸. 명예 호위대까지. 야, 베버, 너는 위계라는 걸 제대로 아는구나. 직속 상관에게 진 신세를 잊지 않다니 말이야."

그가 베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베버, 나는 사임할 생각이다. 후임으로 너를 지명하지."

"거의 다 된 일입니다." 베버가 대답했다.

"거 반가운 소식이군! 탈출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이는걸. 베버가 보안국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말이야…"

베버는 그 도발을 받아넘기지 않았다. 사실 그는 적수를 앞에 두고 묘하고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뤼팽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 세르닌 공작에게 품었던 경의, 그리고 레노망 씨에게 늘 보여 온 존경 어린 감탄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거기에 원한과 질투, 그리고 충족된 증오까지 한데 섞여 있었다.

일행은 법원에 도착했다. '쥐덫'(유치장) 아래에는 보안부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베버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직한 두 부하, 도데빌 형제를 보고 반가워했다.

"포르메리 씨는 와 있나?" 그가 물었다.

"네, 국장님. 예심판사님은 집무실에 계십니다."

베버가 계단을 올랐고, 도데빌 형제에게 좌우로 둘러싸인 뤼팽이 뒤따랐다.

"제네비브는?" 죄수가 속삭였다.

"구했어요…"

"어디 있지?"

"할머니 댁에."

"켈스바흐 부인은?"

"파리, 브리스톨 호텔에."

"쉬잔은?"

"사라졌습니다."

"슈타인베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뒤퐁 별장은 감시하고 있나?"

"오늘 아침 신문은 괜찮았나?"

"아주 좋았습니다."

"좋아. 내게 편지 보낼 방법은, 이게 내 지시다."

그들은 1층 안쪽 복도에 이르렀다. 뤼팽은 형제 중 한 명의 손에 작은 종이 뭉치를 슬쩍 쥐여 주었다.

뤼팽이 부국장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서자, 포르메리는 근사한 한마디를 던졌다.

"아, 드디어 왔군! 언젠가는 우리가 당신을 붙잡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

"저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심판사님." 뤼팽이 말했다. "운명이 저 같은 정직한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 분으로 바로 당신을 점지하셨다니 기쁠 따름입니다."

'이 녀석이 나를 놀리는군.' 포르메리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똑같이 빈정대면서도 진지한 어조로 받아쳤다.

"당신처럼 정직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절도, 빈집털이, 사기, 위조, 협박, 장물 은닉 등 344건의 사건을 해명해야 합니다. 344건이나요!"

"뭐요! 그게 다요?" 뤼팽이 외쳤다. "정말 부끄럽군요."

"당신처럼 정직한 분은 오늘 알텐하임 씨 살해 사건도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그건 새로운 얘기로군. 그 발상은 당신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예심판사님?"

"바로 그렇소."

"대단하군요! 정말이지 포르메리 씨, 당신 발전하셨습니다."

"당신이 붙잡힌 상황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말고요. 다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알텐하임은 어떤 상처로 죽었습니까?"

"칼에 목을 찔린 상처였소."

"그 칼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그 칼을 못 찾았겠소? 내가 죽였다는 그 사람 바로 옆에서 붙잡혔는데 말이오."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 범인은 누구요?…"

"켈스바흐 씨와 채프먼 등을 목 베어 죽인 바로 그자요. 상처의 형태만 봐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요."

"그자가 어디로 달아났다는 거요?"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방에서 당신이 찾아내게 될 비밀 문을 통해서요."

포르메리는 약삭빠른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그 좋은 본보기를 따르지 않았소?"

"그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출구는 문으로 막혀 있었고, 저는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시도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동료가 반드시 폭로할 것을 두려워해 그를 죽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발견했던 제 옷가지를 숨겼습니다."

"왜 옷을 준비했나요?"

"변장하기 위해서였죠. 글리신스에 도착했을 때의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알텐하임이 법정에 서도록 하고, 저는 세르닌 공작으로서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서…."

"르노망 씨의 모습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포르메리 씨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라니요?”

“르노망 씨의 일은….”

"그건 대중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친구. 하지만 포르메리 씨에게 뤼팽과 르노망이 실은 한 사람이라는 걸 믿게 만들 순 없겠지."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뤼팽이 치안국장이라니? 아니, 절대 아니야! 뭐든 좋으니 그건 빼줘. 인간에게도 한계란 있는 법이야. 난 착한 놈이긴 해. 그래도 말이야.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해 보자.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뤼팽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포르메리에 대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올려도,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눈이 먼 인간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세르닌 공작의 이중 정체성은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포르메리 씨만이……

뤼팽은 입을 벌린 채 경청하고 있던 차장을 돌아보았다.

"베버 차장, 당신의 승진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르노망 씨가 내가 아니라면, 그건 르노망이라는 인물이 실재한다는 뜻이죠. 실재한다면, 뛰어난 직감을 지닌 포르메리 씨가 언젠가 그를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

"찾아내겠습니다, 뤼팽 씨." 판사가 외쳤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과 그가 직접 대면하는 그 순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판사는 폭소를 터뜨리며 책상 위를 북 치듯 두드렸다.

"재미있군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르노망 씨고, 동료인 마르코를 체포한 것도 당신이 한 짓이군요?"

"그렇습니다. 총리를 만족시키고 내각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오."

포르메리 씨는 배를 잡고 비틀거렸다.

"세상에, 웃음이 터져나오네. 정말 재미있군. 이 대답은 온 세계를 돌겠지. 그리고 네 논리에 따르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즉 케셀바흐 씨 피살 사건 이후의 팔라스 호텔 조사까지 너와 함께했다는 말이냐?"

"당신이 보관(寶冠) 사건을 좇아다닐 때, 나는 샤메라스 공작이었소."

뤼팽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받아쳤다.

포르메리 씨는 몸을 떨었다. 그 끔찍한 기억이 그의 모든 유머를 앗아갔다. 그는 순식간에 진지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그러니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말이야?"

"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소. 코친차이나행 증기선을 타고 사이공에 가면, 진짜 르노망 씨, 즉 내가 위장했던 그 착한 남자의 죽음을 증명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오. 그 사망 증명서도 보내드리겠소."

"장난이군!"

"음, 판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르노망 씨라는 게 싫으시다면, 그건 잊으시죠. 제가 알텐하임 씨를 죽였다는 게 마음에 걸리시면, 편하게 판단하셔요. 증거를 대는 건 당신의 취미로 남겨두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질문이든, 제 답변이든, 모두 무효로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수사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수사를 끝낼 때쯤이면, 저는 이미 저 멀리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요. 다만…"

그는 거리낌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 너머 포르메리 판사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 알아두십시오. 겉보기가 어떻든, 당신의 의도가 어떻든, 저는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일이 있고, 저에게는 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도록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스스로 챙기는 거죠.

지금 제가 쫓고 있는 사건은, 잠깐의 방심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단 한 순간의 중단도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를 이 좁은 감옥 벽 안에서 잠시 하릴없이 빈둥거리게 만들었으니, 두 분께 제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는 당당히 서 있었다. 태도는 거만했고 표정은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남자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너무 강해서, 마주 앉아 있던 두 사람은 감히 그의 말을 끊지 못했다.

포르메리 씨가 관찰자의 태도로 재미를 느끼며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군! 정말 우스워!"

"우습든 아니든, 판사 양반,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오. 내가 살인자냐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 과거의 전과나 죄행을 추적하는 일, 그런 건 모두 헛소리요. 당신들은 그걸로 시간을 보내도 좋소. 단, 당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말라는 조건이오."

"그 목적이라니요?" 포르메리 씨가 여전히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이 내 일을 대신 맡아, 케셀바흐 씨의 계획에 관한 내 조사를 이어받는 것이오. 특히 독일인 스타인베크 씨를 찾아내는 일이지. 그는 고(故) 알텐하임 남작에게 납치되어 감금된 상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건 내가… 아니, 내가 르노망 씨라고 믿고 있던 시절에 혼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야. 이 일의 일부는 여기 근처 내 사무실에서 벌어졌고, 베버도 완전히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야. 간단히 말해, 늙은 스타인베크는 케셀바흐 씨가 추구하던 그 신비한 계획의 진실을 알고 있어. 같은 단서를 쫓고 있던 알텐하임이 그 스타인베크를 빼돌려 숨긴 거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 스타인베크는 분명 어딘가에 있어."

"당연하지."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나도 그게 궁금하군…"

"그는 뒤퐁 빌라 29번지에 있소."

베버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알텐하임 집, 그러니까 그가 살던 호텔로 갔다는 뜻이오?"

"이런 헛소문에 얼마나 믿음을 두냐고요? 남작의 주머니에서 그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한 시간 뒤, 제 부하들이 그 호텔을 점령했죠."

뤼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공범의 개입이었어. 내가 손댈 수 없었던 자, 그리고 스타인베크의 또 다른 납치 말일세. 하인들은?"

"이미 떠났소."

"그래, 다른 쪽에서 전화를 걸어 경고를 줬겠지. 하지만 스타인베크는 아직 그곳에 있어."

베버 씨는 성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소. 제 부하들이 호텔을 떠나지 않았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소."

"치안국 차장님, 뒤퐁 빌라의 저택을 직접 수색할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내일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오."

베버는 다시 한 번 어깨를 으쓱였다. 뤼팽의 무례한 태도에 개의치 않은 채.

"나에게는 더 시급한 일이 있어."

"치안국 차장님,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끌면, 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늙은 스타인베크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테니까요."

"왜?"

"내일, 길어야 모레까지 당신이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을 테니까요."

"정말 심각한 일이군……."

포르메리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중얼거렸다.

"불행하게도……"

그가 미소 지었다.

"불행하게도, 당신의 이 폭로는 치명적인 결함을 하나 가지고 있군요."

"아, 그게 뭐죠?"

"이 모든 건 그저 거대한 허풍일 뿐입니다, 뤼팽 씨. 자, 화내지 마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저도 이제 당신의 수법을 슬슬 알 것 같은데, 그게 알쏭달쏭할수록 더 의심하게 되는걸요."

"바보." 뤼팽이 중얼거렸다.

포르메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형식적인 심문일 뿐이었습니다. 두 결투자를 대면시킨 것에 불과하죠. 이제 검이 맞물렸으니, 남은 건 이 시합에 필수적인 증인, 즉 당신의 변호인뿐입니다."

"에이, 꼭 필요하나요?"

"필수죠."

"이런… 이렇게나 애매한 논쟁을 위해 변호계 거물을 동원하다니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큄벨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변호사 협회 회장이라니. 아주 잘됐습니다. 당신을 잘 보호해 줄 겁니다."

첫 번째 심문은 끝이 났다. '쥐덫' 계단을 내려오던 중, 두 도드빌 형제 사이에 낀 피의자는 작은 명령조 문장들을 내뱉었다.

"제네비브의 집을 감시해라. 상주 인력을 네 명 두고, 케셀바흐 부인 집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위협받고 있다. 뒤퐁 빌라를 압수수색할 거다. 너도 거기 가 있어라. 스타인베크를 발견하면, 그가 입을 다물도록 해라. 필요하면 약간의 가루약이라도 써서."

"당신은 언제 풀려나십니까, 보스?"

"지금은 할 일이 없다. 더구나 급할 것도 없어. 나는 좀 쉬겠다."

아래층에 도착한 그는 마차를 둘러싸고 있던 시(市) 경비대원들과 합류했다.

"집으로 가자, 얘들아. 자, 어서!" 그가 외쳤다. "나는 두 시 정각에 나 자신과 약속이 있다."

이동은 별다른 사고 없이 끝났다.

셀로 돌아온 뤼팽은 두오빌 형제에게 상세한 지시를 담은 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다른 두 통의 편지도 함께 썼다.

한 통은 제네비브에게 보낸 것이었다.

"제네비브, 이제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그러니 두 번이나 어린 너를 품에 안고 데려갔던 그 남자의 이름을 내가 왜 숨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제네비브, 나는 네 어머니의 친구였어. 그녀는 내 이중생활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여긴 먼 친구였지. 그래서 그녀는 죽기 직전, 내게 몇 마디를 적어 보내 너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

"내가 네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제네비브, 나는 그 소원을 반드시 지키겠어. 나를 네 마음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말아주길."

다른 한 통의 편지는 돌로레스 케셀바흐에게 보내졌다.

세르닌 공작을 케셀바흐 부인 곁으로 이끈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헌신하고 싶다는 거대한 충동이 그를 그곳에 붙잡아 두었다.

이제 세르닌 공작은 아르센 뤼팽일 뿐이다. 그는 케셀바흐 부인에게, 멀리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누군가를 지키듯 그녀를 지켜볼 권리만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청한다.

책상 위에는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하나, 그리고 둘을 집어 들었다. 세 번째를 잡으려던 순간, 그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흰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위에 신문에서 오려낸 글자들이 붙어 있었다.

그가 내용을 읽어냈다.

"알텐하임과의 싸움에서 너는 재미를 보지 못했군. 이 사건에서 손을 떼면 네 탈출을 막지 않겠다. 서명: L. M."

다시 한번 뤼팽은 그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전설 같은 존재에게서 풍겨오는 혐오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독을 품은 짐승이나 파충류를 만졌을 때 느끼는 그 역겨운 불쾌감이었다.

"또 그 녀석이군. 게다가 여기까지 손을 뻗치다니!"

그를 더욱 질겁하게 한 것도 바로 그것, 곧 때때로 불현듯 떠오르는 그 적의 힘의 환영이었다. 그 힘은 뤼팽의 것과 맞먹을 만큼 강력했고, 그 자신조차 미처 알아채지 못한 무시무시한 수단들을 마음대로 부렸다.

즉시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자를 의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저 단단한 얼굴에 엄격한 표정을 한 남자를 매수할 수 있었을까?

"좋아, 어쨌든 차라리 잘됐어! 나는 그동안 늘 하수들만 상대해 왔으니까. 나 자신과 싸우려면 스스로 치안국장 자리에까지 올라야 했을 정도였지.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군! 이자는 나를 제 주머니 속에 넣고, 말하자면 공중에서 공을 놀리듯 가지고 노는군.

만약 내가 이 감옥 깊은 곳에서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무너뜨리며, 늙은 스타인베그를 만나 그의 고백을 받아내고, 케셀바흐 사건을 일으켜 세워 빠짐없이 실현하며, 케셀바흐 부인을 지키고, 제네비브에게 행복과 부를 안겨줄 수 있다면…… 그래, 정말이지, 뤼팽은…… 언제까지나 뤼팽일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잠부터 자야지."

그는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다.

"스타인베그, 내일 밤까지는 죽지 말고 견뎌. 그러면 내가 맹세하건대……"

그는 오후 내내, 밤새, 그리고 아침 내내 잠을 잤다.

열한 시쯤 되었을 때, 누군가 와서 퀴뵐 씨가 변호사 접견실에서 그를 기다린다고 알렸다. 이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퀴뵐 씨에게 내 행적을 알고 싶으면 지난 십 년 치 신문을 찾아보라고 하시오. 나의 과거는 이미 역사가 되었으니까."

정오가 되자 어제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경계 속에서 그는 법원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두오빌 형제 중 장남을 다시 마주쳐 몇 마디를 나누고, 미리 준비해 둔 세 통의 편지를 건넸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포메리 씨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퀴뵐 씨가 그곳에 있었다. 서류로 가득 찬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다.

뤼팽은 곧장 사과부터 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직접 맞이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를 끼쳐 드린 점도 죄송합니다. 부질없는 수고이지요, 왜냐하면……"

"네, 네, 압니다." 포메리 씨가 말을 끊었다. "당신이 '여행'을 떠나리라는 것 말이지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아르센 뤼팽. 우리는 아무리 조사해도 당신의 진짜 이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기묘하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19…년 상테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처음으로 탈출한 그 아르센 뤼팽과 같은 인물인지조차 확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라는 표현은 아주 적확하군요."

"사실 말입니다," 포메리 씨가 말을 이었다. "인체 측정과에 보관된 아르센 뤼팽의 기록표를 보면, 거기 적힌 아르센 뤼팽의 인상착의가 지금 당신의 인상착의와 모든 점에서 다릅니다."

"갈수록 이상해지는군요."

"기재된 특징도, 신체 치수도, 지문도 모두 다릅니다. 사진 두 장조차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정확한 신원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말로 바로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가명으로 살아온 탓에 정작 제 이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더는 제 이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거부하시는 거군요."

"그건 또 왜죠?"

"그냥 그렇습니다."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이미 말했잖아. 당신의 수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제 나는 당신에게 내 관심사인 수사를 하나 맡겼어. 나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요?" 포메리 판사가 외쳤다. "저도 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스타인베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믿지 않으며, 거기엔 신경 쓰지 않겠다고요."

"그렇다면 어제 면담이 끝난 뒤, 당신은 왜 뒤퐁 빌라로 가서 웨버 씨와 함께 29번지를 샅샅이 뒤졌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소?……" 예심판사가 꽤나 언짢은 기색으로 말했다.

"신문에서요……"

"아, 신문을 읽는군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둬야죠."

"사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 집을 한번 둘러보긴 했습니다. 그저 대충,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당신은 그 일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게다가 제가 맡긴 임무를 어찌나 칭찬받아 마땅하게 수행하고 계신지, 바로 지금 치안국 차장이 그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포메리 씨는 경악한 듯 말문이 막혔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나와 웨버 씨는 처리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법원 정리가 들어왔다. 그는 포메리 씨의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였다.

"들여보내라! 어서 들어오게 해!"

포메리 씨는 이렇게 외치며 황급히 다가갔다.

"자, 웨버 씨, 무슨 소식이오? 그 남자를 찾았소?"

그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치안국 차장이 대답했다.

"아, 정말 확실하오?"

"그 집에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판사님."

두 사람은 모두 실망한 듯했다. 마치 뤼팽의 확신이 이번에는 그들에게까지 옮아간 것처럼 보였다.

포메리 판사가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보셨죠, 뤼팽……"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늙은 스타인베그가 그곳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더 이상 거기 없다는 것뿐입니다."

뤼팽이 말했다.

"그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에는 제 부하들이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웨버가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가 오후에 끌려 나갔다고 보아야겠군요." 포메리 판사가 결론지었다.

"아닙니다." 뤼팽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심판사의 이 본능적인 물음은, 그리고 적이 무어라 단언하든 미리 따르려는 듯한 이런 태도는, 뤼팽의 통찰력에 대한 순진한 찬사였다.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뤼팽이 더없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스타인베그 씨가 그 순간에 풀려났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스타인베그는 뒤퐁 빌라 29번지에 있습니다."

웨버 씨는 두 팔을 천장을 향해 치켜들었다.

"미친 소리요! 방금 거기서 오는 길인데! 방이란 방은 다 뒤졌단 말이오! 사람을 동전 한 닢처럼 숨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메리 씨가 신음하듯 물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요, 판사님?" 뤼팽이 재빨리 받아쳤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차에 올라,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경계 태세를 갖추고서 저를 뒤퐁 빌라 29번지로 데려가세요. 지금 한 시입니다. 세 시면 제가 스타인베그를 찾아내 보이겠습니다."

제안은 명확하고, 거침없으며, 단호했다. 두 판사는 그 어마어마한 의지의 무게에 짓눌렸다. 포메리 판사는 웨버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안 될 게 뭔가? 이 시도를 가로막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웨버 씨?"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하긴 그렇죠."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차장이 말했다.

문이 열렸다. 법원 정리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고, 포메리 판사는 봉투를 뜯어 이런 글귀를 읽었다.

'조심하시오. 뤼팽이 뒤퐁 빌라의 집에 들어서면, 그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올 것이오. 그의 탈출은 이미 준비되어 있소. — L. M.'

포메리 판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방금 간신히 모면한 위기가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또 한 번, 뤼팽이 그를 가지고 논 것이다. 스타인베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포르메리 씨가 낮은 목소리로 감사 기도를 웅얼거렸다. 이 익명의 편지라는 기적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망했을 테니까. 명예도, 인생도 끝장이었을 것이다.

"오늘은 이쯤 하죠. 내일 심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경관들, 피의자를 상테 형무소로 이송하십시오."

뤼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이 '저쪽'의 수작임을 직감했다. 스타인베크를 지금 당장 구출하지 못할 확률이 스물 대 일이긴 해도, 결국 그 스물한 번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뤼팽 자신이 절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내뱉은 말은 간결했다.

"판사님, 내일 오전 열 시, 뒤퐁 빌라 29번지에서 만나시죠."

"당신 미쳤군! 하지만 난 그러기 싫다니까!…"

"내가 원한다. 그거면 충분해. 내일 오전 열 시. 꼭 제시간에 와."

다른 날들처럼, 감옥 방으로 돌아온 뤼팽은 곧장 침대에 누웠다. 하품하며 그는 생각했다.

"결국 내 일을 돌보는 데 이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어디 있겠나. 매일 기계 전체를 가동시키는 작은 힘을 가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사건들은 알아서 저절로 벌어진다. 과로한 남자에게는 얼마나 안식인가!"

그리고 벽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슈타인베크, 네가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아직 죽지 마라! 조금만 협조해 달라. 나처럼 해라. 자라."

식사 시간 외에는 그는 다시 아침까지 잠들었다. 깨어난 것은 자물쇠와 빗장 소리 때문이었다.

"일어나시오." 간수가 말했다. "옷을 입으시오. 급한 일입니다."

베버 씨와 그 부하들이 복도에서 그를 맞아 삯마차까지 데려갔다.

"마부, 뒤퐁 빌라 29번지로." 뤼팽이 마차에 오르며 말했다. "빨리 가시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걸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부서장이 물었다.

"물론 알고 있었지요. 어제 포르메리 씨와 뒤퐁 빌라 29번지에서 오전 열 시 정각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뤼팽이 무언가 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증거를 보시죠."

페르골레즈 거리에 들어서자, 경찰이 여러 겹으로 펼친 경계 조치가 죄수의 흥을 한층 돋우었다. 거리에는 순경 부대가 가득 들어차 있었고, 뒤퐁 빌라는 아예 통행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계엄 상태로군." 뤼팽이 코웃음을 쳤다.

"베버, 내 몫으로, 자네가 이유 없이 귀찮게 한 저 불쌍한 자들에게 루이 한 닢씩 나눠주게."

"그건 그렇고, 자네들 어지간히 겁을 먹었나 보군! 조금만 더했으면 내게 수갑이라도 채웠겠어."

"그 부탁만 기다리고 있었네." 베버가 말했다.

"그럼 채워 보게, 친구. 우리 사이를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생각해 보게, 오늘은 자네 쪽이 삼백 명밖에 안 되잖나!"

손목이 묶인 채, 그는 현관 계단 앞에서 마차에서 내렸고, 곧장 포르메리 판사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경관들은 밖으로 나갔고, 베버 씨만 남았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뤼팽이 말했다. "제가 1~2분쯤 늦었나 봅니다. 다음번엔 꼭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포르메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신경질적인 떨림이 그를 뒤흔들었다. 그는 더듬거렸다.

"선생님, 제 아내, 포르메리 부인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목이 조여,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고운 포르메리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뤼팽이 관심을 담아 물었다. "지난겨울 시청 무도회에서 부인과 함께 춤출 기쁨을 누렸지요. 그 기억이……"

"선생님,"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 아내 포르메리 부인이 어제 저녁 어머니에게서 급히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은 즉시 집을 나섰지요. 안타깝게도 저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마침 선생님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이었거든요."

"제 사건 기록을 검토하셨다고요? 그거 참 큰 실수를 하셨군요." 뤼팽이 한마디 했다.

"그런데 자정이 되도록 포르메리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저는 몹시 불안한 마음에 부인의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포르메리 부인은 거기 없었고, 그 어머니도 딸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더없이 끔찍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포르메리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뤼팽이 분개한 듯 내뱉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포르메리 부인은 아주 아름다운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뤼팽 쪽으로 다가서더니, 다소 연극적인 몸짓으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스타인베크 씨가 발견되는 즉시 제 아내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지요. 바로 이 편지입니다. 서명은 뤼팽이라 되어 있군요. 이게 선생님이 쓰신 겁니까?"

뤼팽은 편지를 살펴본 뒤, 진지하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쓴 것이오."

"그렇다면, 스타인베크 씨와 관련된 수사의 지휘를 강제로 제게 떠맡기시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소. 내가 요구하는 바요."

"그러면 제 아내는 그 즉시 풀려나는 겁니까?"

"풀려날 것이오."

"그 수사가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에도요?"

"그런 경우란 있을 수 없소."

"그럼 내가 거절한다면요?" 포르메리 씨가 뜻밖의 반발심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뤼팽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거절은 심각한 결과를 부를 수 있소… 포르메리 부인은 아름다운 분이니…"

"좋소. 찾아보시오… 당신이 주인이니." 포르메리 씨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그러고는 포르메리 씨는 팔짱을 꼈다. 때로는 압도적인 사태의 힘 앞에 체념할 줄 아는 사람의 태도였다.

베버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수염을 분노에 찬 듯이 물어뜯고 있었다. 패배하면서도 늘 승리하는 이 적의 기분에 한 번 더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가 얼마나 격분하고 있었는지, 눈치 빠른 이들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올라갑시다." 뤼팽이 말했다.

그들은 계단을 올랐다.

"이 방 문을 열어라."

문이 열렸다.

"수갑을 벗겨라."

잠시 주저하는 기색이 감돌았다. 포르메리 씨와 베버 씨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의논했다.

"수갑을 벗기라고 했지." 뤼팽이 다시 말했다.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서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온 여덟 명의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외쳤다.

"무기를 꺼내라! 첫 명령에 사격하라!"

요원들이 권총을 꺼냈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라."

요원들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뤼팽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왔을 뿐, 달아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뤼팽의 명예라니……"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순간 뤼팽이 그자의 다리를 냅다 걷어차자, 형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다른 형사들이 증오에 사로잡혀 일제히 달려들었다.

"멈춰!" 베버가 가로막으며 외쳤다. "가라, 뤼팽. 너에게 한 시간을 주마… 만약 한 시간 안에……"

"조건 따위는 필요 없소." 뤼팽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에잇, 그럼 네 멋대로 해라, 이 짐승 같은 놈아!" 격분한 부서장이 으르렁거렸다.

그러고는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물러섰다.

"아주 좋아." 뤼팽이 말했다. "이래야 조용히 일할 수 있지."

그는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담배를 하나 청했다.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그는 천장을 향해 연기로 고리를 만들어 날리기 시작했다. 나머

지 사람들은 감추려 하지도 않는 호기심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뤼팽이 입을 열었다.

"베버, 침대 옮겨라."

사람들이 침대를 옮겼다.

"알코브의 커튼을 모두 치워라."

커튼이 걷혔다. 이어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치 무슨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야유와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최면 실험 같았다. 어쩌면 마법사의 거부할 수 없는 주문에 이끌려, 죽어가는 사내가 허공에서 솟구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랐다.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됐군." 뤼팽이 말했다.

"벌써?!" 포르메리 씨가 외쳤다.

"판사님, 제가 감방에 갇혀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구상도 없이 여기로 데려와 달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베버가 물었다.

"그래서?"

"자네 부하 한 명을 전기 벨 표시판이 있는 곳으로 보내. 주방 쪽에 걸려 있을 거야."

경관 한 명이 자리를 떠 멀어졌다.

"이제 여기, 알코브 안 침대 높이쯤에 있는 전기 벨 버튼을 눌러 봐. 그래… 세게 눌러… 떼지 말고… 그만하면 됐어…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보냈던 사람을 다시 불러."

1분 뒤, 그 경관이 다시 올라왔다.

"그래, 예술가 양반, 벨 소리를 들었나?"

"표시판의 번호 중 하나가 작동했나?"

"완벽하군.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어." 뤼팽이 말했다. "베버, 미안하지만 이 가짜 벨을 좀 풀어 보게. 보다시피 가짜거든… 그래… 먼저 버튼을 감싸고 있는 작은 도자기 덮개부터 돌려서 빼."

"좋아."

"자, 이제 뭐가 보이나?"

"깔때기 같은 게 있군요. 관의 끝부분처럼 생겼습니다." 베버가 대답했다.

"고개를 숙이고, 그 관 입구에 입을 갖다 대 봐. 확성기처럼 말이야."

"했습니다."

"불러 봐. '슈타인베크! 어이, 슈타인베크!'"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 그냥 말하듯이 해 봐. 어때?"

"대답이 없습니다."

"확실해? 들어 봐. 정말 대답이 없나?"

"소용없겠습니다. 죽었거나, 대답할 수 없는 상태겠죠."

포르메리 씨가 외쳤다.

"그렇다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무엇도 잃은 게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뤼팽이 말했다.

"이 관은 다른 모든 관처럼 양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끝중 하나, 즉 두 번째 끝까지 이 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 집 전체를 헐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곧 보시게요."

그는 직접 작업을 시작했다. 주변에는 모든 형사들이 둘러섰지만, 그들은 뤼팽의 행동을 감시하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뤼팽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예상했던 대로, 구석에서 뻗어 나와 수도관처럼 천장 쪽으로 올라가는 납 파이프를 곧장 발견했다.

"아하! 올라가네. 꽤 영리한 수법이군."

뤼팽이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지하실만 찾곤 하니까요."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저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을 거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다락방 중 한 곳의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배관은 아주 낮은 다락방을 지나 그 위쪽 부분 역시 뚫려 있었다.

그 위는 지붕이었다.

사다리를 세우고 창문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지붕은 철판으로 덮여 있었다.

"추적이 어렵군요." 포메리에 씨가 말했다.

뤼팽이 어깨를 으쓱였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배관이 철판 아래로 이어지는데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철판과 다락방 위쪽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자고. 판을 들어 올리는 거야… 아니, 거기서는 안 돼… 파이프가 여기서 나와야 해."

세 명의 형사가 지시를 따랐다. 그중 한 명이 탄성을 지르며 외쳤다.

"아! 여기다!"

모두가 몸을 굽혔다. 뤼팽의 예상은 적중했다. 썩어 반쯤 무너진 나무 격자틀이 받치고 있던 판 아래로, 가장 높은 지점에 최대 1미터 높이의 빈 공간이 드러났다.

먼저 내려간 형사가 바닥을 뚫고 다락방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판을 조금씩 들어 올리며 지붕 위를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했다.

조금 더 나아가자 굴뚝이 보였다. 앞장서서 걸으며 형사들의 작업을 지켜보던 뤼팽이 멈춰 서서 말했다.

"여기야."

한 남자가, 정확히 말해 시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날카로운 햇살 아래서 그들은 그 얼굴이 창백해지고 고통으로 경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슬이 그를 벽난로 몸체에 박힌 철고리에 묶어 놓았다. 그 옆에는 빈 그릇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죽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어떻게 아십니까?" 뤼팽이 반문했다.

그는 몸을 낮추어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발끝으로 바닥판을 두드려 보니, 그 부분은 다른 곳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시체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포르메리 씨와 차장은 그의 행동을 따라했다.

잠시 관찰한 뒤, 뤼팽이 입을 열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포르메리 씨가 말했다. "맥박은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군요. 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지요. 죽지 않았으니까요." 뤼팽이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명령했다.

"우유를 당장 가져오시오! 비슈 수도를 탄 우유로요. 서둘러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스물 분 후, 노년 스타인웨이가 눈을 떴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뤼팽이 천천히, 또렷이 속삭였다. 병자의 뇌리에 그 말을 새겨 넣기 위한 의도였다.

"들어요, 스타인웨인. 피에르 르듀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르센 뤼팽이 원하는 가격이라면 얼마든 치르겠습니다. 저에게 맡기세요."

지배 형사가 뤼팽의 팔을 잡고 진지하게 물었다.

"폼리에 씨?"

"폼리에 씨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급하게 기다리고 있소."

"무슨 말씀이시오?"

"자, 지배 형사님. 제가 제안한 그 작은 작전에 당신이 동의하실 줄 알았소. 당신이 거절할 리가 없었으니까."

"왜요?"

"폼리에 씨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제9장

뤼팽이 주먹을 좌우로 힘껏 내뻗었다가 가슴으로 거둬들이기를 반복했다.

그 동작을 서른 번이나 연속으로 해냈다.

그리고는 상체를 앞으로, 뒤로 굽히는 동작으로 이어졌다. 이어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고, 팔을 번갈아 휘두르는 동작이 뒤따랐다.

이 운동은 사십 분 동안 이어졌다. 매일 아침 근육을 풀기 위해 스웨덴식 체조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었다.

그가 책상 앞에 앉았다. 번호가 매겨진 뭉치로 정리된 하얀 종이들을 집어 들었다.

그중 한 장을 접어 봉투를 만들었다. 그는 이 작업을 차례로 다른 종이에 반복해 나갔다.

그는 매일 그 일을 해냈다. 죄수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고를 권리가 있었다. 봉투 접기, 종이 부채 만들기, 금속 주머니 제작 같은 일들 말이다.

그는 손으로 기계적인 작업을 하며 근육을 풀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직 자기의 일들만 가득했다.

자물쇠 딸랑거리는 소리, 열쇠 돌아가는 굉음.

"아, 당신이었군요. 훌륭한 간수님. 이제 마지막 목욕 시간인가요? 아니면 최종 처형 전의 마지막 머리 깎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남자가 말했다.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지? 궁전으로 산책이라도 가는 건가? 의외군. 최근 포메리 씨가 내게 이렇게 일러두었거든.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질문도 감방에서 하겠다고. 솔직히 말해, 내 계획에는 방해가 돼."

"당신을 찾는 방문객이 있소." 남자가 간결하게 말했다.

뤼팽은 생각했다. '드디어 왔군.'

면회실로 향하면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세상에,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나는 정말 대단한 놈이군. 사흘 밤낮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이렇게 치밀하게 꾸며냈다니, 정말 걸작이야!'

정식 허가증을 지참한 그들은 경찰청 제1국장의 서명이 찍힌 문서를 들고 좁은 면회실로 안내되었다.

면회실로 쓰이던 이 독방들은 중앙에 두 개의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철망 사이는 오직 50센티미터의 간격만 벌어져 있을 뿐이었다. 문은 두 개가 있었는데, 각각 서로 다른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수감자는 한쪽 문으로 들어가고, 방문자는 다른 쪽 문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속삭일 수도, 사소한 물품이라도 교환할 수 없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감시관이 면회를 지켜보기도 했다.

이번에는 그 영예가 수감관에게 돌아갔다.

"도대체 누가 나를 만나겠다는 허가를 받았단 말인가?"

뤼팽이 들어서는 순간 외쳤다.

"내 면회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간수가 문을 닫는 사이, 그는 철창 쪽으로 다가가 다른 쪽 철창 뒤에 선 사람을 살펴봤다. 반쯤 어두운 곳이라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스트리파니 씨군요! 정말 행운이네요."

"네, 저입니다, 친애하는 왕자님."

"아니요, 그런 호칭은 사양합니다. 제발요. 여기서는 인간의 허영심 같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뤼팽이라고 불러 주세요.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세르닌 왕자님입니다. 세르닌 왕자님이 저를 빈곤에서 구해 주셨고, 행복과 재산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왕자님이 영원히 세르닌 왕자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스트리파니 씨. 그런데요. 교도소장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낭비할 수 없잖아요. 두 마디로 요약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왔냐고요? 음,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선생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제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구나 그 당시 모든 단서를 손에 쥐고 진실을 재구성해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저를 지켜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선생님이십니다. 이 점을 경찰청장도 잘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했을 때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라고 허락했는지 말이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애하는 공작님. 이 사건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이 잘 아시는 고

위 인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뤼팽은 구석에 선 경비원을 눈으로 살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오가는 대화 속에 숨겨진 비밀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뤼팽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공작님. 저는 당신에게 그 인쇄된 문서에 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문서는 네 가지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적어도 시작 부분은……"

뤼팽이 주먹으로 수비장의 턱, 귀 바로 아래쪽을 후려쳤다. 수비장은 몇 초 동안 비틀거리더니, 무거운 돌덩이처럼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뤼팽의 품으로 쓰러졌다.

"잘 때렸다, 뤼팽."

뤼팽이 말했다.

"깔끔한 수법이야. 자, 스타인웨그, 클로로포름 있나?"

"정말 의식을 잃었는지 확인했나?"

"당연하지. 3분에서 4분 정도는 가겠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

독일인 스타인웨그가 주머니에서 구리 관을 꺼냈다. 망원경처럼 길게 늘린 관 끝에는 아주 작은 병이 달려 있었다.

뤼팽이 병을 받아 손수건에 몇 방울 떨어뜨린 뒤, 수비장 코 아래에 대었다.

"완벽해! 그 양반은 끝장났군. 나야 이 수고의 대가로 독방에서 여드레나 보름쯤 지내겠지. 하지만 그게 뭐, 이 일의 작은 부수입일 뿐이야."

"그럼 나는요?"

"당신? 누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겠어요?"

"글쎄요, 그 주먹질 이야기까지…"

"당신은 그 일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해준 허가 말이에요. 그냥 위조 문서일 뿐이죠."

"당신은 그 일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대는 그저께 스트리파니라는 이름으로 정식 허가를 신청했잖소. 오늘 아침에는 공식적인 답변도 받았고. 나머지는 그대의

문제가 아니오. 답변서를 꾸며 낸 내 친구들만 추궁당할 수 있지. 한데 그들을 잡을 테면 어디 잡아 보라지!"

"만약 우리가 방해받으면 어떡하죠?"

"왜요?"

"내가 뤼팽을 만나겠다는 허가증을 꺼내자, 여기 사람들이 숨이 막힐 듯 놀랐지. 원장이 나를 불러서 허가증을 이리저리 꼼꼼히 살폈어. 분명 경찰청에 전화를 걸고 있을 거야."

"나도 그건 확실해."

"그럼 어떡하지?"

"모든 건 다 대비돼 있어, 친구. 걱정 말고 이야기나 하자. 네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무슨 일인지 이미 알고 있겠지?"

"네. 당신의 친구들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동의하는 거야?"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이라면, 저를 마음대로 부려도 좋습니다. 제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드린다 해도, 저는 여전히 그에게 빚진 몸일 겁니다."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생각해 봐. 갇혀 있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슈타인베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제발 농담은 하지 마시오. 저는 그 비밀을 켈스바흐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부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그 비밀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 힘도 없는 신세지만, 저는 당신을, 1억을 가진 켈스바흐보다 백 배는 더 강한 존재로 봅니다."

"오호?"

"그 사실을 당신도 잘 알고 있죠. 1억으로도 제가 숨어 죽어가던 그 구멍을 찾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물며 당신처럼 무력한 죄수 앞에 한 시간 동안 저를 데려다 놓을 수도 없었고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해 보시오. 순서대로 합시다. 살인자의 이름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거요? 당신은 그 이름을 알고 있고, 내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하지 않소?"

"모든 것을요. 하지만 그것만은 빼고요."

"그런데도…"

"나중에요."

"너 미쳤어! 대체 왜?"

"증거가 없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시면 함께 찾아보죠. 게다가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전 할 수 없습니다."

"그자가 두려운 건가?"

"좋아, 하고 뤼팽이 말했다. 어쨌든 그게 가장 급한 일은 아니니까. 나머지 얘긴, 자넨 말할 결심이 섰나?"

"전부 다요."

"좋아, 대답해라. 피에르 르뒤크의 본명은 뭐지?"

"헤르만 4세, 두-퐁-펠덴츠 대공, 베른카스텔 공, 피스팅겐 백작, 비스바덴 영주, 그 외 여러 영지의 주인입니다."

뤼팽은 기쁨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돌보는 그 청년이 정녕 돼지고기 장수의 아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하고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한테 작위가 다 있군! 내가 알기로 두-퐁-펠덴츠 대공국은 프로이센에 있지 않나?"

"네, 모젤 강변에 있죠. 펠덴츠 가문은 두-퐁 궁정백 가문의 한 분파예요. 뤼네빌 조약 이후 프랑스군이 그 땅을 점령했고, 몽토네르 주에 편입되었죠. 1814년, 우리 피에르 르뒤크의 증조부인 헤르만 1세를 위해 대공국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의 아들 헤르만 2세는 젊은 시절이 파란만장했고, 재산을 탕진하며 나라의 재정을 거덜 냈죠.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해 결국 낡은 펠덴츠 성의 일부를 불태우고 영주를 영지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 대공국은 헤르만 2세의 이름으로 세 명의 섭정이 통치했습니다. 헤르만 2세는 기이하게도 양위하지 않고 '재위 중인 대공'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유지했죠. 그는 베를린에서 꽤 가난하게 살다가, 훗날 친구였던 비스마르크 곁에서 프랑스 원정에 참전했고, 파리 공방전 중 포탄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아들 헤르만을, 바로 헤르만 3세를 비스마르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르뒤크의 아버지로군." 뤼팽이 말했다.

"맞소. 헤르만 3세는 총리의 총애를 받아, 여러 차례 외국 요인들에게 보내는 비밀 특사로 쓰였소. 후원자가 실각하자 헤르만 3세는 베를린을 떠나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드레스덴에 정착했소. 비스마르크가 사망했을 때, 헤르만 3세는 그곳에 있었소. 그리고 그 자신도 이 년 뒤 세상을 떠났소. 이것이 독일에서 누구나 아는 공적인 사실이며, 19세기 두-퐁-펠덴츠 대공이었던 세 헤르만의 이야기요."

"그렇다면 네 번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헤르만 4세는요?"

"그 이야기는 곧 하겠소.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 아는 사정들이죠." 뤼팽이 말했다.

"나 혼자만은 아니고, 몇몇 다른 이들도 알고 있지."

"다른 몇 명한테도 알렸다는 말이야? 그럼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지?"

"아니, 아니, 비밀은 그걸 쥐고 있는 자들이 잘 지키고 있어. 안심해, 그자들은 그걸 발설하지 않는 게 백번 이득이니까. 내가 장담하지."

"그럼 대체 어떻게 알았어?"

"그 이름을 가진 마지막 헤르만 대공의 옛 하인이자 측근 비서에게서 들었지. 그 하인은 케이프타운에서 내 품에 안겨 숨을 거뒀어. 죽기 직전, 그는 먼저 자기 주인이 비밀리에 결혼해 아들을 하나 남겼다고 털어놓았고, 이어서 그 유명한 비밀을 나에게 들려줬지."

"그게 바로 네가 나중에 켈스바흐에게 폭로한 그 비밀인가?"

"말해 봐."

그가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자물쇠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마디도 하지 마." 뤼팽이 속삭였다.

그는 문 옆 벽에 바짝 붙어 몸을 숨겼다. 문짝이 열렸다. 뤼팽은 거칠게 문을 도로 닫으며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떠밀쳤다. 비명을 지른 그 남자는 간수였다.

뤼팽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조용히 해, 친구. 까불면 넌 끝장이야."

그는 그를 바닥에 눕혔다.

"얌전히 굴 거지? 상황 파악은 됐고? 응? 좋아… 손수건은 어디 있나? 자, 손목 내밀어… 그래, 이제 마음이 놓이는군. 들어봐… 만일에 대비해서 너를 보냈겠지, 그렇지? 필요할 때 수석 간수를 거들라고 말이야. 훌륭한 조치였지만, 좀 늦었어. 보다시피 수석 간수는 이미 죽었거든. 너도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똑같이 가는 거야."

그는 남자의 열쇠를 빼앗아 그중 하나를 자물쇠에 꽂았다.

"이렇게 해두면 우린 방해받지 않지."

"당신 쪽이야 그렇다 치고… 제 쪽은요?" 노인 슈타인베그가 말했다.

"누가 오겠어?"

"그가 지른 비명을 누군가 들었다면요?"

"그렇진 않을 거야. 하지만 어쨌든 내 친구들이 자네한테 가짜 열쇠를 줬겠지?"

"그럼 자물쇠를 막아… 됐나? 좋아. 이제 우리한테는 적어도 십 분은 넉넉히 있어. 보게, 친구. 겉보기엔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일도 실제

로는 얼마나 간단한지. 약간의 침착함과 상황에 순응할 줄 아는 요령만 있으면 되지. 자, 당황하지 말고 이야기하게. 독일어로 할까? 저자가 우리가 논하는 국가 기밀을 알아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친구, 차분히 말하게. 여긴 우리 집이나 다름없으니."

슈타인베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비스마르크가 죽은 바로 그날 밤, 헤르만 3세 대공과 그의 충실한 하인, 즉 케이프타운에서 만난 내 친구는 기차에 올랐다. 그들은 뮌헨에 제시간에 도착해 빈행 급행을 탔다. 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다시 카이로로, 나폴리로, 튀니지로, 스페인으로, 파리로, 런던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르샤바로 옮겨 다녔다. 그러면서도 어느 도시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삯마차에 뛰어올라 두 개의 여행 가방을 싣고는 거리를 질주해, 가까운 역이나 선착장으로 내달아 다시 기차나 정기선에 몸을 실었다.

"요컨대, 미행을 당하니 그들을 따돌리려 한 거로군요." 아르센 뤼팽이 결론지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트리어 시를 떠났다. 노동자 작업복에 작업모를 쓰고, 등에는 막대기를 메고 그 끝에는 보따리를 매단 차림이었다. 그들은 펠덴츠까지 떨어진 35킬로미터를 걸어서 갔다. 그곳에는 두-퐁의 오래된 성이, 아니 정확히는 그 옛 성의 폐허가 있었다.

"묘사는 됐고."

그들은 하루 종일 근처 숲에 숨어 지냈다. 그 다음 날 밤, 그들은 옛 성벽 근처로 다가갔다. 헤르만은 하인에게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라 명하고는, '늑대의 틈'이라 불리는 갈라진 곳으로 성벽을 기어올랐다. 한 시간 뒤, 그는 돌아왔다. 그다음 주, 또 한 차례 여기저기를 떠돈 끝에 그는 드레스덴의 집으로 돌아갔다. 원정은 끝났다.

"그래서 그 원정의 목적은요?"

대공은 하인에게 단 한 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하인은 몇몇 정황과 잇따라 일어난 일들의 우연한 일치를 통해 적어도 진상의 일부는 재구성할 수 있었다.

"빨리, 슈타인베그. 이제 시간이 촉박하오. 나는 어서 알고 싶어 못 견디겠소."

원정이 끝난 지 보름 뒤, 황제의 근위대 장교이자 황제의 개인적인 친우인 발데마르 백작이 여섯 명을 거느리고 대공의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온종일 대공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여러 차례 격렬한 언쟁 소리가 들렸다. 정원을 가로질러 창문 아래를 지나던 하인은 이런 말까지 또렷이 들었다.

"이 문서들은 당신에게 전달되었소. 폐하께서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오. 만약 당신이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문장의 나머지와 그 위협의 의미, 그리고 그 장면 전체는 뒤이어 벌어진 일로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헤르만의 집이 위아래로 샅샅이 수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었잖소."

"대공이 반대했다면 불법이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직접 백작의 수색에 동행했소."

"무엇을 찾았다는 거요? 총리의 회고록이라도?"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소. 누설된 정보를 통해 존재를 알고 있던, 대공 헤르만에게 맡겨졌음이 확실한 비밀 문서 더미를 찾았소."

뤼팽은 철조망에 양팔을 기대고 있었다. 손가락이 철사 고리에 꽉 쥐어짜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비밀 문서라니…… 분명 매우 중요한 것이겠소?"

"그야말로 최고 중요도였소. 이 문서들이 세상에 나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오. 국내 정국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

"오! 정말로?!" 뤼팽이 숨을 헐떡이며 반복했다. "세상에, 가능할 리가! 너는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인가?"

"증거라니, 대공 부인의 증언이 있소. 남편이 죽은 뒤, 그녀가 하인에게 털어놓은 비밀들이 말이지."

"그렇군… 그렇군…" 뤼팽이 더듬거렸다. "우리가 가진 건 대공本人的 증언이잖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소!" 스타인베르크가 외쳤다.

"무슨 소리요?"

"문서가 있소! 대공이 직접 쓰고 서명한 문서가 있다는 말이오.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요?"

"그가 맡겨받았던 비밀 문서들의 목록이 적혀 있소."

"간단히 말해?"…

"두 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문서는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석과 메모로 뒤섞여 있죠. 비밀 문서 뭉치 두 개에 해당하는 제목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프린스 크라운이 비스마르크에게 보낸 원본 서한'이其一입니다. 날짜를 보면 이 서한들이 프리드리히 3세의 3개월 치 재위 기간 동안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서한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상상하려면, 프리드리히 3세의 병세와 아들과의 갈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목은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낸 프리드리히 3세와 빅토리아 황후의 서한 사진'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뤼팽의 목이 매여 버렸다.

"대공의 주석을 들어 보시오. '영국과 프랑스와의 조약문'이라고요. 그리고 이 다소 모호한 문구들, '알자스-로렌…… 식민지…… 해군력 제한……'"

"그런 게 있죠." 뤼팽이 더듬거렸다. "그리고 모호하다고요? 오히려 눈부신 단어들이죠! ……세상에, 정말 가능할 리가 없어요!"

문에서 소리가 났다. 두드리는 소리였다.

"들어오지 마시오. 나는 바쁘니."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문, 슈타인벡 쪽 문에서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뤼팽이 외쳤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오 분 안에 끝낼 테니."

그는 노인을 향해 명령조로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대로 대공과 하인이 펠덴츠 성으로 간 목적은 이 문서들을 숨기는 것뿐이었나요?"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좋소. 하지만 대공이 그 이후에 이 문서를 꺼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드레스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공의 적들, 즉 그 문서를 되찾아 없애야 할 이해관계가 있던 자들은 이미 그곳에서 그 문서를 찾아냈을 수도 있겠군요?"

"그들의 조사는 실제로 그 지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저는 바로 펠덴츠로 가서 인근 마을들을 직접 조사했죠. 그 결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베를린에서 파견된 열 명 가량의 사람들이 성을 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레전트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으니까요."

"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까?"

"오십 명의 병사가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대공국의 군대요?"

"아니오. 황제의 친위대에서 파견된 병사들입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다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경비대장을 부르며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습니다, 이사님."

뤼팽이 대답했습니다. 보를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여시오! 열라고 명령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자물쇠가 엉켜 있어서요. 만약 조언을 해드린다면, 자물쇠 주변을 잘라내는 게 좋겠네요."

"문을 여시오!"

"유럽의 운명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셈이오?"

그가 노인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요?"

"하지만 그 유명한 문서들이 성 안에 숨겨져 있다고 당신은 확신하고 있잖소."

"자, 내가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잖소. 확신이 서지 않소?"

"네, 네." 뤼팽이 중얼거렸다. "저곳에 숨겨져 있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분명 저곳이야."

그는 성을 보고 있는 듯했다. 신비로운 은신처를 떠올리는 듯했다. 고갈되지 않는 보물의 상, 보석과 부로 가득 찬 상자를 그려내는 것보다, 카이저의 경비가 지키고 있는 그 종이 조각들의 생각이 그를 더 격동시켰다.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손에 넣으려는 이 열정! 그건 그에게

어울리는 사냥감이었다. 알 수 없는 이 길목에 무작정 뛰어들어 한 번 더 통찰력과 직관의 힘을 입증한 자신을 자축하며 그는 생각했다.

밖에서는 '자물쇠를 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는 노파인 스타인웨그에게 물었다.

"대공은 무슨 병으로 죽었소?"

"폐렴이었는데, 며칠 만에 끝장났지. 의식을 되찾기도 거의 불가능했고, 더 끔찍한 건, 그 사람이 혼란스러운 사이사이에 정신을 수습하고 말을 하려고 얼마나 치명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눈으로 보였다는 거야. 가끔씩 아내를 부르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지만, 입술만 허공을 헤매고 말았지."

"결국 말을 했나?"

뤼팽이 급하게 물었다. 자물쇠 주변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니, 말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한때는 정신이 또렷해졌고, 끝내 의지를 모아서 아내가 건네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냈지."

"그게 무슨 글이냐?"

"대부분은 해독할 수 없었어."

"대부분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뤼팽이 목이 말라 외쳤다.

"나머지는?"

"먼저 뚜렷하게 구별되는 숫자 세 개가 있습니다. 8, 1, 그리고 3이요."

"813…… 네, 알아요. 그다음은요?"

"그다음은 글자들입니다. 여러 글자 중에서도, 오롯이 확신할 수 있게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세 글자 그룹 하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두 글자 그룹 하나뿐입니다."

"'아푸안(Apoon)'이죠?"

"아! 그걸 아시다니요……"

자물쇠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정하던 나사가 거의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방해받을까 봐 불안해진 뤼팽이 물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단어 '아푸안'과 숫자 813이, 대공이 아내와 아들에게 남긴 비밀 문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열쇠라는 말씀이군요?"

뤼팽은 자물쇠가 떨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

"소장님, 경비 책임자를 깨우실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슈타인베그가 물었다.

"대공의 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남편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에 겨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이는 가족에게 입양되었나요?"

"어떤 가족이요? 대공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비공식적이고 비밀리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아이는 헤르만의 노예 하인에게 데려가졌습니다. 그 하인은 아이를 '피에르 르두'라는 이름으로 키웠습니다. 그 하인은 성격이 좀 난폭하고, 독립심이 강하며, 기분이 급변하는 난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하인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 하인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나요?"

"네. 그리고 헤르만이 쓴 글자와 숫자가 적힌 종이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813, 그리고 기타 등등."

"그 사실을 나한테만 말했어?"

"너도 켈스바흐 씨한테만 고백했지?"

"그 사람한테만."

"하지만 조심하려고, 그에게 부호 목록과 내가 말한 명단을 보여준 뒤에도, 나는 이 두 문서를 따로 보관했어.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걸 사건이 증명했지."

"그 문서들은 네가 가지고 있어?"

"안전해?"

"물론이야."

"파리에?"

"좋아. 네 생명에 위험이 닥쳤고, 누군가 너를 쫓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알고 있어.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끝장."

"그래서 조심해. 적을 눈치채고, 서류를 챙겨서 내 지시를 기다려. 일은 이미 반쯤 끝났어. 한 달 안으로 우리는 함께 펠덴츠 성을 방문할 거야."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떡해?"

"네를 여기서 꺼내 주마."

"정말 가능합니까?"

"내가 나오는 바로 다음 날. 아니, 잘못 말했다. 그날 저녁. 정확히 한 시간 뒤."

"그러면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열 분 전부터 있었다. 확실한 방법이지. 할 말이 없나?"

"그럼 문을 열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더니, 보를레 씨 앞에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소장님과 세 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보를레 소장은 분노와 경악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쓰러져 있는 두 간수들의 모습을 본 그는 충격을 받았다.

"죽었어!" 그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아니야." 뤼팽이 비웃었다. "봐라, 저 놈이 움직이잖아. 말을 해 봐, 짐승 같은 놈아."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보를레 소장이 간수장을 향해 재촉하듯 달려가며 물었다.

"잠들었을 뿐입니다, 원장님. 그는 너무 지친 상태라 잠시 쉬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간청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그 노인이……"

"농담은 이제 그만," 보를레 원장이 격노하며 말했다.

그리고 경비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를 감방으로 다시 데려가라… 당분간은. 그리고 이 방문객은……"

뤼팽은 보를레 원장이 노인 스타인웨그를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지 더 이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였다. 그는 고독 속에서 노인의 운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는 케셀바흐의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0장

그는 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감옥방이 그에게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 보를레 씨가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 처벌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장님, 위험합니다." 뤼팽이 되받았다. "위험하고, 미숙하며, 반역적인 처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냐?" 보를레 씨가 물었다. 그의 수감자는 확실히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건요, 원장님. 방금 경찰청에서 오셨죠. 그곳에서 관계자들에게 뤼팽 수용자의 폭동을 보고하셨고, 스트리파니 씨에게 발급된 면회 허가증도 보여드렸죠. 당신의 변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스트리파니 씨가 허가증을 보여줬을 때, 당신은 미리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의외라는 뜻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그 허가증이 완벽하게 유효하다고 답변했으니까요."

"아! 그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파리를 관할하는 경찰청에 답장을 보낸 사람이 바로 제 부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청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에 수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그 허가서가 위조 문서임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위조했는지 지금 조사 중이지만, 안심하십시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를레 씨는 항의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뤼팽이 계속 말했다. "내 친구 스트리파니를 심문하겠지. 그는 자기 진짜 이름이 스타인웨그라는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인하더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수감자 뤼팽이 상테 형무소 안으로 누군가를 몰래 들여보내 한 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지. 이 무슨 추문인가! 차라리 조용히 묻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스타인웨그 씨를 석방하고, 보를레 씨를 수감자 뤼팽에게 특사로 보내 침묵을 살 전권을 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원장님?"

"전부 사실입니다." 보를레가 대답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농담조로 받아넘겼다. "당신은 천리안을 지닌 것 같군요. 그래서, 저희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뤼팽은 폭소를 터뜨렸다.

"즉, 당신들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경찰청의 그분들을 안심시키십시오. 저는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어차

피 제 공적에는 승리가 충분히 쌓여 있으니, 침묵이라는 호의쯤은 베풀어 드릴 수 있지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남겨둔 것이었다. 실제로 뤼팽의 모든 활동은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서신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가 가장 잘하는 언론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이미 두 도드빌 형제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려두었고, 준비 작업이 곧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번호가 매겨진 봉투 제작용 자재 꾸러미가 도착했다. 뤼팽은 이를 성실하게 봉투로 만들었다. 저녁이 되면 완성된 봉투를 접어 풀칠한 채 다시 가져갔다.

이 작업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정해진 순서로 꾸러미가 배부되었다. 따라서 뤼팽이 받는 꾸러미의 번호는 매일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산을 해 보았다. 결과는 정확했다. 남은 일은 봉투 공급과 배송을 맡은 특수 업체의 직원 한 명을 매수하는 것뿐이었다.

그건 쉬운 일이었다.

뤼팽은 성공을 확신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친구들과 자신이 미리 정해 둔 신호가, 봉투 위쪽 봉투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정오쯤, 그는 포메리 씨의 일일 방문을 받았다. 포메리 씨와 그의 변호인 킴벨 씨, 침묵만 지키는 증인 앞에서 뤼팽은 치밀한 심문을 받았다.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었다. 그는 마침내 포메리 씨를 설득해, 알텐바론 남작 살해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그는 검사에게 완전히 허구의 범죄 사실들을 자백했다. 포메리 씨가 즉각 지시한 수사는 놀라운 결과와 스캔들 같은 오해로 이어졌고, 대중은 거기서 뤼팽이라는 거장이 가진 특유의 아이러니를 발견했다.

"작은 장난일 뿐이지." 그가 그렇게 말했듯, 재미라도 봐야 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진지한 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닷새째 되는 날, 그가 받은 봉투에 약속된 표시가 있었다. 두 번째 쪽지 위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가로로 새겨진 것이었다.

"드디어," 그가 말했다. "이제야."

그는 숨겨둔 곳에서 아주 작은 병을 꺼냈다. 마개를 열고, 속의 액체를 검지 끝에 살짝 묻혔다. 그리고 봉투의 세 번째 쪽지에 그 손가락을 문질렀다.

잠시 후, 획이 그려지더니, 이어 글자가, 그다음 단어와 문장이 드러났다.

그가 읽었다.

"모두 순조롭습니다. 스타인웨이는 자유입니다. 지방에 숨어 있습니다. 제네비브 에르네몽은 건강합니다. 그녀는 자주 브리스톨 호텔로 가서 병석에 누운 케셀바흐 씨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항상 피에르 르듀크를 만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답장하십시오. 위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와의 연락이 다시 이어졌다. 뤼팽의 시도는 또 한 번 성공으로 돌아갔다. 이제 남은 일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즉 늙은 스타인웨이의 자백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야말로 그의 두뇌에서 태어난 가장 기발하고 천재적인 계략 중 하나로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랑 조르날>지에는 이런 짧은 기사가 실렸다.

비스마르크의 회고록 말고도,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 책에는 대수상이 관여했던 사건의 공식 기록만 담겨 있다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비밀 편지들이 따로 존재한다.

그 편지들이 발견되었다. 좋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바로는, 곧바로 출판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수수께끼 같은 보도를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펼쳤다. 특히 독일 언론의 논쟁은 뜨거웠다.

누가 이런 글을 쓰라고 했을까? 그 편지들은 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 누가 이 편지를 대수상에게 보냈고, 또 누가 대수상으로부터 그

것을 받았을까? 죽은 자의 복수였을까, 아니면 비스마르크의 측근이 누설한 비밀이었을까?

두 번째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의 일부는 명확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흥분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상테-팔라스, 14호 감방, 2구역.

<그랑 조르날> 편집장 귀하."

"지난 화요일 자 기사에 실린 짧은 글은, 제가 상테 형무소에서 외교 정책에 대해 강연할 때 흘린 몇 마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지만, 작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편지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중요성이 각별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정부가 끊임없이 그 편지를 찾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단 한 마디라도 아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여러분의 정당한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전에 잠시 기다리게 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가 아직 제 손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저는 이 사건에 쏟고 싶은 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으로선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편지들은 죽어가던 남자가 가장 신실한 친구 중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며, 그 친구는 이후 자신의 헌신 때문에 무거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염탐과 가택 수색까지, 그에게 가혹한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비밀경찰에서 가장 뛰어난 요원 두 명에게 이 단서를 처음부터 다시 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기 전에 이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환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주도한 자는 아르센 뤼팽이었다! 감옥 깊숙한 곳에서 그는 첫 번째 공지에 예고된 희극, 아니 비극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놀라운 모험이었다. 사람들은 들떴다. 그와 같은 예술가가 펼치는 공연이니, 색다른 볼거리와 뜻밖의 전개가 빠질 리 없었다.

사흘 후, <그랑 주르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제가 언급했던 충실한 친구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두 포츠-펠덴츠 대공국의 통치 대공(비록 영지를 빼앗기긴 했지만)이자, 비스마르크의 측근으로 그의 두터운 우정을 한 몸에 받던 헤르만 3세입니다."

W... 백작이 부하 열두 명을 데리고 그의 집을 수색했다. 결과는 빈손이었지만, 대공이 그 문서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그가 그 문서를 어디에 숨겼을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스물네 시간만 달라고 요청한다.

과연 스물네 시간 뒤, 약속했던 공지가 실렸다.

'그 유명한 편지들은 두 포츠 대공국의 수도인 펠덴츠의 봉건 성채에 숨겨져 있다. 이 성은 19세기에 일부가 폐허로 변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편지들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풀어내려 애쓰는 두 가지 문제이며, 나흘 뒤에 그 해답을 공개하겠다.

지정된 날이 되자 사람들은 <그랑 조르날>을 서로 빼앗기 바빴다. 하지만 모두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약속했던 정보는 그 신문에 실려 있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답은 경찰청의 누설을 통해 알려졌다. 상테 형무소 소장은 뤼팽이 자신이 만든 봉투 더미들을 통해 공범들과 연락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견디기 힘든 수감자에게는 모든 작업을 금지했다.

그 견디기 힘든 수감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내 재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 변호사, 퀴뵐 변호사장을 불러라."

그건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퀴뵐 씨와의 대화를 한사코 거부해 온 뤼팽이, 이제 그를 만나 변호를 준비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바로 다음 날, 퀴뵐 씨는 잔뜩 기뻐하며 변호사 접견실로 뤼팽을 불러냈다.

그는 나이 든 사내로, 도수 높은 안경 렌즈 때문에 눈이 유난히 커 보였다. 그는 모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서류 가방을 펼친 뒤, 미리 꼼꼼히 준비해 둔 질문들을 곧바로 쏟아냈다.

뤼팽은 더없이 친절하게 대답했고, 심지어 퀴뵐 씨가 위아래로 겹쳐 꽂아 둔 카드에 곧바로 받아 적을 만큼 끝없는 세부 사항까지 늘어놓았다.

—그래서, 하고 변호사가 종이에 고개를 파묻은 채 말을 이었다, 그 무렵에…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무렵에 제가, 하고 뤼팽이 받아넘겼다…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작은 동작들을 섞어 가며 그는 탁자에 팔을 괴었다. 팔을 조금씩 내리더니 손을 퀴뵐 씨의 모자 밑으로 슬그머니 밀어 넣었고, 가죽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종이 띠 하나를 집어 들었다. 모자가 너무 클 때 가죽과 안감 사이에 끼워 두는, 길게 접은 종이 띠였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두드빌이 약속된 암호로 적어 보낸 쪽지였다.

"저는 퀴뵐 씨 댁에 하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경로로 안심하고 답장하셔도 됩니다.

"봉투 수법을 밀고한 자는 살인자 L... M...입니다. 다행히 미리 대비해 두셨더군요!"

그 뒤로는 뤼팽의 폭로로 빚어진 모든 정황과 그에 대한 논평이 꼼꼼히 정리된 보고서가 이어졌다.

뤼팽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시가 적힌 비슷한 종이 띠를 꺼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먼젓번 띠와 바꿔치기한 뒤 손을 거두어들였다. 수법은 멋지게 통했다.

그리고 뤼팽과 <그랑 주르날> 사이의 서신 교환은 지체 없이 재개되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상테 궁전의 우편 서비스가 워낙 형편없어서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반박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입증해 줄 모든 서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발표는 뒤로 미뤄 두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그 편지들 가운데에는, 당시 스스로를 재상의 제자이자 숭배자라 자처하던 인물이 그 재상에게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몇 년 뒤 거추장스러운 후견인을 제거하고 스스로 통치하게 됩니다."

"내 말이 충분히 이해되나요?"

다음 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편지들은 마지막 황제가 병석에 있을 때 쓰였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이 편지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사흘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마지막 통지문이 나왔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수사를 마쳤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끝없이 생각한 끝에, 나는 숨겨진 곳의 비밀을 꿰뚫었다.

"내 친구들은 펠덴츠로 향할 것이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알려준 출구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신문들은 이 편지들의 사진을 실을 것이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나는 원문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

“이 발표는 확실하며 피할 수 없다. 정확히 이보름 뒤, 다가오는 8월 22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침묵하며… 기다린다.”

실제로 <그랑 주르날>과의 통신은 끊겼지만, 뤼팽은 자기들끼리 ‘모자 우편’이라 부르던 방식으로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말 간단했다. 아무런 위험도 없었다. 퀴뵐 씨의 모자가 뤼팽의 사서함 노릇을 하고 있으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그 유명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지를 꼬박꼬박 가져왔다. 파리에서 온 편지, 지방에서 온 편지, 독일에서 온 편지까지, 모두 두드빌이 짧은 약식 문구와 암호로 압축해 정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퀴뵐 씨는 뤼팽의 지시를 엄숙한 표정으로 들고 돌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상테 형무소장은 L... M...라는 서명이 담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십중팔구 퀴뵐 씨가 자기도 모르게 뤼팽의 배달부 노릇을 하고 있을 터이니, 이 노인의 방문을 잘 감시하는 편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소장에게서 경고를 받은 퀴뵐 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비서를 데리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해서, 뤼팽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무궁무진한 발상과 패배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이 펼쳐 보이던 기적 같은 재간에도 불구하고, 뤼팽은 또다시 그 가공할 적수의 악마 같은 천재성에 의해 바깥세상과 단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단절된 것은 가장 위급한 순간, 곧 감방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그토록 끔찍하게 짓누르던 연합 세력에 맞서 마지막 으뜸패를 던지던 그 엄숙한 순간이었다.

8월 13일, 두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던 그는 퀴뵐의 서류 몇 장을 싸고 있던 신문 한 장에 시선이 끌렸다.

굵은 글씨로 된 제목은 이러했다.

「813」

부제는 이러했다. '새로운 살인 사건. 독일의 동요. 아푸안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질 것인가?'

뤼팽은 불안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아래에서 그는 이런 문장을 읽었다.

'마감 직전에 충격적인 전보 두 통이 들어왔다.'

아우크스부르크 근처에서 나이 든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다. 칼에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한 상태였다. 신원 확인 결과, 그 남자는 케셀바흐 사건에서 언급된 스타인웨그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콜른으로 유명한 영국 탐정 헐록 숌즈가 급히 소환됐다는 전보가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황제를 만나고, 함께 펠덴츠 성으로 향할 예정이다.

헐록 숌즈는 아푸안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성공한다면, 아르센 뤼팽이 지난 한 달 동안 기이한 방식으로 벌여 온 이해할 수 없는 공세가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아마도 공중의 호기심이 이토록 들끓은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숌즈와 뤼팽의 대결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이 대결은 정황상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익명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온갖 스캔들과, 이번에도 또다시 맞붙은 두 불구대천의 원수가 다투던 그 막대한 쟁점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력을 지닌 대결이었다.

그것은 사사로운 작은 이익이나 하찮은 절도, 비루한 개인적 욕정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구 세 강대국의 정치가 걸려 있고, 온 세계의 평화마저 뒤흔들 수 있는 진정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신도 몰랐다.

만약 그 탐정이 승리를 거두어 편지를 찾아냈다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 승리를 입증할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사람들은 뤼팽에게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자신의 행적을 대중에게 알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을 할까? 자신을 위협하는 끔찍한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까? 그는 그 위험을 이미 알고 있을까? 사람들이 입에 올리며 궁금해한 질문은 바로 이것들이었다.

감방 네 벽 사이에 갇힌 14번 수감자 역시 거의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불안이었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홀로 남겨졌다. 손은 힘이 없고, 의지는 무력하며, 머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영리하며, 두려움 없이 용감했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싸움은 그 자신과는 다른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기계적으로, 거의 공장처럼 만들어 낼 거대한 기계를 조립했다. 모든 스프링을 팽팽하게 당겼다. 하지만 이제 그 작품을 다듬거나 감시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장치가 작동할 것이다. 그전까지 천 가지의 역경이 닥칠 수 있고, 천 가지의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역경을 막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뤼팽은 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에게 의문을 품었다. 자신의 인생이 형무소의 끔찍한 현실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계산이 빗나갔을까? 정해진 날짜에 해방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유치한 생각이었을까?

"미친 짓이야!" 그가 외쳤다. "내 논리가 틀렸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단 말인가? 분명 모든 걸 무너뜨릴 작은 사건 하나가 생길 거야… 모래알 하나처럼 말이야…"

슈테인베그의 죽음과 노인이 건네야 할 문서들의 실종은 그를 크게 흔들지 않았다. 문서가 없어도 어찌어찌 해낼 수 있었다. 몇 마디 말과 추리, 그리고 천재적인 직관만 있으면 충분했다. 황제의 편지에 담긴 내용을 재구성하고, 승리를 안겨줄 작전 계획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헐록 숌즈가 있었다. 숌즈는 지금, 바로 그 전장 한복판에 서서 문서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숌즈가 편지를 찾아내면, 그가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는 '다른 자', 즉 용서할 줄 모르는 적수를 생각했다. 그 자는 감옥 주변에 숨어 있거나, 어쩌면 감옥 안에까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뤼팽이 머릿속 깊숙이 품은 비밀스러운 계획조차, 그 계획이 아직 마음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17일. 18일. 19일.

이틀만 더. 아니, 이백 년처럼 느껴졌다. 오죽하면 이토록 길고 지루한 시간인가. 평소라면 차분하고 자신만만하며,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아는 재주꾼이었던 뤼팽은 지금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한때는 흥분하다가도 곧 우울해지고, 적수 앞에서는 무기력해졌으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침울해졌다.

8월 20일.

그는 행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수를 써도 그는 결말의 시기를 당길 수 없었다. 그 결말이 닥칠지 말지는 알 수 없었지만, 뤼팽은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직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실패야."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성공은 너무 미묘한 상황들에 달려 있고, 너무 심리적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어. 내 무기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도……"

희망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승산이 갑자기 현실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크다고 느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그가 계산했던 바로 그 이유로 일이 진행될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다. 숌즈가 숨은 곳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때 다시 숌즈에 대한 생각이 그를 짓눌렀고, 깊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늦게 일어났다. 악몽에 시달린 밤을 보낸 뒤였다.

그날 그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재판관도, 변호사도 없었다.

오후는 느리고 침울하게 흘렀고, 밤이 찾아왔다. 감옥의 어두운 밤이었다. 그는 열이 올랐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이 흘러갔다.

아홉 시가 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열 시가 됐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조여 올린 신경을 총동원해, 감옥의 알 수 없는 소음들을 경청했다. 견고한 벽 너머로, 외부의 삶에서 새어 나올 법한 모든 것을 포착하려 애썼다.

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멈추고 싶었다. 운명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랴.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었는가?

"아, 내가 미쳐가는 건가.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길 바란다. …이게 더 낫지. 나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다른 시도를 해 볼 거야.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못 해…"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온 힘을 다해 꽉 쥐며, 자신을 안으로 봉쇄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한 가지 사물에 집중시켰다. 마치 그가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건, 놀랍고도 불가능한 사건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듯했다.

"반드시 그래야 해. 그래야 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논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가 자신의 두개골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광기 어린 말들이 입술 위로 치솟아 올랐다.

자물쇠가 삐걱거렸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빛줄기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이 열렸다.

세 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뤼팽은 단 한 순간도 놀라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진실과 정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자부심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힘과 지능을 뚜렷이 자각했다.

"전기를 켜야 합니까?" 세 남자 중 한 명이 물었다. 뤼팽은 그이가 교도소장임을 알아챘다.

"아니요." 가장 키가 큰 동료가 대답했다. 낯선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다. "이 랜턴으로 충분하죠."

"그럼 제가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의 의무에 따라 하십시오, 선생님." 같은 남자가 말했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저는 당신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렐리 씨는 문을 살짝 열어 둔 채로 나갔다. 그리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머물렀다.

방문객은 아직 말을 하지 않던 이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뤼팽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두꺼운 자동차용 코트를 입고 챙을 접은 모자를 쓴 두 사람의 검은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다.

"당신이 바로 아르센 뤼팽 맞소?"

한 남자가 손전등 불빛을 뤼팽의 얼굴에 그대로 쬐며 물었다.

뤼팽은 미소 지었다.

"네, 저요. 지금 상테 형무소 제2분류 14호실에 갇혀 있는 아르센 뤼팽이오."

"맞소. 그대가 바로 <그랑 저널>지에 '가짜 편지' 같은 이야기를 담은, 다소 허무맹랑한 일련의 기고문을 실었던 그 뤼팽이오."

방문객이 계속했다.

그러나 뤼팽은 그의 말을 끊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 대화의 목적부터가 제게는 명확하지 않으니, 계속하기 전에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낯선 남자가 쏘아붙였다.

"반대입니다." 뤼팽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예의 차원에서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제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저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는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용납할 수 없어요."

낯선 남자는 인내심을 잃었다.

"이 감옥의 소장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보렐리 씨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군요." 뤼팽이 말했다. "보렐리 씨가 우리를 소개해 줘야 마땅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선생님.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도, 감옥에 갇힌 죄수와 그를 보러 온 방문객도 아닙니다. 오직 두 남자가 있을 뿐이고, 그중 한 남자는 쓰지 말아야 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든 당신 마음입니다, 선생님." 뤼팽이 말했다.

외국인이 다가와 입을 열려 했지만, 뤼팽이 다시 말했다.

"먼저 모자부터요. 모자라고요…"

"내 말을 들어요!"

일들이 어리석게 꼬이고 있었다. 침묵하고 있던 두 외국인 중 한 명이 동행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독일어로 말했다.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뭐라고요! 이미 정해진 건데…"

"입 다물고 나가."

"내가 당신 둘만 남겨두고요?"

"그럼 문은?"

"문을 닫고, 여기서 물러나."

"하지만 그 남자분은…… 그분을 아시죠? 아르센 뤼팽이잖아요."

"가라."

다른 한 사람이 투덜거리며 나갔다.

"문도 꽉 닫고." 두 번째 방문자가 소리쳤다. "더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잘했어."

그가 몸을 돌렸다. 등불을 들어 올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누구인지 말씀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뤼팽이 대답했다.

“왜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내가 기다려 온 사람입니다.”

“네, 폐하.”

제11장

"잠시만. 그 단어는 입에 담지 마시오."

외국인이 재촉하듯 말했다.

"그럼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이름 따위는 필요 없소."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싸움을 앞둔 적들 사이의 긴장감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종류의 공백이었다.

외국인은 주인처럼 거닐었다. 명령하는 법과 명령을 듣는 법을 이미 체득한 자의 여유였다.

반면 뤼팽은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의 도발적인 태도도, 비웃는 미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다. 그는 이 놀라운 상황을 열정적으로, 미치도록 즐기고 있었다. 감옥의 감방이라는 이상한 장소에서, 감옥에 갇힌 자로서, 모험가로서, 사기꾼이자 절도범으로서, 아르센 뤼팽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현대 세계의 반신(半神)이 있었다. 카이사르와 샤를마뉴의 후계자이자, 위엄 있는 실체.

그의 힘에 취해 잠시 어지러웠다. 승리를 거두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낯선이가 발걸음을 멈췄다.

첫 문장을 끝내자마자, 상황의 핵심이 드러났다.

"내일은 8월 22일입니다. 편지들이 내일 공개될 예정이죠?"

"오늘 밤입니다. 두 시간 안에 제 친구들이 그랑주르날에 편지 대신, 그 목록을 맡길 예정입니다. 대공 헤르만 후스가 직접 주석을 단 정확한 편지 목록이죠."

"그 목록은 맡겨지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맡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 목록을 저에게 건네주십시오."

"그 목록은 당신의, 아니 당신의 손에 전달될 것입니다."

"모든 편지도 마찬가집니다."

"모든 편지도 마찬가집니다."

"사진 한 장도 찍히지 않은 채로요."

"사진 한 장도 찍히지 않은 채로요."

그 이방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간청의 흔적도, 권위적인 어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명령하지도,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르센 뤼팽이 피할 수 없이 저지를 행동들을 단언할 뿐이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뤼팽이 어떤 조건을 내건들, 그 행위를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의 대가를 요구하든 상관없이. 조건은 이미 미리 받아들여진 셈이었다.

'대단한 상대다.' 뤼팽이 생각했다. '만약 그가 나의 자비심을 호소한다면, 나는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대화가 시작된 방식, 말의 솔직함, 목소리와 태도의 매혹적인 매력. 모든 것이 뤼팽에게 아주 좋게 느껴졌다.

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치열하게 쟁취한 모든 이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리고 이방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 편지들을 읽어보셨나요?"

"아니, 당신 측 누군가가 읽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그럼요. 대공의 목록과 주석이 달린 필사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모든 서류를 숨긴 곳의 위치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미리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곳에 머무르면서야 숨겨진 곳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제 친구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에는 경비가 서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병사 이백 명이 성을 지키고 있죠."

"만 명을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방문객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추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도 있었겠군요. 신문에는 나오지 않은 정보요."

"네, 사흘 동안 성을 샅샅이 뒤졌지만…"

"헐록 숌즈는 잘못 찾은 겁니다."

"아,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낯선 남자가 혼자 중얼거렸다. "당신의 추측이 맞다는 건 확실합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좋아, 정말 좋아." 그가 다시 속삭였다. "이 문서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겠지."

그는 갑자기 아르센 뤼팽 정면에 서서 물었다.

"얼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뤼팽이 당황한 듯 물었다.

"이 문서에 대해요. 비밀을 폭로하는 대가로요."

그는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스스로 금액을 제시했다.

"오만 프랑…… 십만 프랑?"

뤼팽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조금 망설이는 어조로 덧붙였다.

"더 많이? 이십만 프랑? 좋습니다. 제가 수락합니다."

뤼팽이 미소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숫자가 꽤 괜찮군요. 하지만 영국의 왕 같은 군주라면 백만까지도 불사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그 편지들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며, 이십만 프랑이든 이백만 프랑이든, 삼백만 프랑이든 이백만 프랑이든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황제는 그 삼백만 프랑을 아낌없이 지불할까요?"

"그렇다면 합의는 쉬울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낯선 남자가 불안한 기색을 띠며 외쳤다.

"그걸 바탕으로는 아닙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수백만 프랑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유입니다."

낯선 남자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뭐라고요? 당신의 자유라니…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당신 나라의 문제죠. 사법부의 영역이고, 제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뤼팽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다.

"전하, 전하께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자유가 거절당할 만큼 특별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말인가?"

"누구에게요?"

"발랑글레 대통령께요. 내각 의장이지요."

"하지만 발랑글레 각하도 저와 마찬가집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분이라면 이 감옥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스캔들이 될 겁니다."

"'열어준다'고 말했지만… 살짝 비켜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탈출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대중은 그런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발랑글레 각하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할 겁니다."

"왜요?"

"전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제 소원이 그의 명령이 될 수는 없죠."

"소원은 아니지만, 그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황제에게 기쁨을 드릴 기회일 뿐입니다. 발랑글레는 너무 정치적인 인물이라…"

"게으른 추측이시군요. 프랑스 정부가 제게 기쁨을 드리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자의적인 행위를 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프랑스를 위한 일입니다. 자유를 요구하는 편지에 딸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제가 제안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폐하."

"무슨 제안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땅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타협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낯선 남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뤼팽은 몸을 기울였다. 말을 찾느라, 혹은 어떤 가설을 상상하듯.

"두 나라가 사소한 문제로 갈라섰다고 치자. 부차적인 일, 예를 들어 자존심이 걸린 식민지 문제 같은 것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중 한 나라의 지도자가 스스로 타협적인 태

도를 취해 그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필요한 지시를 내려서……”

“내가 모로코를 프랑스에 양도하라는 지시를 내리라는 뜻이오.”

외국인은 크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뤼팽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마음껏 웃었다. 달성하려는 목표와 제공된 수단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당연해…” 낯선 남자가 다시 말했다. 진지한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아이디어가 참 독창적이군요. 아르센 뤼팽을 석방하기 위해 현대 정치를 통째로 뒤집어엎다니. 제국의 계획을 무너뜨려서라도 뤼팽이 계속 활약하게 만들다니요. 아니, 왜 저는 알자스와 로렌까지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폐하.” 뤼팽이 말했다.

낯선 남자는 더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

“훌륭하군! 그리고 저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군요?”

“이번만큼은 그렇습니다.”

뤼팽은 팔짱을 끼었다. 자신도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며 즐거워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진지한 어조를 유지하며 계속했다.

"언젠가 제가 그 편지들을 돌려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쥐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날이 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가진 수단은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합니다. 저는 모로코의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모로코와 당신의 자유를 바꾸라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대화의 핵심을 잊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관련 두 국가 중 한 나라가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제 손에 들어온 편지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들! 그 편지들이!" 외국의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쨌든 그 편지들이 그리 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주님, 이 손가락 자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여기시어, 이 감방까지 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출처를 모르고 계신 다른 자국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소."

"아!" 낯선 남자가 불안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뤼팽은 잠시 망설였다.

"말해. 숨김없이, 정직하게 말하라." 낯선 남자가 명령했다.

깊은 침묵이 감돌았다. 뤼팽이 진지한 어조로 선언했다.

"스무 해 전, 독일과 영국, 프랑스 사이에 조약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거짓말이오! 불가능한 일이오! 누가 그런 일을?"

"현 황제의 부친과 그의 외할머니이신 영국 여왕이요. 둘 다 황후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편지들은 벨덴츠 성의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의 비밀은 오직 저만 알고 있죠."

손님은 초조하게 안을 오갔다.

그가 멈춰 서서 물었다.

"조약문도 그 편지들 가운데 하나요?"

"네, 폐하. 바로 폐하의 부친께서 손수 쓰신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라 적혀 있소?"

"그 조약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거대한 식민제국을 넘겨주고 또 약속했습니다. 독일이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오늘날 그 위대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제국 말입니다."

"그 제국과 맞바꿔 영국은 무엇을 요구했소?"

"독일 해군의 규모 제한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이었습니다."

황제는 탁자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물었다.

뤼팽이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의 내각은 의향을 타진받고 동의했고, 일은 다 된 셈이었죠. 대동맹 조약이 체결되어 보편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막 이루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죽음으로 그 아름다운 꿈은 산산이 부서졌죠.

하지만 폐하께 여쭙고 싶습니다. 1870년 전쟁의 영웅 중 한 분이자 순수 혈통의 독일인으로서 모든 동포는 물론 적들에게까지 존경받던 프리드리히 3세가 알자스-로렌의 반환을 받아들였고, 따라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폐하의 백성은 무어라 생각하겠습니까? 세계는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그 문제를 명확한 말로 황제의 양심 — 한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또 군주로서의 양심 — 앞에 똑똑히 제기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 조약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지 말지는 폐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저로 말하자면, 폐하, 보시다시피 이 문제에서 제 보잘것없는 존재가 차지하는 자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뤼팽의 말 뒤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다. 그가 구상하고, 그토록 많은 노력과 집념으로 말하자면 손수 세상에 탄생시킨 이 순간에 그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이 역사적 순간, 비록 그가 겸손하게 말하기는 했어도 그의 '보잘것없는 존재'는 제국들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에 무겁게 작용하고 있었다.

맞은편 어둠 속에서, 카이사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무어라 말할 것인가? 이 난제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황제는 감방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 몇 순간이 뤼팽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그가 멈춰 서서 물었다.

"다른 조건이 있소?"

"있습니다, 폐하. 하지만 별것 아닙니다."

"무엇이오?"

"저는 되퐁-벨덴츠 대공의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대공국은 그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아가씨를 사랑하고, 그녀도 그를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이지요.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더는 없소?"

"없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이 편지를 그랑 저널 편집국장에게 전하시어, 곧 그가 받아 보게 될 기사를 읽지도 말고 없애 버리도록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뤼팽은 심장이 조여오고 손이 떨리는 채 편지를 건넸다. 황제가 그 편지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수락의 뜻이었다.

황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분노에 찬 제스처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모자를 쓰고 겉옷을 단단히 감싸고는, 말 없이 나가버렸다.

뤼팽은 몇 초 동안 비틀거렸다. 어지러운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기쁨과 자부심으로 외쳤다.

"판사님, 오늘이 제가 작별 인사를 드릴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뤼팽 씨. 떠나실 생각이라도 있으신가요?"

"마지못해 떠나는 겁니다, 판사님. 믿어 주십시오.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잘 아시잖습니까. 하지만 끝없는 즐거움이란 없는 법이죠. 상테-팔라스에서의 제 요양도 이제 끝났습니다. 다른 의무들이 저를 부르고 있거든요. 오늘 밤, 저는 탈출해야 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뤼팽 씨."

"감사합니다, 판사님."

아르센 뤼팽은 탈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 갸륵한 일을 위해 손잡은 프랑스와 독일이 큰 추문 없이 어떻게 그것을 성사시킬지 궁금해하며, 차분히 탈출 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한창 무렵, 간수가 그를 안마당으로 부르러 갔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그를 바로 베버 씨에게 인계했다. 베버 씨는 그를 자동차로 올라타게 했고, 안에는 이미 누군가 타고 있었다.

뤼팽은 순간 폭소를 터뜨렸다.

"세상에! 바로 너냐, 불쌍한 베버! 네가 이 고역까지 맡게 되다니! 내 도주를 책임져야 한다니? 운이 없군! 정말 운이 없어, 친구. 참으로 난감한 일이야. 내 체포로 이름을 알렸으니, 이제 내 도주로 불후의 명성을 얻게 되었군."

그는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자, 됐어요, 경찰청장 각하. 당신도 이 일에 끼셨군요. 정말 골치 아픈 선물을 받으셨죠? 제 조언을 듣자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광은 모두 베버에게 돌리시죠. 그게 당연한 그의 몫이니까요. 그 친구, 만만치 않거든요!"

차는 센 강변을 따라 불로뉴 숲을 지나 빠르게 달렸다. 생클루에서 강을 건넜다.

"완벽해요!" 뤼팽이 외쳤다. "우리는 가르슈로 갑니다! 알텐하임의 죽음을 재현하는 데 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하도로 내려가고, 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저만 아는 다른 출구로 자취를 감췄다고 말하겠죠. 세상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는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바보, 그야말로 최하급 바보라니! 부끄럽기 그지없군.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하지만 어이, 내게로 오라고 했어야지. 내가 너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일종의 기적 같은 탈출 계획을 가져다주었을 텐데. 내 서랍에는 그런 게 차고 넘친다고! 대중은 기적이라고 외쳤을 것이고, 기쁨에 겨워 몸부림쳤을

거야. 그런데 대신 이런 일이 생겼지… 음, 사실 너도 좀 당황했을 테니까. 그래도 말이야."

프로그램은 뤼팽이 예상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 그들은 은퇴자 요양원을 통해 오르텐스 별장에 들어섰다. 뤼팽과 두 동료가 내려가 터널을 가로질렀다. 터널 끝에서 부주임이 말했다.

"너는 자유다."

"자, 끝입니다!" 뤼팽이 말했다. "별것도 아니었군요! 베버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경찰청장님, 부인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그는 글리신 별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다시 올라가, 뚜껑문을 들어올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그의 앞에는 전날 처음 찾아왔던 손님, 곧 황제를 수행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좌우로는 네 명의 사내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장난이오?" 뤼팽이 말했다. "그럼 난 자유가 아니란 말이오?"

"아니, 자유요." 독일인이 거친 목소리로 으르렁댔다. "우리 다섯과 함께 여행할 자유 말이오… 당신만 좋다면."

뤼팽은 그의 코를 한 대 제대로 갈겨 주고 싶은 미친 충동을 느끼며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섯 사내는 지독히도 단호해 보였다. 그들의 두목 역시 뤼팽에게 그리 살가운 정을 품고 있지 않았다. 뤼팽은 이 사내가 극단적인 수단을 쓰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게다가 어쨌든, 그게 그에게 무슨 대수겠는가?

그는 냉소하며 말했다.

"좋다마다요! 바로 제가 꿈꾸던 일인걸요!"

마당에는 튼튼한 리무진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앞자리에, 다른 두 사람이 안쪽에 올라탔다. 뤼팽과 낯선 남자는 맨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출발!" 뤼팽이 독일어로 외쳤다. "벨덴츠로 갑시다."

백작이 그에게 말했다.

"조용히! 저들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어로 말하시오.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한데 무엇 하러 말을 하겠소?"

'하긴, 무엇 하러 말을 하겠어?' 뤼팽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 내내, 그리고 밤새도록 차는 아무 사고 없이 달렸다.

잠든 작은 마을 두 곳에서 기름을 넣었다.

독일인들은 번갈아 가며 포로를 감시했지만, 정작 뤼팽은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떴다.

첫 끼니는 언덕 위에 자리한 여관에서 들었다. 그 근처에는 이정표가 하나 서 있었다.

뤼팽은 그곳이 메스와 룩셈부르크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음을 알아보았다.

거기서 그들은 트레브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꺾어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뤼팽이 길동무에게 물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발데마르 백작, 곧 황제의 측근이자 드레스덴에서 헤르만 3세의 집을 뒤졌던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낯선 남자는 잠자코 입을 다물었다.

뤼팽은 속으로 생각했다.

'자네, 내 눈엔 영 못마땅하군. 언젠가 반드시 갚아 주지. 못생긴 데다 뚱뚱하고 둔중해. 한마디로 자네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고는 큰 소리로 덧붙였다.

"백작님, 대답을 안 하시다니 잘못이십니다. 저는 백작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덕을 올라올 때, 저 멀리 지평선에서 우리 뒤로 차 한 대가 불쑥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백작님도 보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해 본 것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10분 앞서 있고, 우리 차는 적어도 40마력은 되니까요."

"60마력이오." 독일인이 말하며, 불안한 듯 곁눈질로 뤼팽을 살폈다.

"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겠군요."

그들은 자그마한 오르막을 올라갔다. 꼭대기에 다다르자 백작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역겨운 놈!" 그가 맹세했다.

"무슨 일이야?" 뤼팽이 물었다.

백작이 그를 돌아보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도 알짤하게 될 거다."

"에이, 에이. 다른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양이군. 하지만 무서워할 것 뭐가 있소, 백작 각하? 아마도 여행객일 테고, 어쩌면 당신에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일지도 모르지."

"나는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독일인이 투덜거렸다.

그는 다시 몸을 굽혔다. 자동차는 이제 이백에서 삼백 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뤼팽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녀석을 묶어라. 만약 저항하면…"

그는 권총을 꺼냈다.

"왜 내가 저항하겠소, 부드러운 게르만족이여?" 뤼팽이 비웃었다.

그는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이상하군. 쓸데없을 때는 온갖 방비를 다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대체 그 차가 무슨 용도야? 내 공범들이라니, 무슨 생각인지."

독일인은 대답 대신 운전수에게 명령을 내렸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 …저들을 지나가자. …저들도 느려지면 멈춰!"

하지만 독일인은 큰 놀람에 휩싸였다. 차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었다. 폭풍처럼 그 차를 지나쳐 갔고, 먼지 구름이 일었다.

차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차는 반쯤 개방된 구조였고,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팔을 들어 올렸다.

총성이 두 번 울렸다.

왼쪽 문을 완전히 가리고 있던 백작이 차 안으로 쓰러졌다.

두 동료가 그를 돌보기 전에, 먼저 아르센 뤼팽에게 달려가 그를 완전히 묶어 버렸다.

"망할 놈들! 멍청이들!" 뤼팽이 분노에 몸이 떨리며 소리쳤다. "오히려 나를 놓아주지! 어이, 정말 바보들 같으니라니. 이제야 경찰에 잡히다니. 미친 듯이 그 뒤를 따라가! 검은 옷을 입은 자를! 살인자를! 어이, 멍청이들아…"

그들은 그의 입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나서야 백작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 상처는 심해 보이지 않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백작은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고열이 올랐고, 이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 여덟 시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근처에 마을 하나 없었다. 사람들은 이번 여행의 정확한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알릴까?

그들은 차를 숲 가장자리에 세우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흘러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트리어에서 파견된 기병대 한 부대가 도착해 자동차를 수색했다.

두 시간 뒤, 뤼팽은 리무진에서 내려 두 독일인의 호위를 받으며 등불 빛에 비춰진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철창이 달린 창문이 있는 작은 방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한 장교가 그를 이끌고 군인들이 가득한 마당을 지나갔다. 그들은 언덕 기슭에 자리 잡은 긴 건물들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언덕 위에는 기념비적인 유적들이 보였다.

그는 소박하게 꾸며진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던 그의 전전날의 방문객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붉은 연필로 대충 체크한 보고서들을 넘기고 있었다.

"우리는 혼자 있게." 그가 장교에게 말했다.

그리고 뤼팽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문서 좀."

어조가 달라졌다. 이제 그 목소리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안에서 종속자에게 내리는, 그야말로 명령조였다. 어떤 종속자란 말인가? 사기꾼, 최악의 모험가, 바로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던 상대였다.

"문서." 그가 다시 말했다.

뤼팽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벨덴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벨덴성의 부속 건물에 있습니다."

"문서는 그 폐허 안에 있어요."

"그럼 가자. 나를 데려가."

뤼팽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때?"

"말이 쉽지가 않소, 폐하. 이 숨겨진 공간을 열려면 필요한 요소들을 작동시켜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

"스물네 시간."

화가 난 듯 손짓했다가 곧 주춤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오가지 않았소."

"명확히 정해진 건 없소, 폐하. 그건 물론이고, 폐하께서 근위병 여섯 명에게 에워싸인 채 저를 작은 여행을 하게 하셨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류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를 돌려받는 대가로만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폐하. 만약 제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더라면, 이 문서들을 돌려드리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폐하는 저의 약속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팔에 끼고 달아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문서들이 이미 폐하의 손에 들어와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하루는 너무도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필요했으니까요."

황제는 경멸받는 자, 즉 신분이 추락한 자이자 도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처받은 듯했다.

황제는 대답하지 않고 종을 울렸다.

"근무 장교를 불러라."

발트마르 백사가 나타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 발트마르군. 네가 회복되었군?"

"폐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다섯을 데려가라.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놈들이지. 내일 아침까지 이 신세를 떨어뜨려선 안 돼."

그가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열시까지…… 아니, 정오까지 주마. 그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라.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결국 네가 그의 전속 경호원이란 말이다. 정오에 내가 합류하겠다. 정오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그가 내게 편지 더미를 건네지 않으면, 너는 그를 차에 태워 즉시 상테 형무소로 돌려보내라."

"그가 탈출하려 하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가 나가자, 뤼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를 하나 집어 들고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좋아! 나는 이런 방식이 더 마음에 든다. 정직하고 단호하니까."

백작은 병사들을 방으로 들이고는 뤼팽에게 말했다.

"출발!"

뤼팽은 담배에 불을 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을 묶어라!" 백작이 명령했다.

명령이 집행되자 백작은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출발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 중이야."

"무엇을?"

"그 숨겨진 장소가 어디에 있을지."

백작이 깜짝 놀랐다. 그러자 뤼팽이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 당신도 모른다고?"

"사실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지. 그 유명한 숨겨진 장소가 어디인지 나는 단 한 줄기도 모른다고. 찾아낼 방법도 전혀 없어. 어때, 발데마르 형?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겠지? 단 한 줄기도 모른다고."

제12장

펠덴츠 성터는 라인강과 모젤강을 찾는 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곳이다. 1277년 피스팅겐 대주교가 세운 중세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고, 튀렌네 장군의 부대에 의해 도살된 거대한 망루 옆으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넓은 궁전 벽이 온전히 서 있다. 두 포츠 대공 가문이 삼 세기 동안 거처로 삼았던 곳이다.

이 궁전이 바로 헤르만 2세의 반란민들에게 약탈당했다. 창문은 텅 비어 사방 벽면으로 두백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모든 목재 장식품과 커튼, 대부분의 가구가 불탔다. 타버린 마루의 들보 위를 걷게 되고, 무너진 천장 사이로 하늘이 여기저기 드러난다.

두 시간이 지나자, 뤼팽은 호위대원들을 뒤따르게 한 채 성 안을 다 돌아봤다.

"참 잘했어요, 백작 각하. 이렇게 상세한 해설을 해주는 가이드는 처음 뵙습니다. 게다가 말이 많지 않은 점이 더 드문 경우죠. 이제 점심을 드실까요?"

사실 뤼팽은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당황스러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감옥에서 탈출하고 방문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알 것처럼 위장하며 bluff(블러프)를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形勢가 너무 안 좋아. 정말로 최악이야.'

그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있었다. 한 가지 생각만 그를 괴롭혔다. 알 수 없는 존재, 살인자, 괴물. 그는 그 존재가 여전히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어떻게 그의 발자취를 쫓았을까? 감옥에서 나와 룩셈부르크와 독일로 달아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기적 같은 직관이었을까, 아니면 정확한 정보의 결과였을까? 만약 후자라면, 그는 어떤 대가나 약속, 혹은 협박으로 그 정보를 얻었단 말인가?

이 모든 의문이 뤼팽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후 네 시쯤, 그는 성터에서 한 바퀴 더 돌았다. 돌들을 무의미하게 살펴보았고, 성벽의 두께를 재었으며, 사물의 형태와 외관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백작에게 물었다.

"마지막 대공이 살던 때의 하인 중, 아직 이 성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시절 하인들은 다 흩어졌소. 이 근처에 계속 남아 산 사람은 한 명뿐이었지."

"그래?"

"그 사람도 두 해 전에 죽었어."

"자식은 없었나?"

"아들이 있었어. 결혼도 했지만, 추문을 일으켜 아내와 함께 쫓겨났지."

"그들은 자식들 중 막내를 남겨 두고 갔어. 이실다라는 어린 딸이었지."

"그녀는 지금 어디에 사나?"

"이곳에 있어. 부속 건물 끝자락에."

"예전에 성을 둘러볼 수 있던 시절엔 그 늙은 할아버지가 방문객 안내를 맡았지. 이실다는 그 뒤로 줄곧 이 폐허에서 살아왔어.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 받아 주는 거지. 말도 거의 못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불쌍하고 순진한 아이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그런 상태였나?"

"아니라고 하더군. 열 살쯤 됐을 때부터 서서히 정신이 멀어졌다고 해."

"슬픔이나 공포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광기에 사로잡혀 자살했죠."

뤼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론짓듯 말했다.

"그녀를 보고 싶습니다."

백작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내준 방 중 한 곳에 있었다.

뤼팽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야위고 너무 창백했지만, 금발과 섬세한 얼굴 덕분에 거의 예쁘다 할 만한 작고 귀여운 아이였다. 물빛 초록색 눈은 흐릿하고 몽상에 잠긴, 맹인의 눈 같은 표정을 띠고 있었다.

뤼팽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실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에는 일관성 없는 말로 답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도, 남들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녀가 아직 제정신이던 시절, 할아버지, 그리고 장엄한 성터 사이를 자유롭게 뛰놀던 어린 시절이 그녀에게 떠올려 줄 법한 추억들을 물었다.

이실다는 입을 다물었다. 눈은 한곳에 고정되고 표정은 덤덤했다. 아마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감정이 잠든 지성을 깨우지는 못했다.

뤼팽은 연필과 종이를 청했다. 그는 흰 종이에 '813'이라고 적었다.

백작은 다시금 미소 지었다.

"아,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단 말이오?" 뤼팽이 성이 나서 외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흥미가 생겨서요. 정말 흥미롭다고요."

소녀는 자신에게 내밀어진 종이를 힐끔 보더니, 시선을 돌리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소용없소." 백작이 비웃듯 말했다.

뤼팽은 종이에 'Apoon'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이실다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글자를 여러 번 반복해 적었지만, 매번 글자 사이의 간격을 다르게 뒀다. 그리고 그때마다 소녀의 얼굴을 살폈다.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연필을 잡았다. 뤼팽의 손에서 마지막 종이를 빼앗아 들었다. 마치 갑자기 영감이 찾아온 듯, 그녀는 뤼팽이 남겨둔 빈칸 한가운데에 'L'자를 두 개 적었다.

뤼팽이 흠칫했다.

한 단어가 완성되었다. '아폴론(Apollon)'.

하지만 그녀는 연필도 종이도 놓지 않았다. 손가락이 굳고 얼굴이 긴장으로 팽팽해진 채, 그녀는 가엾은 머리가 내리는 머뭇거리는 명령에 손을 따르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

뤼팽은 잔뜩 달아올라 기다렸다.

그녀는 환각에 사로잡힌 듯 빠르게 한 단어를, '디안(Diane)'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또 한 단어를! 또 한 단어를!" 그가 격렬하게 외쳤다. 그녀는 연필을 쥔 손가락을 비틀었고, 연필심이 부러졌다. 남은 끝으로 커다란 'J'자를 그은 뒤, 기진맥진해 연필을 떨어뜨렸다.

"또 한 단어! 그게 듣고 싶다!" 뤼팽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명령했다.

하지만 다시 무관심해진 그 눈빛을 보고, 잠시 스쳤던 감정의 불꽃이 더는 빛날 수 없음을 알았다.

"이만 갑시다." 그가 말했다.

막 발길을 돌리려는데, 그녀가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았다. 뤼팽이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지?"

그녀가 손바닥을 펴 내밀었다.

"뭐? 돈을 달라고? 그럼 이 아이는 구걸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그가 백작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백작이 말했다.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이실다가 주머니에서 금화 두 개를 꺼내, 기쁜 듯 서로 부딪쳐 짤랑거렸다.

뤼팽이 그 동전을 살펴봤다.

올해 연도가 찍힌, 갓 만든 프랑스 동전이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뤼팽이 흥분해 외쳤다. "프랑스 동전이잖아! 누가 줬어? 언제? 오늘인가? 말해 봐! 대답해!"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내가 바보지! 이 아이가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친애하는 백작님, 40마르크만 빌려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실다, 이건 너한테 주는 거야…"

그녀는 두 동전을 받아, 손바닥 안에서 나머지 두 개와 함께 짤랑거리게 흔들었다. 그러고는 팔을 뻗어 르네상스 양식 궁전의 폐허를 가리켰는데, 그 손짓은 특히 왼쪽 별관과 그 별관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듯했다.

그것이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금화 두 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봐야 했을까?

그는 백작을 살폈다. 백작은 여전히 미소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

"저 녀석이 대체 왜 저렇게 실실 웃는 거지?" 뤼팽이 생각했다. "날 가지고 노는 것 같군."

그는 어쨌든 궁전 쪽으로 향했다. 호위대가 그의 뒤를 따랐다.

1층은 거대한 접견실들이 서로 연이어 이어져 있었고, 화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가구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다.

2층에는 북쪽으로 긴 복도가 있었고, 그 복도를 향해 똑같이 생긴 아름다운 방 열두 개가 나 있었다.

3층에도 같은 복도가 이어졌는데, 다만 방이 스물네 개였고 이 역시 서로 똑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텅 비고 망가져 처참할 지경이었다.

맨 위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락방은 이미 불에 타 버렸다.

한 시간 동안 뤼팽은 지칠 줄 모르고 걷고 달리고 질주하며, 눈을 부릅뜨고 살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자신만 아는 특별한 이유로 고른 듯, 2층의 열두 방 중 한 곳으로 달려갔다.

그 방에서 그는 적잖이 놀랐다. 황제가 가져오게 한 안락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뤼팽은 황제가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늘 쓰던 방식대로 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방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폈다. 20분쯤 지나서 그가 입을 열었다.

"폐하, 잠시 자리를 옮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벽난로가 하나 있군요…"

황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굳이 일어나야 하겠소?"

"네, 폐하. 이 벽난로는…"

"이 벽난로는 다른 것들과 똑같고, 이 방도 옆방들과 다를 바 없소."

뤼팽은 영문을 모른 채 황제를 바라보았다. 황제는 일어나 웃으며 말했다.

"뤼팽 씨, 아무래도 당신이 나를 좀 놀린 것 같소."

"제가 어떤 점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폐하?"

"아, 별것 아니오! 당신은 내가 관심 있는 문서를 넘긴다는 조건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정작 그게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나는 완전 히… 프랑스말로 뭐라고 하더라?… 당했군(roulé)?"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폐하?"

"당연하지! 아는 것은 굳이 찾지 않는 법인데, 당신은 벌써 족히 열 시간째 찾고 있잖소. 당장 감옥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지 않소?"

뤼팽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폐하, 최후의 기한을 내일 정오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다려야 하지?"

"왜라니요? 제 일을 끝마치게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당신의 일? 하지만 그건 시작도 안 했잖소, 뤼팽 씨."

"그 점에서 폐하께서 잘못 보셨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내일 정오까지 기다리겠소."

뤼팽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폐하께서 저를 믿으시려면 증거가 필요하시다니, 여기 있습니다. 이 복도와 면한 열두 개의 방은 각각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의 첫 글자가 방마다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한 글자가 다른 것들보

다 불길에 덜 지워져, 복도를 지날 때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른 문들도 살펴보니, 거의 알아보기 힘들지만 그만큼의 첫 글자들이 모두 복도의 박공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글자들 중 하나는 D, 디안(Diane)의 첫 글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A, 아폴론의 첫 글자였죠. 그리고 이 두 이름은 모두 신화 속 신들의 이름입니다. 나머지 첫 글자들도 같은 성격일까요? 저는 J를 발견했습니다. 주피터의 첫 글자죠. V는 베누스, M은 머큐리, S는 사투르누스. 그 밖에도 더 있었습니다."

문제의 이 부분은 이렇게 풀렸습니다. 열두 개의 방은 각각 올림포스 신의 이름을 지니고 있고, 이실다가 완성해 준 'Apoon'이라는 조합은 아폴론의 방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에 편지들이 숨겨져 있는 셈이군요. 이제 몇 분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몇 분일 수도, 몇 년일 수도 있지… 그나마도 장담 못 하고!" 황제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무척 즐거워하는 듯했고, 백작 역시 짐짓 크게 즐거운 척했다.

뤼팽이 물었다.

"폐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뤼팽 씨, 오늘 당신이 진행한 흥미진진한 수사와 그 빛나는 성과는 이미 제가 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주 전이었죠. 당신의 친구 헐록 숌즈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린 이실다를 심문했고, 당신과 똑같은 방법을 그녀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갤러리의 이니셜을 찾아냈으며, 함께 바로 이곳, 아폴론 홀로 온 것입니다."

뤼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아… 숌즈가… 여기까지…?"

"네, 나흘 동안 뒤진 끝에 말입니다. 하긴 그래 봐야 별 소득은 없었죠.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압니다. 편지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 말입니다."

뤼팽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 빈정거림에 그는 마치 채찍질이라도 당한 듯 움찔했다. 그토록 모욕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격분한 나머지, 그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약 오르게 하는 뚱뚱한 발데마르를 목 졸라 죽이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숌즈에게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폐하. 저는 몇 시간이면 됐습니다. 수사를 방해받지만 않았다면 그보다 더 짧게 걸렸을 겁니다."

"대체 누가 방해했단 말이오? 맙소사, 내 충직한 백작이? 설마 감히 그러지는 않았기를 바라오…"

"아닙니다, 폐하. 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적, 자신의 공범 알텐하임을 죽인 그 지옥 같은 존재 때문입니다."

"그자가 여기 있단 말이오? 그렇게 생각하시오?" 황제가 외쳤다. 그 격앙된 모습은 이 극적인 사건의 어떤 세부 하나도 그에게 낯설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끊임없는 증오로 저를 위협합니다. 치안국장 르노르망 씨로 변장한 저를 간파한 것도 그자이고, 저를 감옥에 처넣은 것도 그자이며, 제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다시 저를 쫓는 것도 그자입니다. 어제는 자동차 안의 저를 노리다가 발데마르 백작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펠덴츠에 있다고 무엇이, 누가 그대에게 장담하던가?"

"이실다가 금화 두 닢, 프랑스 금화 두 닢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요? 무슨 목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폐하. 하지만 그것은 악 그 자체입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경계하십시오. 그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오! 이 폐허에는 내 부하 이백 명이 있소. 그가 들어왔을 리 없소. 들어왔다면 누군가 보았을 거요."

"누군가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이실다."

"그녀를 심문하라! 발데마르, 죄인을 그 처녀에게 데려가라."

뤼팽은 묶인 두 손을 내보였다.

"싸움이 거셀 것입니다. 이런 꼴로 제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백작에게 말했다.

"풀어 주어라… 그리고 내게 계속 알려라…"

이렇게 뤼팽은 갑작스러운 한 수로, 증거 하나 없이 대담하게도 그 혐오스러운 살인자의 환영을 논쟁에 끌어들이며 시간을 벌었고, 다시 수사의 주도권을 쥐었다.

'아직 열여섯 시간 남았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게 필요한 것보다 넉넉해.'

뤼팽은 이실다가 머물던 방에 이르렀다. 옛 부속 건물 끝자락에 있는 곳이었다. 이 건물은 유적지 경비대원 이백 명의 막사로 쓰였고, 그 왼쪽 날개, 정확히 이쪽은 장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이실다는 없었다.

백작은 부하 두 명을 보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 처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유적지 담장 밖으로 나갔을 리는 없었다.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군대 절반이 에워싸고 있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마침내 옆집에 사는 어느 중위의 부인이, 자신은 창가를 떠난 적이 없으며 그 처녀는 나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나가지 않았다면 여기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발데마르가 외쳤다. "그런데 없잖나."

뤼팽이 말했다.

"위층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이 방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습니다."

"아니요, 계단이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골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가리켰다. 그림자 속에 사다리처럼 가파른 계단의 첫 단들이 보였다.

"부디, 백작님." 올라가려는 발데마르에게 그가 말했다. "이 영광은 제게 양보해 주십시오."

"왜요?"

"위험이 따르니까요."

그는 몸을 날려 곧바로 좁고 낮은 다락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졌다.

"무슨 일이오?" 백작도 뒤따라 올라오며 물었다.

"여기… 바닥에… 이실다가…"

그는 무릎을 꿇었으나, 살펴보자마자 그녀가 그저 정신을 잃었을 뿐이며 손목과 손에 난 몇 군데 긁힌 자국 외에는 아무 상처도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재갈처럼 그녀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손수건이었다.

"역시 그렇군." 그가 말했다. "살인자가 그녀와 함께 여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들이닥치자 그는 그녀를 주먹으로 후려치고,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재갈을 물린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달아났을까요?"

"저쪽으로요… 보십시오… 이 층 다락방들을 모두 잇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거기서 어느 한 숙소의 계단을 통해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봤을 텐데요!"

"흥! 누가 알겠소? 저 존재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부하들을 보내 알아보게 하시오. 다락방과 일 층 숙소를 모조리 뒤지게 하시오!"

그는 망설였다. 자신도 살인자를 쫓아가야 할까? 그러나 어떤 소리에 그는 다시 처녀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손에서 금화 열두어 닢이 굴러떨어졌다. 그가 그것들을 살펴보니 모두 프랑스 화폐였다.

"역시." 그가 말했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금화가 많지? 무엇에 대한 대가일까?"

그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하고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그러나 처녀가 잽싸게 달려들어 책을 낚아채더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켜 내겠다는 듯 사납게 가슴에 끌어안았다.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금화 몇 닢과 바꾼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녀는 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손에 난 긁힌 자국이 그 증거죠. 이제 궁금한 건, 살인자가 그 책을 왜 원했느냐는 점입니다. 혹시 그 전에 책을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는 발데마르에게 말을 돌렸다.

"친애하는 백작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발데마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부하 세 명이 소녀에게 덤벼들었다. 소녀는 분노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었지만, 끝내 그 책은 빼앗겼다.

"조심하십시오, 아이야. 차분하게요. 모두 선한 목적을 위한 일입니다." 뤼팽이 말했다. "이 녀석을 감시해라. 나는 그 쟁탈물의 정체를 살펴볼 테니."

그것은 적어도 백 년은 된 낡은 장정에 싸인 몽테스키외의 낙질본 한 권이었다. 제목은 「그니드의 신전으로의 여행」이었다. 그러나 뤼팽은 책을 펼치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이런, 이런, 이상한걸. 페이지마다 앞면에 양피지 한 장씩이 붙어 있고, 그 양피지마다 아주 빽빽하고 가는 글씨가 줄줄이 적혀 있어."

그는 맨 앞부분을 읽었다.

"두이퐁스-펠덴츠 공작 전하의 프랑스인 하인, 질 드 말레르슈 기사의 일지. 은혜의 해 1794년에 시작함."

"아니, 이런 게 있었다니?" 백작이 말했다.

"무엇이 놀라우십니까?"

"이실다의 할아버지, 두 해 전에 돌아가신 그 노인의 이름이 말라이히였거든. 바로 그 이름을 독일식으로 바꾼 것이지."

"훌륭해! 이실다의 할아버지는 몽테스키외의 낙질본에 일지를 쓰던 그 프랑스인 하인의 아들이거나 손자였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일지가 이실다에게 전해진 거지."

뤼팽이 아무 데나 펼쳐 보았다.

"1796년 9월 15일. 전하께서 사냥을 나가셨다."

"1796년 9월 20일. 전하께서 말을 타고 나가셨다. 큐피동을 타셨다."

"음, 아직까지는 별 볼 일 없군."

뤼팽이 중얼거리며 더 뒤쪽으로 넘겼다.

"1803년 3월 12일. 헤르만에게 에퀴 열 닢을 보내 주었다. 그는 런던에서 요리사로 일한다."

뤼팽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호! 헤르만이 왕좌에서 내려왔군. 존경심도 곤두박질이야."

"실제로 당시 재위 중이던 대공은 프랑스 군대에 의해 자신의 영지에서 쫓겨났습니다."

발데마르가 말했다.

뤼팽이 계속 읽었다.

"1809년. 오늘, 화요일, 나폴레옹이 펠덴츠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제가 직접 그분의 침소를 준비했고, 이튿날 아침에는 세수 대야를 비웠다."

"아, 그렇군." 뤼팽이 말했다. "나폴레옹이 펠덴츠에 들렀던 거야?"

"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원정 당시, 바그람 전투로 이어지는 길에 군대와 합류하려고 들르신 거죠. 그 후로 공작 가문은 이 일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뤼팽이 다시 읽었다.

"1814년 10월 28일. 그분이 자신의 영지로 돌아오셨다."

"10월 29일. 오늘 밤, 저는 그분을 숨겨진 곳까지 모셨고, 아무도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어찌 감히 그곳이 숨겨진 곳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멈춤. 뤼팽의 외침.

이실다는 자신을 감시하던 남자들을 갑자기 뿌리치고 그에게 달려들더니, 책을 챙겨 도망쳤다.

"아, 그 녀석! 어서 쫓아가! 아래로 내려가서 돌아라. 나는 복도로 쫓겠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근 뒤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속 건물을 따라 돌며 1층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찾아야 했다.

네 번째 숙소만 열려 있었기에, 그는 비로소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자물쇠를 부수고, 비어 있는 방마다 들어가 봐야 했다.

그동안 발데마르도 그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추격하며, 검 끝으로 커튼과 휘장을 찔러 댔다.

지층 오른쪽 동(棟) 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갔다. 복도 끝에서 한 장교 부인이 손짓하며 그들을 불렀다. 그녀는 그 소녀가 자기 방에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뤼팽이 물었다.

"제 방에 들어가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고요."

과연 뤼팽도 문을 열 수 없었다.

"창문이야! 창문이 분명 있을 거야!" 그가 외쳤다.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데려갔고, 그는 곧바로 백작의 칼을 들어 단숨에 유리창을 깨부수었다.

그러고는 두 남자의 부축을 받아 벽을 붙잡고 팔을 뻗어, 창문 손잡이를 돌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벽난로 앞에 웅크리고 있던 이실다가 불길 한가운데에서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오, 못된 것! 책을 불 속에 던져 버렸어!" 뤼팽이 내뱉었다.

그녀를 거칠게 밀어낸 뤼팽은 책을 집으려다 손을 데고 말았다. 그는 부집게를 이용해 책을 불 밖으로 끌어낸 뒤, 불길을 잡으려고 테이블보로 덮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래된 필사본의 책장은 모두 타 버려 재가 되어 떨어졌다.

뤼팽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작이 말했다.

"저 아이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것 같군."

"아니, 알지 못해. 다만 할아버지가 이 책을 보물처럼 그 애에게 맡겼을 거야. 아무도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보물 말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본능으로,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불 속에 던지는 편이 낫다고 여긴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뭐가 말이오?"

"은닉처는 못 찾으시겠소?"

"아, 아, 친애하는 백작님. 그래도 제 성공 가능성을 한순간이나마 점쳐 보셨군요? 이제 뤼팽이 완전히 사기꾼으로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발데마르. 뤼팽에게는 쓸 수 있는 수가 여럿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내일, 열두 시 전에?"

"오늘 밤, 열두 시 전에. 하지만 배가 고파 죽겠소. 이것도 당신의 호의로 베풀어 주신다면……"

사람들은 그를 부사관 식당으로 쓰이는 부속 건물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든든한 식사가 차려졌고, 그동안 백작은 황제에게 보고하러 갔다.

이십 분 뒤, 발데마르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마주 앉았다.

"발데마르, 좋은 시가 한 개비 있으면 좋겠는데…… 고맙소. 이건 제대로 된 하바나 시가답게 탁탁 소리를 내는군."

뤼팽은 시가에 불을 붙였다. 일이 분쯤 지나서였다.

"담배 피우셔도 됩니다, 백작님. 저는 상관없으니까요."

한 시간이 흘렀다. 발데마르는 졸다가, 잠을 쫓으려고 이따금 코냑 한 잔을 들이켰다.

군인들이 오가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커피 좀 주시오." 뤼팽이 청했다.

커피가 나왔다.

"이거 정말 형편없군…… 카이사르가 마시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래도 한 잔 더 주시오, 발데마르. 밤이 길어질지도 모르니. 아, 정말 끔찍한 커피로군!"

그는 또 다른 시가에 불을 붙이고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 분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꼼짝도,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발데마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분개한 표정으로 뤼팽에게 말했다.

"이봐, 거기! 일어나!"

그 순간 뤼팽은 한가로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휘파람을 계속 불었다.

"일어서라고 하잖나."

뤼팽이 고개를 돌렸다. 황제 폐하가 막 들어오신 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까지 됐나?" 황제가 물었다.

"폐하, 머지않아 폐하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그대가 벌써……"

"은닉처 말씀입니까? 거의 알아냈습니다, 폐하…… 아직 빠진 세부가 몇 가지 있지만, 현장에 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러야 하나?"

"아닙니다, 폐하. 르네상스 궁(宮)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니,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 당장 두세 가지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가 자리에 앉자, 발데마르는 크게 분개했다.

잠시 후, 멀찍이 물러나 백작과 의논하던 황제가 다시 다가왔다.

"뤼팽 씨, 이번엔 준비되셨나요?"

뤼팽은 대답 없이 묵묵히 고개만 숙였다. 또다시 심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고 있군요. 정말로 잠든 것 같습니다."

분노한 발데마르가 어깨를 세게 흔들어 깨웠다. 뤼팽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두세 번 경련을 일으킨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황제가 비명을 질렀다. "죽지는 않았겠지, 바라건대!"

그는 램프를 들고 몸을 굽혀 살펴봤다.

"얼마나 창백한지, 왁스 인형 같군. 발데마르, 봐라. 맥박을 만져 봐. 아직 살아 있지, 그렇지?"

"네, 폐하." 백작이 잠시 후 대답했다. "맥박이 매우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의사를 부르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 서둘러."

의사는 뤼팽을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도 않고 평온해 보였다.

의사는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핀 뒤, 환자가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았다.

"의사 선생님, 혹시 독살을 의심하십니까?"

"아닙니다, 폐하. 독살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쟁반과 컵은 무엇입니까?"

"커피입니다." 백작이 말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스스로 커피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맞았습니다. 환자는 마약성 진정제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황제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자, 발데마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 나도 이제 지쳤어. 정말 그 남자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성 안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저 금화들, 그리고 마약 같은 약품까지…"

"성 안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이미 알았을 겁니다, 폐하. 이미 세 시간 동안 온갖 곳을 뒤졌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커피를 만든 건 아니야. 확신해. 아니면 네가…"

"오, 폐하!"

"그래, 찾아봐. 수색을 해. 네 밑에 이백 명의 병사가 있잖아. 부속 건물들도 그리 넓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 도적은 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 부엌 쪽으로… 뭐, 알잖아. 어서 가. 서둘러!"

밤새도록 거구의 발데마르는 주인의 명령이었기에 성실히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감시가 이토록 철저한 폐허 속에 낯선 자가 숨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결과는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수색은 헛수고였고, 최면제 같은 음료를 준비한 그 정체불명의 손길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뤼팽은 그날 밤을 의식 없이 침대에서 보냈다. 아침이 되자, 그의 곁을 떠나지 않던 의사는 황제의 사신에게 환자가 여전히 자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아홉 시가 되자, 뤼팽이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깨어나려는 듯한 안간힘이었다.

조금 뒤, 그가 더듬더듬 말했다.

"지금 몇 시요?"

"아홉 시 삼십오 분입니다."

그는 다시 힘을 모았다. 마비된 몸속에서 온 생명이 다시 깨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시계가 열 시를 알렸다.

그가 몸을 떨며 말했다.

"나를…… 나를 궁전으로 옮겨라."

의사의 허락을 받은 발데마르가 병사들을 불렀고, 황제에게 알렸다.

뤼팽을 들것에 눕히고 궁전으로 행진했다.

"일층으로." 그가 속삭였다.

사람들이 그를 위층으로 올렸다.

"복도 끝, 왼쪽 마지막 방."

그를 열두 번째 방인 마지막 방으로 옮겼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의자에 앉았다.

황제가 도착했다. 뤼팽은 움직이지도, 의식도 없는 표정으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그가 눈을 뜨는 듯했다. 벽과 천장, 둘러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마취제 같은 걸 맞았군요, 그렇죠?"

"그렇소." 의사가 말했다.

"그 남자는 잡혔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여러 번 깊은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그가 다시 잠들었음을 알아차렸다.

황제가 발데마르 쪽으로 다가갔다.

"네 자동차를 대기시키라고 일러라."

"네? 그러면, 폐하……?"

"뭐라고! 나는 그가 우리를 우롱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네."

"그럴지도…… 정말 그렇군요." 발데마르가 수긍했다.

"당연하지. 뤼팽은 몇몇 기묘한 우연들을 이용했을 뿐이야. 그는 아무것도 몰라. 금화 이야기나 마약 같은 건 모두 그가 지어낸 거지. 우리가 이 작은 장난에 더 말려들면 그는 우리 손아귀를 빠져나갈 거야. 발데마르, 차를 준비해."

백작은 명령을 내리고 돌아왔다. 뤼팽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였다. 방 안을 살피던 황제가 발데마르에게 물었다.

"여기가 미네르바의 방이 맞나?"

"네, 폐하."

"그렇다면 왜 이곳에 N자가 두 군데나 있는 거지?"

사실이었다. 벽난로 위와 오래된 벽시계 위, 두 곳에 N자가 있었다. 벽에 박혀 있던 그 시계는 이미 부서진 상태였고, 복잡한 기계 장치와 끈 끝에 매달린 무거운 추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 두 N자는…" 발데마르가 입을 열었다.

임금은 대답을 듣지 않았다.

뤼팽은 다시 몸을 움직였다. 눈을 뜨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일어나 방 안을 거닐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다시 쓰러졌다.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의 뇌, 신경, 의지가 끔찍한 무기력증과 맞섰다. 죽어가던 자가 죽음과 맞서는 싸움이었다. 생명과 공허가 부딪히는 투쟁이었다.

그 광경은 지극히 고통스러웠다.

"고통스럽군." 발데마르가 중얼거렸다.

"아니, 고통을 연기하는 거야." 임금이 말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정말 훌륭해. 무슨 배우란 말인가!"

뤼팽이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주사 한 대, 의사님. 카페인 주사를… 당장…"

"허락하십니까, 폐하?" 의사가 물었다.

"물론이지. 정오까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정오까지 몇 분 남았나?" 뤼팽이 다시 물었다.

"사십 분입니다."

"사십 분?… 그럼 도착할 수 있어. 분명 도착할 수 있어. 꼭 그래야 해."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 내 진짜 머리가, 생각할 줄 아는 그 멀쩡한 뇌가 있었더라면! 단 한순간이면 될 텐데. 어둠에 가린 지점은 이제 하나뿐인데… 하지만 안 돼. 생각이 자꾸 달아나. 붙잡을 수가 없어. 너무 끔찍해."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는 걸까?

그가 되뇌는 소리가 들렸다.

"813… 813…"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813… 8 하나, 1 하나, 3 하나… 그래, 분명해… 하지만 왜지?… 이걸로는 부족해…"

임금이 속삭였다.

"이자가 나를 압도하는군.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렵군. 벌써 11시 반이군… 45분이고…"

뤼팽은 주먹을 관자놀이에 댄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임금은 발데마르가 손에 쥔 시계를 응시하며 기다렸다.

"이제 십 분… 이제 오 분…"

"발데마르, 차는 왔나? 자네 부하들은 준비됐나?"

"네, 폐하."

"자네 시계는 알람이 울리도록 맞춰져 있나?"

"네, 폐하."

"그럼 정오의 마지막 타종이 울릴 때…"

"하지만…"

"정오의 마지막 타종이 울릴 때, 발데마르."

정말 이 장면에는 어딘가 비극적인 데가 있었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순간이 다가올 때 시간이 띠는 그런 위엄과 장엄함이 느껴졌다. 마치 운명 그 자체의 목소리가 막 흘러나오려는 듯했다.

황제는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아르센 뤼팽이라는 기이한 모험가가 떠올랐다. 황제는 그 놀라운 이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황제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황제는 이 모호한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두 분만 더… 한 분만 더.

이제부터는 초를 세기 시작했다.

뤼팽은 잠든 듯 보였다.

“자, 준비해라.” 황제가 백작에게 말했다.

백작이 뤼팽 쪽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스톱워치의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다.

한, 두, 세, 네, 다섯…

“발데마르, 오래된 시계의 추를 당겨.”

순간 모두 경악했다. 말한 이는 뤼팽이었다. 그는 매우 평온했다.

발데마르는 어깨를 으쓱였다. 반말을 쓴 것에 분노한 표정이었다.

“명령에 따르라, 발데마르.” 황제가 말했다.

“당연히 따라 하셔야죠, 친애하는 백작님.” 뤼팽이 다시금 냉소적인 어조를 되찾으며 재촉했다. “당신이 잘하는 일이잖아요. 시계 줄을 번갈아 감으면 돼요. 한 번, 두 번… 훌륭하군요. 옛날엔 이렇게 시계를 감았죠.”

실제로 시계 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규칙적인 똑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바늘을 맞추세요." 뤼팽이 말했다. "정오보다 조금 앞으로 맞추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판 앞으로 다가갔다. 거리는 불과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고정되어 있었고, 온몸으로 집중하고 있었다.

열두 시가 울렸다. 무겁고 깊은 열두 타종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는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는 듯 기다리고 있었다. 발데마르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뤼팽은 시계 판을 자세히 내려다보다가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완벽해… 됐어."

그는 다시 의자로 돌아가 명령했다.

"발데마르, 바늘을 정오 2분 전으로 돌려놔. 아, 아니야, 이 친구야, 거꾸로 말고…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돌려야 해. 그래,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쩌겠나?"

그리고 열한 시 반이 될 때까지 매 정시와 매 30분마다 종이 울렸다.

"들어봐, 발데마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진지했고, 조롱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자신이 감동한 듯, 불안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발데마르, 시계판을 봐. 첫 번째 시(1시)를 가리키는 작고 둥근 끝부분이 보이지?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잖아? 왼손 검지로 그 끝을 누르고 힘을 줘. 좋아.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세 번째 시(3시)를 가리키는 끝부분을 눌러. 좋아. 오른손으로는 여덟 번째 시(8시)를 가리키는 끝부분을 꾹 눌러. 좋아. 고마워. 가서 앉게, 친애하는 친구여."

잠시 후, 큰 바늘이 움직였다. 열두 번째 끝부분을 스치듯 지나쳤다. 그리고 정오의 종이 다시 울렸다.

뤼팽은 말없이 서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침묵 속에서 열두 번의 타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열두 번째 타종이 끝나는 순간, 무언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다. 시계가 멈췄다. 진자도 움직임을 멈췄다.

그 순간, 시계판 위를 장식하던 양머리 모양의 동상 장식이 툭 떨어지며 돌로 파낸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은색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정교하게 조각된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 황제가 말했다. "당신이 맞았군요."

"그런 줄 아시지 못하셨소, 폐하?" 뤼팽이 물었다.

그는 상자를 들어 황제에게 건넸다.

"폐하께서 직접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찾으라고 명하신 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황제는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놀란 듯했다.

상자는 비어 있었다.

상자는 비어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반전이었다. 거대하고, 예상치 못한 변곡점이었다.

뤼팽의 계산이 성공을 거둔 뒤, 시계의 비밀을 그토록 교묘하게 파헤친 뒤였다.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확정된 일이라 여겼던 황제는 당혹감에 휩싸인 듯했다.

그 맞은편에 뤼팽이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턱은 굳어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어쩌지 못하는 분노와 증오로 이를 갈았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은 그는, 곧장 상자를 집어 들었다. 상자를 뒤집고 다시 살펴보았다. 숨겨진 이중 바닥이 있을까 기대하는 듯했다.

마침내, 확신을 얻기 위해 그는 격분한 나머지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상자를 으스러뜨렸다.

그러자 마음이 좀 놓였다. 그는 한결 편하게 숨을 쉬었다.

황제가 그에게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소?"

"항상 같은 자입니다, 폐하. 저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 바로 케셀바흐 씨를 죽인 범인입니다."

"언제?"

"오늘 밤입니다. 아, 폐하, 어찌하여 감옥에서 나온 저를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으셨습니까! 자유로웠다면 저는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이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자보다 먼저 도착했을 테고요! 그자보다 먼저 이실다에게 금을 쥐여 주었을 것이며, 그자보다 먼저 늙은 프랑스인 하인 말라이히의 일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럼 그 일기에 담긴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습니다, 폐하. 그자는 그 일기를 읽을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구를 통해선지는 모르나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전해 듣고서, 저를 제거하려고 오늘 밤 저를 잠재운 겁니다."

"하지만 궁전은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폐하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폐하. 그런 것이 그자 같은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발데마르가 부속 건물 수색에 병력을 집중하느라 정작 궁전의 경비 초소를 비워 두었으리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 소리는? 밤중에 울린 그 열두 번의 타종은?"

"장난입니다, 폐하! 시계가 울리지 못하도록 막아 두는 장난이죠!"

"모든 게 너무 믿기 어렵소."

"저에게는 오히려 너무도 분명합니다, 폐하. 지금 당장 폐하의 병사들 주머니를 모두 뒤지거나, 앞으로 일 년 동안 그들이 쓸 돈을 전부 알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지폐 몇 장을 — 물론 프랑스 지폐죠 — 지닌 자가 두세 명쯤은 분명 나올 겁니다."

"오!" 발데마르가 항의했다.

"당연하죠, 친애하는 백작님. 이건 값의 문제일 뿐이고, 그자는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그자가 마음만 먹으면, 장담컨대 백작님조차도…"

황제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복도에 서 있던 장교 중 한 명에게 손짓했다.

"내 차를 대기시켜라… 채비를 하고… 출발한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잠시 뤼팽을 바라보더니, 백작에게 다가가 말했다.

"발데마르, 너도 출발해라… 파리로 곧장, 한 번에 내달려라…"

뤼팽은 귀를 쫑긋 세웠다. 발데마르가 이렇게 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악마 같은 자를 상대하려면 경비병 열두 명쯤 더 붙이는 편이 낫겠습니다!"

"붙여라. 그리고 서둘러라. 오늘 밤 안에 도착해야 한다."

뤼팽은 발을 세차게 굴렀다.

"아니요, 전하!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요."

"무슨 말인가?"

"그리고 편지들, 전하? 훔쳐간 편지들은요?"

"글쎄…"

"그럼요!" 뤼팽이 팔짱을 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폐하, 싸움을 포기하시렵니까? 패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전하, 저는 아닙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황제는 그 뜨거운 열정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내 경찰이 작전에 나설 뿐이다."

뤼팽은 폭소했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너무 웃겨서요. 폐하의 경찰이라니요! 하지만 그 경찰은 세상 모든 경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정말로 아무것도요. 폐하, 상테 형무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감옥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에 맞서려면 제 자유가 필요하니, 그 자유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황제는 성이 나기 시작했다.

"그자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지 않소."

"알아내겠습니다, 폐하. 그리고 그것은 저만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요. 저는 그의 유일한 적입니다. 그가 공격하는 것도 오직 저뿐이죠. 며칠 전 권총 총알로 맞히려 했던 대상도 저였고, 오늘 밤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를 얻으려고 잠재우기만 하면 됐던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우리 둘 사이의 일입니다. 세상은 상관없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도, 저를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둘뿐이죠. 지금까지는 그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그를 이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일입니다."

"왜요?"

"제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죽인다면요?"

"그는 저를 죽이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의 발톱을 뽑아내고 무력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폐하께서는 편지를 돌려받으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막을 인간의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격렬한 확신과,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들릴 만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황제는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일종의 감탄도 섞여 있었고, 뤼팽이 그토록 권위 있게 요구하던 그 신뢰도 크게 담겨 있었다. 근본적으로 그가 망설인 것은 이 남자를 쓰는 것, 이를테면 그를 동맹자로 삼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고심하며, 그는 회랑에서 창가로 오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이 오늘 밤 도난당했다고 무엇으로 장담하오?"

"도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폐하."

"무슨 말씀이오?"

"박공 안쪽, 숨은 공간을 가리고 있던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흰 분필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8월 24일 자정이라고요."

"그렇군…… 그렇군." 황제가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찌 그걸 못 봤을까?"

그러고는 호기심을 내비치며 덧붙였다.

"벽에 그려진 'N' 두 글자도 마찬가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오. 여기는 미네르바의 방인데."

"이곳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잠을 잔 방입니다." 뤼팽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발데마르에게 물어보십시오, 폐하. 제게는 그 노령 하인의 일기를 읽는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숌즈와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대공 헤르만이 임종 시에 남긴 불완전한 단어 '아퐁'은 '아폴론'의 축약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축약이었습니다."

"맞다… 그대가 옳다." 황제가 말했다. "두 단어에 같은 글자들이 같은 순서로 들어있지. 대공이 쓰고 싶었던 건 분명 나폴레옹이야. 그런데 이 숫자 813은 무슨 뜻이지?"

"아, 바로 그 점이 가장 풀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늘 8, 1, 3 세 숫자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얻은 12라는 수가 곧바로 이 방, 즉 회랑의 열두 번째 방에 들어맞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만, 쇠약해진 제 머리로는 그것을 끝내 떠올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이 나폴레옹 방에 걸려 있는 시계를 본 순간,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숫자 12는 분명 열두 번째 시각, 즉 정오나 자정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이야말로 더없이 장엄하고 사람들이 더 즐겨 택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왜 하필 8, 1, 3이었을까요? 같은 합을 이룰 다른 숫자들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시험 삼아 시계를 한 번 울려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울려 보다가, 첫 번째와 세 번째, 여덟 번째 시각을 가리키는 끝부분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숫자, 1과 3과 8을 얻었고, 이것들을 운명적인 순서로 놓으니 813이라는 수가 되었습니다. 발데마르가 그 세 끝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장치가 풀렸지요. 그 결과는 폐하께서도 아시는 대로입니다.

폐하, 이것이 바로 그 신비로운 단어와, 대공이 죽어 가는 손으로 적은 세 숫자 813의 해답입니다. 대공은 이 숫자들 덕분에 아들이 언젠가 펠덴츠의 비밀을 다시 찾아내고, 그곳에 숨겨 둔 그 유명한 편지들을 손에 넣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황제는 그 남자에게서 뛰어난 기지와 통찰력, 섬세함, 그리고 지적인 의지를 발견하며 점점 더 놀라워했고, 열렬한 관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발데마르?" 그가 불렀다.

"폐하?"

그가 막 말을 꺼내려던 순간, 회랑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발데마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미친 여자입니다, 폐하. 들여보내지 않으려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오게 하시오." 뤼팽이 재빨리 외쳤다. "반드시 오게 해야 합니다, 폐하."

황제가 손짓하자 발데마르가 이실다를 데리러 갔다.

처녀가 들어서는 순간, 모두 경악했다. 그토록 창백하던 그녀의 얼굴은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다. 경련하는 표정이 극심한 고통을 드러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헐떡이고 있었다.

"오!" 뤼팽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무슨 일이오?" 황제가 물었다.

"어의를 부르십시오, 폐하! 한시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말해 봐, 이실다… 무언가 봤니? 할 말이 있어?"

처녀는 걸음을 멈췄다. 눈빛은 한결 또렷해져, 고통으로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무슨 소리를 냈지만, 한마디 말도 이루지 못했다.

"들어 봐." 뤼팽이 말했다. "예, 아니오로만 답하면 돼… 고갯짓이면 충분해… 그를 봤니?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가 누구인지 알아?… 들어 봐,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화가 치미는 몸짓을 억눌렀다. 그러다 문득 전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제정신이던 시절의 시각적 기억은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흰 벽에 대문자 'L'과 'M'을 적었다.

그녀는 그 글자들을 향해 팔을 뻗으며, 마치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뤼팽이 물었다. "그 다음은!… 이번엔 네가 써 봐."

하지만 그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몸을 던지고는 울부짖었다.

그러다 갑자기 정적과 정지가 찾아왔다. 한 번 더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나?" 황제가 물었다.

"독살당했습니다, 폐하."

"아, 불쌍한 것… 누가 그랬나?"

"그자입니다, 폐하. 아마 그녀가 그자를 알고 있었겠지요. 그녀가 폭로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의사가 도착했다. 황제는 처녀를 가리켰다. 그러고는 발데마르를 향해 말했다.

"네 부하들을 모두 풀어라… 집을 샅샅이 뒤져라… 국경의 역들에 전보를 쳐라…"

그는 뤼팽에게 다가갔다.

"편지들을 되찾으려면 얼마나 걸리겠나?"

"한 달입니다, 폐하."

"좋소. 발데마르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 것이오. 그는 내 명령과 전권을 받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오."

"제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폐하."

"당신은 자유의 몸이오."

뤼팽은 황제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사리며 중얼거렸다.

"우선은 자유다… 그리고, 폐하, 내가 당신께 편지들을 돌려드리고 나면, 가벼운 악수나 한 번. 그러면 우리는 비긴 셈이 되겠지."

제13장

"부인께서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로레스 케셀바흐는 하인이 내미는 명함을 받아 들고 읽었다. '앙드레 보니.'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사코 청하십니다, 부인. 부인께서 자기 방문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요."

"아…… 어쩌면… 그래요. 이리로 모셔 오세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가차 없이 집요하게 그녀를 덮쳤던 사건들이 있은 뒤, 돌로레스는 브리스톨 호텔에 잠시 머물렀다가 파시 깊숙한 곳, 비뉴 거리 끝자락의 조용한 집으로 막 자리를 옮긴 참이었다.

넓은 정원이 뒤쪽으로 펼쳐져 있었고, 울창한 다른 정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더 극심한 발작이 며칠씩 그녀를 방 안에 가두지 않을 때면 — 그럴 때는 덧창을 닫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지냈다 — 그녀는 사람을 시켜 나무 아래로 실려 나갔고, 거기 우울하게 누워, 모진 운명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다.

길의 모래가 다시 사각거렸다. 하인을 따라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자태는 우아했지만 옷차림은 매우 소박해, 다소 구식인 어떤 화가들의 차림새 같았다. 접어 내린 칼라에, 남색 바탕에 흰 물방울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다.

하인이 물러났다.

"앙드레 보니 씨, 맞으신가요?" 돌로레스가 물었다.

"네, 부인."

"실례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마담. 제가 제네비브의 할머니이신 데르느몽 부인과 친구 사이라는 걸 아시고, 가르슈에 계신 그분께 저와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쓰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돌로레스가 깊은 감동에 휩싸인 듯 몸을 일으켰다.

"아! 당신은…"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정말요? 당신이에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폴 세르닌 공작을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이마도, 눈도… 게다가 이런 모습도 아니었고…"

"신문에 실린 상태 감옥 수감자 모습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바로 접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찾으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네비브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그 애를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당신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이해하신 모양이더군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전 정말 기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삭였다.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그가 외쳤다.

"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무엇이든 두렵습니다. 지금 있는 일도, 내일모레 닥칠 일도. 삶 자체가 무서워요. 전 너무 많이 고통받았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그녀를 깊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늘 이 여인에게로 그를 이끌어 온 모호한 감정이, 그녀가 보호를 청하는 오늘에 이르러 한층 또렷한 빛을 띠었다. 그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녀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었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지금은 나 혼자예요. 아무렇게나 뽑은 하인들만 있고, 정말 무서워요. 제 주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져요."

"무슨 목적으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들이 맴돌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네. 며칠 전 거리에서 두 남자가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멈춰 서 있더군요."

"그들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한 명은 더 선명하게 봤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에, 턱수염을 완전히 깎았더군요. 그리고 매우 짧은 검은 양복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카페 종업원 같은가요?"

"네, 급사장입니다. 제 하인 한 명에게 뒤를 밟게 했죠. 그 남자는 퐁프 거리로 들어가 거리 왼쪽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외관이 몹시 초라한 집인데, 1층에는 와인 가게가 있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밤에는…"

"다른 밤에?"

"제 방 창문으로 정원에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녀에게 제안했다.

"아래층 방 하나에 제 부하 두 명을 재워도 괜찮을까요?"

"부하 두 명을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샤롤레 영감과 그 아들인데… 겉모습만 봐서는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라면 안심하실 겁니다. 저로 말하자면…"

그는 말을 멈췄다. 그녀가 다시 와 달라고 청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녀가 잠자코 있자, 그는 말했다.

"저로 말하자면, 여기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낫겠죠… 당신을 위해서요. 제 부하들이 상황을 알려 드릴 겁니다."

그는 더 많은 말을 건네고, 머물러 그녀 곁에 앉아 위로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눌 말은 이미 다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한 마디라도 더 보태면 그것이 모욕이 될 것만 같았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정원을 가로질렀다. 어서 밖으로 나가 감정을 추스르고 싶었다. 하인이 현관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거리로 통하는 대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울렸다. 젊은 여자였다.

그가 흠칫 놀랐다.

"제네비브!"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더없이 젊어 보이는 그 눈빛에 당황하긴 했지만, 그녀는 곧 그를 알아봤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에 기대야 했다.

그는 모자를 벗어 든 채,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까? 이제 그는 세르닌 공작이 아니었다. 아르센 뤼팽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아르센 뤼팽이며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인에게 우산을 건네며 말을 더듬었다.

"우산을 펴서 한쪽에 놓아 주세요…"

그러고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가엾은 친구여." 뤼팽은 자리를 뜨며 중얼거렸다. "너처럼 신경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 이런 충격은 너무하지. 심장 조심해, 안 그러면… 이런, 또 눈가가 젖었네? 좋지 않은 징조야, 뤼팽 선생, 자네 늙었어."

그는 뮈에트 대로를 건너 비뉴 거리 쪽으로 향하던 젊은이의 어깨를 툭 쳤다. 젊은이는 걸음을 멈추더니, 몇 초 뒤 말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틀렸군, 친애하는 르뒤크 씨. 아니면 기억력이 많이 약해진 모양이지. 베르사유, 삼황제 호텔의 그 작은 방을 떠올려 보게."

"당신!"

젊은이는 기겁하며 뒤로 펄쩍 물러났다.

"맙소사, 그래, 나야. 세르닌 공작, 아니 차라리 뤼팽이라고 해야겠지. 네가 내 진짜 이름을 아니까 말이야! 그래, 뤼팽이 죽기라도 한 줄 알았나? 아, 알겠다, 감옥… 너는 그러길 바랐겠지… 순진하긴!"

그는 부드럽게 젊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 젊은이, 진정하자고. 아직 우리에겐 평화롭게 시를 지을 좋은 날들이 며칠 남았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시를 지어라, 시인아!"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젊은이의 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는 얼굴을 맞대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 시인아. 네가 몸과 영혼까지 내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네 역할을 준비해 둬. 가혹하면서도 장엄한 역할일 테니. 맹세코, 넌 정말 그 역할에 어울리는 사내로 보이는군!"

그는 폭소를 터뜨리더니 빙글 돌아섰고, 젊은 르뒤크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남겨졌다.

조금 더 가니, 퐁프 거리 모퉁이에 케셀바흐 부인이 말해 준 와인 가게가 있었다. 뤼팽은 그곳에 들어가 주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고는 자동차를 잡아타고 그랑 호텔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앙드레 보니라는 이름으로 묵고 있었다.

두드빌 형제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즐거움에는 이미 무뎌져 있었지만, 그래도 뤼팽은 친구들이 쏟아 내는 존경과 헌신의 표현을 충분히 음미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보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라면 기적 같은 일도 익숙합니다만… 그래도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유의 몸이 되신 겁니까? 게다가 이렇게 파리 한복판에, 변장도 거의 안 하고 나타나시다니요."

"시가 한 대 어때?" 뤼팽이 권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 안 거야, 두드빌. 이 시가들은 훌륭한 물건이지. 내 친구라고 자처하는 어느 안목 높은 애호가한테서 얻은 거거든."

"아,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카이저야. 자, 그런 멍청한 표정 짓지 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알려 줘. 난 신문도 못 읽었으니까. 내 탈옥이 세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지?"

"엄청났습니다, 보스!"

"경찰 쪽 발표는?"

"보스가 알텐하임 살해 사건 현장 검증 도중에 가르슈에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자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혀냈죠."

"그래서?"

"그래서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찾아 헤매고, 웃고, 아주 재미있어들 하죠."

"베버는?"

"베버는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그것 말고, 치안국에서 새로 나온 건 없나? 살인범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못 찾았어? 알텐하임의 정체를 밝힐 만한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야?"

"멍청한 놈들 같으니! 우리가 해마다 수백만 프랑을 들여 저런 놈들을 먹여 살린다는 게 기가 막히는군. 계속 이런 식이면 난 세금 못 내겠어. 의자 하나 끌어다 앉아서 펜을 들어. 오늘 밤 이 편지를 그랑 주르날로 가져다줘. 세상이 내 소식을 못 들은 지 오래됐으니 조바심에 숨이 턱까지 차 있을 거야. 이렇게 써."

"발행인 각하,

"정당한 기대가 어긋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탈출했는지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탈출한 이후에 저는 그 유명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제가 평소에 기록해 둔 노트를 바탕으로, 제 전기를 쓰는 사람이 조금은 독특한 이야기로 출판할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흥미롭게 읽을 프랑스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예요."

"당장은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지. 내가 맡았던 직무가 어떤 자의 손에 떨어졌는지를 보면 분통이 터지고, 케셀바흐-알텐하임 사건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걸 확인하니 진력이 난다. 그래서 나는 베버를 해임하고, 내가 '레노르망'이라는 이름으로 그토록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모두의 만족 속에 지켰던 그 명예로운 자리를 다시 차지하겠다."

저녁 여덟 시, 아르센 뤼팽과 두드빌은 유행하는 레스토랑 '카이야르'에 모습을 드러냈다. 뤼팽은 연미복을 몸에 꽉 끼게 차려입었으나, 예술가답게 바지는 조금 헐렁하고 넥타이는 약간 느슨했다. 두드빌은 프록코트 차림으로, 법관처럼 단정하고 진지한 태도였다.

그들은 식당 안쪽, 두 기둥이 큰 홀과 갈라놓은 우묵한 자리를 골랐다.

정중하지만 거만한 급사장이 수첩을 손에 든 채 주문을 기다렸다.

뤼팽은 까다로운 미식가다운 세심함과 정성을 들여 주문했다.

"하긴," 그가 말했다. "감옥 밥도 먹을 만은 했지. 그래도 정성껏 차린 한 끼는 역시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는 말없이 맛있게 먹었다. 가끔 짧은 한마디를 던져 자기 생각이 이어지고 있음을 내비칠 뿐이었다.

"물론 잘 해결될 거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정말 무서운 상대잖아. 내가 가장 놀라는 건, 여섯 달이나 싸웠는데도 도대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주범은 이미 죽었고, 우리도 이제 승부의 종착점에 다다랐는데도 그의 속셈은 여전히 안개 속 같아. 이 비열한 자는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

내 계획은 명확해. 대공국을 손에 넣고, 내가 내세운 대공을 왕좌에 앉힌 뒤, 제네비브를 그에게 아내로 주면 돼. 그리고 내가 통치하면 되는 거지. 이만큼 명확하고, 정직하며, 정당한 계획이 또 어디 있겠나. 하지만 저 추악한 자, 저 어둠 속의 유령 같은 존재는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

그가 소리쳐 불렀다.

"이봐, 웨이터!"

급사장이 다가왔다.

"무엇을 드릴까요?"

"시가 좀 주시오."

급사장이 다시 와서 여러 상자를 열어 보였다.

"무엇을 추천하시겠소?" 뤼팽이 물었다.

"최상급 업맨이오."

뤼팽은 도드빌에게 한 개를 건네고, 자신도 하나 집어 끝을 잘랐다. 급사장이 성냥불을 켜서 내밀었다.

순간, 뤼팽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말하지 마라. 너를 알아. 진짜 이름은 도미니크 레카스다."

뚱뚱하고 힘센 그 남자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삼켰다. 뤼팽이 그의 손목을 꺾었기 때문이다.

"이름은 도미니크. 폼프 거리 4층에 살고 있다. 거기서 작은 재산을 챙겨 은퇴했지. 하지만 잘 들어라, 바보야. 안 그러면 뼈를 부러뜨리겠다. 그 재산은 알텐하임 남작 밑에서 일한 대가로 번 거다. 거기서 너는 집사로 일했지."

상대는 얼어붙었다.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주변의 작은 방은 비어 있었다. 옆 식당에서는 세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두 쌍의 남녀가 리큐어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봐, 우리 여기선 안전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누구십니까?"

"날 못 알아보겠어? 그래도 두퐁 저택에서의 그 유명한 점심을 떠올려 봐…… 바로 너, 이 늙은 하인 놈이 나한테 케이크 접시를 내왔잖아…… 그것도 그런 케이크를!"

"공자…… 공자라니……" 상대가 더듬거렸다.

"그래, 아르센 공자, 바로 뤼팽 공자 본인이지…… 하하! 한숨 돌리는군. 뤼팽한테는 겁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천만에, 친구. 너야말로 모든 걸 겁내야 해."

그가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보여 주었다.

"봐, 내가 이제 경찰이야. 어쩔 수 없지. 우리 같은 도둑 대장, 범죄의 황제들은 늘 이런 식으로 끝이 나거든."

"그래서요?" 급사장이 여전히 불안한 기색으로 되물었다.

"그럼 저기서 너를 부르는 손님한테 가서 응대해. 일 마치고 다시 와. 절대 장난칠 생각 말고, 빠져나갈 궁리도 하지 마. 밖에 내 형사 열 명이 너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가."

급사장은 순순히 따랐다. 오 분 뒤 그는 다시 돌아와, 식당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식탁 앞에 서서, 마치 손님과 시가 품질을 논하는 척하며 말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지?"

뤼팽은 식탁 위에 백 프랑 지폐 몇 장을 늘어놓았다.

"내 질문에 정확히 답할 때마다 한 장씩 주지."

"맞습니다."

"내가 먼저 묻지. 알텐하임 남작과 함께한 인원은 몇 명이었나?"

"나를 빼고 일곱 명."

"그 이상은 아니었나?"

"아니요. 단 한 번, 가르슈의 글리신 저택 지하 통로를 파는 데 이탈리아인 노동자들을 잠시 부른 적이 있을 뿐입니다."

"지하 통로가 두 개나 있었나?"

"네. 하나는 오르탕스 별장으로 이어졌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 통로에서 갈라져 케셀바흐 씨의 별장 아래로 뚫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려던 거였나?"

"케셀바흐 씨를 납치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수잔과 게르트루드, 그 두 하녀도 공범이었나?"

"그 둘은 지금 어디 있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럼 네 일곱 동료, 알텐하임 일당은 어떻게 됐나?"

"저는 그들과 갈라섰습니다. 그들은 아직 활동 중입니다."

"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도미니크는 망설였다. 뤼팽은 천 프랑 지폐 두 장을 펼치며 말했다.

"조심스러워하는 게 가상하군, 도미니크. 이제 그 양심일랑 깔고 앉아서 대답이나 하면 돼."

도미니크가 대답했다.

"뇌이의 라 레볼트 대로 3번지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골동품상'이라고 불리죠."

"좋아. 이제 알텐하임의 진짜 이름을 말해 봐. 알고 있지?"

"네. 리베이라."

"도미니크, 이거 일이 험하게 돌아가겠는데. 리베이라는 가명일 뿐이야. 진짜 이름을 묻는 거다."

"파버리."

"그것도 가명이군."

급사장은 망설였다. 뤼팽이 백 프랑 지폐 세 장을 펼쳤다.

"에라, 모르겠다!" 남자가 외쳤다. "어차피 그는 죽었잖아. 완전히 죽었다고."

"이름이?" 뤼팽이 물었다.

"이름이요? 슈발리에 드 말라이히."

뤼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방금 뭐라고 했어? 기사라고?… 다시 말해 봐… 기사?"

"라울 드 말라이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뤼팽은 한곳을 응시한 채, 독살로 죽은 벨덴츠의 광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실다도 같은 성을 쓰고 있었다. 말라이히. 그리고 그것은 18세기에 벨덴츠 궁정으로 찾아왔던 한 프랑스 소귀족이 지녔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말라이히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번은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된 거죠. 아! 그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저를 목 졸라 죽였을 겁니다."

뤼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자가 너희 모두에게 명령을 내린 거냐?"

"하지만 그에게도 공범이, 동업자가 있었지?"

"아! 그만…… 그만하세요……"

급사장의 얼굴에 갑자기 극도의 불안이 떠올랐다. 뤼팽은 그 얼굴에서, 자신이 그 살인자를 떠올릴 때 느끼던 것과 똑같은 공포와 혐오를 읽어 냈다.

"누구냐? 네가 봤어?"

"아, 그자 얘긴 맙시다…… 그 사람 얘긴 해선 안 됩니다."

"누구냐고, 내가 묻잖아."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우두머리죠…… 아무도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너는 봤잖아. 대답해. 본 거지?"

"그림자 속에서, 가끔…… 밤에요. 대낮엔 한 번도 없습니다. 명령은 작은 쪽지나 전화로 옵니다."

"그자 이름은?"

"모릅니다. 그 사람 얘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검은 옷을 입지, 안 그래?"

"네, 검은 옷입니다. 키가 작고 말랐어요…… 금발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그렇지?"

"네, 죽입니다…… 남이 빵 한 조각 훔치듯 사람을 죽여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애원했다.

"그만합시다…… 그 얘긴 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불길합니다."

뤼팽은 입을 다물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사내의 불안에 압도당했던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급사장에게 말했다.

"자, 여기 네 돈이다. 하지만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가 만난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게 현명할 거다."

그는 도데빌과 함께 식당을 나섰다. 생드니 문까지 걷는 내내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방금 들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동행자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잘 들어라, 도데빌. 너는 북역으로 가서 룩셈부르크행 급행열차에 올라타라. 시간은 넉넉히 댈 수 있을 거다. 그 열차로 되퐁벨덴츠 대공국의 수도 벨덴츠로 가라."

"시청에 가면 슈발리에 드 말라이히의 출생 증명서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거야. 모레 토요일이면 돌아와 있어야 한다."

"수사국에 미리 알려야 합니까?"

"내가 알아볼게. 너 아프다고 전화할 테니까. 아, 한 마디 더. 정오에 '버팔로'라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 레볼트 대로에 있는 곳이야. 작업복으로 변장해."

다음 날, 뤼팽은 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뇌이로 향했다. 그리고 레볼트 대로 3번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대문을 들어서면 첫 마당이 나오고, 그 너머는 마치 작은 마을처럼 좁은 골목과 작업장이 이어졌다. 장인들과 여자들, 아이들이 북적이는 곳이었다.

몇 분 만에 그는 관리인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갖가지 잡담을 나눴다. 그 한 시간 동안, 그는 세 명의 남자를 차례로 목격했다. 그들의 모습은 뤼팽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건 명백한 먹잇감이군. 냄새가 진하다. 냄새만 따라가면 된다.'

'정직한 신사인 척하지만, 정작 눈빛은 맹수다. 적이 어디에나 숨어 있고, 작은 덤불 하나, 풀 한 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눈빛이지.'

그는 토요일 오후와 토요일 아침 내내 조사를 이어 갔다. 그리고 알텐하임의 공범 일곱 명이 모두 이 건물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네 명은 공공연히 '중고 의류상' 일을 했다. 나머지 두 명은 신문 판매상이었고, 일곱 번째 자는 스스로를 '골동품상'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곁을 지나치면서도 아는 사이인 듯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뤼팽은 그들이 마지막 마당 깊숙이 자리한 일종의 헛간 같은 곳에 모여드는 것을 확인했다. 그곳은 골동품상이 낡은 고철이며 부서진 난로, 녹슨 난로 연통 같은 잡동사니를 쌓아 두는 곳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훔쳐 온 물건들 대부분도 그곳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좋아,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군. 독일 사촌에게 한 달을 달라고 했지만, 보름이면 충분할 것 같아. 게다가 기쁜 건, 이 작전을 나를 센강에 빠뜨렸던 놈들부터 처리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가엾은 구렐, 드디어 네 원수를 갚아 주마. 이제야 겨우,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정오가 되자 그는 버팔로 식당에 들어섰다. 천장이 낮은 작은 방 안에는 벽돌공들과 마부들이 모여 그날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일이 끝났습니다, 두목."

"아, 두드빌이로구나. 다행이다. 어서 알고 싶군. 정보는 가져왔나? 출생 증명서는? 어서 말해 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알텐하임의 부모는 외국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건 넘어가자."

"그들은 아이를 셋 남겼습니다."

"셋?"

"네. 맏이가 지금 서른 살쯤 됐을 겁니다. 이름은 라울 드 말라이크."

"바로 그 남자다. 알텐하임이 맞지. 그 다음은?"

"막내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실다. 등록부에는 '사망'이라고 아직 마르지도 않은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실다…… 이실다." 뤼팽이 되뇌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야. 이실다는 알텐하임의 여동생이었어. 난 처음부터 그녀의 얼굴에서 낯익은 표정을 알아봤지. 바로 그 점이 두 사람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였어. 하지만 다른 한 명, 셋째 아이, 아니 둘째, 그 작은아들은 어땠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물여섯 살쯤 됐을 겁니다."

"이름은?"

"루이 드 말라이크입니다."

뤼팽은 흠칫 놀랐다.

"맞아! 루이 드 말라이크…… L. M. 두 글자…… 끔찍하고도 무서운 그 서명…… 살인자의 이름은 루이 드 말라이크였어. 그는 알텐하임의 동생이자 이실다의 오빠였지. 그리고 두 사람이 폭로할까 두려워 둘 다 죽인 거야."

뤼팽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어둡고 무겁게, 아마도 그 수수께끼 같은 존재에 대한 집념에 사로잡힌 채.

두드빌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여동생 이실다를 뭘 그리 두려워했단 말입니까? 미친 여자라고 들었는데요."

"미쳤지. 하지만 어린 시절의 몇 가지 일은 떠올릴 수 있었어. 함께 자란 오빠를 알아봤겠지.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거야."

그가 덧붙였다.

"미쳤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죄다 미쳤어. 어머니도 미쳤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지. 알텐하임은 그야말로 짐승 같은 놈이었고, 이실다는 가엾은 정신병자였어. 그리고 나머지 한 명, 그 살인자는? 괴물이자 멍청한 미치광이지."

"멍청하다고요, 두목?"

"그래, 멍청해! 천재적인 번뜩임도 있고 악마 같은 술수와 직감도 지녔지만, 결국은 망가진 자야. 저 말라이크 집안 전체처럼 미친 자라고. 살인을 저지르는 건 미친 자들뿐이야. 특히 저런 미친 자들. 결국……"

그가 말을 멈췄다. 얼굴이 어찌나 깊게 일그러졌는지 두드빌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입니까, 두목?"

"저기 봐."

한 남자가 막 들어왔다. 그는 검고 부드러운 펠트 모자를 걸이에 걸고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종업원이 내민 메뉴를 살펴본 뒤 주문을 하고,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두 팔을 식탁보 위에 포개고 꼼짝도 않고 기다렸다.

뤼팽은 그를 정면에서 똑똑히 보았다.

마르고 메마른 얼굴은 털 하나 없이 매끈했고, 움푹 팬 눈구멍 속에는 쇳빛을 띤 잿빛 눈이 보였다. 피부는 양피지처럼 뼈에서 뼈로 팽팽히 당겨져, 어찌나 빳빳하고 두꺼운지 털 한 올 뚫고 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얼굴은 침울하기만 했다. 어떤 표정도 그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지 못했다. 상아빛 이마 아래에서는 어떤 생각도 살아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속눈썹 하나 없는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아, 그 시선은 조각상의 눈빛처럼 붙박여 있었다.

뤼팽은 식당 종업원 한 명에게 손짓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기 점심 드시는 분 말씀이세요?"

"손님이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십니다."

"이름은 아세요?"

"그럼요! 레옹 마시에라고 합니다."

"아!" 뤼팽이 잔뜩 동요한 채 더듬더듬 말했다. "L. M..... 두 글자…… 혹시 루이 드 말라이크 아닐까?"

그는 굶주린 듯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 남자의 외모는 그가 예상했던 것, 그자와 그 추악한 삶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그대로 들어맞았다.

하지만 그를 당황하게 한 것이 있었다.

생기와 불꽃이 있으리라 여겼던 자리에 죽은 듯한 시선만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고통과 혼란, 큰 저주를 받은 자들이 짓는 격렬한 일그러짐을 예상했던 자리에 오직 무표정만 있었다.

그는 종업원에게 물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글쎄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참 별난 양반이죠. 늘 혼자고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분 목소리조차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종업원은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먹고 싶은 요리를 손가락으로 짚을 뿐이죠. 이십 분이면 끝납니다. 먹고, 돈 내고, 바로 가요."

"그리고 또 오나?"

"나흘이나 닷새마다요. 일정하진 않습니다."

"저자야, 저자일 수밖에 없어." 뤼팽은 되뇌었다. "말라이크야. 저기 있잖아…… 나한테서 네 걸음 떨어진 곳에서 숨 쉬고 있어. 저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손이야. 저게 바로 피 냄새에 취하는 머리고…… 저게 바로 괴물, 흡혈귀야……."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뤼팽은 그 존재를 어찌나 환상적인 것으로 여겨 왔던지, 그가 이렇게 살아서 걷고 오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자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살아 있는 살을 뜯어 먹고 희생자의 피를 빨아 마시는 더러운 짐승으로 상상해 왔던 그자가, 남들처럼 빵과 고기를 먹고 아무나처럼 맥주를 마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가자, 두드빌."

"왜 그러세요, 두목?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바람 좀 쐬어야겠어. 나가자."

밖으로 나온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좀 낫군. 숨이 막혔었어."

그러고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을 이었다.

"두드빌, 결말이 다가오고 있어. 몇 주 동안 나는 보이지 않는 적과 더듬더듬 싸워 왔어. 그런데 느닷없이 우연이 그자를 내 앞에 데려다 놓았지! 이제 승부는 대등해졌어."

"두목, 우리 따로 다니는 게 어떨까요? 그자가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을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덜 눈에 띌 테니까요."

"그자가 우리를 봤을까?" 뤼팽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던데.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자야!"

실제로 십 분쯤 뒤 레옹 마시에가 나타나 멀어져 갔다. 미행이 붙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 담배에 불을 붙여 한 손을 등 뒤로 돌린 채, 햇볕과 시원한 공기를 즐기는 한가로운 산책객처럼 걸었다. 누가 자기 산책을 지켜볼 수 있으리라곤 짐작조차 못 한 채.

그는 입시 관문을 지나 성곽을 따라가다 샹페레 문으로 다시 나왔고, 레볼트 가도를 따라 왔던 길을 되짚어 왔다.

그가 3번지 건물들 안으로 들어갈까? 뤼팽은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되면 알텐하임 일당과 한패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 남자는 방향을 틀어 델레즈망 거리로 들어섰고, 버팔로 벨로드롬 너머까지 그 길을 따라갔다.

벨로드롬 맞은편 왼쪽, 델레즈망 거리를 따라 늘어선 대여 테니스장과 가건물들 사이에 작은 별장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다. 비좁은 정원이 그 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레옹 마시에는 걸음을 멈추고 열쇠 꾸러미를 꺼내, 먼저 정원의 철문을 열고 이어 별장 문을 열더니 안으로 사라졌다.

뤼팽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곧바로, 레볼트 가도의 건물들이 뒤편으로 정원의 담장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담장이 매우 높고, 정원 안쪽에 지어진 헛간 하나가 그 담장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주변 지형으로 미루어, 그는 이 헛간이 3번지의 맨 안쪽 마당에 서서 고물상의 광으로 쓰이는 그 헛간과 등을 맞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해서 레옹 마시에의 집은 알텐하임 일당의 일곱 공범이 모이던 방과 바로 붙어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레옹 마시에야말로 이 일당

을 지휘하는 최고 우두머리가 분명했고, 그가 부하들과 연락한 것은 분명 두 헛간 사이에 난 통로를 통해서였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뤼팽이 말했다. "레옹 마시에와 루이 드 말라이크는 한 사람이야. 상황이 간단해지는군."

"아주 간단해졌죠." 두드빌이 맞장구쳤다. "며칠 안에 다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꽂힌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이세요, 두목? 별 생각을 다 하시네요!"

"허! 누가 알겠어. 저 괴물이 나한테 불운을 가져오리란 예감이 늘 들었거든."

이제부터 할 일은, 이를테면 말라이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보는 것이었다.

두드빌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삶은 더없이 기이했다. 사람들이 '별장 사내'라 부르던 그자는 겨우 몇 달 전부터 거기 살고 있었다. 그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들이지 않았다. 하인을 둔 적도 없었다. 창문은 밤에도 활짝 열려 있었지만, 촛불이나 램프의 불빛이 단 한 번도 비친 적 없이 늘 캄캄했다.

게다가 레옹 마시에는 대개 해 질 무렵에 나가, 해 뜰 녘에 그를 마주쳤다는 사람들의 말로는 아주 늦게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그자가 뭘 하고 다니는지는 아나?" 동료가 합류하자 뤼팽이 물었다.

"모릅니다. 생활이 완전히 불규칙해서, 며칠씩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틀어박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좋아. 우리가 알아내지. 머지않아."

그는 잘못 알고 있었다.

팔 일 동안 계속된 조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이한 인물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더 알아내지 못했다.

더욱 이상한 일은 이랬다. 뤼팽이 그를 미행하는 순간,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 남자는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도, 멈춰 서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기적처럼 모습을 감췄다.

때로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집으로 숨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때는 군중 속으로 스며들며 유령처럼 자취를 감추곤 했다.

그때면 뤼팽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멍하니 섰다. 분노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는 곧장 델라제망 거리로 달려가 보초를 섰다.

몇 분이 또 몇 분을 더하고, 십오 분이 또 십오 분을 더했다. 밤의 절반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대체 무엇을 했을까?

"사장님, 속달이 왔습니다."

저녁 여덟 시쯤, 두드빌이 델라제망 거리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말했다.

뤼팽은 봉투를 찢었다.

케셀바흐 부인이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두 남자가 그녀의 창문 아래에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운이 좋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럼 됐어, 오늘 밤 일을 해치우자."

그녀는 아래로 내려가, 부엌 덧문이 더 이상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도 바깥에서 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적이 스스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군. 잘됐어! 말레이크의 창문 아래에서 하릴없이 보초만 서느라 진력이 났거든."

"지금 거기 있나?"

"아니, 그놈이 파리에서 또 한 번 제 방식대로 날 따돌렸어. 나도 내 방식대로 한 방 먹이려던 참이었지. 하지만 우선 잘 들어, 두드빌. 우리 중 가장 믿음직한 사람 열 명쯤을 모아라… 옳지, 마르코와 집행관 제롬을 데려와. 팔레스 호텔 사건 이후로 그 둘에게는 잠시 휴가를 줬었지… 이번만은 나오라고 해.

사람들을 모으면 비뉴 거리로 데려가. 샤롤레 영감과 그 아들이 이미 보초를 서고 있을 거야. 그들과 호흡을 맞추고, 열한 시 반에 비뉴 거리와 레이누아르 거리 모퉁이에서 나와 합류해라. 거기서 그 집을 감시하는 거다."

두드빌은 멀어져 갔다.

뤼팽은 한 시간을 더 기다렸다. 평화로운 델라제망 거리가 완전히 텅 비고 레옹 마시에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는 마음을 정하고 별채 쪽으로 다가갔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힘껏 도약해 정원 철책을 받치고 있는 돌 받침 위로 뛰어올랐다. 몇 분 후, 그는 이미 정원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의 계획은 집 문을 부수고 방들을 뒤져, 말레이크가 벨덴츠에서 훔쳐낸 황제의 그 유명한 편지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차고를 살펴보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고가 잠겨 있지 않은 것에 몹시 놀랐고, 이어 손전등 불빛으로 비춰 보니 차고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으며 뒷벽에는 문이 하나도 뚫려 있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찾아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낡은 창고 벽에 기대어 놓은 사다리를 발견했다. 그 사다리는 분명히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다락방은 낡은 상자들과 짚단, 그리고 정원사들이 쓰는 창틀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처럼 보였다. 그는 쉽게 그 사이를 통과해 벽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하나의 창틀과 마주쳤다. 그는 그것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더 자세히 조사했고, 그 창틀이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유리창이 빠져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팔을 뻗어 보니 빈 공간이었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 불빛을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곳은 커다란 헛간이었다. 별채의 차고보다 훨씬 넓었고, 고철과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여기군.' 뤼팽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채광창은 고물상의 창고맨 꼭대기에 뚫려 있어. 루이 드 말레이크는 여기서 부하들을 보고 듣

고 감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들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 그놈들이 자기 두목을 모른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

알아낼 것을 알아낸 뤼팽은 불을 끄고 떠나려 했다. 그때 바로 맞은편 저 아래에서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등불이 켜졌고, 그는 고물상을 알아보았다.

그는 머물기로 했다. 저 남자가 있는 한 작전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물상은 주머니에서 권총 두 자루를 꺼냈다. 그는 카페콩세르의 후렴을 휘파람으로 흥얼거리면서 권총의 작동을 점검하고 총알을 갈아 끼웠다.

그렇게 한 시간이 흘렀다.

뤼팽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떠날 결심은 서지 않았다.

또 몇 분이 지나고, 반 시간이 지나고, 한 시간이 더 흘렀다.

마침내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들어와."

강도 하나가 창고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섰다. 이어 잇따라 세 번째, 네 번째가 들어왔다.

"이제 다 모였군." 고물상이 말했다. "디외도네와 통통이는 저쪽에서 합류할 거야. 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너희 무장했지?"

"완전 무장했지."

"좋아. 한바탕 격해지겠군."

"어떻게 그걸 알아, 고물상?"

"두목을 봤거든… 봤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을 했어…"

"그래."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말했다. 늘 그렇듯 길모퉁이에서였다. "난 알텐하임의 방식이 더 좋았어. 적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으니까."

"몰라서 그래?" 고물상이 쏘아붙였다. "케셀바흐 부인 집을 터는 거야."

"그럼 경비 둘은? 뤼팽이 세워 둔 그 두 놈은?"

"그놈들은 안됐지만 별수 없지. 우리는 일곱이야.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을걸."

"케셀바흐 부인은?"

"먼저 재갈을 물리고 밧줄로 묶어서 여기로 데려와. 자, 저 낡은 소파 위에 말이야. 거기서 명령을 기다리는 거지."

"보수는 두둑한가?"

"우선 케셀바흐 부인의 보석이 있지."

"그건 성공하면 얘기고. 난 확실한 걸 묻는 거야."

"한 사람당 백 프랑짜리 지폐 석 장을 선불로. 일이 끝나면 그 두 배를 주지."

"돈은 가지고 있나?"

"돈 줄 때만큼은 최고지. 뭐라고 하든, 보수 문제에서는 저런 자가 둘도 없어."

그러고는 뤼팽이 간신히 알아들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고물상, 만약 칼을 써야 하면 따로 수당이 있나?"

"늘 그렇듯 이천이야."

"뤼팽이면?"

"삼천."

"아, 그놈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둘 차례로 창고를 빠져나갔다.

뤼팽은 고물상의 이런 말까지 들었다.

"공격 계획은 이래. 세 패로 나뉜다. 호루라기가 울리면 각자 앞으로 나아간다…"

뤼팽은 서둘러 은신처에서 나와 사다리를 내려갔고, 별채에는 들어가지 않고 빙 돌아 다시 철책을 넘었다.

"고물상 말이 맞아, 한바탕 격해지겠군… 아, 저놈들이 노리는 게 바로 내 목숨이라니! 뤼팽한테 상금이라고? 이 비열한 놈들!"

그는 입시세 징수소를 지나 택시에 올라탔다.

"레이누아르 거리로."

그는 비뉴 거리에서 300보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게 하고, 두 거리가 만나는 모퉁이까지 걸어갔다.

놀랍게도 두드빌이 그곳에 없었다.

"이상하군." 뤼팽은 생각했다. "벌써 자정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이 일이 수상해."

그는 십 분, 이십 분을 기다렸다. 자정 반이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더 지체하면 위험했다. 어쨌든 두드빌과 그 동료들이 오지 못한다 해도, 샤롤레와 그의 아들, 그리고 뤼팽 자신만으로도, 게다가 하인들의 도움까지 더하면 공격을 막아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다시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두 남자가 어느 후미진 그늘에 몸을 숨기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들이 바로 무리의 선봉대, 디외도네와 통통이로군. 내가 어리석게 뒤처지고 말았어.’

그는 또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곧장 그들에게 달려들어 제압한 뒤, 비어 있다는 걸 잘 아는 부엌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갈까? 그것이 가장 신중한 방책이었고, 게다가 케셀바흐 부인을 즉시 데리고 나와 화를 면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무리 전체를, 그리고 틀림없이 루이 드 말레이크까지 함정에 빠뜨릴 이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집 반대편 어딘가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벌써 다른 자들이 온 걸까? 정원 쪽에서 역습이 벌어지려는 걸까?

그러나 신호가 떨어지자 두 사람은 창문을 넘어 사라졌다.

뤼팽은 몸을 날려 발코니를 타고 올라 부엌방으로 뛰어들었다. 발소리를 듣고 그는 공격자들이 정원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했고, 그 소리가 워낙 또렷해 마음이 놓였다. 샤롤레와 그의 아들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케셀바흐 부인의 방은 계단참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야간등 불빛 아래, 그는 소파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돌로레스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몸을 일으키고는, 명령하듯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을 강요했다.

"들어 봐요… 샤롤레는? 그의 아들은? 어디 있소?"

그녀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떠났는데요…"

"뭐요? 떠났다니!"

"당신이 나에게 써 보냈군요… 한 시간 전에… 전화 메시지로…"

그는 그녀의 곁에 떨어진 파란색 종이를 주워 들고 읽었다.

'경비원 두 명과 내 모든 부하들을 즉시 돌려보내라. 나는 그들을 그랑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정말 믿었단 말이오? 그런데 하인들은?"

"떠났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세 명의 남자가 정원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거리 쪽으로 난 옆방 창문으로는 또 다른 두 명이 밖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디외도네, 조플루, 그리고 특히 루이 드 말라이히를 떠올렸다. 말라이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공할 모습으로 배회하고 있을 터였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끝장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군."

제14장

이 순간, 아르센 뤼팽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함정을 꾸민 수법을 일일이 헤아릴 여유는 없었지만, 그 솜씨가 얼마나 정교하고 능란한지는 직감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짜 맞춰졌고,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었다. 그의 부하들을 멀리 떼어놓은 것도, 하인들이 사라지거나 배신한 것도, 심지어 그가 켈스바흐 부인의 집에 있게 된 것조차도.

물론 그 모든 일은 기적이라 할 만큼 운 좋은 정황들 덕분에 적이 원하는 대로 맞아떨어졌다. 따지고 보면 뤼팽 자신이, 가짜 메시지가 그의 동료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들이닥칠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것은 뤼팽의 무리와 알텐하임의 무리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

뤼팽은 말라이히의 행적, 알텐하임 살해, 펠덴츠의 광인을 독살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문득 의구심을 품었다. 이 함정이 자신만

을 겨눈 것일까, 아니면 말라이히가 총체적 혼란과, 이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동료들의 제거까지도 가능한 일로 내다본 것은 아닐까.

그것은 차라리 직감이었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행동할 때였다. 무엇보다 이 공격의 진짜 목적은 돌로레스 납치였으니, 그녀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는 거리 쪽 창문을 살짝 열더니 권총을 겨눴다. 총성 한 방이면 동네에 경보가 울리고, 강도들은 달아날 것이다.

"아니,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싸움을 피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이 기회는 너무도 좋단 말이야. 게다가 그들이 정말 달아날지도 알 수 없지! 저들은 수가 많고, 이웃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그는 돌로레스의 방으로 돌아갔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다. 그는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가 계단에서 나는 것임을 알자 자물쇠를 두 번 돌려 잠갔다.

돌로레스는 소파에서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애원했다.

"움직일 힘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2층입니다. 제가 내려가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창문에 이불을 매달아서…"

"아니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는 그녀를 안아 옆방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녀 위로 몸을 굽혔다.

"그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살아 있는 한, 저 남자들 중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첫째 방의 문이 흔들렸다. 돌로레스는 그를 꼭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 저들이 왔어요… 저들이요! 당신을 죽일 거예요… 당신은 혼자잖아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있잖아요. 내 곁에 있잖아요."

그는 몸을 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속삭였다.

"당신은 어디로 가려는 거죠? 뭘 하려는 거예요? 안 돼요… 죽지 마세요… 원하지 않아요… 살아야 해요… 살아야만 해요…"

그녀는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더듬더듬 내뱉었다. 그가 듣지 못하도록 입술 사이에서 짓누르는 듯한 말이었다. 그러고는 기력이 다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그녀 위로 몸을 굽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그런 다음 첫 번째 방으로 돌아와 두 방을 가르는 문을 꼼꼼히 잠그고 전등을 켰다.

"잠깐만, 친구들!" 그가 외쳤다. "그렇게도 박살이 나고 싶어 안달들이오? 여기 있는 게 뤼팽이라는 걸 모르시오? 한바탕 춤판이 벌어질 테니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그는 병풍을 펼쳐 조금 전 켈스바흐 부인이 누워 있던 소파를 가렸다. 그리고 그 소파 위에 옷가지와 담요를 던져 덮었다.

공격자들의 힘에 문이 곧 부서질 것 같았다.

"됐어! 내가 달려갈게. 준비됐지? 자, 이 신사들 중 첫 번째!"

그는 재빨리 열쇠를 돌리고 빗장을 뺐다.

열린 문틈으로 비명, 협박, 그리고 증오에 찬 야수들의 웅성거림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뤼팽을 덮치기 전, 그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주저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예상한 바였다.

방 한가운데 서서 밝은 조명 아래, 팔을 뻗은 그는 손가락 사이로 지폐 뭉치를 쥐고 있었다. 그는 지폐를 하나씩 세며 일곱 덩어리로 똑같이 나누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뤼팽이 죽으면 각각 삼천 프랑의 상금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었지? 여기 그 두 배가 있다."

뤼팽은 그 다발들을 강도들의 손이 닿을 만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고물상이 고함을 질렀다.

"허튼수작! 시간을 벌려는 거야. 쏴버려!"

그가 팔을 들어 올렸다. 동료들이 그를 붙잡았다.

뤼팽은 말을 이었다.

"물론 이게 여러분의 작전 계획을 바꾸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온 건, 첫째 켈스바흐 부인을 납치하기 위해서, 둘째 부수적으로 그녀의 보석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목적을 방해한다면 저야말로 가장 비열한 인간이겠지요."

"아, 그래,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고물상이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며 투덜거렸다.

"아하! 고물상, 이제 내가 네 흥미를 끌기 시작하나 보군. 들어와, 친구… 다들 들어오라고… 이 계단 위는 외풍이 세서 너희처럼 귀여운

것들은 감기 걸리기 십상이지… 아니, 겁이 나나? 나는 이렇게 혼자인데 말이야… 자, 용기를 내, 내 양들아."

그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문 좀 밀어 닫아, 고물상… 그게 더 편하지. 고맙군, 뚱보 양반. 아, 지나는 김에 보니 천 프랑짜리 지폐들이 사라졌군. 그러니 합의가 된 거야.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잘 통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글쎄, 우리가 동업자가 되었으니…"

"동업자라니!"

"원, 참! 내 돈 받았잖아? 우린 함께 일하는 사이야, 뚱보. 그러니 같이 가는 거지. 첫째 그 젊은 여자를 데려가고, 둘째 보석을 빼낸다."

고물상이 비웃었다.

"너 따위는 필요 없어."

"필요하지, 뚱보 양반."

"뭐가?"

"너희는 보석 숨긴 곳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점에서지."

"찾으면 되지."

"내일에나 찾겠지. 오늘 밤엔 못 찾아."

"그럼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보석을 나눠 갖는 거지."

"숨긴 곳을 안다면서 왜 다 가져가지 않았어?"

"혼자서는 못 열어. 비밀 장치가 있는데 그건 나도 몰라. 너희가 있으니 너희를 이용하는 거고."

고물상은 망설였다.

"나누자고… 나눠봐야… 자갈 몇 개에 구리 부스러기나 좀 있겠지…"

"바보 같으니! 백만 프랑이 넘는 게 들어 있어."

남자들이 동요하며 몸을 떨었다.

"좋아." 고물상이 말했다. "하지만 켈스바흐 여자가 튀어버리면 어쩌지? 그 여자, 옆방에 있는 거 아냐?"

"아니, 여기 있어."

뤼팽은 잠시 병풍의 한 폭을 젖혀, 소파 위에 준비해 둔 옷가지와 담요 더미를 살짝 보여주었다.

"여기 기절해 있지. 하지만 분배가 끝난 뒤에야 넘겨주겠어."

"하지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내가 혼자이긴 하지만 내 실력이 어떤지는 알 텐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고물상이 물었다.

"숨긴 곳이 어디야?"

"벽난로 바닥 아래야. 하지만 비밀 장치를 모르면 먼저 벽난로 전체를, 거울과 대리석들까지 한 덩어리로 통째로 들어 올려야 한다더군. 일이 만만치 않아."

"흥! 우린 만반의 준비가 됐어. 보라고. 5분이면…"

그가 지시를 내리자 동료들은 놀랄 만큼 활기차고 일사불란하게 즉각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 중 둘은 의자에 올라서서 거울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나머지 넷은 벽난로 자체에 달려들었다. 무릎을 꿇은 고물상이 벽난로 바닥을 살피며 지휘했다.

"힘내, 친구들!… 제발 함께… 조심해!… 하나, 둘… 아, 봐, 움직인다…"

그들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선 뤼팽은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그는 예술가이자 거장으로

서, 자신이 남들에게 행사하는 권위와 힘, 그 믿기 힘든 지배력을 이토록 격렬하게 증명해 보이는 광경을 한껏 자부심에 차 음미하고 있었다.

저 강도들은 어떻게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단 한 순간이라도 믿고서, 사리 분별을 완전히 잃고 전투의 모든 승산을 그에게 고스란히 내주고 말았을까?

뤼팽은 주머니에서 묵직하고 무시무시한 커다란 권총 두 자루를 꺼냈다. 그는 두 팔을 쭉 뻗고는, 차분하게 먼저 쓰러뜨릴 두 사람과 뒤이어 쓰러질 두 사람을 골라, 사격장에서 두 표적을 겨누듯 겨누었다.

두 발이 동시에 터졌다. 그리고 또 두 발이…

울부짖음이 터졌다. 네 명의 남자가 하나둘 쓰러졌다. 마치 장난감 인형들처럼.

"일곱에서 네를 빼면, 셋이 남는군." 뤼팽이 말했다. "계속할까?"

그의 팔은 여전히 뻗쳐 있었다. 두 권총이 브로칸테르와 그의 두 동료를 묶은 무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개새끼야!" 브로칸테르가 악을 썼다. 동시에 무기를 찾아 나섰다.

"손 들어! 쏠 거야…" 뤼팽이 외쳤다. "완벽해. 자, 너희는 저놈의 무기를 빼앗아. 안 그러면…"

두 도적은 공포에 떨며 두목의 움직임을 제지했다. 결국 두목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 묶어! …제발 묶어라! 네놈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내가 떠나면, 너희는 모두 자유다… 자, 준비됐나? 먼저 손목부터… 벨트로 묶어… 그리고 발목도… 더 빨리 해!”

브로칸테르는 절망에 빠진 채, 완전히 무력해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동생들이 그를 묶는 사이, 뤼팽은 그들 위에 몸을 굽혔다. 그리고는 총열로 그들의 머리를 두 번이나 강타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쓰러졌다.

“제법 잘했군.”

뤼팽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다만 아직 오십 명쯤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제 막… 그러고도 이토록 여유 있게,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이야. 브로칸테르, 네 생각은 어때?”

도적들은 투덜거렸다. 뤼팽이 그들에게 말했다.

“슬퍼하지 마라, 친구. 네가 좋은 일을 돕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아라. 케셀바흐 부인을 구하는 일이지. 그녀가 직접 네 용감함에 감사할 거야.”

그는 두 번째 방의 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아!”

그는 문턱에서 멈춰 섰다. 놀람과 혼란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발코니에 기대어 서 있는 사다리가 보였다. 분해할 수 있는 강철 사다리였다.

"빼앗겼군… 빼앗겼어…"

그가 중얼거렸다.

"루이 드 말레이유… 아, 그 해적."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쓰며, 결국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국 케셀바흐 씨는 당장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곧 격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강도들 쪽으로 달려가, 움직이는 부상자들에게 발길질을 날렸다. 그리고 지폐들을 찾아 다시 챙겼다.

그는 입과 손을 묶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커튼 끈, 커튼 고리, 이불과 시트를 가느다란 띠로 찢어내어 사용했다. 그리고 결국 소파 앞 카펫 위에 일곱 개의 '사람 덩어리'를 일렬로 늘어놓았다. 서로 바짝 붙인 채, 마치 택배 상자처럼 단단히 묶어둔 상태였다.

"고인들을 꼬치에 꿰어 소파 위에 올렸군. 애호가에게는 제격이지."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바보들아, 어떻게 장부를 정리했단 말인가? 이제 너희는 morgue(시체 안치소)에 떠밀려 들어간 물에 빠진 사람 신세가 됐어."

"하지만 어쨌든 뤼팽을 건드렸잖아. 과부와 고아를 옹호하는 뤼팽을!"

"겁나냐? 괜찮아, 양들아. 뤼팽은 파리를 한 마리 해치지 않았으니까."

"다만 뤼팽은 정직한 신사야. 악당들을 싫어하지. 그리고 뤼팽은 자신의 의무를 잘 알고 있어."

"자, 보자. 너희 같은 개자식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뭐야? 남의 생명에 대한 존중은 어디 갔나? 남의 재산에 대한 존중은? 법은? 사회는? 양심은? 다 사라진 거야?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주님よ, 어디로?"

그는 감옥에 가둘 생각도 없이 방을 나섰다. 거리로 나와 자신의 택시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운전사에게 다른 차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두 대의 차를 몰고 그는 케셀바흐 씨의 집 앞에 다시 도착했다.

먼저 팁을 미리 주니, 운전사가 쓸데없이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는 일곱 명의 죄인들을 내려보냈다. 죄인들은 차 안으로 쏙 들어갔다. 서로의 무릎 위에 올라타고 비틀거리며 앉았다. 부상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신음했다.

그가 문을 닫았다.

"손 조심하시라."

그는 첫 번째 차의 좌석에 올랐다.

"출발!"

"어디로 갑니까?" 운전사가 물었다.

"오르프브르 가 36번지, 형사국으로."

엔진이 고동을 울렸다.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가 나고, 이상한 행렬이 트로카데로의 경사면을 내려달리기 시작했다.

거리에서는 채소 수레 몇 대를 지나쳤다. 지팡이를 든 남자들이 가로등을 끄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시원한 바람이 공간을 스쳤다.

뤼팽이 노래를 불렀다.

앙시앙 콩코르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 멀리서 노트르담 대성당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그가 돌아서서 문을 살짝 열었다.

"잘 가고 있나, 동지들? 나도 고마워. 밤이 정말 아름답고, 숨 쉴 공기가 일품이야."

차량들이 더 울퉁불퉁한 퀴의 포장도로로 내려섰다. 그리고 곧바로 사법궁과 수사국 문이 나타났다.

"여기서 기다려." 뤼팽이 두 운전사에게 말했다. "내 손님 일곱 명을 잘 돌봐주게."

그는 첫 안마당을 지나 오른쪽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는 중앙 서비스 사무실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상주하는 형사들이 있었다.

"사냥감입니다,诸位先生. 아주 큰 놈이요."

그가 들어가며 말했다.

"베버 씨가 여기 있습니까? 저는 오퇴이 경찰서장입니다."

"베버 씨는 자택에 계십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쪽지 하나 남기고 갈게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알텐하임 무리의 일곱 구성원을 데려왔습니다. 구렐을 살해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죽인 자들이죠. 그중 일부는 르노망 씨라는 가명으로 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목뿐입니다. 곧 체포하겠습니다. 곧장 와 주십시오. 그는 네이유에 살며, 델라제망 거리 123번지입니다. 레옹 마시에라는 이름을 쓰죠."

"건승을 빕니다."

그는 봉투에 인침을 찍었다.

"여기, 웨버 씨에게 건네십시오. 급합니다. 이제 화물을 인수할 남자 일곱 명이 더 필요합니다. 화물은 선창에 놔뒀습니다."

차들 앞에는 형사 한 명이 그를 따라잡았다.

"아, 레보프 씨군요." 그가 말했다. "대단한 수확을 올렸소. 알텐하임 일당 전원이 걸렸네. 차들 안에 다 들어와 있소."

"어디서 붙잡으셨습니까?"

"케셀바흐 씨를 납치하고 그의 집을 털려던 참이었소. 하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소."

형사는 그를 따로 불러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다만, 오또이유 경찰서장님 지시로 저를 불러보내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론……."

"누구와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당신이 지금, 아주 훌륭한 품질의 폭력배 일곱 명을 멋진 선물로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내 이름?"

"아르센 뤼팽."

그는 상대방의 발을 재빠르게 걷어차고, 리볼 거리로 뛰어나갔다. 지나가던 자동차에 뛰어올라 테른 문까지 데려다달라고 했다.

레볼트 대로에 있는 건물들은 가까웠다. 그는 3번지로 향했다.

그의 냉철함과 자제력에도 불구하고, 아르센 뤼팽은 자신을 덮치는 감정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었다. 도레즈 켈스바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루이 드 말레이크는 그 젊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까, 아니면 골동품 상의 차고로 보냈을까?

뤼팽은 골동품상에게서 이 창고의 열쇠를 받아 뒀기에, 문을 두드리고 안뜰을 모두 지나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쉬웠다.

그는 등불을 켜고 주위를 살폈다. 오른쪽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 뤼팽은 공범들이 마지막 회동을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골동품상이 가리킨 소파 위에 검은 형체가 보였다.

이불에 감싸이고 입은 막힌 채, 돌레스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를 구해 주었다.

"아, 당신이 여기 있군요…… 당신이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는 곧장 몸을 일으켜 창고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 그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들었어요. 확신합니다. 가야 해요. 간청합니다."

"당신이 먼저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그 사람요. 그 사람을 때려요. 제발요. 그 사람을 때려요."

두려움은 이번에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끔찍한 적에게 시달리던 자신을 구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에 사로잡혀 다시금 말했다.

"그 사람부터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저를 그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세요. 꼭 그래야 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그는 그녀의 묶음을 풀고, 신중하게 소파에 눕혔다.

"당신이 맞는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요."

그가 물러서려 하자, 그녀는 그의 손을 급하게 붙잡았다.

"당신은요?"

"무슨 말씀이오?"

"만약 그 남자가…"

그녀는 뤼팽을 그 치명적인 싸움으로 내몬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붙잡아두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속삭였다.

"고마워. 걱정 마.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그는 혼자니까."

그는 그녀를 남겨둔 채 안쪽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그는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사다리를 발견했다. 그 사다리는 그가 강도들의 회의를 지켜보았던 작은 창문 높이까지 이어져 있었다. 바로 이 길이 말레르가 델레제망 거리 자신의 집으로 향했던 길이었다.

그는 몇 시간 전과 같은 경로를 되짚었다. 다른 창고로 들어가 정원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미 말레르가 머물고 있는 별장 바로 뒤쪽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말라이크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필연적으로 그와 마주치게 될 것이며,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대결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몇 분만 더 지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 손잡이를 잡자마자 손잡이가 돌아갔고, 그의 힘에 문이 쉽게 열렸다. 별장 문은 굳이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부엌과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랐다. 발소리를 감추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2층 복도에 서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혈압이 오르면서 관자놀이에는 맥박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가장 사소한 생각까지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계단 한 단계에 두 권의 권총을 내려놓았다.

"무력 시위는 하지 않자. 손으로만 해볼까. 이 두 손의 힘만으로도 충분해. 오히려 더 낫지."

그는 맞은편에 있는 세 개의 문 중 가운데 문을 선택했다. 자물쇠를 돌렸다. 걸림돌은 없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활짝 열린 창문으로 밤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이불과 커튼이 있는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즉각 손전등 빛을 그 실루엣 향해 쏘아 올렸다.

"말레르슈!"

말레르슈의 창백한 얼굴, 어두운 눈동자, 시체처럼 썩은 볼기살, 그리고 야위어 뜬 목덜미…….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그의 다릿말 다섯 발짝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정지된 얼굴, 죽은 자의 얼굴이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약간의 불안함이라도 드러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뤼팽이 한 발을 내디뎠다. 두 발, 세 발.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보고 있었을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의 눈은 공허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실제의 광경을 본 것이 아니라, 환각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또 한 발을 떼었다.

'저자가 저항할 거야. 반드시 저항해야 해.'

뤼팽이 그를 향해 팔을 뻗었다.

남자는 손짓도 하지 않았다. 물러서지도 않았고, 눈꺼풀도 깜빡이지 않았다. 손끝이 닿았다.

그리고 놀란 것은 뤼팽이었다. 그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남자를 넘어뜨려 침대에 눕혔고, 이불에 말아 감았으며, 담요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한 발로 그를 짓누르며 먹이처럼 꽉 잡았다.

남자는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

"아! 드디어 네게 승리했다!"

뤼팽이 환호성을 질렀다. 기쁨과 증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비참한 짐승아, 드디어 네게 짓밟혔다. 내가 이제야 주인이로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델라이즈망 거리 쪽에서 누군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는 창가로 달려가 소리쳤다.

"웨버로구나! 벌써 왔네. 잘했어. 모델급 하인이라니.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 환영할게."

몇 분 뒤, 그는 죄인의 옷을 뒤져 지갑을 챙겼다. 책상과 서랍서랍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모아 탁자 위에 던졌다. 그리고 하나하나 살폈다.

그가 기쁨의 비명을 지른 이유를 알 만했다.

그곳에 그 편지 더미가 있었다. 그가 황제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유명한 편지 더미가.

뤼팽은 서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뒤 창가로 달려갔다.

"다 됐군, 웨버! 들어와."

"케셀바흐의 살인자를 침대에서 발견할 거야. 완벽하게 준비되고 묶여 있는 상태로."

"안녕, 웨버."

그리고 뤼팽은 계단을 재빨리 내려가 차고로 향했다. 웨버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사이, 그는 돌로세스 케셀바흐를 만나러 갔다.

그는 단 한 사람으로 알텐하임의 일곱 동료를 제압했다.

그리고 그는 이 무리의 신비로운 두목이자, 저주받은 괴물 루이 드 말라이흐를 법정에 넘겨주었다.

넓은 나무 발코니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테이블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고개를 들어, 가을에 나뭇잎을 다 잃어버린 언덕 너머의 지평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무들은 마지막 잎들을 붉은 타일 지붕과 정원 잔디밭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러곤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우리 날들은 표류하듯 지나가니 / currents에 실려 / 우리가 죽어서야 닿을 강가로 / 밀려가는구나.'

'나쁘지 않군. 뒤에서 들린 목소리가 말했다. '마블 타스투 여사라도 이 정도는 썼겠지. 하지만 누구나 라마르틴이 될 수는 없는 법이야.'

‘당신이요… 당신이라니요…’ 젊은이는 어리둥절해하며 더듬거렸다.

‘그렇지, 시인아. 바로 나, 아르센 뤼팽이란다. 사랑하는 친구 피에르 레듀를 만나러 온.’

피에르 르듀가 떨기 시작했다. 고열에 시달리듯 온몸이 떨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시간이 된 겁니까?”

“그래, 내 훌륭한 피에르 르듀여. 이제 네가 떠날 시간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끊어낼 시간이다. 수개월째 제네비에브 에르네몽과 M. 케셀바흐의 발치에서 누리고 있는, 그 느릿느릿한 시인의 삶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맡긴 역할을 수행할 차례다. 내 연극 속 역할이지. 확신컨대 아주 멋진 작품이다. 규칙에 따라 탄탄하게 짜인, 좋은 작은 드라마. 트레몰로(떨림)와 웃음, 그리고 이를 갈는 소리까지 모두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막 다섯 번째 장에 들어섰다. 결말이 코앞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너, 피에르 르듀다. 무슨 영광이랴!”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바보야!”

"거절하면 어때? 대체 누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건가? 아직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싫고 부끄러운 역할을 왜 내가 감수해야 하느냐고."

"바보야!"

뤼팽이 다시 한 번 단호하게 말했다. 피에르 레뒤를 억지로 의자에 앉게 하고는 그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너는 완전히 잊고 있구나, 착한 청년아. 네 이름이 피에르 레뒤가 아니라 제라르 보프레라는 사실을. 만약 네가 '피에르 레뒤'라는 훌륭한 이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 제라르 보프레가 피에르 레뒤를 살해하고 그의 인격을 강탈했기 때문이야."

그 청년은 분노에 떨며 자리에서 튀어 올랐다.

"당신이 미쳤군요! 당신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건 당신 자신이잖아요!"

"물론이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피에르 르듀가 폭력적인 죽음을 당했고, 네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증명해 준다면, 법도 움직일 거야."

젊은 남자는 절망에 빠진 듯 말더듬었다.

"누가 믿겠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무슨 목적에서요?"

"바보야. 목적은 너무도 명확해서 베버조차 눈치챘을 거야. 네가 모르는 역할을 맡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 역할이 뭔지 넌 알고 있어. 피에르 르듀가 죽지 않았다면 맡았을 역할과 똑같지."

"하지만 피에르 르듀는 저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아직 이름일 뿐이에요. 그가 누구였는지,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해?"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알게 되면, 네가 곧장 그 길을 걸을 거야?"

"네. 그 목적이 가치 있다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겠느냐?"

"내가 누구인지요? 내 운명이 어떻든, 나는 그 운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소. 하지만 나는 알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아르센 뤼팽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헤르만 4세. 도이치폰츠-펠덴츠 대공, 베른카스텔 공, 트레브 선제후, 그리고 기타 여러 영지의 영주."

사흘 후. 뤼팽은 M. 케셀바흐를 데리고 자동차를 몰아 국경 쪽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뤼팽은 감회 어린 마음으로 돌로레스의 놀란 표정과, 빈 거리 12번지 집에 있을 때 알텐하임의 공범자들과 맞서 그녀를 보호하려던 순간 그녀가 내뱉은 말들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뤼팽이 있는 자리에서는 늘 어색해하며,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작은 성에 도착했다. 성은 잎과 꽃으로 가득했고, 지붕에는 거대한 슬레이트 지붕이 덮여 있었다. 성 주변에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우거진 넓은 정원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던 제네비브를 만났다. 그녀는 근처 마을에서 집안일을 도울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었다.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마담." 뤼팽이 말했다. "브루겐 성입니다. 당신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일, 제가 미리 연락한 피에르 르듀가 당신의 손님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떠났다. 그는 벨덴으로 향했다. 그리고 발데마르 백작에게 그가 되찾은 유명한 편지 더미를 건넸다.

“와르데마르 씨, 제 조건은 아시죠?”

뤼팽이 말했다.

“일단 두퐁트벨덴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헤르만 4세 대공에게 대공국을 돌려줘야 하죠.”

"오늘부터 즉시 섭정 위원회와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정보로는 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헤르만 4세 대공은……"

"현재 피에르 르듀크라는 이름으로 브뤼겐 성에 숨어 삽니다. 그의 정체를 증명할 자료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뤼팽은 파리행 길을 재촉했다. 말레르히와 일곱 명의 도둑들을 처단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이 어떤 양상이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일일이 말하기는 지루할 따름이다. 사실과 가장 사소한 디테일까지 모두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외딴 마을의 가장 소박한 농부들조차도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논할 만한, 그런 파란만장한 사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내가 되새기고 싶은 것은, 아르센 뤼팽이 이 사건 추적을 비롯해 수사 과정의 여러 에피소드들에 얼마나 막대한 역할을 했는지 하는 점이다.

사실, 수사를 이끈 것은 바로 그였다. 초반부터 그는 공공 권력을 대신해 모든 것을 지휘했다.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주며, 피의자에게 물을 질문들을 정해 주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독자들은 어떤 놀람을 겪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논리와 권위가 넘치는, 거스를 수 없는 그 편지들 때문이었다. 서명에는 차례로 이렇게 적혔다.

아르센 뤼팽, 예심판사. 아르센 뤼팽, 검찰총장. 아르센 뤼팽, 법무장관. 아르센 뤼팽, 형사.

보통은 냉소와 아이러니로 가득한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일하는 데 남다른 열정과 격렬함, 심지어는 분노를 불태웠다. 타고난 성향상 어느 정도 전문적인 관용을 베풀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의 태도는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아니,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증오하고 있었다.

그는 루이 드 말라이히를 미워했다. 피에 굶주린 사나운 악당, 더럽고 추악한 짐승. 그는 늘 말라이히를 무서워했다. 감옥에 갇혀 패배한 지금도, 그 남자는 여전히 파충류를 마주한 듯한 공포와 혐오감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말라이히는 돌로레스까지 괴롭히지 않았던가?

'그는 판을 벌였고, 졌어. 이제 목이 날아갈 거야.'

뤼팽은 혼자 중얼거렸다. 끔찍한 적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다. 단두대였다. 흐릿한 아침 빛 아래, 단두대의 칼날이 미끄러지며 목을 베어내는 그 순간을.

예심판사가 몇 달 동안 집무실 벽 안에서 신문한 그 이상한 피고인! 뼈만 앙상한 그 사내는 또 얼마나 기이한 인물이었던가. 해골 같은 얼굴, 죽은 듯한 눈.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어디론가 떠난 듯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대답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제 이름은 레옹 마시에입니다."

그가 한 말은 이 문장뿐이었다.

그러자 뤼팽이 반박했다.

"넌 거짓말하고 있어. 레옹 마시에. 페리괴에서 태어나 열 살에 고아가 되었지. 그런데 그 아이는 일곱 해 전에 이미 죽었어. 넌 그 아이의 서류를 가로챘겠지. 하지만 사망 증명서는 잊었군. 여기 있네."

뤼팽은 그 사망 증명서 사본을 검찰청에 보냈다.

"저는 레옹 마시에입니다." 피고인은 다시 한 번 단언했다.

"거짓말이야." 뤼팽이 되받아쳤다. "넌 루이 드 말라이히야. 18세기에 독일에 정착한 하급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지. 너에게는 형이 있었어. 그 형은 파버리, 리베이라, 알텐하임이라는 이름을 차례로 썼지. 넌 그 형을 죽였어. 그리고 이실드 드 말라이히라는 누이도 있었지. 넌 그 누이도 죽였어."

"저는 레옹 마시에입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넌 말라이히다. 여기 너의 출생 증명서가 있네. 그리고 여기 형제와 자매의 증명서도."

뤼팽은 이 세 장의 증명서를 모두 보내 버렸다.

사실, 자신의 신분을 제외하고는 말라이히가 별다른 변명이나 방어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그는 도무지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직접 쓴 사십 장의 편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필적 감정을 통해 그의 글씨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동조자 무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편지들을 썼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다시 회수하곤 찢어 버리는 것을 잊었다.

그 모든 편지는 케셀바흐 사건, 르노망과 구렐의 납치, 노년 스타인베그의 추격, 가르슈의 지하 터널 건설 등 구체적인 지시를 담고 있었다. 어떻게 이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꽤 기이한 일이 사법당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일곱 도적은 두목과 대면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두목을 본 적도 알고 지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두목의 지시를 전화로, 또는 어둠 속에서 받았다. 바로 말라이히가 단 한 마디도 없이 재빠르게 건네던 그 작은 쪽지들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델라이즈망 거리의 별장과 브로칸테르의 차고 사이를 이어주던 통로야말로 공범 관계의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던가.

그곳에서 말라이히는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두목은 부하들을 감시했다.

모순? 겉보기에 서로 맞지 않는 사실들? 뤼팽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는 아침에 발표한 유명한 글에서, 사건의 시작부터 다시 짚어 나갔다. 숨겨진 이면을 드러내고, 엉킨 실타래를 풀었다.

그는 말라이히가 아무도 모르게 형의 방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짜 파버리 소령으로 행세하던 바로 그 형의 방이었다. 말라이히는 보이지 않게 팰리스 호텔 복도를 드나들며 케셀바흐를 죽이고, 호텔 보이를 죽이고, 비서 채프먼까지 죽였다.

재판 정황은 기억난다. 참혹하면서도 침울했다. 군중을 짓누른 불안감, 그리고 죄와 피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을 괴롭혔기에 참혹했다. 동시에 피고인이 지킨 끔찍한 침묵 탓에 분위기는 무겁고 어둡고 답답하게 가라앉았다.

반항 한 번 없었다. 미동도, 말 한마디도 없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밀랍 인형 같은 얼굴! 그 고요함과 무감각함이 자아내는 광경은 그 자체로 섬뜩했다. 방 안 사람들은 오한에 떨었다. 그들은 미친 듯한 상상 속에서 한 인간이라기보다 일종의 초자연적 존재를, 동방 전설 속 정령을,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에 굶주린 파괴의 화신과도 같은 인도 신들 가운데 하나를 떠올렸다.

다른 도둑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수장의 그림자 속에 묻혀, 하찮은 조연으로 사라져 버렸다.

가장 감동적인 증언은 케셀바흐 부인의 것이었다.

모두의 놀라움을 넘어, 뤼팽조차 깜짝 놀랐다. 판사의 소환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은신처조차 알 수 없던 돌로레스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과부로서,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분명히 지목하는 거부할 수 없는 증언을 하러 법정에 섰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본 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바로 저자가 비뉴 거리에 있는 제 집에 침입했습니다. 저자가 저를 납치했고, 저자가 저를 브로칸테르의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저자를 알아봅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틀 뒤, 루이 드 말라이히, 일명 레옹 마시에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의 존재감이 너무도 강렬해서, 말하자면 공범들의 개성까지 삼켜버릴 지경이었다. 덕분에 공범들은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루이 드 말라이히, 할 말이 없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뤼팽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의문만 풀리지 않은 채 남았다. 왜 말라이히는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을까?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뤼팽은 곧 그 답을 듣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공포에 질려 숨이 턱 막히고, 절망에 빠지며, 치명상을 입은 채로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바로 눈앞이었다.

당분간 그는 말라이히 사건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물론 그 생각이 이따금 머릿속을 스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는 '새 출발'을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케셀바흐 부인과 주느비에브의 안위에 안심하며, 멀리서 두 사람의 평온한 삶을 지켜보았다.

또한 펠덴츠로 보낸 장 두드빌에게서, 독일 궁정과 되퐁-펠덴츠 섭정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모든 협상 소식을 빠짐없이 전해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모두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썼다.

케셀바흐 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그에게 새로운 야망과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감정 한가운데에는, 그 자신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채 돌로레스의 모습이 뒤섞여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는 자신을 위태롭게 할 만한 모든 증거를,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워냈다.

그는 옛 동료들에게 각각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건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남미로 떠난다고 알렸다.

어느 날 아침, 밤새 꼼꼼히 생각하고 상황을 깊이 분석한 끝에 그는 외쳤다.

"끝났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늙은 뤼팽은 죽었다. 이제 젊은 뤼팽이 나설 차례다."

그때 독일에서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기다리던 결말이었다.

베를린 궁정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던 섭정 회의는 이 문제를 대공국의 유권자들에게 부쳤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다시 섭정 회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오래된 펠덴츠 왕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표명했다.

발데마르 백작은 귀족, 군대, 법조계를 대표하는 세 명의 위임자와 함께 브루겐 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헤르만 4세 대공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다음 달 초쯤에 있을 선조들의 공국으로의 성대한 입성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대공과 함께 마련해야 했다.

"이번에는 됐다. 케셀바흐 씨의 거대한 계획이 실현되는군. 이제 할 일은 피에르 르듀를 발트마르에게 먹이는 것뿐. 아이 장난이나 다름없

어. 내일 제네비브와 피에르의 혼례 공고가 올라가고, 발트마르에게는 대공의 약혼녀가 소개될 테니까."

기분이 좋았던 그는 자동차를 몰아 브뤼겐 성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며, 운전사에게 말을 걸었다.

"옥타브, 네가 모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니?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네. 그래, 친구, 놀랐지? 당연하지. 진실이야. 내가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그는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정말 오래 걸렸군.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하지만 내가 치른 그 어떤 격전보다도 치열한 전쟁이었어. 원, 세상에, 정말 거인들의 전쟁이로군!"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끝났어. 적들은 이미 물러났다. 목표와 나 사이에 더 이상 장애물은 없다. 터는 이미 닦여 있으니, 이제 건물을 지으면 돼. 자재는 손에 잡히고, 일꾼도 있다. 지어보자. 뤼팽! 이 궁전이 너의 품격에 어울리길 바란다."

그는 좀 더 눈에 띄지 않게 도착하려고 성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옥타브에게 말했다.

"20분 뒤, 네 시에 들어가서 내 짐을 공원 끝의 작은 오두막으로 가져다놔. 내가 살 곳은 바로 거기로 정했어."

길 첫 꺾임에서 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리수나무가 늘어선 어두운 길 끝자락에 우뚝 선 성이었다. 멀리서 그는 현관에서 지나가던 제네비브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제네비브, 제네비브." 그는 다정하게 중얼거렸다. "제네비브……. 죽어가는 어머니께 내가 한 맹세도 이루어지고 있군. 제네비브, 대공비로……. 그리고 나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 곁에서 그녀의 행복을 지키며 뤼팽의 원대한 계획을 이어가고 있지."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길 왼쪽에 서 있는 나무 무리 뒤로 재빨리 몸을 숨긴 뒤, 두꺼운 수풀을 따라 성으로 향했다. 덕분에 거실이나 주요 방 창문에서는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돌로레스를 그녀가 자신을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싶었다. 제네비브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여러 번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그 자신조차 놀랄 만큼의 감동이 담겨 있었다.

"돌로레스… 돌로레스…"

그는 숨죽인 발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어서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일방향 거울이 있어, 방 안에서는 살롱의 절반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았다.

돌로레스는 긴 의자에 누워 있었고, 피에르 르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15장

피에르 르듀는 돌로레스를 사랑했다.

이것은 뤼팽에게 깊은 고통이었다. 날카롭고도 격렬한 아픔이었다. 마치 그의 인생 그 자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찔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 고통이 너무 컸기에, 그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깨달았다. 돌로레스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의식하지 못한 채 점차 그 자리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피에르 르듀는 돌로레스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듯 그녀를 응시했다.

뤼팽의 가슴속에서 맹목적이고 광적인 살의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 시선, 그 젊은 여자를 향하는 사랑의 눈빛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젊은 남녀를 감싼 거대한 고요함을 느꼈다. 그 정적 속에서, 모든 자세가 멈춘 그 순간, 살아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랑의 눈빛뿐이었다.

눈으로 전하는 그 침묵의 노래, 그 관능적인 찬가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쏟는 모든 열정과 갈망과 열광과 격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케셀바흐 부인도 보았다. 돌로레스의 눈은 내리깐 속눈썹 아래로 보이지 않았다. 길고 검은 속눈썹이 드리운 부드러운 눈꺼풀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선을 더듬어 찾는 그 사랑의 눈빛을 얼마나 또렷이 느꼈던가! 그 만질 수 없는 애무 아래에서 그녀는 얼마나 떨었던가!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를 사랑한다고, 뤼팽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질투에 불타는 마음이었다.

피에르가 손을 움직이자, 뤼팽은 소리쳤다.

"저 비루한 놈, 만일 그녀를 건드리려 한다면, 내가 죽이겠어."

이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면서도, 그는 그 충동을 억누르려 애썼다.

'내가 얼마나 바보인가! 뤼팽, 네가 어찌 이런 식으로 자제력을 잃다니! 자, 잘 들어라.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분명히 그렇다. 네가 그녀의 눈빛에서 네가 다가올 때의 동요를 읽어냈다고 생각했지? 그게 전부야. 정말 바보 같은 놈이로다. 하지만 너는 뭐니 뭐니 해도 뤼팽, 네가 하는 일은 도둑질일 뿐이다. 반면 그는 공작이고, 젊다.'

피에르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떨렸고, 돌로레스가 깨어나는 듯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녀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고개를 약간 돌렸고, 그녀의 눈은 젊은이의 눈과 마주쳤다. 바로 그 눈,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맡기며, 어떤 입맞춤보다도 깊은 그 눈으로.

순간이었다. 천둥 치듯 갑작스럽게.

뤼팽이 세 번의 도약으로 거실로 뛰어들었다. 젊은이에게 달려가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경쟁자의 가슴 위에 무릎을 꿇고, 흥분한 채 케셀바흐 부인을 향해 외쳤다.

"당신은 모른다는 말이오? 그 배신자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 그리고 당신은 그를 사랑한다니! 그가 대공이라도 된 줄 아시오? 아, 정말 재미있군!"

그는 분노에 찬 비웃음을 터뜨렸다. 돌로레스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공이라니, 하!"

"헤르만 4세, 도이치폰츠펠덴츠 공작! 통치 공작이요! 대선제후라니! 웃음이 나오네. 그 사람이? 그자의 이름은 보프레, 제라르 보프레야. 방랑자 중에서도 가장 못난 자지. 내가 진흙탕에서 건져 올린 거지 한 명일 뿐이야. 대공? 내가 그를 대공으로 만들어 준 건데!"

"아하하, 정말 재미있군. 그자가 새끼손가락을 자르다가 세 번이나 기절했던 꼴을 봤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겁쟁이였지."

"그래, 네가 여주인들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주인에게 반항했지. 기다려 봐, 도이치폰츠펠덴츠의 대공이여."

그는 그를 팔에 안아 올렸다. 마치 한 뭉치의 짐을 들 듯이. 잠시 흔들더니, 열린 창문 너머로 던져 버렸다.

"장미 덤불에 주의해, 대공이여. 가시가 있으니까."

그가 돌아서자, 돌로레스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으로 그녀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증오와 분노로 타오르는 여인의 눈빛이었다.

이게 돌로레스가 맞을까? 연약하고 병약한 돌로레스이던가?

그녀가 더듬거렸다.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거죠? … 감히 이런 짓을? … 그리고 그는요? … 그래서, 정말인 거죠? … 그가 저를 속였다는 말이에요?"

"그가 속였다고?!" 뤼팽이 외쳤다. 그는 여인의 수치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속였다고? 그가 대공이라고? 그는 내가 줄을 쥐고 놀리던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했어. 내 마음대로 곡을 연주하려고 조율해 둔 악기였다고! 아, 미련한 놈! 미련한 놈!"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발을 구르고, 열린 창문 쪽으로 주먹을 내밀었다. 그리고 방 안을 이쪽저쪽 왔다 갔다 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생각의 격렬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바보 같은 놈! 내가 바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나? 아, 그 역할은 내가 강제로라도 그놈의 머리통에 박아넣어야겠군. 고개를 들어라, 멍청이! 내 의지로 네가 대공이 될 거야. 통치 공작으로! 연금도 받고, 털어먹을 백성도 있고, 샤를마뉴가 다시 지어줄 궁전도 있을 거야. 그리고 주인은 바로 나, 뤼팽이지. 이해됐나, 멍청이? 고개를 들어, 천하의 놈아, 더 높게! 하늘을 바라보라. 호엔촐레른 가문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도 도이치폰츠펠덴츠 가문 사람이 도둑질로 교수형당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넌 도이치폰츠펠덴츠 가문 사람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뤼팽이 말이다. 그리고 넌 대공이 될 거야. 종이 공작이냐고? 그래, 종이 공작이더라도 상관없어. 내 숨결로 생기를 불어넣고, 내 열정으로 타오르는 공작이 될 테니까. 인형? 좋아. 하지만 내 말을 대신하고, 내 몸짓을 따라 하고, 내 의지를 실행하며, 내 꿈을 실현할 인형이 될 테니까… 그래, 내 꿈을."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꿈속에서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눈이 부셔 꼼짝도 못 하는 듯했다.

그가 돌로레스에게 다가섰다.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어딘지 신비로운 열정이 섞여 있었다.

"제 왼쪽에는 알자스-로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덴,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그리고 남독일이 있죠. 어설프게 결합된 이 나라들은 불만에 차 있고, 프로이센의 샤를마뉴가 발로 짓밟아 억눌려 있지만,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힌 채 저마다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그 한가운데 선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열망을 깨우고, 어떤 증오를 불어넣고, 어떤 반란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다시 한 번, 더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알자스-로렌이 있군! 이해가 되나? 꿈 따위야, 별일 아니지. 내일, 그다음 날의 현실이 바로 그곳이야. 응, 내가 원해. 내가 원하고, 내가 해낼 일은 세상에 전례가 없을 거야.

상상해 봐, 국경에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곳. 독일 땅 한복판. 오래된 라인 강 근처. 약간의 술수와 재능만 있다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어. 재능? 나는 넘쳐. 하나쯤은 남을 만큼 가지고 있지.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지휘하는 자가 될 거야. 다른 이는 가짜 인형, 명성과 영예만 차지하게 하고. 나는 권력을 쥘 거야.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거야. 고위직은 필요 없어. 장관도, 궁정 관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 궁중 하인 중 한 명이 될 거야. 아마도 정원사쯤? 응, 정원사.

상상해 봐, 그토록 놀라운 삶! 꽃을 가꾸면서 유럽 지도를 바꿔 버리는 거야!"

그녀는 그 남자의 기세에 압도되고 굴복한 채 그를 열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 경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젊은 여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그 꿈은 현실로 인해 더 크게 넘어서질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카이저는 이미 제 실력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단단히 버티고 선 저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패는 모두 제 손안에 있습니다… 발랑글레는 저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승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돌로레스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끝없는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뒤흔들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것도 또렷이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의 본모습으로, 즉 도둑이나 강도로 비치지 않는다고 느꼈다.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그리고 그 사랑이 다정한 영혼 깊은 곳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흔들어 놓는 한 남자로서 비친다고 느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입 밖에 내지 않은 채로, 모든 다정함과 흠모의 말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는 벨덴츠에서 멀지 않은 어딘가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전능한 존재로 함께 보낼 수 있을 삶을 그려 보았다.

긴 침묵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윽고 그녀는 일어나 부드럽게 말했다.

"제발 가 주세요. 떠나 주시길 간청합니다… 피에르는 제네비에브와 결혼할 거예요. 그건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나는 게, 여기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발 가 주세요. 피에르는 제네비에브와 결혼할 거예요…"

그는 잠시 기다렸다. 아마도 그는 더 정확한 말을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는 눈이 부시고 취한 듯한 기분으로, 복종하여 자신의 운명을 그녀의 운명에 맡긴다는 데 큰 행복을 느끼며 물러났다.

그가 문으로 향하던 길에 낮은 의자가 가로막아 옮겨야 했다. 그런데 그의 발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작은 주머니 거울이었다. 흑단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된 이니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그는 흠칫 놀라 급히 그 물건을 주웠다.

그 문양은 서로 얽힌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L과 M이었다.

L과 M!

“루이 드 말레이크.” 그는 몸을 떨며 말했다.

그는 돌로레스를 향해 돌아섰다.

“이 거울은 어디서 났습니까? 누구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을 집어 들여다보았다.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하인 것이겠죠.”

“사실 하인 것이긴 하겠지만, 너무 기묘한 일이군요. 여기엔 우연의 일치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살롱 문이 열리며 제네비에브가 들어왔다. 그녀는 가리개 뒤에 숨어 있던 뤼팽을 보지 못한 채 곧장 외쳤다.

“어! 당신 거울이 여기 있었네요, 돌로레스. 그래 찾으셨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찾으러 다니게 하시더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

“아, 정말 잘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바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알려둘게요.”

뤼팽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당황한 나머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왜 돌로레스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 거울에 대해 즉시 해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그는 반쯤은 넘겨짚듯 물었다.

"당신은 루이 드 말레이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마치 그를 짓누르는 생각들을 헤아려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극도의 동요에 휩싸여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를 알았다고요? 누구였죠?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어디서 그를 알게 됐죠? 말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생각해 보세요! 루이 드 말레이크, 그 살인자! 그 괴물 말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이번엔 그녀가 뤼팽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으세요, 절대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는 결코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저와 함께 죽을 비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예요. 맹세합니다…"

그는 몇 분 동안 그녀 앞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어지러운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슈타인베그의 침묵이 떠올랐다. 그가 끔찍한 비밀을 밝히라고 요구했을 때, 노인의 얼굴을 뒤덮던 공포도 기억났다. 돌로레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입을 닫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바깥 공기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공원 담장을 넘어, 오랫동안 시골길을 헤매며 걸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벌써 몇 달이고 몇 달째다. 나는 줄곧 분주히 싸우고 움직이며 내 계획의 실행에 동원되어야 할 모든 인물을 줄 끝에 매달아 춤추게 해 왔다. 하지만 그 사이 나는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나는 피에르 르뒤크를 모른다. 제네비에브를 모른다. 돌로레스를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그저 꼭두각시처럼 다뤘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가 발로 땅을 차며 외쳤다.

"존재하지도 않는 장애물 때문이라니! 제네비에브와 피에르의 심정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그건 나중에, 벨덴츠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 뒤에 살펴볼 일이지. 하지만 돌로레스는…! 그녀는 말레이크를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일까? 두 사람은 어떤 사이로 얽혀 있는 걸까? 그녀가 그를 두려워하는 걸까? 그가 탈옥해서, 자신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그 보복을 하러 올까 봐 겁내는 걸까?"

밤이 되자 그는 정원 깊숙한 곳에 따로 마련해 둔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몹시 언짢은 기분으로 저녁을 먹으며, 시중드는 옥타브가 너무 굼뜨다느니 너무 서두른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았다.

"이제 됐으니 나 혼자 있게 둬… 오늘 너는 실수만 하는구나… 그리고 이 커피는? 형편없군."

그는 반쯤 남은 잔을 내던지고, 두 시간 동안 공원을 거닐며 같은 생각만 곱씹었다. 마침내 하나의 가설이 그의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말레이크가 감옥에서 탈출했어. 그는 케셀바흐 부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이미 그녀에게서 거울 사건도 전해 들었을 거야…"

뤼팽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가 와서 네 발을 잡아끌겠지. 자, 내가 또 헛소리를 하는군. 자는 게 낫겠어."

그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 잠은 악몽으로 뒤척이는 무거운 잠이었다. 두 번이나 깨어나 양초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두 번 다 짓눌리듯 다시 쓰러져 잠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을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들린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는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 듯한 일종의 몽롱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꿈들이 그를 괴롭혔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감긴 눈꺼풀 너머, 짙은 어둠을 뚫고 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그 형체가 그의 위로 몸을 굽혔다.

그는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려 바라볼 힘을 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했다고 상상했다. 정말로 본 것일까, 아니면 꿈속일 뿐일까. 그는 절박하게 자문했다.

또 한 번 소리가 났다.

누군가 옆에 놓인 성냥갑을 집어 들고 있었다.

'이제야 보게 되겠군.'

그는 큰 기쁨을 느꼈다.

성냥이 그어졌다. 촛불이 켜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뤼팽은 피부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그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멎어 버렸다.

남자가 바로 거기 있었다.

가능한 일일까? 아니, 아니… 그런데도 그는 보고 있었다. 오,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 남자, 그 괴물이 바로 거기 있었다.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뤼팽이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그 남자, 그 괴물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가면을 쓴 채, 부드러운 모자를 금발 머리 위로 눌러쓰고 있었다.

"아, 꿈이야… 꿈이라고." 뤼팽이 웃으며 말했다. "악몽일 뿐이야…"

그는 온 힘과 의지를 다해 이 망령을 쫓아낼 단 하나의 몸짓이라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다. 그 커피 잔! 그 음료의 맛이… 벨덴츠에서 마셨던 커피 맛과 똑같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안간힘을 썼지만, 이내 기진하여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혼몽 속에서도 그는 그 남자가 셔츠 윗부분을 풀어 헤쳐 목을 드러내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손이 단검 손잡이를 꽉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 작은 강철 단검이었다. 케셀바흐 씨를 비롯해 채프먼, 알텐하임,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사람을 찔렀던 바로 그 칼과 닮은 것이었다.

몇 시간 뒤.

뤼팽은 지친 몸에 입안이 쓴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

몇 분 동안 정신을 가다듬던 그는, 문득 기억이 떠오르자 마치 공격이라도 받은 듯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내가 바보지!"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악몽이었어. 환각이었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일이야. 만약 그게 정말 그자였다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간밤에 내게 팔을 들어 올렸다면, 나는 닭 모가지처럼 목이 따였을 거야. 그자는 망설이는 법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따져 보자. 왜 나를 살려 뒀겠어? 내 잘생긴 눈이 예뻐서? 아니야, 그냥 꿈을 꾼 거야. 그게 다야."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고, 더없이 침착한 척하며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마룻바닥에도, 창틀 위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1층에 있었고 창문을 열어 둔 채 잤으니, 침입자가 그리로 들어왔으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외벽 아래, 별장을 둘러싼 길가의 모래 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하지만……."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는 옥타브를 불렀다.

"어젯밤 네가 나에게 준 커피, 어디서 내렸지?"

"두목, 성에서요. 다른 것들 다 그렇듯 말입니다. 여기엔 화덕이 없어요."

"너도 그 커피를 마셨니?"

"커피포트에 있던 건 다 버렸고?"

"물론이지요, 두목. 너무 맛이 없어서요. 두목께서도 몇 모금밖에 못 드셨잖아요."

"좋아. 자동차를 준비해라. 출발한다."

뤼팽은 미궁에 빠진 채로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돌로레스와 단호하게 매듭짓고 싶었다. 하지만 그전에, 아직 흐릿해 보이는 몇 가

지 점을 명확히 하고, 벨덴츠에서 이상한 정보를 보내온 두드빌을 만나야 했다.

그는 단숨에 차를 몰게 해 대공국으로 향했고, 오후 두 시쯤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발데마르 백작을 만나, 어떤 구실을 대며 섭정부 대표단의 브루겐 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벨덴츠의 한 선술집에서 장 두드빌을 다시 만났다.

두드빌은 그를 다른 선술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허름한 차림의 자그마한 신사를 소개했다. 신분등록부 기록 보관소 직원인 슈토클리 씨였다.

대화는 길게 이어졌다.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와, 시청 사무실들을 슬그머니 지나쳤다.

일곱 시, 뤼팽은 저녁을 먹고 다시 출발했다.

열 시, 그는 브뤼겐 성에 도착해 제네비브를 찾았다. 그녀와 함께 케셀바흐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에르몽 양이 할머니의 전보를 받고 파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그렇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케셀바흐 부인은 만날 수 있나?"

"부인은 저녁 식사 직후 곧바로 물러가셨습니다. 지금쯤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 방금 부인의 규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나를 만나 줄 거야."

게다가 그는 케셀바흐 부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하녀의 뒤를 거의 따르다시피 규방에 들어서서는 하녀를 내보내고, 돌로레스에게 말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인. 매우 급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방문이 성가시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설명을 미루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들어오기 직전, 그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느꼈던 터였다.

그러나 돌로레스는 혼자였고, 길게 누워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내일로 미뤄도… 됐을 텐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여인의 규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 어떤 냄새, 담배 냄새 때문이었다. 그리고 곧장 그는 직감했다. 확신했다. 자신이 들어오던 순간 한 남자가 그 방에 있었고,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피에르 르뒤크? 아니다, 피에르 르뒤크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돌로레스가 중얼거렸다.

"이제 끝냅시다, 제발요."

"네, 네. 하지만 그전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말을 멈췄다. 굳이 물어봐야 할까? 정말로 누군가 숨어 있다면, 그녀가 그 사실을 알려줄 리 있겠는가?

결국 그는 마음을 정했다. 낯선 존재가 곁에 있다는 데서 오는 두려운 거북함을 억누르며, 오직 돌로레스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 보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돌로레스?"

그는 그 이름을 아주 부드럽게 불렀다. 마치 목소리에 담은 우정과 다정함으로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듯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가 물었다.

"벨덴츠 신분등록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독일에 정착한 말라이히 가문의 마지막 후손들 이름이죠…"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먼저 라울 드 말라이히. 가명인 알텐하임으로 더 잘 알려진, 상류 사회의 악당이자 뒷골목 깡패였죠. 지금은 살해당해 죽었고요."

"다음은 루이 드 말라이히. 그 괴물, 끔찍한 살인자죠. 며칠 뒤면 단두대에 오를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친 여인 이실다."

"이 모든 게 확실히 밝혀진 사실이죠?"

"자, 보시오." 뤼팽이 그녀에게 몸을 더 기울이며 말했다. "방금 내가 직접 한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세 이름 중 두 번째 이름 '루이', 정확히는 그 이름이 적힌 줄 부분이 예전에 긁어 지워진 적이 있었소. 그 줄에는 훨씬 더 새 잉크로 쓴 새 글씨가 덧씌워져 있지만, 그 아래에 적혀 있던 것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 그래서…"

"그래서요?" 케셀바흐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좋은 돋보기와, 무엇보다 내가 가진 특수한 방법을 써서, 지워진 음절 몇 개를 되살려 냈소. 오해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옛 글씨를 복원할 수 있었지.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건 '루이 드 말라이히'가 아니야. 그건…"

"아,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너무 오래 버티려 안간힘을 쓴 탓에 갑자기 무너진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허리를 반으로 꺾고, 경련하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뤼팽은 그 나른하고 가녀린 여인을, 그토록 가엾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다물고, 그녀에게 가하는 그 고통스러운 심문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녀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녀를 구하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이런 위조를 한 겁니까?"

"제 남편이에요. 저의 남편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에게는 재력이 있었으니 뭐든 다 할 수 있었죠. 우리 결혼하기 전, 그는 하급 직원에게 부탁해서 등록부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성별도요." 뤼팽이 말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군요. 원래 이름, 진짜 이름은 돌로레스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왜 당신의 남편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붉어지자, 속삭이듯 말했다.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몸서리치며 말했다. "저는 미친 여자 이실다의 자매였고, 강도 알텐하임의 자매였어요. 제 남편, 아니 당시 약혼자였던 그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사랑했죠. 저도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는 등록부에서 '돌로레스 드 말라이히'를 지워 버리고, 다른 서류와 새로운 신원,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사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에서 다른 처녀 적 이름, 돌로레스 아몬티로 결혼했죠."

뤼팽은 잠시 생각에 잠겨 천천히 말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루이 드 말라이히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고, 당신 남편과 당신 자매와 형제를 죽인 살인자의 이름도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자의 이름은…"

그녀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다급하게 말했다.

"이름이요! 네, 그 이름이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게 그자의 이름이에요… 루이 드 말라이히, L과 M... 기억해 두세요… 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끔찍한 비밀이에요… 게다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범인은 저기 있어요… 바로 그자가 범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면전에서 그를 고발했을 때, 그가 변명이라도 하던가요? 그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든, 그가 발뺌할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자예요… 그자예요… 그가 죽였어요, 내리쳤어요… 단도로… 강철 단

도로… 아, 모든 걸 다 말할 수만 있다면!… 루이 드 말라이히… 제가 말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신경 발작을 일으키며 긴 의자 위에서 몸부림쳤다. 그녀의 손은 뤼팽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사이로 더듬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어쩌면 당신만이… 아,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아, 이 고통… 이 고통이라니!…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는 자유로운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과 이마를 한없이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 그녀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차츰 진정되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는 이 맑고 깨끗한 이마 뒤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비밀이 이 신비로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자문했다. 그녀 역시 두려웠던 걸까? 그렇다면 누구를? 누구로부터 자신을 지켜 달라고 애원한 것일까?

또다시 그는 검은 남자의 모습에, 그 루이 드 말라이히에게 사로잡혔다. 어디서 공격이 날아오는지, 심지어 공격이 일어나기는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막아내야 하는,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적에게.

그가 감옥에 갇혀 밤낮으로 감시받은들 그게 무슨 대수랴! 뤼팽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감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인간들이 있고, 그들은 운명의 순간이 오면 제 사슬을 끊고 풀려난다는 것을. 루이 드 말라이히도 그런 부류였다.

그렇다, 상테 형무소의 사형수 감방에 누군가 갇혀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자는 말라이히의 공범이거나, 말라이히의 또 다른 희생자일 수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말라이히 본인은 브뤼겐 성 주변을 배회하며, 어둠을 틈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숨어들고, 공원의 별장에 침입해서는, 밤이면 잠들어 마비된 뤼팽 위로 단도를 치켜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주체는 루이 드 말라이크였다. 그는 돌로레스를 공포에 떨게 했고, 협박으로 그녀를 미칠 듯 두렵게 만들었으며, 어떤 끔찍한 비밀로 그녀를 옭아매 침묵과 복종을 강요했다.

뤼팽은 적의 계획을 그려 보았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돌로레스를 피에르 르뒤의 품에 떠밀어 넣은 뒤, 그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즉 뤼팽을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곳에서 대공의 권력과 돌로레스의 수백만 프랑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다.

이 추측은 매우 그럴듯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이 가설은 일어난 일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었다.

'모든 문제를?' 뤼팽이 반문했다. '그래…… 하지만 그렇다면 왜 어젯밤 오두막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을까?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지. 그런데 그는 그 동작을 하지 않았어. 왜일까?'

돌로레스가 눈을 떴다. 그를 보더니,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절 좀 내버려 두세요."

그가 망설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튼 뒤로 적이 숨어 있거나, 옷장 속 옷들 뒤에 숨어 있을까?

돌로레스가 다시금 부드럽게 말했다.

"가세요. 제가 잠들게요."

그는 돌아섰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성 정면의 나무 그늘 아래서 발걸음을 멈췄다. 돌로레스의 작은 거실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다. 곧 그 빛이 침실로 옮겨갔다. 몇 분 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그는 기다렸다. 만약 적이 안에 있다면, 성을 빠져나올지도 모른다.

한 시간이 흘렀다. 두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군.'

뤼팽은 생각했다. '아니면 성 안의 어딘가에 숨어 있고, 아니면 내가 볼 수 없는 문으로 빠져나갔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과잉 반응한 걸까.'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오두막으로 돌아섰다.

오두막에 다가서자, 멀리서 한 그림자가 오두막에서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경보를 울릴까 봐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그림자가 길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불빛 아래에서 뤼팽은 말라이크의 검은 실루엣을 알아본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달려나갔다.

그림자는 도망쳐 사라졌다.

'그래, 내일로 미루자. 이번엔…'

뤼팽은 옥타브의 방에 들어가 운전기사를 깨우며 명령했다.

"차로 가게. 아침 여섯 시면 파리에 도착할 거야. 자크 두드빌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게. 첫째, 사형수에 관한 소식을 내게 알려 줄 것. 둘째, 우체국이 문을 열자마자 이런 내용으로 전보를 칠 것."

그는 종이 조각에 전보 내용을 적은 뒤 덧붙였다.

"임무를 마치면 돌아오게. 단, 이쪽으로, 공원 담장을 따라 돌아서 들어오게. 자네가 자리를 비운 걸 누가 눈치채면 안 돼."

뤼팽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손전등 스프링을 작동시킨 뒤, 꼼꼼한 조사를 시작했다.

‘바로 그거야.’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지난밤, 내가 창문 아래에서 망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왔어. 누군가 왔다면 그 의도쯤은 짐작이 가지. 확실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바짝 다가선 거야. 이번엔 내 작은 칼끝이 틀림없이 명중할 거야.’

신중을 기해 그는 담요를 챙겨 공원 한구석, 남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자리를 골랐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잠들었다.

오전 열한 시쯤, 옥타브가 그를 찾아왔다.

“다 끝냈습니다, 주인님. 전보도 보냈습니다.”

“좋아. 루이 드 말라이크는 아직 감옥에 있나?”

“네, 여전히요. 두드빌이 어젯밤 상테 형무소에서 그의 감방 앞을 지나갔답니다. 간수가 막 나오던 참이었죠. 둘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말라이크는 여전하답니다. 잉어처럼 입을 다문 채 그저 기다리고 있다는 군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지?”

“운명의 시간이죠, 당연하죠! 경찰청에서는 사형이 모레 집행된다고 합니다.”

“잘됐어, 아주 잘됐어.” 뤼팽이 말했다. “가장 분명한 건, 그가 탈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그는 더 이상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진실이 곧 자신에게 온전히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만큼 강하게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적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지.' 그는 웃으며 생각했다.

그는 매우 명랑했고 마음은 더없이 홀가분했다. 그에게 이번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저택에서 하인이 전보 한 통을 가져왔다. 뤼팽이 두드빌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던 그 전보로, 우편배달부가 방금 두고 간 것이었다. 그는 전보를 뜯어 본 뒤 주머니에 넣었다.

정오가 조금 못 된 때였다. 그는 오솔길에서 피에르 르뒤를 만나, 서론도 없이 곧장 물었다.

"널 찾고 있었어. 아주 심각한 일이야. 솔직하게 대답해 줘. 네가 이 성에 온 이후로, 내가 배치한 독일인 하인들 말고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있니?"

"잘 생각해 봐.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숨어 지내는 남자, 네가 그 존재를 확인했거나, 그게 아니라도 어떤 단서나 느낌으로 그 존재를 의심한 적이 있는지 묻는 거야."

"아니요…… 혹시 당신께서……?"

"그래. 누군가 여기 숨어 있어. 누군가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어. 어디에? 누구지? 무슨 목적으로? 나도 몰라. 하지만 알아낼 거야. 이미 짐작 가는 데가 있어. 너도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 줘. 그리고 무엇보다, 켈스바흐 부인께는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마. 그녀를 불안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는 자취를 감췄다.

피에르 르뒤는 경악한 나머지, 심정이 요동친 채 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다.

길가 잔디밭 위에는 파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구겨져 던져진 휴지가 아니라, 정성껏 접은 전보지였다. 분명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받는 이는 '메오니 씨'였다. 브뤼겐에서 뤼팽이 쓰던 이름이었다. 전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서신으로는 밝힐 수 없다. 오늘 밤 기차를 타겠다. 내일 아침 8시, 브뤼겐 역에서 만나자.'

"완벽해." 뤼팽이 생각했다. 그는 가까운 덤불 속에서 피에르 르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2분만 지나면 저 멍청한 녀석이 돌로레스에게 전보를 보여 주고, 내가 한 모든 걱정을 그대로 전하겠지. 둘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그자가 듣게 될 거야. 그자는 알게 되겠지.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돌로레스의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자니까. 돌로레스는 매혹된 먹이처럼 그의 손아

귀에 잡혀 있어.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움직일 거야. 나에게 폭로될 그 비밀이 두려워서."

그는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밤… 오늘 밤… 춤을 추겠지… 오늘 밤… 친구들, 이 무슨 왈츠인가! 니켈 도금된 작은 단검의 선율에 맞춘 피의 왈츠라니. 자, 드디어! 우리 한바탕 웃어 보자고."

별채 문 앞에서 그는 옥타브를 불렀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몸을 던지며 운전사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 앉아, 옥타브. 졸지 마라. 주인이 잠시 쉴 테니, 그를 잘 지켜라, 충실한 하인이여."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아우스테를리츠 전투 날 아침의 나폴레옹 같군." 깨어나며 그가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그는 배불리 식사를 한 뒤, 담배를 피우며 무기를 점검했다. 권총 두 자루의 탄환을 갈아 끼웠다.

"화약은 마르게, 칼날은 날카롭게. 내 친구 카이저가 하던 말이지… 옥타브!"

옥타브가 달려왔다.

"성으로 가서 하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라. 오늘 밤 자동차로 파리에 간다고 알려라."

"주인님과 함께 가시는 건가요?"

"아니, 혼자 간다. 식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보란 듯이 정말로 떠나거라."

"하지만 저는 파리로 가지 않나요?"

"그래. 공원 밖, 도로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오래 걸릴 거야."

그는 또 한 대의 담배를 피우며 산책했다. 성을 지나칠 때, 돌로레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는 책을 하나 집어 들었다. '위인전'이었다.

"한 명 빠졌군. 그것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 하지만 미래가 있으니, 언젠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내 플루타르코스를 갖게 되겠지."

그는 '카이사르의 생애'를 읽으며 여백에 몇 가지 생각을 적어 두었다.

열한 시 반,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창문이 열린 채였다. 그는 몸을 기울여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은 맑고 울림이 있었으며, 어렴풋한 소리들로 온통 떨리고 있었다.

입가에 추억들이 맴돌았다. 그가 읽었거나 입에 담았던 사랑의 말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돌로레스'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고요 속에 털어놓기조차 감히 두려워하는 소년 같은 열정으로.

"그래, 준비하자."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길을 막던 작은 원탁을 치웠다. 그리고 베개 밑에 무기를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평온하게,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촛불을 껐다.

그리고 공포가 시작되었다.

순식간이었다. 그림자가 그를 감싸자마자, 공포가 시작되었다!

"젠장……!"

그가 침대에서 뛰어내려 무기를 집어 들고는, 복도로 던져 버렸다.

"내 손이다, 오직 내 손뿐! 내 두 손으로 움켜쥐는 것만 한 건 없지!"

그는 다시 누웠다. 또다시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공포가, 은밀하고 욱신거리며 온몸을 잠식해 오는 공포가 밀려왔다.

마을 시계가 열두 번을 쳤다……

뤼팽은 생각했다. 저쪽, 백 미터, 오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추악한 자가 채비를 하며, 날카로운 단검 끝을 시험해 보고 있으리라고……

"와라……! 와라!" 그는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다. "오기만 하면…… 이 환영들도 사라질 테니……"

마을 시계가 한 시를 알렸다.

그리고 끝없는 시간이, 열에 들뜨고 불안에 찬 시간이 흘러갔다…… 땀방울이 머리카락 뿌리에 맺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피땀으로 젖어 드는 것만 같았다……

두 시가 되었다……

그때였다. 아주 가까운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미세한 소리가 떨리듯 일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였다. 하지만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아니었다.

뤼팽이 예상했던 대로, 그 순간 그의 안에는 즉각 거대한 평온이 깃들었다. 위대한 모험가로서의 본성이 온통 기쁨으로 떨렸다. 드디어, 싸움이었다!

창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났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약해서, 그것을 알아채려면 뤼팽의 단련된 귀가 필요했다.

몇 분이, 끔찍한 몇 분이 흘렀다. 어둠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었다. 별빛도 달빛도 그 어둠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도, 그는 그 남자가 방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았다.

그 남자가 침대로 걸어갔다. 그는 유령처럼 걸었다. 방 안의 공기를 흔들지 않고, 손에 닿는 물체조차 흔들지 않는, 기이한 보행이었다.

하지만 뤼팽은 자신의 모든 직감과 신경의 예리함을 총동원했다. 적의 손짓을 보고, 나아가 그 생각이 이어지는 순서까지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벽에 기대어 반쯤 무릎을 꿇은 채,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침대 시트를 살며시 더듬었다. 어디를 내려쳐야 할지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뤼팽은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었다. 더 나아가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자랑스러운 사실은, 자신의 심장은 평소처럼 고요했다는 점이다. 반면, 상대의 심장은 완전히 어지러웠다. 종의 추처럼 가슴벽을 강타하며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상대의 손이 들려졌다.

한 초, 두 초.

주저하는 걸까. 다시 한번 적을 용서할 것인가.

그 거대한 정적 속에서 뤼팽이 말했다.

"당장 내려쳐라! 내려쳐!"

분노의 비명이 터졌다. 팔이 용수철처럼 내려쳤다.

그리고 신음 소리가 들렸다.

뤼팽은 그 팔을 놓치지 않았다. 손목 높이에서 재빠르게 잡은 것이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위압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기세로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그리고 끝이었다. 몸싸움 따위는 없었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남자는 뤼팽의 두 손이라는 강철 리벳 두 개에 박힌 채 바닥에 못 박혀 있었다. 세상에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옥죔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한마디도 없었다. 뤼팽은 평소처럼 장난기 어린 너스레를 떨지 않았다. 입을 열 생각도 없었다. 순간이 너무도 엄숙했기 때문이다.

그는 허황된 기쁨도, 승리의 격앙도 느끼지 않았다.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거기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조바심뿐이었다. 사형수 루이 드 말라이히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남자를 목 졸라 죽일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그 목을 조금씩 더, 더, 더 세게 졸랐다.

그러자 적의 모든 기운이, 남아 있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팔의 근육이 풀리고 무력해졌다. 손이 벌어지며 단검을 떨어뜨렸다.

이제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적의 목숨은 그의 손가락이라는 끔찍한 죔쇠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손전등을 들어, 누르지는 않은 채 검지를 스프링에 갖다 댔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다.

이제 스프링을 누르기만 하면, 마음먹기만 하면 알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힘을 음미했다. 감정의 물결이 그를 밀어 올렸다. 승리의 환영이 그의 눈을 부시게 했다. 다시 한번, 그것도 당당하고 영웅적으로 그는 '지배자'가 되었다.

단번에 그가 불을 밝혔다. 괴물의 얼굴이 드러났다.

뤼팽이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돌로레스 케셀바흐!

제16장

뤼팽의 머릿속은 마치 태풍이, 사이클론이 휩쓰는 것 같았다.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며, 혼돈의 밤 속에서 미쳐 날뛰는 자연의 힘들이 격렬하게 풀려났다.

그리고 커다란 번개가 어둠을 후려쳤다. 그 번쩍이는 번갯빛 아래에서, 겁에 질린 뤼팽은 전율에 떨고 공포로 경련하며, 보려 하고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굳어버린 손가락이 더는 힘을 풀 수 없다는 듯, 적의 목을 움켜쥔 채였다. 게다가 이제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돌로레스라는 실감은 사실상 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검은 남자, 루이 드 말라이히, 어둠 속 추악한 짐승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승을 붙잡고 있었고, 결코 놓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의 마음과 양심에 돌진해 왔다. 패배한 그는 고통에 시달리며 중얼거렸다.

"오, 돌로레스… 돌로레스…"

그때 그는 변명거리를 바로 찾아냈다. 바로 '광기'였다. 그녀는 미쳐 있었다. 알텐하임과 이실다의 자매, 마지막 말라이히 가문의 딸, 정신 나간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본질적으로 미쳐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성은 온전해 보였지만, 사실은 균형이 무너진 환자였다.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정말로 괴물 같은 존재였다.

그는 단호하게 그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범죄의 광기'였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다가오는 목표를 집착하며, 피를 갈망하는 듯이, 무의식적이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죽여 갔다.

그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죽였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였다. 이미 저지른 살인을 감추기 위해 죽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그저 죽이기 위해 죽였다.

살인은 그녀 안에서 갑작스럽고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을 충족시켜 주었다. 삶의 특정 순간, 특정 상황, 혹은 특정 상대가 갑자기 적으로 돌변했을 때, 그녀의 팔은 반드시 내려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려쳤다. 분노에 취해, 사납게, 광란처럼.

이상한 광인이었다. 살인에 대한 책임은 없었지만, 그 맹목 속에서는 유난히도 선명했다. 혼란 속에서도 논리적이었고, 터무니없음 속에서도 지혜로웠다.

어떤 재주였는가. 어떤 끈기였는가. 저주스럽기까지 하지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치밀한 계략들은 무엇이었는가.

뤼팽은 짧은 순간에, 놀랍도록 날카로운 통찰의 시선으로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의 긴 연쇄를 보았고, 돌로레스가 걸어온 신비로운 길들을 헤아렸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남편의 계획에 사로잡히고 홀린 그녀를. 물론 그녀는 그 계획을 일부분만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 역시 남편이 쫓던 그 피에르 레두를 찾고 있었다. 그와 결혼하여, 부모가 치욕스럽게 쫓겨났던 그 작은 벨덴츠 왕국으로 여왕이 되어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팰리스 호텔에서, 그녀의 오빠 알텐하임의 방에서 보았다. 사람들이 그녀를 몬테카를로에 있다고 여기던 때였다. 며칠 동안이나 그녀가 남편을 염탐하며, 벽에 바짝 붙어, 어둠에 뒤섞여, 그림자 같은 변장으로 흐릿하게 눈에 띄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그는 보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박당한 케셀바흐 씨를 발견하고 칼로 내리쳤다.

아침이 되어 하인에게 정체를 들킬 뻔하자, 그녀는 또 내리쳤다.

한 시간 뒤, 채프먼에게 정체를 들킬 뻔하자, 그녀는 그를 오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내리쳤다.

그 모든 일을 자비 없이, 잔혹하게, 악마 같은 솜씨로 저질렀다.

그녀는 똑같은 솜씨로 두 하녀 게르트루드와 수잔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몬테카를로에서 막 도착한 참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둘 중 하나가 여주인(돌로레스)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로레스는 다시 여성용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주던 금발 가발을 벗어 던진 뒤 1층으로 내려가, 게르트루드가 호텔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와 합류했다. 그러고는 자기도 막 도착한 척, 자신을 기다리는 불행을 아직 모르는 양 꾸몄다.

비할 데 없는 연기자였던 그녀는 삶이 산산조각 난 아내를 연기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그녀를 위해 눈물 흘렸다. 누가 그녀를 의심했겠는가?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그와의, 뤼팽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야만적이고 전대미문의 전쟁을, 그녀는 르노망 씨와 세르닌 공작을 상대로 번갈아 치러냈다. 낮에는 긴 의자에 누워 병들고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지만, 밤이 되면 일어나 길을 내달렸다. 지칠 줄 모르고, 무시무시하게.

그것은 지옥 같은 술책이었다. 겁에 질려 길들여진 공범 게르트루드와 수잔이 번갈아 그녀의 밀사 노릇을 했고, 어쩌면 그녀처럼 변장도

했을 것이다. 늙은 스타인베크가 법원 한복판에서 알텐하임 남작에게 납치되던 그날처럼.

그것은 일련의 범죄였다. 구렐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녀의 오빠 알텐하임은 칼에 찔렸다. 오, 글리시나 빌라의 지하에서 벌어진 그 무자비한 싸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던 괴물의 짓이라니. 오늘에야 그 모든 것이 어찌나 또렷이 드러나는지!

그의 왕자 가면을 벗긴 것도 그녀였고, 그를 고발한 것도, 감옥에 처넣은 것도, 그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킨 것도 그녀였다. 그녀는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수백만 프랑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다. 수잔과 게르트루드가 사라졌다. 틀림없이 죽었으리라! 스타인베크가 살해되었다! 누이 이실다도 살해되었다!

"오! 비열하구나, 끔찍하구나!" 뤼팽이 혐오와 증오에 몸서리치며 더듬더듬 내뱉었다.

그는 그 끔찍한 생물을 증오했다. 짓밟고, 부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밤의 어둠과 섞이기 시작해 주변이 흐릿하게 밝아지던 그 순간,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은 채 움직이지 않고 쓰러져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돌로레스… 돌로레스…"

그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뒤로 펄쩍 물러섰다. 공포에 숨을 헐떡였고, 눈은 넋이 나가 있었다.

무슨 일일까? 대체 뭐가 생긴 거지?

그의 두 손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불쾌한 추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옥타브! 옥타브!"

그가 소리쳤다. 운전사인 옥타브가 없는 사실을 잊은 채였다.

도와줘야 해! 도움이 필요했다! 그를 안심시키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 그 추위. 바로 저 죽음의 추위를 그가 직접 느꼈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렇다면, 그 몇 분의 비극적인 시간 동안 그는 굳게 쥐고 있던 손가락으로……

그는 억지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돌로레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그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녀는 죽어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멍하니 마비된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속에서 고통은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분노도, 증오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저 멍청하게 무너진 느낌뿐이었다. 몽둥이로 강타를 당한 사람처럼, 자신이 아직 살아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몽에 갇힌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에게 뭔가 정의로운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범인이라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들지 않았다. 아니,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불변의 운명이 해로운 짐승을 제거하며 정의로운 일을 성취한 것이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노래를 불렀다. 봄이 꽃을 피우려던 오래된 나무들 아래에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뤼팽은 몽롱함에서 깨어나, 점차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고 터무니없는 연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불쌍한 여자에 대한 연민이었다. 물론 그녀는 혐오스럽고, 비열했으며, 스무 번은 더 죄를 지은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너무 젊었고,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겪었을 고통을 생각했다. 이성을 되찾은 순간, 그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미친 여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끔찍하게 떠올렸으니까.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그녀는 간청했다.

그녀가 지켜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였다. 야수 같은 본능으로부터, 그리고 그녀 안에 살면서 그녀를 강제로 죽이고 또 죽이게 만드는 그 괴물로부터.

'항상?'

뤼팽이 생각했다.

그는 그 이틀 전 밤을 떠올렸다. 칼을 들어 든 채, 수개월간 자신을 괴롭혀 온 적수 위에 서 있던 그녀. 끊임없이 자신을 모든 죄악으로 내몰던 그 적수 말이다.

그 밤,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

당연히 쉬웠을 일이었다. 적수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 단 한 번의 공격이면 끝이 나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 잔혹함보다 더 강한 감정에 굴복한 것이다. 자신을 자주 제압했던 그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동정과 존경의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운명의 놀라운 역설이 찾아왔다. 바로 그 남자가, 그녀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죽였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며 생각했다. '내 손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돌로레스였다. 돌로레스… 돌로레스…'

그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반복했다. 슬픔의 이름이었다. 그는 끝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도, 해를 끼치지도 않는 쓸쓸한 사체. 작은 나뭇잎 더미나, 길가에서 목이 베인 새처럼 의식조차 없는, 가엾은 살점 조각 같았다.

그가 연민으로 몸을 떨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살인자였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저 피해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돌로레스… 돌로레스… 돌로레스…'

해가 높이 뜨자, 그는 죽은 여인의 곁에 앉아 기억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입술은 가끔씩 비탄의 음절들을 뱉어냈다.

돌로레스… 돌로레스…

그래도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생각이 온통 무너져 내린 그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행동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먼저 눈부터 감겨주자.'

그렇게 생각했다.

아름다운 금빛 눈동자는 텅 비어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그 눈에는 여전히 그토록 큰 매력을 주던 우수에 찬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다.

믿기 어려웠다. 저 눈동자가 괴물의 것이었단 말인가?

부정하고 싶었다.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뤼팽은 두 존재를 한 인물로 합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둘의 모습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긴 눈꺼풀을 내려 감겼다. 그리고 경련하는 가엾은 얼굴을 천으로 덮어 가렸다.

그때 돌로레스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번엔 분명히, 그 옆에 있었다. 어두운 옷차림에 살인자의 분장을 한 채로.

그는 감히 그에게 손을 뻗어, 옷을 더듬어 만져 보았다.

안주머니에는 지갑 두 개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열었다.

먼저 늙은 독일인 슈타인벡의 서명이 적힌 편지가 나왔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내가 끔찍한 비밀을 밝히기 전에 죽게 된다면, 이것만은 알게 하라. 내 친구 케셀바흐의 살인자는 그의 아내다. 본명은 돌로레스 드 말라이크. 알텐하임과 이질다의 누이다."

'L'과 'M'은 그녀를 가리키는 글자다. 케셀바흐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아내를, 고통과 애도를 뜻하는 '돌로레스'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기쁨'이라는 뜻의 '레티시아'라 불렀다.

'L'과 'M', 즉 레티시아 드 말라이크가 그 이니셜이다. 케셀바흐가 아내에게 주던 모든 선물에는 이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예를 들어 팔라스 호텔에서 발견된, 케셀바흐 부인의 것이던 그 담배갑에도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담배 피우는 습관을 들였다.

레티시아! 그녀는 정말로 네 해 동안 그의 기쁨이었다. 네 해 동안의 거짓과 위선 속에서, 그녀는 그토록 선량하고 신뢰 가득하게 자신을 사랑해 준 남자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 나는 곧바로 말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이름을 물려받은 옛 친구 케셀바흐를 생각하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무서웠다… 법정에서 그녀의 정체를 폭로한 날,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내 사형 선고를 읽었다.

이 나약함이 나를 구해 줄까?"

뤼팽은 생각했다.

'그 사람도… 그녀가 그 사람마저 죽였구나! 그래, 당연하지, 그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니셜, 레티시아라는 이름, 담배를 피우는 비밀스러운 습관까지.'

그리고 그는 어젯밤을 떠올렸다. 방 안에 퍼져 있던 그 담배 냄새를.

그는 첫 번째 지갑을 계속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암호로 쓰인 편지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아마도 어두운 만남들 속에서 공범들이 돌로레스에게 건넨 것들이었으리라.

종이 조각들 위에는 주소들이 적혀 있었다. 재단사나 모자 상인의 주소도 있었지만, 음탕한 주막이나 형편없는 호텔 주소도 섞여 있었다. 이름들도 있었다. 스무, 서른 개나 되는 이상한 이름들. '도살자 엑토르', '그레넬의 아르망', '환자' 같은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뤼팽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마치 용수철이 터지듯 지갑을 떨어뜨리고는 방을 뛰쳐나갔고, 별장을 빠져나와 정원으로 내달렸다.

그는 루이 드 말라이크의 초상화를 알아봤다. 상테 형무소에 수감된 그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야 그는 기억해 냈다. 사형 집행이 내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즉 살인자가 다름 아닌 돌로레스였으니, 루이 드 말라이크는 정말로 레옹 마시에라는 이름의 무고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무고하다니?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 황제의 편지들, 그리고 그를 의심할 여지 없이 몰아세우던 모든 것들,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뤼팽은 잠시 멈춰 섰다. 머리가 불타는 듯했다.

"아, 나도 미쳐가는구나." 그가 외쳤다. "하지만 어쨌든 행동해야 해… 내일이 처형이야… 내일, 새벽녘에…"

그가 시계를 꺼냈다.

"열 시군. 파리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자, 곧 도착하겠지. 어차피 가야 해. 오늘 밤부터 조치를 취해야 해. 무고함을 증명하고, 처형을 막아내야 해. 그런데 어떻게? 뭘 해야 하지? 어차피 모르잖아. 파리에 가서 보자고. 내가 누구라고? 뤼팽이잖아. 일단 가보자."

그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며 외쳤다.

"피에르! 피에르 레듀 씨를 봤나? 아, 너 있구나. 들어봐."

그는 피에르를 옆으로 끌어내며, 끊기듯 격한 어조로 말했다.

"들어라. 돌로레스는 더 이상 여기 없다… 그래, 급한 일이 생겼지… 간밤에 내 차를 타고 떠났다… 나도 곧 떠난다… 입 다물어라! 한 마디

도 하지 마라… 1초라도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다. 너는 지금 바로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라. 이유 따위 설명하지 말고. 여기 돈이 있다. 반 시간 안에 성은 텅 비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너도 마찬가지다, 알겠지… 너도 들어오는 걸 금한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주마… 중대한 사정이 있다. 자, 열쇠를 가져가라… 마을에서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는 다시 달려 나갔다.

십 분 후, 그는 옥타브를 다시 만났다.

그는 차에 뛰어올랐다.

"파리로." 그가 말했다.

그 여정은 그야말로 죽음을 향한 질주였다.

뤼팽은 옥타브가 충분히 빨리 운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핸들을 잡았다. 속도는 어수선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빨랐다.

그들은 도로를 달리고, 마을을 지나고, 인파로 가득한 도시의 거리를 질주했다. 시속 백 킬로미터.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지만, 그 차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다.

"보스," 옥타브가 새파랗게 질려 더듬거렸다.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너는 그럴지도 모르지, 차도 그럴지도. 하지만 나는 도착할 거야." 뤼팽이 말했다.

뤼팽은 차가 자신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를 실어 나르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공간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힘은 무한했고 의지에는 한계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도착하지 못할 기적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는 도착할 거야. 도착해야만 하니까."

그는 거듭 중얼거렸다.

만약 제때 도착하지 못해 그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남자는 죽고 만다. 침묵을 고집하고 굳게 닫힌 얼굴 뒤로 모든 것을 감춘, 그토록 종잡을 수 없는 수수께끼의 인물 루이 드 말라이크.

도로의 소음, 거친 파도처럼 부딪치는 나뭇가지 소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울려 퍼지는 생각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뤼팽은 한 가지 가설을 세우려 애썼다.

그 가설은 조금씩 또렷해져 갔다. 논리적이었다.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동시에 명백했다. 돌로레스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리고 그 병든 영혼이 지닌 온갖 수단과 사악한 의도를 엿본 지금, 그 가설은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 바로 그녀가 말라이크를 상대로 가장 끔찍한 음모를 꾸민 장본인이야."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피에르 르두와 결혼해, 자신이 쫓겨났던 작은 왕국의 여왕이 되는 것.

그 목표는 충분히 이룰 수 있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하지만 장애물이 단 하나 있었다. 바로 나였다.

수주에 걸쳐 지칠 줄 모르고 그녀가 가는 길을 막아선 나.

그녀가 저지른 범죄마다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던 나.

그녀가 그 통찰력을 두려워한 나.

범인을 밝혀내고 황제에게서 훔친 편지를 되찾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나.

"좋아. 범인은 루이 드 말라이크, 혹은 레옹 마시에야. 레옹 마시에가 누구란 말인가? 그녀가 결혼 전에 그를 알았을까? 사랑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거다. 하지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 되겠지.

확실한 건, 그녀가 레옹 마시에와 외모와 자세가 얼마나 닮았는지 눈치챘다는 거야. 검은 옷을 입고 금발 가발을 쓰면, 그녀는 그와 똑같이 변장할 수 있었지.

그녀는 그 고독한 남자의 기묘한 삶을 관찰했을 거야. 밤마다 숨어 다니는 습관, 거리에서 걷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쫓는 자를 따돌리는 법까지.

그런 관찰을 바탕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녀는 케셀바흐 씨에게 조언했을 거야. 시민등록부에서 '돌로레스'라는 이름을 지우고 '루이'로 바꿔 넣으라고. 그래야 이니셜이 레옹 마시에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니까."

이제야 행동할 차례다. 그런데 그녀는 음모를 꾸미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레옹 마시에가 델라이즈망 거리에 산다? 그녀는 동조자들에게 평행 도로에 거점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녀가 집사 도미니크의 주소를 알려 주고, 일곱 명의 도둑 무리에 대한 단서를 건넸다. 그녀는 내가 단서를 쫓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일곱 명의 도둑을 넘어, 그 지휘관에게로. 그들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인물에게로. 검은 남자에게로. 레옹 마시에에게로. 그리고 루이 드 말라이크에게로.

사실, 나는 먼저 그 일곱 무리에게로 향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지든가, 아니면 서로를 죽이며 모두 파멸하든가. 비뉴 거리에서의 그날 밤 그녀가 바랐을 바로 그 일이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돌로레스는 나로부터 해방된다.

하지만 상황은 이렇게 전개된다. 일곱 명의 강도를 잡은 건 바로 나다.

돌로레스는 비뉴 거리에서 도망쳤다. 나는 브로칸테르의 창고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나를 레옹 마시에, 즉 루이 드 말라이크 쪽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나는 황제의 편지들을 발견했다. 그녀가 직접 숨겨 둔 편지들이었다. 나는 그를 법정에 넘겼고, 그녀가 두 창고 사이에 뚫게 한 비밀 통로도 고발했다. 그녀가 준비해 둔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가 위조한 문서들을 통해, 레옹 마시에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했으며 그 실체는 루이 드 말라이크임을 드러냈다.

루이 드 말라이크는 죽게 될 것이다.

드디어 돌로레스 드 말라이크는 승리를 거두었다. 모든 의심을 벗어던진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범인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수치스러운 과거와 죄악에서 해방된 그녀는 이제 왕비가 될 운명이었다. 남편도, 형제도, 누이도, 두 하녀도, 스타인웨그도 모두 죽었다. 내가 그 동조자들을 묶어 베버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녀를 그들로부터 풀어 준 것도 내 몫이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나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 내가 그녀를 대신한 무고한 사람을 단두대에 올렸기 때문이다. 승리한 돌로레스는 천문학적인 부를 안고 피에르 르뒤의 사랑을 받으며, 마침내 왕비가 되는 것이다.

"아!" 뤼팽이 격분하며 외쳤다. "이 남자는 죽지 않아.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는 죽지 않아."

"조심하십시오, 보스." 옥타브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곧 도착합니다. 교외예요. 외곽 지역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이러다 뒤집혀요… 게다가 포장도로가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진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조심해요… 저기요…"

"무슨 일이야?"

"전차가, 커브 길에…"

"멈추라고 해!"

"속도를 줄이세요, 보스."

"절대 안 돼!"

"이러다 우린 끝장이에요."

"지나갈 수 있어."

"못 지나가요."

"에잇, 빌어먹을…"

쾅 하는 굉음, 비명 소리… 차가 전차를 들이받고는 울타리 쪽으로 튕겨 나가 십 미터에 걸쳐 판자를 부수더니, 마침내 비탈 모서리에 처박히며 멈췄다.

"기사님, 빈 차인가요?"

비탈 풀밭에 납작 엎드려 있던 뤼팽이 택시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박살 난 자기 차와, 옥타브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는 빌린 택시에 뛰어올랐다.

"내무부로 갑시다, 보보 광장이오… 팁으로 스무 프랑 주겠소…"

그는 마차 안 깊은 곳에 몸을 묻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 그는 죽지 않아! 절대 안 돼!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안 돼. 그런 짐을 내 양심에 지고 살 순 없어."

"이 여자의 장난감 노릇을 하고, 풋내기처럼 함정에 빠져들다니. 이제 그만! 더 이상 헛발질은 없어."

"내가 그 불쌍한 사람을 잡았지. 사형 판결을 받게 만들었고, 교수대 발치까지 끌고 갔어. 하지만 그는 거기에 오르지 않아. 절대로!"

"만약 그가 거기 오른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는 수밖에 없어."

마차는 관문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멈추지만 않으면 이십 프랑 더 주지, 기사 양반."

그리고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치안국이오!"

그들은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속도 줄이지 마, 빌어먹을 놈아!" 뤼팽이 소리쳤다. "더 빨리! 더 빠르게! 노파들을 칠까 봐 겁나? 그럼 깔아뭉개 버려. 비용은 내가 다 낼 테니까."

몇 분 만에 그들은 보보 광장의 내무부에 도착했다. 뤼팽은 안마당을 서둘러 가로질러 정면 계단을 뛰어올랐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종이 한 장에 '세르닌 공작'이라고 적고는, 안내원 하나를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말했다.

"나야, 뤼팽. 나 알아보겠지? 내가 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좋은 노후까지 챙겨 주지 않았나?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들여보내 줘. 가서 내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대통령도 자네에게 고마워할 거야, 틀림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어서 움직여, 멍청아! 발랑글레가 나를 기다린다고."

열 초 뒤, 발랑글레가 직접 집무실 문턱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공작'을 들여보내시오."

뤼팽이 달려들어 재빨리 문을 닫고는, 대통령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니요, 말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저를 체포하실 순 없습니다. 그건 곧 당신을 파멸시키고 황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니까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 보십시오. 말라이크는 무죄입니다. 제가 진범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돌로레스 케셀바흐입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시신은 저쪽에 있습니다. 제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그녀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발랑글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 말라이크를 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심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목이 떨어진다고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추가 조사든 뭐든요. 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발랑글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탁자로 다가가 신문을 한 장 집어 그에게 내밀며 손가락으로 어떤 기사를 짚었다.

뤼팽은 제목으로 눈을 던지고는 읽었다.

'괴물의 처형. 오늘 아침, 루이 드 말라이크가 마지막 형벌을 받았다….'

그는 끝까지 읽지 못했다. 얻어맞은 듯 넋이 나간 그는 절망의 신음을 내뱉으며 안락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밖으로 나온 그는 그게 얼마쯤이었는지 도무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머릿속에는 거대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고, 그 뒤로 발랑글레가 자신을 향해 몸을 굽히고 차가운 물을 끼얹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대통령의 낮고 묵직한 속삭임이었다.

"듣게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그렇지?"

"무죄일 수도 있어. 반대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폭로한들 무슨 소용이겠나? 스캔들이나 나고? 오심은 심각한 결과를 부를 수 있어.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 이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야.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건 말라이히라는 이름이지. 바로 그 죄지은 여자의 이름 말일세…… 그러니 어쩌겠나?"

그러고는 천천히 뤼팽을 문 쪽으로 밀어내며 그는 덧붙였다.

"가게…… 저쪽으로 돌아가게…… 시체를 없애게…… 그리고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말게, 알겠나? 이 사건과 관련된 흔적은 티끌만큼도 안 되네…… 자네만 믿겠네, 그렇지?"

뤼팽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마치 자동인형처럼 움직였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더는 스스로의 의지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역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 무의식적으로 식사를 하고, 표를 끊어 객실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잠을 설쳤다. 머리는 타오르듯 뜨거웠고 악몽에 시달렸다. 어렴풋이 깨어 있는 사이사이에도 그는 마시에가 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저자는 정신이 나간 자야…… 분명 그래…… 반쯤 미친 사람일 거야…… 예전에 저 여자를 알았고, 그 여자가 그의 삶을 독으로 물들였지…… 그를 망가뜨렸어…… 그러니 죽는 편이 나았겠지…… 무엇 하러 변호하겠어?'

그 설명으로는 그를 절반밖에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이 수수께끼를 풀어, 돌로레스의 삶에서 마시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당장은 그게 무슨 상관이랴? 한 가지 사실만은 또렷이 드러나 있었다. 마시에가 미쳤다는 점이었다. 그는 고집스럽게 되뇌었다.

"미친 사람이었어…… 마시에라는 녀석은 분명 미쳤지. 게다가 그 마시에 집안은 통째로 미치광이 집안이었어……"

그는 약해진 머리로 이름들을 뒤섞으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브뤼겐 역에 내려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는 소리쳤다.

"에이, 어쩔 수 없지, 다 끝난 일인걸! 그가 항의만 했으면 될 일이었어…… 나는 아무 책임도 없어, 자살한 건 그 자신이니까…… 그는 이 사건에서 단역에 불과해…… 스스로 쓰러진 거지…… 안됐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다시금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도취시켰다. 비록 어쨌든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이건 전쟁의 사고일 뿐이야. 생각하지 말자. 잃은 건 없어. 오히려 그 반대지! 돌로레스가 걸림돌이었어. 피에르 르뒤크가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 돌로레스가 죽었어. 그러니 피에르 르뒤크는 내 것이야. 그리고 그는 내가 정한 대로 제네비브와 결혼할 거야! 그는 군림하게 될 거고, 나는 지배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유럽, 유럽은 내 것이야!'

그는 점점 흥분에 휩싸였다.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갑작스러운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열에 들뜬 채 길 위에서 손짓을 해 대며 상상 속의 검을 휘둘렀다. 바로 의지하고 명령하며 승리하는 지도자의 검이었다.

"뤼팽,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아르센 뤼팽,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브뤼겐 마을에서 그는 이리저리 물어, 피에르 르뒤크가 전날 여관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뭐라고?" 뤼팽이 말했다. "그가 묵지 않았다고?"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 어디로 갔답니까?"

"성으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뤼팽은 꽤나 의아해하며 그곳을 떠났다. 분명 그는 젊은이에게 하인들이 떠난 뒤에는 문을 잠그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곧 그는 피에르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증거를 보았다. 철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성을 두루 돌며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산장을 떠올렸다.

어쩌면! 피에르 르뒤크가 사랑하던 여인을 잃고 괴로워하다 직감에 이끌려 이쪽을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에는 돌로레스의 시체가 있었다!

심한 불안에 사로잡힌 뤼팽은 달리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 산장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피에르! 피에르!"

그가 외쳤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현관을 지나 자신이 묵었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문턱에서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돌로레스의 시체 위로, 피에르 르뒤크가 목에 밧줄을 감은 채 매달려 죽어 있었다.

뤼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절망에 휩쓸려 어떤 몸짓도 하지 않으려 했다. 거친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려 했다. 운명이 그에게 퍼부은 끔찍한 타격들, 돌로레스의 범죄와 죽음, 마시에의 처형, 그 숱한 격동과 참극을 겪은 끝에, 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꼈다. 그러지 않으면 그의 이성이 무너질 테니까.

"바보!" 그는 피에르 르뒤크를 향해 주먹을 들이대며 말했다. "이런 세 곱절 멍청이 같으니, 좀 기다리지 못했어? 10년도 안 돼서 우리는 알자스-로렌을 되찾았을 텐데."

그는 기분을 돌리려고 할 말과 몸짓을 찾았지만, 생각은 자꾸만 달아났고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아, 안 돼, 안 돼!" 그가 외쳤다. "그건 안 되지, 리제트! 뤼팽마저, 뤼팽까지 미치다니! 안 돼, 이 친구야! 재미 삼아 머리에 총알을 박고 싶다면야 그러라지, 좋아, 사실 그것 말고는 다른 결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뤼팽이 노망 들어 환자용 수레에 실려 다니다니, 그건 안 될 말이지! 멋지게, 이 친구야, 마지막까지 멋지게 끝내야지!"

그는 광기를 연기하는 어떤 배우들처럼 발을 구르고 무릎을 한껏 높이 치켜들며 걸었다. 그리고 외쳐 댔다.

"허세를 부려, 친구, 허세를 부리라고, 신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배에 힘을 주고, 빌어먹을! 가슴을 쫙 펴! 주위가 온통 무너진다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파국이다, 다 끝장났다, 왕국 하나가 물거품이 됐다, 유럽을 잃었다, 온 세상이 증발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웃어 버려! 뤼팽이 되든가, 아니면 끝장이야…… 자, 웃어! 더 크게…… 옳지…… 세상에, 우습기도 하지! 돌로레스, 담배 한 대, 여보게!"

그는 비웃듯 킬킬대며 몸을 굽혀 죽은 여자의 얼굴을 만졌다. 잠시 휘청거리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다시 일어섰다. 발작은 끝났고, 자신을 다스리며 신경을 가라앉힌 그는 진지하고 말없이 상황을 살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느꼈다. 며칠 사이, 뜻밖의 재앙들이 연이어 닥치며 그의 인

생은 단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 재앙들이 줄줄이 들이닥쳤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시작해야 할까?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야 할까? 그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면?

오전 내내 그는 공원을 배회했다. 비극적인 산책이었다. 그 산책길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세세하게 돌아보았고, 점차 죽음의 생각이 엄격하고도 거스름없이 그의 머릿속을 채워 갔다.

그러나 그가 죽든 살든, 먼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련의 정확한 행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뇌는, 갑자기 평온해지며, 그 행동들을 또렷이 선명하게 보았다.

교회 시계가 정오의 앙젤루스를 알렸다.

"일하자. 흔들림 없이."

그는 아주 차분하게 산장으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서는, 발판 위에 올라 피에르 르뒤크를 매달고 있던 밧줄을 끊었다.

"가엾은 녀석." 그가 말했다. "이렇게 끝날 운명이었구나, 목에 삼밧줄을 두르고서. 가엾어라! 너는 큰일을 할 그릇이 못 됐어…… 이걸 미리 내다보고, 시구나 짓는 녀석에게 내 운명을 걸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젊은이의 옷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돌로레스의 두 번째 지갑이 떠올라, 자신이 넣어 두었던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그는 흠칫 놀랐다. 지갑 안에는 한 묶음의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겉모습이 눈에 익었고, 그는 곧 제각각인 필체들을 알아보았다.

"황제의 편지들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늙은 재상에게 보낸 편지들이야!…… 내가 직접 레옹 마시에의 집에서 되찾아 발트마르 백작에게 넘긴 그 묶음 전체가 여기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가 그 멍청이 발트마르에게서 이걸 도로 빼앗았단 말인가?"

그러다 갑자기 이마를 치며 외쳤다.

"아니, 멍청이는 바로 나였어. 진짜 편지는 이거였어!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황제를 협박하려고 이걸 간직해 둔 거야. 그리고 내가 돌려준 편지들은 가짜였지. 그녀가 직접 베꼈거나 공범이 베껴서, 내가 찾아낼 수 있게 일부러 놔둔 거야…… 그런데 나는 풋내기처럼 그 미끼를 덥석 물었어! 제기랄, 여자가 끼어들면 정말이지……"

지갑 안에 남은 것은 이제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가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진이었다.

"사진이 두 장이군…… 마시에와 나. 그녀가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겠지. 그래,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 기묘한 사랑이었지. 모험가인 나, 그녀가 나를 때려눕히라고 보낸 일곱 도적을 혼자서 거뜬히 쓰러뜨린 사내를 향한 감탄에서 비롯된 사랑이었어. 참 이상한 사랑이었지! 며칠 전 내가 전능을 향한 원대한 꿈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녀 안에서 그 사랑이 두근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정말로 피에르 르뒤크를 희생시키고 자기 꿈을 내 꿈에 종속시키려는 생각을 했던 거야. 거울 사건만 없었다면 그녀는 완전히 길들여졌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했어. 내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으니까. 살아남으려면 내가 죽어야 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지."

그는 여러 번 생각에 잠긴 듯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 그래, 나를 사랑했지. 다른 여자들도 그랬어. 나도 그들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지만 말이야. 슬프게도, 나를 사랑하는 여자들은 모두 죽어. 이 여인도 죽었지. 내가 직접 목을 졸라 죽였어. 살아있을 의미가 뭐가 있겠어?"

낮은 목소리로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살아있을 의미가 뭐가 있겠어? 나를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죽어간 모든 여자들—소냐, 레이몽드, 클로틸드 데탕스, 미스 클라크—그들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는 두 시신을 나란히 눕히고, 같은 천으로 덮었다. 그러고는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썼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했다. 그러나 패배했다. 목적지에 다다랐지만, 나는 쓰러졌다. 운명은 나보다 강해. 내가 사랑했던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나도 죽는다."

그리고 서명했다.

아르센 뤼팽

그는 편지를 봉인한 뒤, 유리병에 넣었다. 그리고 그 병을 창밖으로 던졌다. 아래는 부드러운 흙으로 덮인 화단이었다.

이어 그는 부엌에서 오래된 신문과 짚, 톱밥을 가져와 마루 위에 큰 더미를 쌓았다.

그 위에 석유를 부었다.

그리고 촛불에 불을 붙여, 톱밥 더미 한가운데로 던졌다.

순간, 불꽃이 번졌다. 이어 다른 불길들이 치솟았다. 빠르고, 맹렬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이제 가자고," 뤼팽이 말했다. "그 오두막은 나무로 지었잖아. 성냥개비처럼 순식간에 타오를 거야. 우리가 마을에서 달려와서 철문을 부수고, 공원의 끝까지 뛰어갈 때쯤이면 이미 늦었지. 거기서 우리는 재와, 타죽은 두 시체, 그리고 근처 병 속에 넣은 내 유서 하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잘 가, 뤼팽! 선한 시민 여러분, 저는 장례식도 없이 묻어주

십시오. 빈민의 관만 있으면 됩니다. 꽃도, 화환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십자가 하나만 세우고, 이 비문을 새겨주십시오."

그는 성벽을 향해 달려가서 그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하늘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불꽃이 보였다.

그는 걸어서 파리로 돌아갔다. 정처 없이 떠돌았고,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으며, 운명에 짓눌린 듯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농부들은 그 여행자가 서른 수짜리 식사를 지폐로 치르는 것을 보고는 놀라워했다.

어느 날 저녁, 깊은 숲속에서 세 명의 강도가 그를 습격했다. 그는 지팡이로 그들을 내리쳐, 거의 죽은 채로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는 한 여관에서 여드레를 머물렀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 삶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정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당신!"

가르슈에 있는 빌라의 작은 방에서 에르몽 부인은 떨리는 몸으로,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눈은 크게 뜨여, 눈앞에 나타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뤼팽! 뤼팽이 거기 있었다!

"당신!" 그녀가 말했다. "당신! 그런데 신문에서는……"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죽었지."

"그럼…… 그럼……" 그녀가 순진하게 말했다.

"내가 죽었다면, 이 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겠지. 빅투아르, 나에게도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걸 믿어주게."

"네가 많이 변했구나." 그녀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들어봐, 제네비브가 여기 있니?"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 그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그 애를 놓아줄 거지, 응? 제네비브! 제네비브를 다시 만나! 그 애를 다시 데려오다니! 아,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제네비브는 지친 채 돌아왔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불안해 보였지. 간신히 제 혈색을 되찾았을 뿐이야. 맹세컨대, 너는 그 애를 놓아줄 거야."

그는 노파의 어깨에 힘껏 손을 올렸다.

"난 그러고 싶어…… 알겠어…… 그 애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내가 대신 말해줄게."

그가 그녀를 밀쳤다. 그녀는 균형을 잡은 뒤, 팔짱을 끼며 섰다.

"오히려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할 거야. 그 아이의 행복은 여기, 이 곳에 있는 거지 다른 데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돈이나 귀족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나는 그런 건 원치 않아. 네가 말한 피에르 레뒤크는 또 뭐고, 벨덴츠는 다 뭐야? 제네비브가 공작부인이라니! 넌 미쳤어. 그건 그녀의 삶이 아니야.

사실은, 너는 그 모든 일에서 오직 네 생각만 했어. 네 권력, 네 부를 원했을 뿐이지. 그 아이 따위는 네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야. 그 애가 네 그 망나니 같은 대공을 사랑하기는 하는지, 한 번이라도 자문해 본 적 있어? 그 애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어? 아니지. 너는 그저 네 목적만 좇았을 뿐이야. 제네비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녀를 평생 불행하게 만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래, 나는 원하지 않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소박하고 정직한 삶이야. 그리고 그런 삶은 네가 줄 수 없는 거야. 그럼 대체 네가 여기에 뭐하러 온 거지?"

그는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지만, 낮고 깊은 목소리로 큰 슬픔을 담아 중얼거렸다.

"내가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리가 없어. 그녀와 말도 나눌 수 없단 말인가……"

"그녀는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소."

"그건 안 돼! 내가 진실을 알게 해야 해. 그녀가 나를 이미 사라진 사람으로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는 게, 나를 지옥에 가두는 고통이오. 빅투아르, 그녀를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럽고 비통해서, 빅투아르는 마음이 풀려 그에게 물었다.

"들어 봐. 무엇보다 먼저,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네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테니까. 솔직히 말해 봐, 아이야. 너는 제네비브에게 무얼 바라는 거니?"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제네비브, 자네 어머니께 자네에게 부와 권력, 동화 같은 삶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그날, 나는 자네 곁에 아주 가까운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을 거야. 자네가 행복하고 부유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니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었을 거야. 확신해. 하지만 불행히도 운명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나는 자네에게 부도 권력도 안겨주지 못했어. 아무것도 안겨주지 못했지. 오히려 내가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제네비브, 자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무엇을 도와주라는 거지?" 노파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살아가는 일이지."

"세상에." 그녀가 탄식했다. "자네가 정말 그런 지경이군, 불쌍한 아이."

"네." 그는 간단히, 그러나 거짓 없이 답했다. "맞아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방금 세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죽인 사람들이죠. 그 기억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혼자인데,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네비브에게 그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도움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요?"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노부인은 말을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몸이 떨렸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의 젖을 먹이고 키운 그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다시금 되찾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리 해도 "자신의 아이"였다.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여행할 거예요. 만약 따라오길 원하신다면, 당신과 함께요."

"하지만 당신은 잊고 있어요…… 잊고 있어요……"

"무엇을요?"

"당신의 과거를……"

"그녀도 곧 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테니까."

"그럼,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건 그녀가 뤼팽의 삶, 즉 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한다는 거야?"

"내가 될 남자,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일할 남자의 삶이라고. 그녀가 자신의 취향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는 세상의 구석진 어딘가에 정착할 거야. 우리는 함께 싸울 거고, 서로 곁에서."

"그리고 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떼지 않은 채 되물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건 그녀가 뤼팽의 삶을 함께한다는 거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겨우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원해. 이건 내 권리야."

"그녀가 자신을 바쳐 온 모든 아이들을 버리게 하고, 그녀가 사랑하며 필수로 여기는 그 모든 헌신의 삶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게 그녀의 의무야."

노파가 창문을 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를 부르시오."

제네비브는 정원에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었다. 네 명의 작은 소녀들이 그녀 주변을 빙 둘러섰다. 다른 아이들은 놀이로 정신이 없거나 뛰어다녔다.

그는 그녀를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미소 띠면서도 진지한 그녀의 눈을 보았다. 손에 꽃 한 송이를 든 그녀는 꽃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귀를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답 하나하나가 보상으로, 그녀에게서 한 번의 입맞춤을 얻어냈다.

뤼팽은 끝없이 깊은 감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꼭 안고 싶었고, 입맞추고 싶었으며, 자신의 존경과 애정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스프르몽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슬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녀를 불러요." 빅투아르가 다시 말했다.

그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더듬거리며 말했다.

"불러낼 수가 없어요… 불러낼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녀가 저를 죽은 줄 믿게 두는 게 나아요… 그게 낫죠…"

그는 울고 있었다. 어깨가 통곡으로 들썩거렸다. 거대한 절망에 몸이 흔들렸고, 자신 안에서 피어오르는 다정함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마치 피어난 날 바로 시들어 버리는 늦된 꽃처럼.

노파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너의 딸이지?"

"네, 제 딸입니다."

"오, 불쌍한 아이야."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불쌍한 아이…"

제17장

"말을 타라." 황제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말을 고쳤다.

"아니, 나귀를 타는 게 낫겠군." 그는 끌려오는 멋진 나귀 한 마리를 보며 말했다. "발데마르, 이 짐승이 정말 순한가?"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폐하." 백작이 단언했다.

"그렇다면 안심이군." 황제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측근 장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말을 타시오."

카프리 마을의 중앙 광장에는 이탈리아 헌병들이 막아선 군중이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에는 황제에게 이 놀라운 섬을 안내하기 위해 징발된 마을의 모든 나귀들이 모여 있었다.

"발데마르," 황제가 행렬의 선두에 서며 물었다. "먼저 어디부터 보지?"

"티베리우스의 별장부터입니다, 폐하."

문 하나를 지나자, 일행은 울퉁불퉁한 돌길을 따라갔다. 길은 서서히 높아져 섬의 동쪽 곶으로 올라갔다.

황제는 기분이 좋아 웃으며 즐거워했고, 거구의 발데마르 백작을 놀려댔다. 백작의 두 발은 그가 깔고 앉아 짓누르는 불쌍한 나귀의 양옆으로 땅에 닿아 있었다.

사십오 분쯤 지나, 일행은 먼저 '티베리우스의 절벽'에 다다랐다. 높이 300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바위로, 폭군이 이곳에서 희생자들을 바다로 떨어뜨리던 곳이었다……

황제는 나귀에서 내려 난간으로 다가가 깊은 구렁을 한 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티베리우스의 별장 유적까지 걸어가, 무너진 방들과 복도 사이를 거닐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소렌토 곶과 카프리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었다. 바다의 진한 파란빛이 만의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고, 상쾌한 공기에는 레몬나무 향기가 섞여 있었다.

"폐하, 정상에 있는 은자의 작은 예배당에서 보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발데마르가 말했다.

"가 보자."

그런데 은자가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직접 내려오고 있었다. 걸음이 불안정하고 등이 굽은 노인이었다. 그는 여행자들이 으레 감상을 적어 넣는 방명록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방명록을 돌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무엇을 적어야 하오?" 황제가 물었다.

"폐하의 성함과 방문하신 날짜…… 그리고 적고 싶으신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황제는 은자가 내미는 펜을 받아 들고 몸을 굽혔다.

"조심하십시오, 폐하, 조심하십시오!"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예배당 쪽에서 요란한 굉음이 일었다…… 황제가 몸을 돌렸다. 거대한 바위가 소용돌이치듯 그의 머리 위로 굴러 내려오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때, 은자가 황제를 와락 끌어안아 십 미터 밖으로 내던졌다.

바위는 불과 한순간 전까지 황제가 서 있던 돌 벤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냈다.

은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황제는 죽은 목숨이었다.

황제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간단히 말했다.

"고맙소."

장교들이 황제 주위로 몰려들었다.

"별일 아니오, 여러분…… 놀란 것으로 끝났으니…… 하지만 솔직히 꽤나 놀랐소…… 그건 그렇고, 이 용감한 분이 나서 주지 않았더라면……"

그러고는 은자에게 다가서며,

"이름이 무엇이오, 친구?"

은자는 두건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그는 두건을 조금 젖히고, 상대에게만 들리도록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을 더없이 기뻐하는 한 사내의 이름입니다, 폐하."

황제는 흠칫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그는 장교들에게 말했다. "예배당까지 올라가 주시오. 바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현지 당국에 알려 두는 것이 좋겠소. 그런 다음 나와 합류하시오. 이 용감한 분께 감사 인사를 해야겠소."

황제는 은자와 함께 자리를 떴다. 둘만 남게 되자 황제가 말했다.

"당신! 어째서요?"

"폐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접견을 청한들…… 윤허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행동하기로 했고, 폐하께서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동안 제 정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요점만 말하게." 황제가 말했다.

"발데마르가 제 부탁으로 폐하께 전달한 편지들 말입니다, 폐하. 그 편지들은 가짜입니다."

황제는 몹시 언짢은 기색으로 손짓했다.

"가짜라고? 확실한가?"

"틀림없습니다, 폐하."

"하지만 그 말레흐가……"

"범인은 말레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란 말인가?"

"제 대답을 비밀로 해 주시기를 폐하께 청합니다. 진짜 범인은 케셀바흐 부인이었습니다."

"케셀바흐의 아내, 바로 그 여인 말인가?"

"네, 폐하. 그분은 이제 죽었습니다. 폐하께서 가지고 계신 사본은 그분이 만들었거나 만들게 한 것입니다. 진짜 편지들은 그분이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 진짜 편지들은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황제가 외쳤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야 한다. 나는 그 편지들에 막대한 가치를 두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폐하."

황제는 한순간 아연실색했다. 그는 뤼팽을 바라보고, 편지들을 바라보고, 다시 뤼팽에게로 눈을 들었다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 꾸러미를 주머니에 넣었다.

분명 이 사내는 또 한 번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토록 무서운 무기를 손에 쥐고도 아무 조건 없이 이처럼 선뜻 내어주는 이 도적은 대체 어디서 온 자인가? 편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제멋대로 이용하기란 그에게 너무도 쉬운 일이었을 텐데! 아니, 그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황제는 이 사내가 이루어 낸 온갖 놀라운 일들을 떠올렸다.

그가 말했다.

"신문에는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이 실렸소……"

"네, 폐하. 실제로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없애 버리게 되어 기뻐한 제 조국의 사법부는, 새까맣게 타 알아볼 수 없게 된 제 시신의 잔해를 묻어 버렸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로운 몸인가?"

"늘 그래 왔듯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을 묶어 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 밑으로 들어오게. 내 친위 경찰의 지휘권을 주겠소. 당신은 절대적인 주인이 될 것이오. 다른 경찰 조직에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될 거요."

"안 됩니다, 폐하."

"어째서인가?"

"저는 프랑스인이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그 대답이 황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황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묶어 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인연만은 풀 수가 없습니다, 폐하."

그러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저는 인간으로서는 죽었지만, 프랑스인으로서는 살아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분명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황제는 이리저리 몇 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나는 빚을 갚고 싶소. 빌덴츠 대공국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들었소."

"네, 폐하. 피에르 르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은 이 편지들을 돌려주었고…… 내 목숨을 구해 주었소…… 내가 무엇을 해 주면 되겠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하."

"내가 당신에게 빚진 채로 남기를 바라는 건가?"

"네, 폐하."

황제는 자기 앞에서 대등한 존재처럼 구는 이 기이한 사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더는 한마디도 없이 멀어져 갔다.

"이봐, 페하, 내가 자네 코를 납작하게 해 줬지." 뤼팽이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철학자라도 된 듯이,

"하긴, 복수치고는 보잘것없군. 알자스-로렌을 되찾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말이야……"

그는 말을 멈추고 발을 굴렀다.

"빌어먹을 뤼팽! 너란 놈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이 모양이로구나, 밉살스럽고 냉소적인 놈! 진지해져라, 젠장! 진지해질 때가 왔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없어!"

그는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기어올라, 바위가 떨어져 나온 자리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작업은 정말 깔끔했지. 황제의 장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그자들이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나? 그 바위를 직접 손본 것도 나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곡괭이질을 한 것도 나이며, 그 바위가 내가 미리 그어 둔 길을 따라—그 바위와…… 내가 기어이 목숨을 구해 주려 한 어느 황제 사이로—굴러가게 한 것도 나라는 걸 말이야."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아, 뤼팽, 너란 놈은 어찌 이리도 복잡한지! 이게 다 그 황제가 너에게 손을 내밀게 만들겠다고 맹세한 탓이지! 그래서 얻은 게 고작 이거라니…… '황제의 손이라고 손가락이 다섯 개를 넘지는 않는다'라고, 빅토르 위고라면 그렇게 말했겠지."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특수한 열쇠로 작은 제의실(祭衣室)의 낮은 문을 열었다.

짚더미 위에 한 남자가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널브러져 있었다.

"어이, 은자 양반," 뤼팽이 말했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지? 기껏해야 하루 남짓…… 그래도 내가 자네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방금 황제의 목숨을 구한 셈이라네…… 그래, 이 친구야. 자네가 바로 황제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야. 이건 횡재일세. 사람들이 자네를 위해 대성당을 짓고 동상까지 세워 줄 걸세. 자, 옷이나 받게."

얼이 빠진 채 굶주려 거의 죽을 지경이던 은자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뤼팽은 잽싸게 옷을 갈아입고는 그에게 말했다.

"잘 있게, 갸륵한 노인장. 이런 자질구레한 성가심을 끼쳐 미안하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그게 필요할 테니. 영원의 세계가 나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다네. 잘 있게!"

그는 몇 초 동안 예배당 문턱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끔찍한 결말 앞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그 엄숙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더 생각하지 않고 몸을 날려 비탈을 달려 내려갔고, 티베리우스의 절벽 단(壇)을 가로질러 난간을 뛰어넘었다.

"뤼팽, 너에게 마음껏 떠벌릴 시간 삼 분을 주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는 묻겠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은 거기 있지 않으냐? 너 자신을 위해 마지막 희극 한 편쯤 연기할 수 없겠느냐? 이런, 그 구경거리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지… 아르센 뤼팽, 여든 장으로 된 영웅 희극… 막이 오르면 죽음의 장면, 그 주연은 바로 뤼팽 자신… 브라보, 뤼팽! 신사 숙녀 여러분, 제 심장을 짚어 보십시오… 분당 일흔 번의 박동… 게다가 입가엔 미소까지! 브라보! 뤼팽! 아, 이 녀석, 정말 기개가 대단하군! 자, 어디 뛰어내려 보시지, 후작 나리… 준비됐느냐? 이건 최후의 모험이다, 친구. 후회는 없느냐? 후회라니? 대체 왜, 맙소사! 내 인생은 참으로 멋졌다. 아, 돌로레스! 네가 오지만 않았더라면, 이 끔찍한 괴물아! 그리고 너, 말라이크, 왜 입을 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 피에르 르뒤…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죽인 세 사람아, 이제 너희에게 가마… 오, 나의 제네비브, 사랑하는 제네비브… 원, 이거 아직 안 끝났느냐, 늙은 광대야?… 자! 자! 달려간다…"

그는 다른 쪽 다리마저 난간 너머로 넘겼다. 깊은 심연 밑바닥의 고요하고 어두운 바다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잘 있거라, 불멸의 축복받은 자연이여! 죽어가는 자가 그대에게 경례하노라! 잘 있거라, 아름다운 모든 것이여! 잘 있거라, 만물의 광휘여! 잘 있거라, 삶이여!"

그는 허공과 하늘, 태양을 향해 입맞춤을 날렸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몸을 던졌다.

시디벨아베스. 외인부대 병영. 보고실 근처, 천장 낮은 작은 방 하나에서 상사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 옆, 안마당으로 난 열린 창가에는 덩치 큰 부사관 두 명이 거친 프랑스어에 독일어 식 표현을 섞어 가며 지껄이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키는 중간쯤에 마른 체격이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내였다.

상사는 그 침입자가 못마땅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아, 그래, 위병 초소 보초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당신, 무슨 일이오?"

"복무하러 왔습니다."

이 말은 또렷하고 위압적인 어조로 내뱉어졌다.

두 부사관이 멍청하게 픽 웃었다. 사내는 그들을 곁눈질로 흘겨보았다.

"한마디로, 외인부대에 입대하고 싶다는 거요?" 상사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빌어먹을! 뭔데?"

"여기서 썩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모로코로 떠나는 중대가 있죠. 거기에 끼고 싶습니다."

부사관 중 하나가 또 비웃었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로코 놈들 혼깨나 나게 생겼군. 이분께서 입대하신다니…"

"조용히 해!" 사내가 소리쳤다. "나를 비웃는 건 질색이다."

말투가 메마르고 위압적이었다.

거구에 우락부락한 부사관이 맞받아쳤다.

"이봐, 신참, 나한테는 말투가 좀 달라야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내 이름이 뭔지 알게 되겠지…"

사내는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붙잡더니, 창턱 너머로 넘어뜨려 마당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다른 한 명에게 말했다.

"네 차례다. 꺼져."

그 부사관은 그대로 나가 버렸다.

사내는 곧장 상사에게 돌아와 말했다.

"중위님, 부디 소령님께 전해 주십시오. 스페인 대귀족이자 마음만은 프랑스인인 돈 루이스 페레나가 외인부대에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가시지요, 친구."

상대는 어리둥절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라니까, 친구. 지금 당장. 나는 허비할 시간이 없소."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빠진 눈으로 이 놀라운 인물을 바라보더니, 더없이 고분고분하게 밖으로 나갔다.

뤼팽은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불을 붙이고는, 상사의 자리에 앉으며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바다가 나를 원하지 않았으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바다를 원하지 않았으니, 이제 모로코 놈들의 총알이 더 자비로운지 어디 한번 보기로 하지. 게다가 어쨌든 그편이 훨씬 멋지기도 하고… 적을 마주한 뤼팽, 그리고 프랑스를 위하여!…"